

제83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주최 : 한국어학회, 서강대학교

주제 : 미디어 속의 언어와 문자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9:20~18:00

장소 : 서강대학교 J관(정하상관) 311호

▣ 제83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

- 주제 : 미디어 속의 언어와 문자
-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9:20~18:00
- 일정 :

09:20~09:30 (10분)	개회 개회사: 구본관(서울대, 한국어학회장)	사회: 이동혁(부산교대)
오전 개인발표 (1/3)		
09:30~10:00 (30분)	(1) 비대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질적 연구: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을 활용하여 ■ 발표: 김지영(연세대), ■ 토론: 이현희(안양대)	사회: 고은숙 (국립한글박물관)
10:00~10:30 (30분)	(2) 현대 국어 청자 대우 종결어미의 [화자낮춤] 자질 ■ 발표: 도은희(경희대), ■ 토론: 허세문(한국외대)	
10:30~11:00 (30분)	(3) '1인분'의 의미 변화: MZ세대 담론을 함께 살피며 ■ 발표: 백준영(연세대), ■ 토론: 김산(고려대)	
11:00~11:10	휴식 (10분)	
오전 개인발표 (2/3)		
11:10~11:40 (30분)	(4)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의 임시어 형성 연구 ■ 발표: 이찬영·윤나영(연세대), ■ 토론: 정한대로(가천대)	사회: 도재학(경기대)
11:40~12:10 (30분)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신어의 언어적 특징 고찰 ■ 발표: 티엔위(전남대), ■ 토론: 이동혁(부산교대)	
12:10~13:10	점식 식사(60분)	
13:10~13:30 (20분)	신진연구자상 시상식	사회: 이현희(안양대)
오후 개인발표 (3/3)		
13:30~14:00 (30분)	(6) 하버드옌칭(Harvard-Yenching) 도서관 소장본 『新撰日韓會話』에 대한 고찰 ■ 발표: 박진완(일본 교토산업대), ■ 토론: 성윤아(상명대)	사회: 명정희(서강대)
14:00~14:30 (30분)	(7) '-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과 의미 ■ 발표: 전후민(연세대), ■ 토론: 이형주(서울대)	
14:30~15:00 (30분)	(8) 인용명사 구문과 인용동사 구문의 담화 내 분포와 기능: 신문 기사문을 중심으로 ■ 발표: 박미은(중앙대)·유성희(연세대), ■ 토론: 정연주(홍익대)	
15:00~15:10	휴식 (10분)	
기획 발표		
15:10~15:50 (40분)	(1) 제3의 매체, 메신저의 언어 연구 ■ 발표: 남길임(경북대)·황은하(배재대), ■ 토론: 허상희(부산대)	사회: 김혜영(공주교대)
15:50~16:30 (40분)	(2) 동서고금의 미디어와 공간의식에 따른 글자의 운용 ■ 발표: 유지원(글문화연구소), ■ 토론: 노경희(울산대)	
16:30~17:10 (40분)	(3) '미디어 재현' 교육 내용 상세화 방안 탐색: 미디어 텍스트의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 발표: 옥현진(이화여대), ■ 토론: 김종윤(진주교대)	
17:10~17:20	휴식 (10분)	
17:20~18:00 (40분)	종합 토론	
18:00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폐회사: 구본관(서울대, 한국어학회장)	사회: 이동혁(부산교대)

제83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인 발표>

목차

(1) 비대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질적 연구: 포토보이스 (Photovoice) 방법을 활용하여	1
	<u>김지영(연세대)</u>
(2) 현대 국어 청자 대우 종결어미의 [화자낮춤] 자질	30
	<u>도은희(경희대)</u>
(3) ‘1인분’의 의미 변화: MZ세대 담론을 함께 살피며	60
	<u>백준영(연세대)</u>
(4)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의 임시어 형성 연구	76
	<u>이찬영·윤나영(연세대)</u>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신어의 언어적 특징 고찰	96
	<u>티엔위(전남대)</u>
(6) 하버드옌칭(Harvard-Yenching) 도서관 소장본 『新撰日韓會話』에 대한 고찰	112
	<u>박진완(일본 교토산업대)</u>
(7) ‘-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과 의미	132
	<u>전후민(연세대)</u>
(8) 인용명사 구문과 인용동사 구문의 담화 내 분포와 기능: 신문 기사문을 중심으로	157
	<u>박미은(중앙대)·유성희(연세대)</u>

비대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질적 연구

-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을 활용하여 -

김지영(연세대)

1. 서론

이 연구는 비대면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호칭어 사용 양상과 의미를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이후 등교 중지와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삶의 모습이나 관계적 측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임경수·손은령(2021: 257)은 코로나19 이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19학번은 자신들과 달리 친구를 사귄 수 있던 기회와 학교 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집에 갇혀 지내는 답답하고 우울한 학생들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 이외에도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SNS를 통해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면서 대면적 만남을 한 번도 갖지 못하고 비대면 상황에서만 삶의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 양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변화에 따라 서로를 부르는 호칭어 사용과 의미 또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호칭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왕한석(2005)에서는 호칭어를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들’”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에서도 호칭어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지칭어와 구별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Zwicky(1974)에 따르면 호출어(calls)와 호칭어(addresses)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때 ‘호출어’는 응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Schegloff 1968), 상대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왕한석 2005). 반면 ‘호칭어’는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Schegloff 1968),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이다(박정운 1997). 호칭어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적 구성 성분이며, 사회 구조의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는 언어 행동의 기초적인 영역이다(왕한석 2005).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의 논의를 따라 ‘호칭어’를 ‘지칭어’와 ‘호출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대를 직접 부르는 말로 정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호칭어의 정의에 따라 질적 연구를 통해 비대면(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대화 상황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어의 사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의 연구 방법은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활용한 질적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의 시작을 알린 Wang & Burris(1977)가 제시한 ‘사진 선택(Selecting)’, ‘맥락화(Contextualizing)’, ‘부호화와 범주화(Codifying & Categorizing)’ 세 단계의 큰 틀을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의 비대면 호칭어와 관련한 실제적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호칭어 의미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포토보이스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먼저 사진 선택과 맥락화 단계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비대면적 대화 상황과 비대면적 만남에 대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평소 관계 유형 분류에 따른 호칭어 사용 경험을 관찰한 것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면과 달리 비대면에서 의식적으로 구별하는 호칭어에 대해 부호화와 범주화를 시도하여 비대면적 호칭어 사용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 호칭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사용되는 호칭어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Y대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대학원생과 용인시 소재 J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 중 연구의 목적과 호칭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법을 통해 8인을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의 ‘의도적 표본 추출’은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현장 혹은 개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구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Creswell, 2013; 조흥식 외 역, 2017: 190).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기준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비대면 호칭어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 호칭어란 비대면 대화 상황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대화 안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를 부르는 말이다. 둘째,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호칭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 이상을 알고 있고¹⁾,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대면 상황에서도 호칭어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호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두었다. 셋째, 대화 사진과 호

1) 호칭어의 종류에는 첫째, 이름과 호격 조사 ‘아, 야’의 결합형 둘째, 이름과 ‘님, 씨’ 등의 의존명사 결합형 셋째, 사회적 지위와 높임의 접미사 ‘-님’ 결합형 넷째, ‘형, 언니, 오빠, 누나’ 등의 친족 관계형, 다섯째 대명사형 등이 있다.

칭어를 사용해 부른 대상과의 관계,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환경 등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호칭어 사용과 관련해서 타인이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할 수 있을 때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황에서의 호칭어 의미를 살필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대화 사진 제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대화 사진을 제공할 때, 사진을 선택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즉, 연구 참여자는 내러티브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때의 내러티브 능력은 기본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호칭어 사용 경험을 말이나 글로 설명할 줄 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구성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사진을 제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8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 주변 환경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자전적으로 서술한 것은 부록으로 다룬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연령대	성별	직업군	주 사용 통신 매체	
A	20대	남	대학원생	1순위	카카오톡
				2순위	인스타그램
B	20대	남	대학원생	1순위	카카오톡
				2순위	인스타그램
C	20대	여	대학원생	1순위	카카오톡
				2순위	인스타그램
D	20대	여	대학원생	1순위	카카오톡
				2순위	인스타그램
E	10대	남	중학생	1순위	카카오톡
				2순위	인스타그램
F	10대	남	중학생	1순위	인스타그램
				2순위	페이스북
G	10대	여	중학생	1순위	페이스북
				2순위	인스타그램
H	10대	여	중학생	1순위	인스타그램
				2순위	페이스북

2.2. 연구 방법

2.2.1.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론

포토보이스(photovoice)는 사진을 매개체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내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연구 방법이다(Wang & Burris, 1997). Caroline C. Wang & Mary Ann Burris(1994)는 ‘포토 노벨라(photo novellar)’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는 훗날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이 되었다(Amanda O, 2017; 김동렬 역, 2018:14). 포

토포보이스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진다. 이 서술은 단순한 보조 자료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구성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포토보이스 연구의 참여자는 자기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이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이다(Duffy, 2011). 즉 포토보이스에서 연구 참여자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인 것이다. 강현석(2016:315)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전달의 대상인 사건과 전달 방식 두 부분에서 전달 대상인 사건은 이야기(story)라고 불리는 내용의 국면이고, 그 전달 방식은 담론(discourse)이라고 하는 표현의 국면을 가리키는데, 이야기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 인물, 환경 등이고, 담론은 이야기를 말하고 표현·제시·나레이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에서 ‘사진’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이자 이야기이며, 사진에 대한 서술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나레이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김도현(2016:13-14)에 따르면 사진은 ‘나는 누군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며, 이러한 사진 기반의 내러티브 탐구 유형으로 포토에세이와 포토보이스가 있는데 포토보이스는 참여적 사진 연구의 한 방법이다. 이처럼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생생한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둘러싸인 관계적 측면과 이에 영향을 받는 호칭어의 사회적 의미를 잘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2.2. 철학적 가정과 이론적 틀

이 연구의 지침 철학은 내러티브적 인식론이다. 인식론에서의 지식은 연구 참여자의 말에 대한 인용, 즉 주관적 증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획득이 가능하다(Creswell, 2013; 조흥식 외 역, 2015).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사진을 바탕으로 그들이 비대면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와 관련한 경험을 이해할 것이다. 다만 이때의 경험은 객관적 외부 세계의 반영물이 아니다. Bruner(1987)의 내러티브 인식론은 마음이 어떻게 의미를 만드는지, 즉 마음에 의해 실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강현석, 2016: 206).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바라보는 경험(마음)은 사회·문화와 맺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경험의 의미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내러티브적 인식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적 틀로 연구 참여자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타인 또는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 등을 바라보고자 한다.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는 인간의 정신작용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활동이 아닌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사용하는 호칭어는 타인과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대화하는 의미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호칭어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것이다.

2.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0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참여자 선정 및 사전 교육, 1차 자료수집 및 분석, 2차 자료수집 및 분석, 공유하기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절차

단계	절차		진행 날짜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사전 교육	설문 문항 작성 및 설문 예비 조사 실시	21.10.11.~ 21.10.18.
2		설문 문항 보완 및 설문 조사 실시	21.10.25.~ 21.11.8.
3		연구 참여자 선정	21.11.11.
4		연구 주제와 목적,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 및 절차 설명 사진 촬영 및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	21.11.11.(1차) 22.1.18.(2차)
5	1차 자료수집	사진 선택(Selecting) 비대면적 삶과 호칭어와 관련한 사진 4-5장 선택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진 3-4장 선택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 1-2줄 덧붙이기 사진 제목 붙이기 사진 선정 이유 3문장 이상 쓰기	21.11.12.~ 21.11.18.(1차) 22.1.18~ 22.2.1.(2차)
116	자료 분석	사진과 함께 연구 참여자의 경험 정리	21.11.19.(1차) 22.2.2.(2차)
7	2차 자료수집	맥락화(Contextualizing) - 심층 면담(1인당 최소 1시간의 면담 진행)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재된(내재된) 의미를 찾음	21.11.19~ 21.12.12.(2차) 22.2.3.~ 22.2.16.(2차)
8	자료 분석	녹음된 면담 전사	21.12.13.(1차) 22.2.18.(2차)
9		부호화와 범주화(Codifying & Categorizing) 스토리텔링	21.12.14.~ 21.12.19.(1차) 22.2.23~ 22.3.7.(2차)
10	의미 공유하기	연구 참여자와 의미 재구성 및 결과 도출	21.12.20.(1차) 22.3.16.(2차)

예비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구글 설문 양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본 설문조사는 10월 25일부터 11월 8일에 걸쳐 예비 설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1월 11일 8명의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 목적과 취지, 연구 방법과 절차, 연구 윤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6명의 연구 참여자가 바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고, 2명은 보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6명의 연구 참여자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6명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후 2명 역시 참여 의사를

표시하여 22년 1월부터 3월까지 면담이 진행되었다. 사진 선택은 카카오톡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사진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심층 면담은 모두 오프라인 대면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진 선택은 비대면의 삶, 대화, 관계, 비대면에서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를 보여주는 사진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중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3장의 사진에 제목과 짧은 1~2줄의 설명을 서술하게 하였다. 이렇게 선택한 사진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후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11월 19일, C는 11월 24일, D는 11월 25일, E는 12월 5일, G, H는 12월 12일에 최소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 참여자 B는 2월 3일, F는 2월 16일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줌(zoom)을 통해 보충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고의 면담을 위한 질문 구성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면담 질문 구성

주제와 관련한 광범위한 질문
-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평소 주변 관계를 어떻게 유형화하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비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의 차이가 있는가? - 대면 관계에서 {친한/친하지 않은 사람, 나이가 많은/어린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낮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는가? - 비대면 관계에서는 {친한/친하지 않은 사람, 나이가 많은/어린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낮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는가?
주제와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
- 선택한 사진에서 해당 대화 상대자를 대면에서는 어떻게 부르는가? - 비대면 대화가 이루어졌던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 장소는 어디인가? 개인적 장소와 공적인 장소에서 대화할 때 차이가 있는가? - 개인적 공간(양팔 벌려 원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거리, 친밀한 공간) - 사회적 공간(1.2~3.6m) 직장에서 공적인 업무로 대화할 때 주로 사용되며 대화 도중에 참여와 이탈이 자유로움 - 공적인 공간(3.6~7.6m) 공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 강연 등에서 연사 주변에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공간 - 제출한 사진에서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 상대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 그러한 호칭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 제출한 사진에서 사용한 호칭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 어떤 호칭어를 자주 사용하고, 선호하는가?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호칭어를 비선호하는가? 비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
|---|
| 8. 비대면 대화 상황에서 호칭어 사용과 관련한 특징적인 경험이 있는가?
9.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호칭어가 있는가?
10.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구별해 사용하는 호칭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3. 비대면 호칭어 사용 경험과 의미

3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비대면 대화와 관계에 대한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이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비대면 호칭어 사용 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Wang & Burris(1977)가 제시한 ‘사진 선택(Selecting)’, ‘맥락화(Contextualizing)’, ‘부호화와 범주화(Codifying & Categorizing)’ 3단계이다. 먼저 연구 참여자는 비대면적 삶과 비대면 호칭어와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사진에 간단한 제목과 설명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 관계와 비대면 호칭어와 관련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였다. 이후 맥락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재된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며 사진과 그들의 서술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부호화와 범주화를 통해 비대면 호칭어 사용의 양상과 의미를 4개의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3.1. 비대면 생활과 호칭어 사용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코로나19 이후 등교 중지,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등 비대면 생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비대면 대화에 대한 경험과 그에 따른 관계 인식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비대면 대화 상황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과 비대면 대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3.1.1. 비대면 생활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화나 비대면 만남의 증가에 따른 삶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A, C, D, H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답답함이나 기존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여행이나 자유로운 대면 만남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답답함,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또한 관계적 측면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거나 추억의 부재나 대면을 통한 교류 부재로 기존 관계에서도 어색함을 느끼는 등 관계 형성,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1)

가. “코로나19 이후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못 만난 기간이 꽤 됐는데 이후 대면 만남을 조금씩 가지면서 친했던 관계인데도 예전같이 느껴지지 않고 스티디를 가도 혼자 도태되는 느낌이라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 참여자 A)



“코로나19 이후 집에만 있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성격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기존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나의 모습이야.”

<그림 1> 비 온 뒤 회색빛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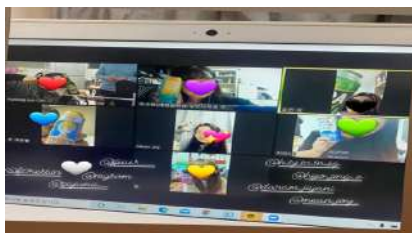
나.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못 가.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 저 멀리 있는 친구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여행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편하게 만나지 못하니까 불편함이 있어. 비대면 대화는 불편하지 않지만 대면에서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건 답답해.” (연구 참여자 C)



“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싶고 다른 나라에 멀리 있는 내 친구들을 보러 가지 못해 답답해.”

<그림 2> 친구를 볼 수 있는 자유

다. “코로나 이후로는 얼굴을 못 보고 대화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는 친해지기 어려운데 그래서 관계적 측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단톡이나 갠톡을 해도 거의 존대를 하게 되고, 단톡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연구 참여자 D)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비대면 대화는 정말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만나기 힘들니까 화상으로라도 만나요.”

<그림 3> 보고 싶은 친구들아

라. “친구들이랑 조금 덜 만나서 추억이 없어졌고, 대면에서 만나면 어색함을 느껴요. 친구 관계도 친한 사람은 더 깊어졌지만 덜 친했던 친구들은 완전 거리가 멀어졌어요. 대면에서 만난 거면 관계가 깊어지고 할 수 있는데 비대면에서 만난 관계면 관계가 얇고, 친함의 정도가 떨어져요.” (연구 참여자 H)



“비대면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가식적이에요. 마치 배달 포장 용기 같아요. 음식의 깊이도 없는 것처럼 관계도 깊이가 없어요.”

<그림 4> 비대면 관계는 포장용기 같아요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비대면 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인식한 것은 아니다. 기존과 다른 유형의 관계가 발달하고 기존에 대면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못하던 사람이 어색함을 떨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대면 생활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면 만남에 제한이 따르는 생활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비대면 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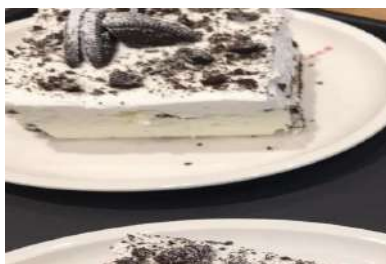
가. “코로나여서 마스크 쓰는 건 불편해요. 친구를 사귄 때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서 만나 놀면서 친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대화하며 친해져요. (...) 비대면 대화는 덜 어색해요.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덜 어색하니까 말을 더 많이 하고, 더 빠르게 친해지게 돼요.” (연구 참여자 E)



“코로나 이후의 삶은 마스크 같아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래도 예쁘고 다양한 마스크가 나온 것처럼 온라인으로 친해진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그림 5> 비대면은 불편하지만 다양한 색의 마스크

나. “비대면에서 만난 친구랑 더 친해져요. 대면에서 처음 만나면 말을 많이 못하는데 비대면에서는 아는 정보가 많아진 상태로 만나니까 친밀감이 느껴져요. 저는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말을 더 잘해요. 비대면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만나면 더 친하게 느껴져요.” (연구 참여자 G)



“대면으로 처음 만나면 카페 가도 할 말이 없어 케이크만 먹어요. 비대면에서 많이 논 친구는 카페 가도 할 말이 많아서 팬찮아요.”

[그림 6] 카페에서 케이크만 먹지 않아요.

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코로나여도 만나니까 오히려 비즈니스 관계인 사람들과 만남의 빈도가 더 잦아졌어.” (연구 참여자 C)

이와 같이 비대면 생활은 불편함이 있지만 비대면 대화를 통해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어색함 없이 대화를 더 많이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에서 친밀한 관계 형성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앞서 비대면의 삶의 불편함을 토로하였지만 비대면 생활로 인해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경우도 있음을 말하였다.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들과는 만날 수 없어 떨어진 경우가 있지만 “비즈니스 관계”인 사람들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만남이나 대화의 빈도가 오히려 잦아져 이러한 관계의 사람들이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비대면 생활로 인해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유형도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처럼 비대면 대화 상황이 어색함을 없애고 친밀감을 높이기 좋은 환경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비대면 대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비대면 대화나 그로 인한 관계에 대해 다른 경험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3)

가. “비대면 대화는 문자 대화와 화상 대화로 나뉘는다고 생각하는데, 화상 대화는 대면 대화와 똑같습니다. 표정이 보이고 제스처, 억양 등 비언어와 반언어가 모두 나타나니까 대면이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카톡과 같은 문자 대화는 실제와 많이 다릅니다. 말투에서도 혹시나 예의가 없어 보이는 것을 줄이려고 좀 더 착하게 느껴지도록 대화합니다. 또한 빠르게 보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서 빠른 속도로 쓰기 위해 간결하게 씁니다. 장황한 수식어를 넣지 않다 보니 담백하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욕을 할 수 있는 사이인데도 문자로 욕을 쓰면 함부로 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비대면 대화에서는 좀 더 순화된 말을 사용합니다.” (연구 참여자 A)

나. “비대면이 갖고 있는 표정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 되게 싫어.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을 쓸 때는 이모티콘을 꼭 활용해. 비대면 대화에서 ‘싫어’ 이 말이 축자적 의미일 때는 완강한 거부일 거 같지만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일 때는 거부의 의미를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비대면 대화를 선호하지 않아 목소리를 이용할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편이야.” (연구 참여자 C)

다. “친할 때는 대면, 비대면 차이가 없어요. 안 친하거나 덜 친한 관계일 때 비대면 대화에서는 그냥 욕도 안 하거나 덜 하고 그냥 좀 착하게 말하게 돼요. 대면에서 XXX(욕) 욕하면 괜찮은데 비대면 대화에서 말하면 더 기분 나쁘게 들려요.” (연구 참여자 F)

라. “대면에서 말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할 수 있는데 비대면에서 대화하면 관계가 얇고, 친함의 정도가 떨어져요. 가식적이에요. 비대면에서는 온라인상의 성격이 나와요. 본래 성격과 다른 비대면에서만 성격이요. 비대면에서는 평소보다 더 텐션이 높아요.” (연구 참여자 H)

이처럼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대화가 아닌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문자 대화 상황의 경우 준언어,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의 어려움 때문에 평소보다 대상을 좀 더 친밀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거나 순화된 말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비대면 대화에서 이모티콘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표정이나 말투 등을 전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자신의 표정이나 말투, 억양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 H는 비대면에서는 온라인상의 자아가 따로 존재하여 상대를 친밀하게 대하나 가식적으로 대해 관계의 깊이가 얕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대면 대화에 대한 인식과 대화 방식이 비대면 호칭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1.2. 비대면 호칭어 사용 경험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비대면 상황과 대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비대면 호칭어 사용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 참여자 A부터 H까지 순차적으로 호칭어 사용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가. “대면에서는 주로 상대를 부르지 않고 본론을 말하는 편입니다. 부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친한 관계에서는 ‘야’ 정도를 사용하고, 공적 관계에서는 ‘교수님’, ‘선생님’, ‘선배’, ‘씨’를 사용합니다. 비대면에서는 ‘야’보다는 냉소함을 덜기 위해 ‘야야’와 같이 반복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공적 관계에서는 대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씨’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름+야/야’로 부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이라면 저한테 ‘아/야’는 빼고 이름만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아/야’가 과도한 다정함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 “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합니다.”

다. “나이가 어린 대화 상대를 비대면에서 부를 수 있는 호칭어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라. “카톡으로 ‘누나’를 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 “관계 변화에 따른 호칭어 사용이 불편합니다.”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는 (4나)와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친해졌고,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배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

2) ‘텐션이 높다’는 기분이 들뜨거나 신나고 흥분된 상태라는 뜻이다. 연구 참여자 H에게 텐션이 높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충 질문하였을 때 “평소보다 더 밝은 척하고 친하게 상대를 대해주는 거예요.”라고 응답하였다.

다. 그런데 대면에서는 그 불편함의 정도가 심한 반면 비대면에서는 일부러 존댓말을 사용하기도 해서 대면보다는 불편함이 약하다고 하였다. 또한 (4다)와 같이 연구 참여자 A는 대면이라면 부르지 않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비대면에서는 상대를 부르는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 나이가 어린 상대를 부를만한 호칭어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4라)와 같이 연구 참여자 A는 대면에서는 아무렇지 않은데 비대면이 된 이후로 만남이 거의 없고 마주친 적도 없어서 카카오톡에서 ‘누나’라고 문자로 쳐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덜 친했던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호칭어의 변화를 주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였다. 특히 비대면은 명시적으로 관계가 드러나서 더욱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5)

가. “대면은 이미 관계가 정리된 상태거나 위계가 분명해서 누나, 형 등의 호칭어나 직급, 직급에 맞는 호칭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비대면에서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 쌤, 씨’로 통일해 부르는 게 편해요.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 “취미를 함께 즐기는 사이에서는 이름에 님을 붙여서 부르는 게 편해요. 특히 비대면에서 만나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는 사이에서는 나이, 위계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름에 ‘님’ 붙이는 게 가장 편해요.”

다. “어린 나이의 사람에게 이름 말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름을 친하게 부르기 어려운 애매한 관계의 경우에 뭐라고 호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의 경우 대면에서는 위계가 분명해 호칭에 어려움이 없지만 비대면에서는 관계가 모호할 경우 나이 어린 사람을 어떻게 호칭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비대면에서 호칭할 때 나이나 직급을 떠나 ‘ 쌤, 씨’로 통일해 부르는 것이 편하고, 취미를 함께 하는 사이의 경우 ‘이름+님’의 호칭 방식을 선호하였다.

(6)

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존재하는 호칭어의 전형적인 것을 선택해서 사용해. 가령 대학원에서는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 쌤’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 친구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특징을 지어 별명으로 부르거나 이름 중 끝 글자만을 불러. 그런데 이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는 별명은 부르지 않고, 둘 관계에서 새로운 호칭을 작명해서 불러.”

나. “내 학교 선배는 아닌데, 내 친구의 학교 선배를 비대면에서 뭐라고 불러야 할까 고민한 적이 있어.”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학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그 사람의 나이와 학기 직급을 몰라서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한 적이 있어. ‘선생님’이라고 일단 호칭하는데 어색해. 대면이면 최대한

호칭을 안 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비대면에서 불러야 할 경우 굉장히 난감해.”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관계적 모호성이 있을 경우에 비대면에서 상대를 어떻게 부르지 몰라 고민하였다. 대면에서는 관계의 모호성이 있을 경우 상대를 호칭하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비대면의 경우 상대를 불러야 하는 경우,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상대를 불러야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7)

가. “친한 경우에 애칭으로 부르거나 이름의 끝 글자를 활용해서 ‘진’으로 끝나면 ‘지니’나 ‘찌니’ 이렇게 불러요. 반말할 정도로 친한데 나이가 많은 경우엔 ‘언니야’, ‘오빠야’로 부르고, 존댓말을 하는 관계에서는 ‘언니’, ‘오빠’라고 불러요.”

나. “친하지 않은 낯선 경우에는 ‘선생님’으로 대화를 2, 3번은 나눴으면 ‘ 쌤 ’으로 변경해 불러요.”

다. “비대면에서는 친한 경우는 대면과 똑같고, 친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 나를 어떻게 먼저 호칭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상대가 ‘ 쌤 ’하면 ‘ 쌤 ’으로 ‘선생님’ 하면 ‘선생님’으로.”

라. “쭈뼌 화면 대화를 하면 보통은 ‘ 쌤 ’으로 부르고, 비대면 대화 특히 카톡으로만 관계가 지속되면 ‘선생님’으로 호칭 변화 없이 사용해요.”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친한 경우에는 이름을 활용한 별명으로 상대를 부르거나 친족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비대면에서 친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호칭하지만 친하지 않은 경우 ‘선생님’, 좀 더 대화를 나누어 관계가 발전했을 때 ‘ 쌤 ’으로 호칭한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D는 (7라)와 같이 화상 대화의 경우 좀 더 친해졌을 때 호칭하는 ‘ 쌤 ’으로 상대를 부르지만 비대면 문자 대화만으로 관계가 지속될 경우 호칭의 변화 없이 ‘선생님’으로 부른다고 한다.

(8)

가. “대면에서는 ‘누구(이름)+야’ 이렇게 부르는데, 친하면 앞에 욕을 붙여서 불러요. 안 친하면 이름만 불러요. 비대면에서는 일대일 카톡 대화에서 ‘야’라고 불러도 되는데 단톡이거나 대면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야’는 쓰지 않아요.”

나. “친한 친구들한테는 ‘야’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친한 친구들한테는 ‘야’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친한 사이에서 ‘이름+아/야’를 가장 많이 써요. 성하고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이름에 ‘아/야’를 붙여서 불러주는 게 좋아요. 친구도 저를 별명이나 이름만 말고 ‘아/야’를 써서 불러주는 게 좋아요.”

라. “비대면에서 ‘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대면에서 ‘님’ 대신에 ‘야’라고 해요.”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친한 사이에서 이름에 호격 조사가 결합된 호칭 방식을 선호하였다. 특히 별명이나 이름만 부르기보다 호격 조사 ‘아/야’를 함께 붙여 사용하여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본인을 그렇게 호칭해주기를 원하였다. 또한 ‘야’의 경우 대면은 가능하지만 비대면 단체 대화 상황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대면과 달리 비대면에서는 ‘님’의 호칭 방식도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9)

가. “대면에서 친하면 형, 누나, 야 이렇게 불러요. 대면으로 친하면 비대면도 형, 누나, 야 이렇게 불러요.”

나. “안 친한 사이일 때 비대면은 그냥 (대명사) ‘님’이라고 불러요. 이름에다가 님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님 이렇게만 불러요. 나이가 엄청 많아서 선생님, 부모님 아니면 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 “친하지도 않으면서 형,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겼에서 형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더 어린 거 확실한데 형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화나서 싸운 적 있어요.”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 F의 경우 비대면에서 형, 누나 등의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대신 대명사 ‘님’을 사용하여 나이가 아주 많거나 높임의 관계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래나 학년에 큰 차이가 없는 형, 누나에게는 모두 ‘님’을 사용하여 호칭한다고 하였다.

(10)

가. “대면에서는 친하면 성 빼고 ‘땡땡(이름)아’로 부르고, 친하지 않으면 ‘저기요’ 이렇게 불러요.”

나. “비대면에서는 친하면 ‘귀요미’라고 부르거나 ‘이유야’처럼 님은 연예인 이름으로 별명 지어 불러요. 대면에서는 이렇게 안 불러요. 비대면에서만 그렇게 부르고, 친하지 않으면 아예 호칭을 하지 않아요. 비대면에서는 예쁜 연예인 별명으로 부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친하지 않은 경우에 비대면에서 ‘님’이라고 불러요. 만난 적 없고 비대면에서만 알게 된 애들한테도 ‘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게 제일 편해요.” (연구 참여자 G)

연구 참여자 G는 비대면에서 연예인 이름을 별명으로 지어 부르지만 대면에서는 연예인 이름을 별명으로 한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진 관

계에서는 ‘님’ 대명사 호칭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호칭 방식이 가장 편하다고 하였다.

(11)

가. “대면에서 친하면 ‘자기야’, 안 친하면 이름 부르는데 성은 빼고 ‘누구(이름)야’ 이렇게 불러요. 비대면에서는 친하면 ‘야’를 여러 번 쓰거나 ‘여보야’하거나 이름에 하트를 많이 달아서 불러요. 안 친할 때는 대면이랑 똑같아요.”

나. “친하지 않으면 비대면에서 주로 ‘님’ 이렇게 부르고 만나면 이름 부르죠. 아예 안 친하거나 처음 이면 ‘저기’ 이렇게 불러요.”

다. “비대면에서 친하지 않으면 ‘님’ 부르면 되는데 더 안 친한 애들한테는 ‘누구(이름)야’ 이렇게 불러요. 안 친한데 막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연구 참여자 H)

연구 참여자 H는 친한 경우 ‘자기, 여보’ 등의 부부나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으로 부른다고 하였고, 친하지 않은 경우 이름에 호격조사를 결합하여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친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에서는 주로 ‘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님’이라는 대명사보다 더 친하지 않은 관계일 때 ‘이름+아/야’의 형태로 호칭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대면 호칭어 사용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3.2. 비대면 호칭어 사용의 의미

지금까지 비대면 대화 상황과 비대면 만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소 관계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호칭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 대화에서 사용되는 호칭어는 대면 대화와 다른 특징적인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대면과 달리 비대면에서 의식적으로 구별한 호칭어 사용 경험과 그 의미를 범주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2.1. 기존의 위계나 관계적 거리를 다르게 수용

비대면 대화에서는 기존 대면에서 사용되는 높임의 의미나 관계적 거리와 다른 호칭어 사용이 확인되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호칭어가 ‘님’이었다. 이때 ‘님’은 접미사 ‘-님’이 아닌 상대를 높일 때 사용하는 의존명사로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³⁾ 또한 비대면 대화에서는 의존명사 ‘님’이 확장되어 쓰이며 나타난 대명사 호칭어로서 ‘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정복·판영(2013)에 따르면 ‘님’은 일상어에서 대명사로 전혀 쓰이지 않았으나 인

3)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터넷 통신 공간에서 두루 높임 호칭어로 등장하면서 대명사로도 활발한 쓰임을 보인 것이라고 한다.⁴⁾ 그런데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비대면 대화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님’의 경우 기존의 높임 정도나 관계적 거리와는 다르게 높임의 의미와는 무관하거나 격식성을 낮춘 친근함의 의미로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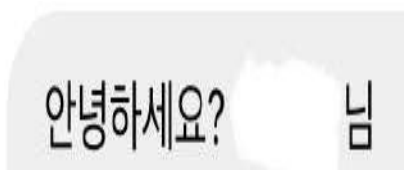
- (12) “대면에서 ‘누구 님’으로 부를 때는 좀 더 격식적인 느낌이 듭니다. 거의 선생님과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비대면에서 ‘누구 님’으로 부를 때는 깎듯한 ‘님’이 아니라 가벼운 느낌의 친근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섞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마음으로는 누나인데 표현은 ‘님’으로 나옵니다.” (연구 참여자 A)



<그림 7> <마음속에만 누나>

“마음으로는 누나인데 표현은 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깎듯한 ‘님’은 아니고, 가벼운 느낌의 ‘님’으로 사용합니다. 애초에 관계가 선배가 아닌 연구원 선생님이로 맺은 관계여서 ‘씨’에 대응되는 ‘님’을 택해 불렀습니다.”

- (13) “카톡으로 ‘땡땡 님’하고 부르거나 하면 크게 높임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땡땡 님’하고 편하게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면 만남이 먼지가 아니라 비대면 만남으로 시작된 사람들인데요. 같은 취미를 즐기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나이 같은 거 떠나서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등한 관계로 대하고 부르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그냥 ‘땡땡 님’하고 부르면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 음 대면으로 만나도 ‘땡땡 님’이라고 하는데 비대면에서 친근한 느낌으로 ‘땡땡 님’ 부르기 시작하면 대면으로 만나도 ‘땡땡 님’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대면에서 만난 사이에 ‘땡땡 님’하고 높여 부르는 경우량은 다르구요.” (연구 참여자 B)



<그림 8> <인친 땡땡 님>

“인스타에서 관심 있는 친구에게 말을 처음 건넸을 때도 ‘이름+님’이라고 불렀어요. 이후에 제 나이가 더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 땡땡 님이라고 불러요.”

- (14) “‘님’이라고 부를 때는 거의 비대면이에요. 대면에서 ‘님’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해요. 대면에서 애를 부를 때는 호칭어를 잘 쓰지 않고, 어깨를 툭툭 쳐요. 말로 불러야 할 때는 이름 부르거나 ‘야’를 써요. (...) 빠르게 짧게 부르기 좋고 비대면에서는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써요.” (연구 참여자 E)

4) 이정복·판영(2013), 「한국과 중국의 통신 언어 호칭어 ‘님’과 ‘亲(친)’의 쓰임」, 『우리말 글』 58, 137쪽.



“카카오톡에서 짧게 표현하기 쉽고, 친구들이 다들 많이 쓰니까 사용해요. ‘님’은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렇다고 안 친한 것도 아니어서 그 정도의 거리를 표현하는 호칭이에요.”

<그림 9> <그냥 부르는>

- (15) “‘님’은 처음 만난 사이에서 이름 부르기도 어색하고, 다들 그렇게 쓰니까 썼어요. 대면에서는 처음 만난 사이일 때 말을 잘 못 거는데 비대면에서는 먼저 말 걸고 할 수 있어요. 비대면에서 친해지려고 할 때 ‘님’ 부르면서 말해요. 만난 적 없고 비대면에서만 알게 된 애들한테 먼저 ‘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서. ‘님’은 비대면에서만 주로 쓰고 만나면 이름 부르지요. 아예 처음이면 ‘저기’ 이려고요.” (연구 참여자 H)⁵⁾



“대면으로 만난 적이 없어서 이름 부르기도 어색하고, ‘님’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서 써요.”

<그림 10> <‘님’ 친해지자>

(12), (13)은 호칭어로서 의존명사 ‘님’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고, (14), (15)는 대명사 ‘님’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다. 위의 심층 면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의존명사 ‘님’은 대면에서 격식을 차리거나 거리를 두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비대면에서 좀 더 격식성의 정도가 낮은 가벼운 의미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면에서 의존명사 ‘님’을 높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비대면에서는 높임의 의미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명사 ‘님’이 호칭어로 쓰일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연구 참여자 E, H는 ‘님’과 같은 단독 대명사를 통한 호칭 표현은 비대면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정복(2013: 21)에서는 ‘님’을 통신 공간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다른 누리꾼들을 높여 가리키기 위한 의미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정복(2013)에서 ‘님’을 높여야 하는 관계적 거리에서 사용한다고 파악한 것과 달리 본고의 연구 참여자가 ‘님’을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기존과는 높임의 관계적 거리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낮은 대상을 향해 부르는 호칭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높임이나 공손함의 의미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명사 ‘님’으로 호칭하는 상대를 대면에서 호칭할 경우 ‘야’나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처음에 <어색한 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심층 면담 때 <‘님’ 친해지자>로 대화 사진의 이름을 변경하였다.

3.2.2. 관계 질서나 위계의 모호성

비대면 대화에서는 관계 질서나 위계를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면에서 학년, 학번이나 나이를 고려한 호칭어를 사용하더라도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비대면에서는 이러한 위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호칭어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 (16) “대면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땐 서로 나이도 밝히고 관계 정리가 딱 되니까 위계가 담긴 호칭어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면 만남 없이 비대면으로만 만난 경우에는 나이를 유추하지 직접적으로 묻고 하지 않으니까 두루뭉술하게 호칭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서로 나이를 밝혀서 위아래 관계가 명확해져도 비대면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선배거나 후배거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 쌤’, ‘ 씨’ 등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쌤 오늘 학교 오셨어??

<그림 11> <쌤으로 단결>

“나이가 많은 적은 선배든 후배든 이런 구분을 밝히기보다 ‘쌤’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 (17) “대면에서 형, 누나 하는 건 안 어색해요. 원래 형, 누나였으니까요. 원래 형, 누나라고 하니까 비대면에서 ‘님’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비대면에서 본적도 없는데 형이라고 하면 바로 ‘형’이라고 안 부르게 돼요. 그럴 땐 그냥 (대명사) ‘님’이라고 불러요. (...) ‘님’이라고 해도 다 그렇게 부르니까 신경 안 써요. 저한테 나이 어린 애가 그래도 기분 안 나쁘구요. 만나서 밥도 먹고 피씨방도 같이 가면 그때 ‘형’이라고 불러요.” (연구 참여자 F)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면 대화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관계 질서나 위계가 비대면에서는 모호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다. 비대면 대화에서 선·후배, 누나, 언니, 오빠, 형 등의 호칭어 대신 ‘ 쌤’, ‘ 씨’, ‘님’ 등으로 통일하여 관계 질서나 위계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즉 ‘ 쌤’, ‘ 씨’, ‘님’ 호칭어에는 학교 내 직위나 상하 관계의 차이를 숨기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웠던 점은 대면 만남이 선행하는 관계인지 비대면 만남이 선행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호칭어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선배인지 후배인지, 연상인지 연하인지 등은 대면 만남이 선행하는 경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는데 한번 위계나 관계 질서가 확립되면 그에 따른 호칭어가 대면과 비대면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면 만남 없이 비대면으로만 관계가 형성된 경우 학년, 학번,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를 ‘ 쌤’, ‘ 씨’, ‘님’으로 통일하여 관계 질서나 위계를 드러내지 않고 호칭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대면과 비대면의 관계 자체에 대한 인식차 때문에 관계 질서나 위계를 반영한 호칭어 사용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비대면 대화에서 관계 질서나 위계가 담긴 호칭어 사용을 꺼리는 다른 이유로 적절한 호칭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비대면 대화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모호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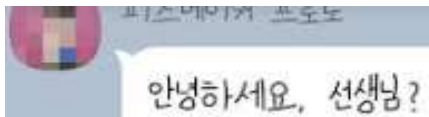
- (18) “비대면에서는 이름 이외에 나이가 어린 상대를 부를만한 호칭어가 없어 불편합니다. 나이가 많은 상대에게도 동성보다 이성일 때 ‘누나’라고 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대면에서는 아무렇지 않은데 비대면이 된 이후로 만남이 거의 없고 마주친 적도 없어서 카카오톡에서 ‘누나’라고 문자로 쳐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대면에서는 호칭을 피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단톡처럼 반드시 호칭해야 할 때는 나이 어린 상대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누나’라고 부르기보다 ‘ 쌤 ’이라고 부릅니다.” (연구 참여자 A)



<그림 12> <누나라고 하기엔 너무 어색해>

“누나라고 문자로 쳐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어색합니다. 대면에서는 누나라고 하는데 카톡으로 쌤으로 하려니 어색해 :..!’를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카톡에서 누나보다는 쌤으로 호칭하는 게 덜 어색합니다.”

- (19) “내 학교 선배는 아닌데, 내 친구의 학교 선배를 비대면에서 뭐라고 불러야 할까 고민한 적이 있어. 또 대면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학회에서 알게 된 사이야. 그 사람의 나이와 학기 직급을 몰라서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한 적이 있어. ‘선생님’이라고 일단 호칭하는데 어색해. 대면이면 최대한 호칭을 안 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비대면에서 불러야 할 경우 굉장히 난감해.” (연구 참여자 C)



<그림 13> <애매할 때는 선생님>

“비대면으로만 알게 되어 내 학교의 선배, 후배도 아니고, 학기나 직급도 잘 알지 못할 때 이런 관계적 지위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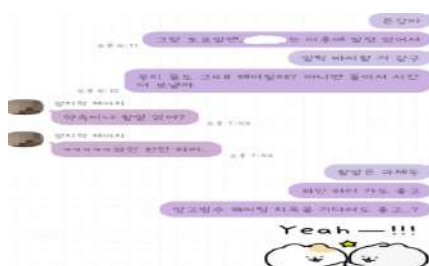
위의 심층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대면에서 상대를 부르기에 적절한 호칭어가 없거나 관계적 모호성이 있는 경우에 ‘쌤’, ‘선생님’ 등으로 호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A는 상대를 부를 적절한 호칭어가 없거나 대면 만남이 거의 없어 관계가 어색한 경우 대면이라면 상대를 호칭하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비대면에서 상대를 반드시 호칭해야 하는 단체 대화방의 경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느꼈을 때 ‘쌤’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하여 관계 질서나 위계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 역시 위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대를 비대면으로 호칭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고 ‘선생님’으로 호칭하며 학교 내 직위 체계나 나이에 따른 호칭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비대면 대화에서 호칭어

사용의 어려움을 겪거나 위계가 모호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비대면 대화에서 사용되는 호칭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3.2.3. 가치 부여 별명에 대한 넓은 허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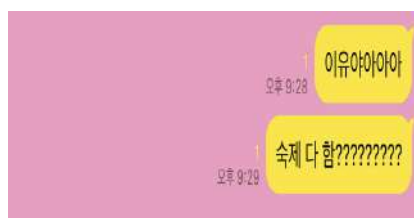
비대면 대화에서 화자가 청자를 남들과는 다르게 구별 지어 부르는 호칭어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래의 이름 외에 상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을 사용하거나 상대의 외양이나 성격 등 특징적인 부분, 이름을 장난스럽게 활용하여 특정한 별명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 (20) “아무도 이 친구를 ‘은강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이 친구의 느낌을 살려서 만든 나만의 호칭이야. 은강이라고 하면 포근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대면에서는 실제 이름으로 부르고 비대면에서는 ‘은강아’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 만든 애칭으로 불러. 비대면은 표정이나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애칭을 쓰면 더 친밀함을 드러내 상대를 부르는 것 같아.” (연구 참여자 C)



<그림 14> <나만의 은강>

- (21) “비대면에서는 친한 친구한테 ‘이유야’하고 불러요. 아이유 연예인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 비대면에서는 ‘이유야’ 하는데 비대면에서는 절대 안 해요. 비대면에서는 오글거리고 그런 게 괜찮은데 대면으로 하면 소름 돋아서요.” (연구 참여자 G)



<그림 15> <아이유를 닮은 너>

- (22) “대면에서는 ‘언니야’라고 부르는데 비대면일 때는 별명을 통해 불러요. 별명도 이미지나 영상

을 통해 부르는 경우도 많고요. 아기 때부터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경’을 변용해서 ‘깡’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에서 머리에 든 게 없다는 의미의 ‘깡깡’이 유행하면서 놀리는 의미로 ‘깡깡’으로 부르게 됐어요. 아주 친한 사이일 때 이렇게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에서는 별명보다는 ‘언니야’로 거의 불러요. 대면에서는 별명이 좀 버릇없는 느낌이라면 비대면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연구 참여자 D)



“아기 때부터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경’을 변용하여 ‘깡’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머리에 든 게 없다는 의미의 ‘깡깡’이 유행하며 놀리는 의미로 불러요.”

<그림 16> <우리 언니야는 깡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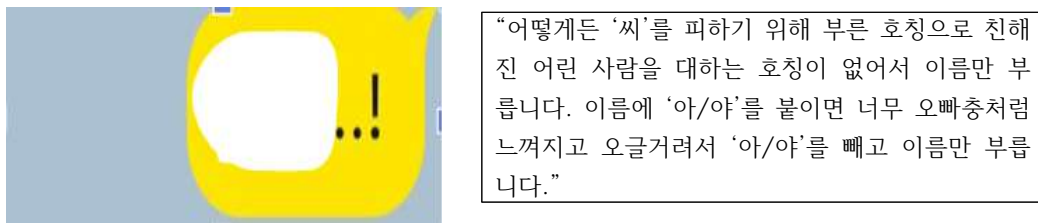
연구 참여자 C는 비대면에서 표정이나 말투를 전달할 수 없어서 친한 관계에서는 상대를 더 친근하게 애칭을 통해 부른다고 말하였다. 대면에서는 이러한 애칭으로 잘 부르지 않고 비대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두 사람의 친근한 관계가 대면에서는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표현될 수 있지만 비대면에서는 이러한 친근함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G의 경우 친한 친구에게 ‘이유야’와 같이 연예인의 이름으로 별명을 지어 부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어를 소름이 돋아 대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상대를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더 잘 사용되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여 대면보다 상대를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 D는 별명을 부르는 경우 단순히 문자로 치기보다 비대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상대를 호칭한다고 하였다. 특히 머리에 든 게 없다는 부정적 의미의 별명을 사용하였는데 대면에서는 이러한 별명이 버릇없는 느낌이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장난스럽게 상대를 놀리고자 하는 의도나 더 친밀하게 상대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을 별명, 애칭 등의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 개인적 호칭어를 통해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의미나 놀림의 의미를 가지는 호칭어는 대면일 때보다 비대면 대화에서 장난, 놀림의 허용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 연구 윤리에 어긋나 제외하기는 했지만 밈으로 활용되는 인터넷 유튜버의 실명으로 호칭하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의 유튜버 이름을 활용하여 별명을 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심한 정도의 놀림과 장난의 의미가 담긴 호칭어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에서 잘 받아들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4. ‘이름+아/야’의 다정함과 친근함에 대한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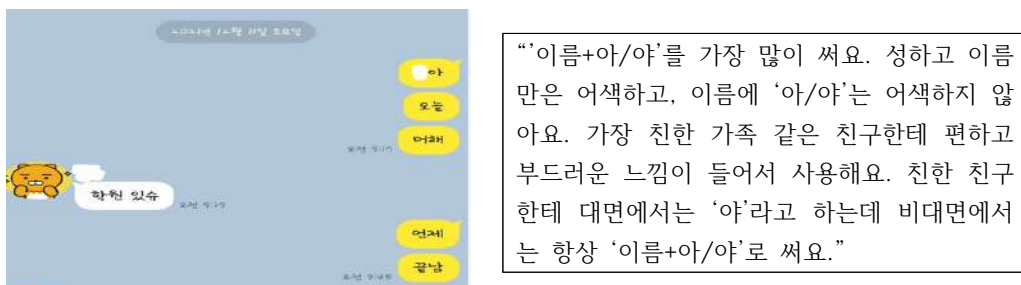
비대면 대화에서는 호격 조사 ‘아/야’에 담긴 다정함, 친근함의 의미 수용이 대면과 다르게 나타난다. 대면에서는 ‘이름+아/야’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이 없지만 비대면에서 ‘이름+아/야’로 부르는 것에 “오글거림”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대면과 달리 비대면에서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이름+아/야’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볼 때 대면에서보다 비대면에서 ‘이름+아/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다정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3) “친해진 어린 사람을 대하는 호칭이 없어서 이름만 부릅니다. 어린 사람을 대할 때 이름에 ‘아/야’까지 붙이면 너무 오빠충처럼 느껴지고 오글거려서 ‘아/야’를 빼고 이름만 부릅니다.” (연구 참여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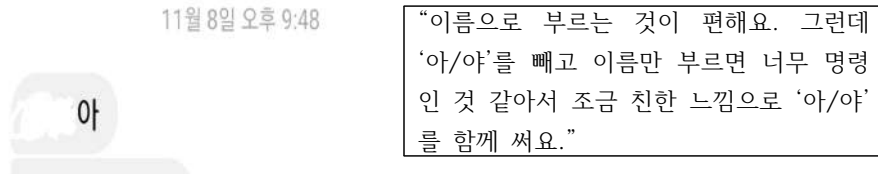
<그림 17> <OO아는 오글거려>

- (24) “대면에서는 이름에 호격 조사 ‘아/야’를 붙여서 호칭하기도 하지만 비대면에서는 ‘아/야’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들을 때는 팬찮지만 타자로 쳐서 ‘아/야’를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 간지러운 느낌이 들고,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척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연구 참여자 D)
- (25) “평소에 베스트 프렌(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름+아/야’를 가장 많이 써요. 성하고 이름만은 어색하고, 이름에 ‘아/야’는 어색하지 않아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 편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사용해요. 대면에서는 ‘야’라고 하는데 비대면에서는 ‘야’라고 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름+아/야’로 써요. 비대면에서 ‘야’는 싸가지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저를 별명이나 이름만 말고 ‘아/야’를 써서 불러주는 게 좋아요.” (연구 참여자 E)



<그림 18> <베스트 프렌>

- (26) “저는 가족 같은 친구(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름’에 ‘아/야’ 쓰는 건 잘 안 해요. 집 같은 친구 (덜 친한 친구)일 때 써요. 대면에서는 덜 친한 친구의 경우 부르지 않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비대면에서 불러야 할 때는 좀 가식적으로 ‘아/야’ 이렇게 친한 척 불러요. 이름만 말하면 너무 명령인 거 같아서 조금 친한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G)



<그림 19> <가장 편리하게 부르는>

이름에 호격 조사 ‘아/야’를 사용한 호칭어의 경우 이름만 단독으로 부를 때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친근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호격 조사가 붙을 때의 다정한 느낌을 받아들이는 양상이 매우 달랐는데, 연구 참여자 A와 D는 친근함과 다정함을 거부하여 의식적으로 호격 조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연구 참여자 E와 G는 친근하고 다정한 느낌을 추구하여 호격 조사 사용을 선호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이와 같은 이유를 이해한 결과 A는 호격 조사를 사용하면 대화 상대방에 과도한 친밀감이나 다정함을 느끼게 해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친근함과 다정함의 표시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거부한 것이다. 특히 이성에게 ‘아/야’를 사용하는 것이 “오빠충처럼 느껴지고 오글거린다”라고 표현하여 A는 남자로서 여자에게 호격 조사를 붙여 호칭하는 것을 부끄럽고 민망한 느낌이 들어 거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D는 대면과 달리 비대면에서는 ‘아/야’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상대를 친근하게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타자로 컸을 때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 거부감이 들고, 다정한 척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연구 참여자 E는 이름에 ‘아/야’를 붙여서 불리기를 원하며,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하고 다정한 느낌으로 말할 수 있어서 해당 호칭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특히 대면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야’를 사용하지만 비대면에서는 더 부드러운 느낌을 사용하여 ‘이름’에 ‘아/야’를 결합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G는 E와 유사하게 ‘아/야’를 비대면에서 다정하고 친근하여 여겨 사용을 선호하지만 E와는 달리 아주 친한 친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덜 친한 친구에서 친한 느낌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름에 호격조사 ‘아/야’를 붙여 사용하는 호칭어는 다정한 느낌을 주어 친근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비대면 대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호는 대면과 달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한 비대면 대화에서 사용되는 호칭어의 사용 의미를 4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비대면 대화에서는 기존 대면에서의 높임, 관계적 거리와는 다르게 호칭어가 사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비대면 호칭어 ‘님’의 경우 기존의 높임이나 격식성은 낮아지고 높임의 의미가 없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친한 친구 관계, 같은 무리에 있거나 동일한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에서 비격식적인 편안한 호칭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대명사 ‘님’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같이 분명하게 높여야 하는 대상에게는 이러한 호칭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다. 즉, 대면 상황에서 ‘님’은 ‘씨’보다 높임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격식성을 낮춘 의미로 예의 범절을 갖추는 태도 없이 친근함을 나타내는 가벼운 호칭어로 사용된다.

둘째, 대면 상황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관계 질서나 위계를 비대면에서는 모호하게 표현한다. 선·후배, 연상·연하 등 대면 만남이 선행하는 경우 뚜렷한 위계를 담은 ‘선배, 후배, 누나, 언니, 오빠, 형’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지만 대면 만남이 없이 비대면으로만 관계가 형성된 경우 학년이 높거나 낮음, 나이가 많거나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를 ‘ 쌤’, ‘ 씨’ 등으로 통일하여 관계 질서나 위계를 모호하게 표현한다.

셋째, 청자에 대한 화자의 가치판단이 담긴 호칭어가 사용되는데, 애정을 담아 이름의 끝글자를 활용하여 부르거나 상대가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애칭을 지어 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장난과 놀림의 의도를 가지고 별명으로 상대를 호칭하기도 하였다. 이때 장난과 놀림 등에 대한 허용 범위가 대면보다 훨씬 넓다. 대면에서는 버릇없이 보일 수 있어 사용하기를 꺼리는 별명도 비대면에서는 호칭어로 사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넷째, 호격 조사 ‘아/야’에 대한 친근함의 정도가 대면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다. 대면은 괜찮지만 비대면에서는 ‘이름+아/야’로 부르는 것에 “오글거림”을 느끼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반대로 대면과 달리 비대면에서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아/야’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로 볼 때 대면에서보다 비대면에서 ‘이름+아/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다정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비대면적 관계와 대화가 많아진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 호칭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사용되는 호칭어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석(2016),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 내러티브학 탐구』한국문화사.
- 김도현(2016), 「교육 분야 질적연구의 도구로서 사진에 관한 시론적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19(2), 1-35.
- 김유나(2021), 「한국어 호칭어 사용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희봉(2017),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한 팔로워십에 대한 인식과 팔로워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리더십연구』 8(3), 33-54.
- 박은송(2008), 「호칭 접미사 '씨'와 '님'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國內석사학위논문.
- 박정운(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507-527.
- 이정복(2000), 「통신 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한국사회언어학회, 193-221.
- 이정복, 판영(2013), 「한국과 중국의 통신 언어 호칭어 '님'과 '亲(친)'의 쓰임」, 『우리말 글』 58, 127-150.
- 이정복(2020),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검토」, 『사회언어학』 28(3), 한국사회언어학회, 279-309.
- 임경수·손은령(2021), 「재수 후 입학한 코로나 학번 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혁신연구』31(3), 249-275.
- 조태린(2018),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26(3), 한국사회언어학회, 235-265.
- 조태린(2020),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변이에 대한 질적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양적 접근을 넘어서」, 『한글』 81(1), 한글학회, 115-147.
-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조홍식 외 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제3판)』, 학지사), 1, 2, 3장.
- Latz A. O.(2017), *Photovoice Research In Education and Beyond-A Practical Guide from Theory to Exhibition-*. (김동렬 역(2018),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참여적 행동 연구』, 학지사).
- Wang, C., & Burris, M. A.(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4 (3), pp.369-387.
- Wang C.(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 (2), 185-192.

부록. 연구 참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

가. 연구 참여자 A의 자전적 내러티브

“저는 대학원생으로 박사 5학기입니다. 학기에 비해 나이가 어린 편이어서 후배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군미필자(병역을 필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계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사적인 관계’는 선배, 후배를 따지지 않는 학기와 상관없이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가까워진 사이를 의미하고 둘째, ‘공적인 관계’는 학기를 고려하는 관계로 선배, 후배, 선생님 등 편하게 대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고 셋째, ‘초중고 친구 관계’는 어린 시절에 만나 무엇이든 거리낌 없는 관계를 의미하고 넷째, ‘대학 친구 관계’는 성인이 된 후에 대학교에서 만난 관계로 ‘초중고 친구’보다는 거리낌이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 연구 참여자 B의 자전적 내러티브

“저는 대학원생으로 석사 5학기이고 아직 졸업하지 못했어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서 논문을 완성하기 힘드네요. 평소 댄스 학원도 다니고 게임이나 독서 등 취미 관련 모임에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관계를 분류해 보면 일로 만난 사이, 취미 활동으로 만난 사이, 학교 공부하며 만난 사이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대면에서 주로 만나는 사이와 비대면에서 주로 만나는 사이로도 나뉘볼 수 있겠네요. 일로 만난 사이는 관계의 경계가 명확하고 취미 활동으로 만난 사이는 비대면으로만 만나는 경우도 빈번해 경계가 모호해요. 음 그리고 학교 공부하며 만난 사이는 석박사 쌤들 중에는 나이나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친한 사이를 빼면 경계가 모호한 관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 연구 참여자 C의 자전적 내러티브

“대학원에 공부 중이고, 박사 2학기 그리고 대전 지역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일주일에 6일 이상은 사람을 만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해져. 비즈니스 관계랑 친구 관계가 있어. 비즈니스 관계는 공적인 관계이면서 싫은 감정이 들어도 그런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계산이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싶지도 않아. 친구 관계는 손해를 봐도 아쉬움이 없는 관계이고, 싫은 감정이 들면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야.”

라. 연구 참여자 D의 자전적 내러티브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놀면서 단기 일을 하고 있어요.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대구 사람이라서 사투리를 많이 써요. 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대학원에 와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처음엔 개인적인 관계랑 사회적 관계를 나누지만 경계가 좀 흐려지고, 경계를 막 넘나들 수도 있고 그래요. 아, 개인적 관계는 친구나 애인처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 연구 참여자 E의 자전적 내러티브

“중학교에 올라와서 친구가 많아졌어요. 성격은 밝고 긍정적이고 먼저 나서서 친구를 만드는 성격이에요. 근데 학교를 많이 못 가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보통 (친구를) 만들어요. 친구의 친구

로 연결해서 많이 사귀게 됐어요. 게임을 많이 하고 수업은 잘 듣지 않아요. 중학교 오면서 (수업이) 더 듣기 싫어졌어요.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 들을 땐 진짜 수업이 아니니까 더 듣기 싫어요. 완전 가족 같은 친구랑 연락만 자주 하는 친구, 연락할 때는 친한데 만나서는 어색한 친구 이렇게 있어요. 가족 같은 애들은 욕을 많이 섞어서 서로를 부르는 친구고, 연락만 하는 애들은 욕을 좀 덜 사용해서 대화하고, 만나서 어색한 애들은 욕을 하지 않아요.”

바. 연구 참여자 F의 자전적 내러티브

“중학생이고, 생활은 숙제 많아 힘든 거 있고 나머지는 다 재밌어요. 성격 좋아서 친구도 많아요. 게임 좋아하고 공부 빼고는 다 좋아요.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친한 사이와 덜 친한 사이 안 친한 사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친한 사이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요. 짜증 나도 참을 수 있는 사이요. 덜 친한 사이는 학원 친구들 아니면 겜 친구들이요. 열받게 하면 안 보는 사이예요. 만나서 피방(피씨방) 가는 친구들 말고 겜 안에서만 만난 사이요. 안 친한 사이는 쯤만 짜증 나도 그냥 안 보죠.”

사. 연구 참여자 G의 자전적 내러티브

“중학생입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를 드문드문 가요. 중1때보다 학교를 더 많이 가서 친구가 더 많이 생겼어요. 저는 착하고 이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자비가 많고 그런 성격이라서 친구들이 다 저를 많이 좋아해요. ‘가족 같은 관계’는 친한 친구나 가족이고,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어요. ‘집 같은 사이’는 조금 친해진 아이, 한두 번 정도 대화 한 사이예요.⁶⁾ 초인종 같은 사이는 한두 번 보기만 한 사이로 2m 정도,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사이예요. 만난 적 없고 인스타로 친해진 사람들도 초인종 같은 사이예요.”

아. 연구 참여자 H의 자전적 내러티브

“중딩1(중학교 1학년)보다 시험이 생겨서 좀 더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슬퍼요. 초딩(초등학생) 때보다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 슬퍼요. 저는 성격은 착하고, 피아노를 잘 쳐요. 모든 것이 완벽한 아이라 친구 관계가 아주 좋아요. 친구를 사귀면 넓고 깊게 사귀는 편이에요. ‘가족 같은 관계’는 비밀을 말할 수 있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예요. ‘학원 같은 관계’ 자주 만나지 않고, 가끔 말하고 만나는 사이고, 화장실 같은 관계는 완전 안 친한 사이를 말해요. 이렇게 관계를 나뉘요.”

6) 연구 참여자 G는 ‘집 같은 사이’면 좋은 것이 아니냐는 보충 질문에 집과 같은 사이에서 ‘집’은 ‘가족’보다는 싫은 의미라고 말하였다.

“비대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질적 연구 - 포토보이스 (Photovoice) 방법을 활용하여 -”에 대한 토론문

이현희(안양대)

코로나 이후 비대면 강의나 회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카카오톡 등의 SNS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의사소통의 양상 자체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긍정의 대답인 감탄사 ‘네’조차도 장면, 상황, 관계 등에 따라 ‘넵’, ‘넹’, ‘넷’, ‘넴’, ‘네네’, ‘네네네’, ‘넵!’, ‘넵!!!’ 등 다양하게 구사하되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가고 있는 비대면 대화의 연구에서 호칭어 연구는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토보이스라는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여 피험자들이 호칭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논문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을 묻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저의 고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대면과 비대면의 엄격한 구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ㅋㅋ[크크]’라고 웃고 ‘ㅇ지[인정?], ‘ㄱㄴ[가능?]'이라고 묻는 것을 보면 비대면과 대면의 언어 관습이 서로 넘나드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필자가 비대면의 큰 특징으로 들었던 ‘님’의 경우도 대면과 비대면의 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OO 님’을 쓰는 것을 보면 대면 상황, 이름과 학번을 서로 아는 상황에서도 나이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친밀함이 형성되기 이전 거리를 유지하고 격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 혹은 적당한 호칭을 결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썼더라도 친밀함이 생긴 이후에도 다른 호칭으로 바꾸지 않고 ‘OO 님’을 계속 쓰는 사례를 목격하게 됩니다. ‘OO 님’의 사용은 대면과 비대면과 같이 매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한편 (14) 사례는 호칭어의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님’에 대해 좀더 다양한 사례를 모아 따로 논의를 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피험자 그룹을 대학원생과 중학생으로 나누어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그룹들이 비대면 호칭어 사용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피험자 그룹으로 선정한 것일까요? <표 1>에서 보면 주요 사용 매체가 카카오톡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학부생들에게 물었을 때도 카카오톡의 사용이 예전

만큼 절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 비대면 매체들 간에도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호칭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3. 같은 맥락에서 대학원생들의 호칭어가 선후배 관계없이 주로 ‘선생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면 호칭어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그룹인지 의문입니다. 중학생들도 사회적 관계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험자 그룹으로 적당한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원생 그룹을 다룬다면 연령을 다양하게 하고 직업이나 전공 여부를 변인으로 설정하여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질적 연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험자의 나이나 성별, 직업, 전공, 사회적 관계 맺기의 다양성 등 다양한 변인이 고려된다면 논의가 좀더 풍성해 질 것 같습니다.
4. 포토보이스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좀더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림7>부터 <그림19>까지가 ‘포토보이스’에서 말하는 ‘포토’라기보다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캡처한 언어 자료인 것 같습니다. ‘포토’에 붙인 제목들 역시 호칭어 사용에 대한 피험자의 개인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지 대면에서도 사용하는 별명이나 ‘OO아’, ‘OO 님’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 굳이 비대면 상황에서 호칭어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포토보이스라는 방법을 왜 활용했는지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호칭어에 대한 연구 자료로 단독방을 활용하면 좀더 많은 사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칭어 연구에 ‘포토보이스’가 유의미한 연구 방법이라는 점을 좀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5. 질적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논의의 결과가 ‘개인의 취향’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의 구명에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험자 A(남성)가 부끄럽고 민망하여 대면 상황에서 이성에게 ‘OO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응답이 일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거가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험자의 수를 더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다른 연구를 인용하는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 국어 청자 대우 종결어미의 [화자낮춤] 자질

도은희(경희대)

한국어 대우법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청자 높임의 3원 체계로 이루어진다. 이 세 체계는 단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축이 서로 맞물려 제한된 문법 요소가 어휘 요소와 함께 다양한 화청자 관계를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한국어 청자 대우에 대한 기술은 단순하지 않다. 이전 시기 한국어 대우법의 세 체계는 각각을 담당하는 선어말어미로 실현되었으나, 현대로 오면서 주체 높임의 ‘-시-’를 제외한 다른 두 선어말어미가 그 기능을 자질로만 유지한 채 종결어미로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를 생성하였다. 이들은 기존 형태들과 경쟁하며 모어 화자들의 선택을 통해 부상하거나 소멸하기도 하고, 이후 새로운 화계에서 자질을 잃고 새 의미기능을 획득하여 합류되기도 하였다.

한국어 문장 내부에 형태적으로 실현되는 종결어미는 크게 문말 종결, 문장 유형 결정, 청자 대우 실현이라는 세 기능을 갖는데, 이들이 ‘화자’와 ‘청자’라는 문장 외적 요소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주로 담화·화용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화청자와 같은 담화 참여자가 통사구조의 논항으로 표상되는 ‘화행 통사론’의 등장으로 종결어미가 화청자 논항에 인허하는 자질 등이 ‘통사론’의 영역에서 기술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본고는 이전 시기에 청자 높임(공손법)을 담당하던 선어말어미 ‘-이-’와 객체 높임(겸양법)을 담당하던 선어말어미 ‘-습-’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 형태를 잃고 단일 화계의 종결어미로 융합됨에 주목하여, 최상위 화계인 하십시오체가 [+청자높임]의 자질만 아니라 [+화자겸양]의 자질을 지니며, 이러한 자질이 하십시오체를 여타 격식체 종결어미와 변별해주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격식체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평서형 종결어미 ‘-습니다’는, 다른 격식체 종결어미가 문장에서 실현될 때와는 다른 결합 제약을 보인다. 종결어미가 화행구의 통사핵이라면, 종결어미를 통한 대우 표현이 지배 결속 이론에 따라 화자 논항과 청자 논항에 각각 자질을 인허하고 그에 따른 통사 제약이 발생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하십시오체가 지닌 [+화자겸양]의 자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종결어미 ‘-습니다’가 각 자질을 화청자 논항에 부여할 때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청자 높임의 세 축이 입체적으로 실현되는, 최상위 대우 표현으로 기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반면 하십시오체와 달리 [-화자겸양] 자질의 종결어미들이 왜 현대 한국어에서 소멸의 길을 걷거나 기능 전이를 통해 잔존하는지, 화용론이나 사회언어학적 기술이 아닌 통사 자질 분석으로서 설명을 시도한다.

1. 서론

한국어 종결어미의 화계 등분은 공교롭게도 외국인인 Underwood에 의해 가장 먼저 다루어졌고,¹⁾ 이후 참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없는 논의와 분석이 거듭되었다. 19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호오체와 히체 등을 비롯한 각 화계의 윤곽이 분명해졌고, 각 화계가 독자적으로 표현하는 화청자 관계와 대우의 정도를 체계화하는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로까지 이어진 전통 종결어미 체계는 먼저 [±격식] 자질로 1차 화계와 2차 화계를 나누고, [±높임] 자질로 격식체의 네 화계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을, 그리고 비격식체의 두 화계 두루높임, 두루낮춤을 구분하는 이원적 체계로 구성된다. 이 중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인 ‘해요체’는, 격식체의 두 높임 표현인 ‘하십시오체와 하오체에 두루 통용’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비격식체의 낮춤 표현인 ‘해체’는 격식체의 낮춤 표현인 ‘하게체와 해라체에 두루 통용’하여 교체될 수 있다고 하여서 각각 ‘두루높임’, ‘두루낮춤’이라는 명칭이 주어졌다.²⁾³⁾

<표 1> 전통적인 청자 대우 종결어미 6분 체계

	1차 화계 (격식체)		2차 화계 (비격식체)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두루 높임	해요체
높임 표현	예사 높임	하오체	두루 낮춤	해체
낮춤 표현	예사 낮춤	하게체		
	아주 낮춤	해라체		

그러나, 이들을 변별하는 자질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물론 ‘아주 높임’, ‘예사 높임’과 같은 명칭이 모여 화자에게 어떤 직관적 수용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이 높임 체계가 문법적 혹은 통사적으로 기술되려면 직관에 기대지 않고도 변별 가능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을 변별하는 ‘자질’은 무엇이며,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가르는 자질 혹은 기준이 모든 종결어미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1>에서 모어 화자의 직관 외에,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는 [±격식] 자질의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⁴⁾ 과연 [±격식] 자질은 ‘아주 높임/예사 높임’과 ‘두루 높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또한 높임 표현인 하십시오체와

1) 성기철(1985:143)에 의하면 Underwood(1890:110)에서는 대략 4개의 화계가 구분되었고, 대체로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 낮춤 및 아주낮춤이라 할 만한 것이라 하였다.

2) 이상의 국어의 화계 체계화 과정에는 이익섭(1974), 성기철(1985)을 참고하였다.

3) 그러나 화계전환은 해요체와 해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기존 체계에서 두루높임/낮춤의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두루’의 이러한 정의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하겠다.

4) 사실 수많은 논의와 고찰 속에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성기철(1985:166-168)에서는 격식성의 도입이 종결어미 체계를 자질로서 분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각 학자들이 종결어미를 분류한 ‘격식성’ 자질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보이지 않음을 제시하고, 격식성 자질 부여가 대개 직관적인 인상을 주며, 그 근거나 배경 설명이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공통적으로 하십시오체에 [+격식] 자질을 부여한 점에 있어 직관, 주관적인 경향성은 보여주지만, 일관된 견해나 원리가 없어 격식성 구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의미있는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하오체, 해오체가 서로 공유하는 자질은 [+높임] 자질 하나뿐인가? 이 셋을 변별해 주는 자질은 각각 무엇인가?

또한, [+높임]이 변별자질이라면, [-높임]은 ‘낮춤’인가 ‘안높임’인가?⁵⁾ 하오체는 분명 청자를 높이는 듯함에도 왜 상위자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가? 상위자에게도 사용 가능한 해오체가 하오체와 교체될 수 없다면, <표1>에서 ‘두루 높임’의 정의와 배치는 적절한 것인가? 또한 하계체가 청자로 삼는 대상은 2인칭 대명사는 ‘너’가 아니라 ‘자네’인데, 그렇다면 이는 청자를 높여 대우해 주는 것인가 낮추는 것인가? 즉, 하계체가 청자를 하대하는 듯함에도 해체와 달리 청자를 대우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때, 청자를 낮추거나 안 높이는 것은 하계체 종결어미인가, ‘자네’ 혹은 ‘너’라는 2인칭 대명사인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들은 종결어미가 지닌 자질들로서 설명 가능한가?

종결어미가 통사 구조의 핵으로 다뤄진다면, 종결어미에 결속된 화청자 논항에 인허하는 자질은 무엇일까 하는 관심에서 시작된 본고의 질문은, <표1>에서 분류된 종결어미들의 변별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각 종결어미에 내재된 자질이 곧 각 종결어미가 인허하는 자질이라면, 종결어미들을 변별할 수 있는 자질의 수와 특성에 대해 면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그간 종결어미 연구에서 객관적 자질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각 연구자 개인의 주관에서 비롯된 자질이 설정되어,⁶⁾ 자질이 비어 있기도 하고 잉여적인 요소가 자질로 설정되기도 하여 종결어미 화계 등급이 객관적인 최소자질로서 분류되기 어려웠던 것 같다.

<표 2> 6등분 종결어미의 변별자질(이익섭, 1974:60)

청자의 자질			결과
하대(평대)	존대	친밀(격식)	종결어미
+	-	+(-)	해라체
+	-	-(+)	해체
-	+	+(-)	하계체
-	+	-(+)	하오체
-	+	+(-)	해오체
-	+	-(+)	하십시오체

<표2>에 따르면, 격식체인 ‘하십시오/하오/하계/해라체’는 [+격식] 자질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표2>에서 자질로 분류된 화계들은 <표1>에서의 분류와 상충하는데, 이를테면 <표1>에서 1차 화계(격식체)로 분류되는 하오체와 하계체가 <표2>에서는 [±격식] 자질로 변별된다는 점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여섯 개의 종결어미를 변별하는 자질로 [격식/비격식]과 [존대/하대]라는 두 유무대립만이 확인되어, 하십시오체와 하오체, 하계

5) [-높임]을 ‘낮춤’이 아닌 ‘안높임’으로 보는 견해는, 종결어미로는 상대를 낮출 수 없으며, [속됨] 자질의 어휘적 요소로 청자를 낮춘다고 설명한다(김태엽2000, 2005).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며, 이를 최소자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6) 이익섭(1974:)

체와 해요체는 동일한 자질을 지닌 체 변별되지 않는다. 즉, 아래 <표2-1>와 같이, <표2>에는 여섯 화계를 변별할 자질이 하나 비어 있는 셈이다.⁷⁾

<표2-1> 6등분 종결어미의 두 변별자질

청자의 자질		결과
존대(하대)	격식(친밀)	종결어미
-	-	해라체
-	+	해체
+	-	하계체
+	+	하오체
+	-	해요체
+	+	하십시오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확연히 답을 얻기 어려운, 오래전부터 진지한 연구자들에게서 이미 던져진 바 되었던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높임 표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표1>은 다소 모호한 여러 문제들을 뒤로 한 채 직관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종결어미가 드러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문장 내부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후 종결어미 연구는 점차 담화·화용론 혹은 사회언어학의 영역으로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모든 문장에 필수적, 형태적으로 실현되는 종결어미는 분명 통사적 단위이며, 다른 통사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통사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 관점이다.

한편 한국어 대우법은 종결어미만의 것이 아니라 수의적인 선어말어미나 조사 및 어휘 요소가 한데 어울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청자 높임의 3체계를 이룬다. 그렇다면, 혹시 필수적 성분인 종결어미는 한국어 문장 내부에서 이 세 체계가 주고받는 통사적 연결고리의 핵심 요소인 것은 아닐까? 선부른 예측일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하여, 본고가 <표2>에 대해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ㄱ. 청자를 대우하는 기제는 오직 [±높임] 뿐인가?
 - ㄴ. [±격식] 자질은 진정 종결어미의 자질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ㄷ. <표2>에 부재하는, [±높임]과 [±격식]에 이은 세 번째 ‘자질’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모든 화계의 종결어미를 접근하기보다는, 좀처럼 일치된 견해를 보이기 어려웠던 화계 연구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최상위 청자 대우 화계로 지위가 인정된⁸⁾, ‘하십시오체’의 자질을 우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화행 통사론에서 화청자 논향이 어떤 구조로 표상되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종결어미의

7) <표2>에서 중복되는, 존대/하대 자질을 단일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자질이 둘 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계/하오체의 쌍과, 해요/하십시오체의 쌍 자질이 동일함을 볼 수 있다.

8) 이익섭(1974), 성기철(1985)

자질이 화청자 논항에 부여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습니다’에 녹아든 선어 말어미들이 담당하던 대우법 기능을 통해 최상위 대우 화계인 하십시오체에 내재된 변별자 질 설정 가능성을 살펴보고, 1차 화계의 종결어미에 적용하며 확대해 갈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정된 자질들과, 한국어 대우법의 세 축을 이루는 체계들이 기존에 다각도로 연구된 대우 표현들과 조화를 이루어 실현되는지 확인하고, 5장에서 마무리한다.

2. 한국어 문장의 통사구조에 표상되는 화청자 논항 자질 설정

2.1. 화자와 청자를 통사 구조 안에 들여오기

한국어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문장의 필수 요소인 종결어미가 매번 문장마다 화청자 관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는 점일 것이다.⁹⁾ 그리고 이 정보는 ‘문장 안’에 형태적으로 실현되는 종결어미에 따라 문장 내부의 어휘 요소가 제약을 보이는 현상과, 담화 참여자가 문장 내부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대우의 양상이 객관적으로 파악되어 문법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종결어미 및 화계 연구는 문장 외부 변인에만 집중되어 문장 내부에 실현된 ‘종결어미 자체’가 지닌 통사적 특성이 주목받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어 어미가 화청자 인칭 정보를 담고 있는 통사적 단어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목정수(2014)에서는, ‘-다’형 종결어미 예문의 인위성 문제¹⁰⁾를 제기하며,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 있어 화청자 정보가 담긴 다양한 종결어미들로 구성된 문장들을 적극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2) 철수가 춥다.¹¹⁾

(3) ㄱ. (너) 춥니?

ㄴ. (나는) 안 추워.

ㄷ. (철수는) 춥대요.

짚막한 문장임에도 (3)의 각 문장은 ‘-다’로 종결된 (2)와는 다른,¹²⁾ 화청자 인칭 및 상하

9) 종결어미를 통해 모든 문장에 표시되는 화청자 관계는 때론 화계 전환을 통해 힘과 유대(유송영1994 참조)의 변화를 꾀하며 의사소통 책략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10) 이와 관련하여 김용하(2022:117 각주5)에서는 생성문법적 연구에서 예문 대부분이 ‘안높임’ 등급(‘-다’형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것은 이 종결어미가 가장 중립적인 등급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높임법 종결어미들을 생성문법의 틀에서 다루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였다.

11) 사실 “날씨가 춥다.”와 “철수가 춥다.”에서의 ‘춥다’는 그 의미와 구조가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 주관심리술어 ‘춥다’의 주어가 화자나 청자에 일치하는 경우 (3)과 같은 종결어미가 주어 대명사를 이미 표시하였으므로 문장에서 생략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제3자의 경우에 형태적으로 제시되는 것 같다.

12) 실질적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관적 장면이라 보기 어려운 (2)는 실질적 청자가 현장에서 배제된, 단독적 장면의 문장이다. 즉, (2)의 ‘-다’ 종결형 예문에도 화청자 정보가 드러나며 이러한 화청자 정보를 담고 있는 ‘해라체’에 대해서

관계 정보가 드러난다. 실질적인 화청자가 전제되는 (3)에서는 서술어에 결합한 종결어미가 1,2인칭의 화청자, 혹은 3인칭 주어까지도 표시해주기에, 대명사 주어 없이도 주어 및 화청자 관계가 파악되며,¹³⁾ 주어는 오히려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목정수(2014)에서는 이처럼 문장 내부에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요소이면서 명제 밖 화청자 정보를 지니는 어미들이야말로 서술어에 가려진 통사론의 핵심 요소임을 다각도로 보인 바 있다.

만일 청자 대우의 종결어미들이 통사핵으로서 ‘화자 논항’과 ‘청자 논항’에 자질을 부여한다면, 종결어미가 지닌 ‘화자’를 나타내는 자질과 ‘청자’를 나타내는 자질이 각각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¹⁴⁾ 일찍이 임동훈(2006:299)에서는 Levinson(1983)의 사회적 지시를 소개하면서, 대면적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대체로 자신을 지시의 중심에 놓고’ 발화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이에 한국어 청자 대우법은 ‘화자’를 기준으로 청자의 높음 정도가 파악되어야 한다면, 기존의 ‘아주높임’, ‘예사높임’ 등의 등급 명칭이 모두 ‘청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화자’ 쪽은 등급 구분의 주요 요소로 다루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임동훈(2006:311)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높낮이를 분리하고 몇 자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청자 대우의 종결어미를 분석하였다.

<표 3> 임동훈(2006)의 청자 대우 종결어미 체계

해라체	[+청자하위]	[+화자상위]	[+격식]
반말체	[-청자상위]	[+화자상위]	[-격식]
하계체	[-청자상위]	[-화자하위]	[+격식]
하오체	[-청자하위]	[-화자하위]	[+격식]
해요체	[-청자상위]	[-화자상위]	[-격식]
합쇼체	[+청자상위]	[-화자상위]	[+격식]

<표3>은 ‘화자’에 관한 자질과 ‘청자’에 관한 자질을 분리하여 자질로써 화계를 변별하고자 한 점이 고무적이다. 아쉬운 점은, 종결어미를 ‘화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화자가 청자를 대우하려는 정도가 단지 사회적 변인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에 달려 있음을 포착했음에도 <표3>의 분류에는 여전히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상하관계만이 대립될 뿐, 청자를 높이려거나 자신을 낮추려는 ‘화자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담겨 있지 못하다. 또한 6개의 종결어미를 변별하는 데 있어 [±청자상위], [±청자하위], [±화자상위], [±화자하위], [±격식]이라는, 5개의 자질 설정은 다소 과도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청자 대우에 있어 ‘화자 기준’이라는 해석을 ‘화자와 청자의 높낮이 비교’가 아니라, 화자가 ‘청자를 높이려는 의지’, 화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의도’로 파악한다. 이러한 화자의 의지 혹은 의도는 각 화계의 종결어미에 내재하며, 통사구

는 4장에서 살펴본다. 상관적 장면과 단독적 장면에 관해서는 유현경(2003:137)을, 현실적 진술과 관념적 진술에 대해서는 임흥빈(1983:111)을 참조하였다.

13) (3ㄷ)은 들은 말(hearsay)임에도, 한국어에서는 별도의 발화 동사(단어)의 개입 없이, 단지 ‘종결어미’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형론적으로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결어미의 특성에 주목한 통사적 연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14) 이 개념은 김용하(2022)의 화행 통사론에서는 ‘화자에 표시되는 자질’, ‘청자에 표시되는 자질’이라 표현된다.

조에서 화자와 청자 논항에 자질로서 표시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어 청자 대우 종결어미가 지니는 변별자질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잉여성이 배제된 최소자질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2. 화행구에서 인허되는 화자자질과 청자자질의 분리

현대 한국어의 대우 표현에 있어 주체 높임 및 객체 높임 표현은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장 내부의 성분을 대우한다. 그러나 청자 대우의 종결어미가 담당하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문장 밖의 요소로 취급되었기 때문에,¹⁵⁾ 종결어미 연구는 통사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웠다. 한편, 청자 대우 종결어미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담화 참여자¹⁶⁾ 및 화행 관련 정보들이 화행구를 통해 통사 구조에 직접적으로 투사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박소영(2022), 김용하(2022), 허세문(2022), 임창국·김양진(2022) 등에서는 화용적 요소와 통사부 접면에 대한 화행 통사론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어말어미 ‘-더-’의 증거성과 주관심리술어의 인칭 제약 현상 및 호격어 등을 화행구와 지각구를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예문들은 (2)와 같이 단독적 장면의 ‘-다’형 종결어미가 아니라 (3)과 같이 실질적 화청자 정보가 담긴 대화체 종결어미들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4) (내가/*내가/철수가) 추워/외로워.

(5) 어제, 영희가/내가/*내가 집에 가고 있-더-라.¹⁷⁾

(허세문2022:47)

한편, 화행 통사론의 전개와 근문 현상을 논의한 김용하(2022)에서는 화행 이론을 생성 문법의 틀에 끌어들이는 Speas·Tenny(2003)로 인해 통사론 안에서 화행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며, 이전에 국내에서 시도되었다 단절된 수행문 분석이 계승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어의 청자 대우법은 화자가 청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가

15) 목정수(2014)에서 프랑스어학의 ‘접어 대명사 중심의 접근법(approche pronominale)’에 입각하여 주어 존대의 ‘-시-’ 및 종결어미가 주어/행위자와 일치함을 보이고, 문장 내에서 화청자 인칭과 행위자 인칭이 구별되어 표시된 구조를 다음과 제시하였다.(목정수2014:50)

(화청자인칭) (행위자인칭) (목적어) **동사-행위자인칭어미-화청자인칭어미**

이 도식에 따르면 한국어의 문장은 종결어미가 표시하는 화청자인칭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종결어미가 ‘문장’ 외부의 화청자를 표시한다고 할 때 ‘문장’ 개념은 위 도식의 ‘명제’ 범위에 그친다. 본고의 논의에서는 일반적 ‘문장’ 개념을 따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정수(2014)에서 주장하는 ‘명제’ 이상의 ‘문장’이 한국어 문장의 구조임에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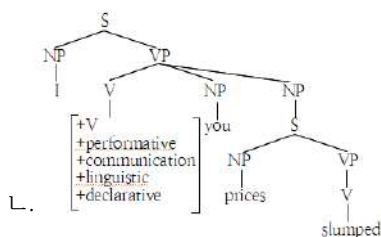
16) 화행 통사론에서 1인칭 대명사는 [+speaker](화자), [+d.p.](담화참여자), [+sen.](지각자)의 자질을 가지며, 2인칭 대명사는 [-speaker](청자), [+d.p.], [+sen.] 자질을 통해 인칭이 구분된다(허세문2022:58).

17) (허세문2022:46-47)에 따르면, (4)는 경험주가 ‘화자’여야 한다는 인칭 제약이 일어나며, (5)는 ‘직접 지각 증거성 표시’ ‘-더-’가 사용되어, 화자가 직접 지각을 통해 증거를 습득했다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밖에도 화청자와 같은 담화적 개념이 실제 다양한 통사 현상의 설명에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출현함에도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웠으나, Ross(1970)의 수행문 분석이 적용되면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청자 대우 종결어미의 변별이 근문 현상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종결어미가 화자와 청자에게 대우 자질을 표시함을 보여주었다. 김용하(2022)에 소개된, 화청자 논항이 성분 통어되는 화행구 구조와 격식체 종결어미가 부여하는 자질은 다음과 같다.

(6) 평서문의 심층구조(Ross1970)¹⁸⁾

ㄱ. Prices slumped.



(7) 서술어 경어 규칙(이홍배1971:43)

NP — NP — s[X - 다]s — X

[αF] [βG]

1 2 3 4 5 ⇒ (의무적)

1 2 3 Dec 5

조건: 5는 [+performative]를 내포한다.

F는 [humble]을, G는 [respect]를 나타낸다.

(6ㄱ)의 평서문은 (6ㄴ)의 심층구조를 가진 수행문이며, 화자와 청자가 구조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는 높임 표현이 실현되는 화자와 청자가 통사 성분이기 때문에 청자 대우 종결어미의 자질이 통사 구조 내에 부여될 수 있다. (7)은 이를 한국어에 적용한 것으로, 한국어 문장 외부의 요소로 여겨지던 화자와 청자가 논항으로서 자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¹⁹⁾ 즉, Ross(1970)의 수행문 분석에 이홍배(1971)의 서술문 경어 규칙을 적용하면, 심층 구조에서 NP로 표상된 화자와 청자가 [$\pm$ humble]과 [$\pm$ respect]라는 자질로 조합되는 청자 대우법²⁰⁾이 변별된다는 것이다. 즉 종결어미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면서 지니는 수행 자질은 심층구조의 최상위 술어에만 표시되는 자질이므로, 청자 대우법의 변별이 곧 근문임을 보장한다.(김용하 2022:116-118) 이에 화행구 최상위 구조에서 ‘화자에 표시되는 자질’과 ‘청자에 표시되는 자질’로 변별되는, 4개의 종결어미 화계를 표로 제

18) 김용하(2022:116)에서 재인용.

19) 본고는 이홍배(1971)의 구조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화청자 논항을 지배하는 요소가 s[X - 다]s 외부에 놓여지는 X로 파악됨에도, (5)에서 종결어미는 s 내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문장(혹은 유한절 혹은 명제)은 종결어미가 포함되지 않은 s[X -]s까지이며 형태적으로 실현된 종결어미는 외부의 X위치에 놓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에 통사구조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20) 김용하(2022)에서는 ‘상대높임법’으로 되어있으나, 본고의 일관된 기술을 위해 이를 ‘청자 대우법’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화자자질과 청자자질로 변별한 종결어미 4등급 체계(김용하, 2022:118)

종결어미	NP1 [α F]	NP2 [β G]
합쇼체	+humble	+respect
하오체		-respect
하계체	-humble	+respect
해라체		-respect

*NP1과 NP2는 상위 수행문의 화자와 청자를 가리킨다.

‘비격식’의 해체와 해요체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표 4>에서는 화자 논항에 주어지는 자질과 청자 논항에 주어지는 자질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pm$ humble]과 [$\pm$ respect]의 두 자질로 4개의 격식체 종결어미를 모두 변별한 점이 눈에 띈다.²¹⁾ 그러나 자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 <표 4>의 ‘하계체’와 ‘해라체’가 [+humble]의 ‘화자겸양’ 자질을 공유한다는 점이나, 하오체가 [-respect]임에도, 하계체는 [+respect]의 ‘청자높임’ 자질을 갖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²²⁾ 그럼에도, 해체 및 해요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한 개의 자질만 더해진다면, 잉여적인 자질 없이 단 3개의 자질로 6개의 종결어미가 변별될 수 있음을 기대해 봄직하다. 본고에서는 김용하(2022)와 같이, 화자 논항에 주어지는 [$\pm$ humble] 자질을 전통 대우법 체계의 ‘화자겸양’으로, 청자 논항에 부여되는 [$\pm$ respect] 자질을 ‘청자높임’으로 파악하고, 다음 장에서 통시적 흔적을 통해 이러한 자질 설정의 근거를 제시하여 보겠다.

3. ‘-습니다’에서 분석될 수 있는 두 가지 청자 대우 자질

앞서 <표2>를 통해, 여섯 화계의 종결어미를 자질로써 변별한다면 적어도 3개의 자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가정은 청자 대우 종결어미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하십시오체는 유무대립의 자질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청자 대우 자질에서 [+]를 가질 것이며, 동일한 원리로 최하위 화계로 일컬어지는 아주낮춤의 해라체는 모든 자질이 [-]를 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상위 화계의 하십시오체가 지닐만한 청자 대우의 자질을

21) 어쩌면 김용하(2022)에서 다른 종결어미들은 이미 다른 측면에서 [$\pm$ formal] 자질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격식체 화계만을 다룬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pm$ humble] 자질이 본고에서 주장하는 ‘화자겸양’ 자질이 아니라 전통적 체계에서 이어지는 ‘청자 낮춤’과 같은 기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pm$ humble] 자질이 화자 논항에 주어지는 자질이라면, [$\pm$ humble]이 ‘청자 낮춤’ 자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본고는 하십시오/하오체가 화자자질을 공유하고 청자자질로 변별된다는 김용하(2022)와 반대로, 하십시오/하오체가 청자자질을 공유하나 화자자질로 변별되는 것이라 분석한다. 3장에서 상술하겠지만 김용하(2022)에서의 [-humble] 자질은 화자의 자기인식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오/하계/해라체가 공유하는 자질이며, 도리어 이들과 하십시오체를 변별하는 자질이다. 하십시오체의 주어로는 화자 자신을 낮추는 ‘저, 소인’ 등의 1인칭 어휘가 가능하나 하오/하계/해라체의 주어는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하오체의 청자 대우 정도는 하계체의 그것보다 낮지 않으므로 [+respect]자질의 분배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발견된 자질들을 나머지 종결어미에 대입해보는 방식으로 변별자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5세기 무렵의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청자 높임의 3원 체계는 모두 선어말어미가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었다. ‘존경법’이라고 불리는 주체 높임은 현대와 마찬가지로 선어말어미 ‘-시-’가 문장 내의 주어를 대우하였다. 그러나 객체 높임은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조사나 어휘적 요소가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중세 한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습-’이 직접 관여하였다. ‘겸양법’이라 불리는 이 객체 높임은 문장 내부의 주어와 목적어(객어) 간의 관계에서 객체를 대우하기 위하여 선어말어미 ‘-습-’이 서술어에 결합하여 실현되었다. 이 ‘겸양법’은 주어를 높이는(존대) ‘존경법’과 달리 주어를 낮추는(겸양) 기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세 국어의 선어말어미 ‘-이-’가 담당하는 청자 높임 표현은 ‘공손법’이라 하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²³⁾

이중 ‘겸양법’의 ‘-습-’과 ‘공손법’의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더 이상 선어말어미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 기능과 자질은 종결어미에 융합되어 여전히 한국어 대우법을 실현하고 있다. 이하 중세 국어에서 선어말어미가 실현하던 대우법은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윤용선(2006)의 구분을 따라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습-’은 ‘겸양법’으로, ‘청자 높임’의 선어말어미 ‘-이-’는 ‘공손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 한국어 대우법과 구별한다.

3.1. 선어말어미 ‘-습-’에서 기원하는 [±화자겸양] 자질

통시적으로 하십시오체 평서형 종결어미 ‘-습니다’는 습늑이다>습니다>습니다’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는데(윤용선2006:350), 이 ‘-습니다’에는 이전 시기에 개별적 선어말어미였던 ‘-습-’과 ‘-이-’라는, 두 대우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 이 때문에 하십시오체가 여타의 종결어미 화계보다 훨씬 높은 대우 등급을 지니게 된 듯하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하십시오체가 통시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습니다’의 이전 형태에서 형태소 분석 가능한 선어말어미들이 가진 의미기능을 살펴보고 ‘아주높임’의 종결어미 하십시오체가 지니고 있을 변별 자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들 선어말어미들이 담당했던 ‘겸양법’과 ‘공손법’의 개념 및 기능 파악에 집중한다.

중세 국어의 ‘겸양법’은 문장 내의 요소인 객체와 주체의 상하관계에 따라 객체가 가진 존대 자질에 호응하여 서술어에 실현되었고, 이때 ‘-습-’은 ‘주체의 겸양’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서 ‘청자’를 높이는 공손법 선어말어미 ‘-이-’가 청자 대우의 종결어미에 융합된 것은 일견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문장 안에서 객체(목적어)를 높여 주체(주어)를 겸양하던 요소가, 문장 밖의 화자를 겸양하게 되는 데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23) (이익섭1974:53-63) 참조.

다. 15세기의 ‘-습-’은 통시적으로 기능 변천을 겪는데, 이경영(1992:15)에 따르면 “주체와 화자가 일치하는 구문에서부터 ‘-습-’이 화자 자신의 겸양을 표현하는 형태소로 인식되고, ‘-습-’이 화자겸양으로 확대되면서 겸양의 대상도 객체보다는 화자 쪽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서정목(1993)에서는 “대화체는 자기에 대한 진술인 경우 화자가 주어일 가능성이 높아서 주어겸양은 곧 화자겸양이 될 수 있고 청자가 객어로 등장할 경우도 있어서 화자겸양이 청자에 대한 공손한 표현과 겹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²⁴⁾ 다시 말해 ‘-습-’이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겪는 가운데 화자가 주어인 경우 주체겸양은 곧 화자 겸양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또한 객체가 청자인 경우 ‘객체에 대한 주체의 겸양’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으로 연결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우법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윤용선(2006:334-340)에서는, 객체와 주체의 상하관계에 따라 서술어에 실현되었던 ‘-습-’에 대하여 16세기 청자에 대한 화자겸양의 용법이 나타나 19세기까지 확대되었다며, ‘-습-’의 점진적인 기능 변화와 소실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 |
|-------------------------------------|----------------------|
| (8) ㄱ. 객체에 대한 화자와 주체의 겸양 | (15C) ²⁵⁾ |
| ㄴ. 객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 | (16C) |
| ㄷ. 화자의 겸양(객체의 모호성 심화) | (17C) |
| ㄹ.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 | (18C) |
| ㅁ. 청자높임법과의 합류(종결어미), | (19C) |
|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비종결어미) ²⁶⁾ | (윤용선2006:344) |

겸양법 선어말어미 ‘-습-’은 (8ㄱ)과 같이 15세기 ‘객체’에 대한 ‘화자/주체의 겸양’에서 ‘화자겸양’의 기능으로 변하여 가다가, 17세기 객체의 모호성이 심화되면서 18세기에는 (8ㄹ)과 같이 ‘청자’에 대한 ‘화자겸양’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19세기로 오면서 종결어미에서의 ‘-습-’은 독립된 형태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손법의 ‘-이-’와 함께 종결어미에 합류되었다.²⁷⁾

이를테면, [청자=주어]일 때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곧 청자 높임을 실현하는 것과 같이, [화자=주어]일 때 겸양법의 선어말어미 ‘-습-’은 곧 화자 겸양을 실현하여 청자를 대우하게 되는 이치이다. 그러나 ‘청자 높임’과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은 각각 다른 개

24) 윤용선(2006:344 각주36)에서 재인용.

25) 세기구분은 윤용선(2006)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삽입함.

26) 비종결어미의 ‘-습-’은 종결어미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현대국어의 ‘사오/삽’, ‘오/웁’은 비종결어미에 쓰이던 ‘-습-’의 잔재로, 이들은 청자높임의 종결어미 합류하지 못하였다(윤용선2006:347).

27) 단, 윤용선(2006)에서는 ‘-습-’이 “청자 높임”으로 합류하였다는 의미와, 공손법의 ‘-이-’가 “청자 높임”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습-’이 “청자 높임”으로 합류되었다는 것은 선어말어미로서 담당하던 ‘화자겸양’의 기능을 종결어미로서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한다. 윤용선(2006:346)에서 제시된 예문 (11)과 같이, ‘-습-’이 이전 시기에 대우 등급이 다른 ‘ㅎ늑’류 어미와 ‘ㅎ늑이다’류 어미에 모두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의사소통 전략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습-’이 선어말어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결어미로 합류된 ‘화자겸양’의 자질은 다른 등급의 종결어미와의 결합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문환(2002:53-4)에서는 ‘-습-’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으로 기능하더라도 단순히 청자 존대의 ‘-이-’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며, ‘옵시’의 ‘옵’과도 이질적인 점, ‘-습-’에 의한 대립이 ‘흐니’류 이상의 등급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습-’과 ‘-이-’가 표현하던 기능이 구분된다고 하였다.²⁸⁾ 또한 윤용선(2006:346)에서는 내포문에서는 청자높임이 중화되는 데 반해 ‘-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습-’이 청자높임과는 다른 독립적인 위치를 지닌다고 하였다.²⁹⁾ 즉 청자 높임은 말 그대로 화자가 ‘청자를 높여서’ 청자를 대우하는 것이고, 화자겸양은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청자를 대우하는 것이므로, 청자를 대우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제와 실현 방식이 다르다.

그런데 <표1>과 같이, 전통적으로 청자 대우의 종결어미를 분류하던 체계에서는 ‘높임’과 ‘낮춤’(혹은 ‘존대’와 ‘하대’)은 모두 청자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³⁰⁾ 그러나, 본고에서 겸양법의 선어말어미 ‘-습-’에서 확인하는 ‘낮춤’이란, ‘청자를 낮추어 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높이려는 의도”였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상의 겸양법 ‘-습-’이 종결어미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포착한, 본고가 하십시오체가 지닐 것으로 예상하는 자질 후보는 [±화자겸양] 자질로, 화행구의 화자 논항에 표시되는 화자자질이다. 반면 공손법의 ‘-이-’에서는 [±청자높임] 자질을 청자자질로 설정해 볼 수 있음직하다.

(9) 하십시오체가 지니는 청자 대우의 자질

ㄱ. 화자 자질 : [+화자겸양] 자질(humble). 화행구의 화자 논항에 인허됨.

이전 시기 겸양법의 선어말어미 ‘-습-’이 실현.

ㄴ. 청자 자질 : [+청자높임] 자질(repect). 화행구의 청자 논항에 인허됨.

이전 시기 공손법의 선어말어미 ‘-이-’가 실현.

(9)의 하십시오체가 지니는 두 자질은 화행구에서 각각 화자 논항과 청자 논항에 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표2>에서 비어있던 제3의 자질은 하십시오체가 지니는 [±화자겸양] 자질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하십시오체의 세 [+] 청자 대우 자질, 즉 [+화자겸양], [+청자높임], [+격식] 자질이 하십시오체를 최상위 화계의 지위로 만들어준다고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체의 [+화자겸양] 자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청자자질과 달리, 화

28) 윤용선(2006:345)에서 재인용.

29) 또한, 17세기 객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주체에 대한 화자겸양 기능을 할 때에도, ‘-옵시-’가 보이는 주체에 대한 화자겸양 기능은 ‘-습-’의 겸양 기능으로 인해 ‘-시-’의 기능이 강조된 것일 뿐, 주체를 높이는 기능은 ‘-시-’이지 ‘-습-’이 가진 것이 아니며, ‘-습-’ 단독으로는 화자겸양의 기능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윤용선2006:343). 즉, 동시적 변화 과정기에도 각각의 선어말어미가 담당하던 주제, 객체, 청자 높임의 기능은 각각 독립적인 위치를 지녔다.

30) 혹은,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를 나타낸다고만 인식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청자 대우가 ‘화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면, 청자를 얼마나 높일지, 자신을 낮출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화자에게 달렸다. 이러한 ‘화자의 의지’ 혹은 ‘의도’가 종결어미 또는 선어말어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사 요소가 ‘화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양태’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며, 종결어미의 자질 분석으로 연구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자질은 ‘화자가 자신을 인식’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화자겸양]을 인식하는 화자 논항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는 과거 신분제 사회이든 현대의 서비스업 종사자든 외부적인 변인이 어떠한지,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지위를 인정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이 강제적(의무적)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청자보다 높거나 동등한 조건의 화자가 청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의도적(수의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화자겸양] 종결어미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후자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이 때, 전자의 화자는 [+화자겸양] 자질의 종결어미와 함께 자신을 언급하는 대명사로 반드시 ‘나’가 아닌 ‘저’를 사용하여야 한다.³¹⁾ 겸양 대명사 ‘저’의 생성과 유래에 대해 논의한 이장희(2011:481)에 의하면 1인칭 대명사 ‘나’는 동등한 관계의 청자이거나 하위의 청자에게 모두 쓰이지만, 상위의 청자에게는 자칭의 겸양사 ‘저’만이 가능하다. 즉 19세기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1인칭 겸양의 ‘저’는 [+화자겸양] 자질의 종결어미 ‘-습니다’와 서로 충돌하는 자질이 아니라는 것이다.³²⁾ 반면 다른 격식체 종결어미에 이를 적용해보면 ‘-습니다’는 [+화자겸양] 자질로 변별됨이 확인된다.

- (10) ㄱ.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희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자겸양]
 ㄴ. 안녕하십니까? 나는 김희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³³⁾

(10)의 하십시오체는 [+화자겸양] 자질로, 화자의 겸양이 강제되거나 청자를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므로, 화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 겸양의 ‘저’와 비겸양의 ‘나’의 쓰임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하오/하게/해라체’ 종결어미는 그렇지 못하다.

- (11) ㄱ. {나는, *저는} 김희성이오. 잘 {부탁하오, ?부탁드리오}. [-화자겸양]
 ㄴ. {나는, *저는} 김희성이네. 잘 {부탁하네, ?부탁드리네}. [-화자겸양]
 ㄷ. {나는, *저는} 김희성이다. 잘 {부탁한다, *부탁드린다}. [-화자겸양]

앞서 (10)의 화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저’이며, ‘나’도 허용한다. 또한 어휘적인 화자 겸양이 호응하여 ‘부탁하다’ 외에도 ‘부탁드리다’가 선택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그러나 (11)의 경우, 종결어미만 바뀌었을 뿐인데 문장 내 어휘의 사용 양상에 어떤 자질의 충돌 혹은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에서는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저’는 불가하며, (11ㄷ)은 그 제약이 더 심한 듯 보인다. 또한 [-화자겸양] 화제

31) 이는 실질적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관적 장면에서, 즉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에서의 가리킨다. 반면 “그 일은 내가 합니다.”와 같이 의사소통 전락상 그러한 일탈을 허용되는 경우나, 소설과 같은 문어에서는 문제적 특성에 따라(ex사 랑방 손님과 어머니) 하십시오 종결어미와 1인칭 대명사 ‘나’를 한데 어울려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관적 장면에서 이러한 (통사) 자질이 일치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32) 혹은 오히려, [+화자검양] 자질 종결어미의 활성화로 그 등장이 요구된 것인지도 모른다.

33) 김미형(2001:13)에 따르면, ‘절대적 신분의 높낮이가 지켜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나’가 사용될 수 없었다(이장희 2011:483에서 재인용).

의 종결어미가 ‘부탁드리다’와 결합할 경우 ‘부탁하다’와 달리 화자 자신의 일보다는 제3자의 일에 대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본고에서는 (10), (11)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하십시오체와 하오/하계/해라체를 변별하는 [±화자겸양] 자질로써 설명이 가능하며, 하십시오체와 달리 1인칭 대명사로 화자 자신을 낮추지 않는 하오/하계/해라체는 [-화자겸양]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화자겸양]의 하십시오체는 청자가 상위자이든 동급이든 하위자이든, 화자의 의도에 따라 모든 화계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 청자를 높여 대우할 뿐 아니라 화자 자신도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오/하계/해라체는 직관적으로 무언가 모르게 상대를 하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동안 화용론적으로도 설명이 복잡했던 이 점이 바로, 이들이 공유하는 [-화자겸양] 자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는 화행구의 통사구조에서 종결어미가 화자 논항에 부여하는 자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화자겸양] 자질은 화자가 겸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9세기 이전의 긴 세월동안 굳건했던 신분제 사회에서 화청자간 지위 격차³⁴⁾를 드러내는 종결어미 자질이 요구되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상위의 화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상위성을 유지하며 [-화자겸양]의 화계를 사용하거나, 상대를 대우하고자 상위의 자신을 낮추어 [+화자겸양]의 화계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하위의 화자는 상위화자에게 [+화자겸양] 화계 사용이 강제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상으로 전통 체계인 <표2>에 [±화자겸양] 자질을 추가하여 격식체 종결어미(1차화계)를 분석하면 <표5>와 같다.

<표 5> 화자자질로 변별한 1차 화계

종결어미	청자자질(respect)	화자자질(humble)	격식자질
하십시오체 (아주높임)	[+청자높임]	[+화자겸양]	[+격식]?
하오체 (예사높임)	[+청자높임]	[-화자겸양]	[+격식]?
하계체 (예사낮춤)	[-청자높임]	[-화자겸양]	[+격식]?
해라체 (아주낮춤)	[-청자높임]	[-화자겸양]	[+격식]?

격식체 종결어미들은 모두 [+격식] 자질을 공유할 것이므로, <표5>에서는 (10)과 (11)의 종결어미들이 [±청자높임]과 [±화자겸양]의 자질만으로 변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5>에서는, [+화자겸양][+청자높임] 자질의 하십시오체와 [-화자겸양][-청자높임]의 해라체가 왜 ‘아주높임’과 ‘아주낮춤’의 이름을 가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 또한 ‘아주높임’의 하십시오체와 ‘예사높임’의 하오체가 [+청자높임] 자질을 공유하면서 [±화자겸양]으로써 변별됨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표5>에서 [+격식] 자질은 잉여적이므로 하계체와 해라체를 변별해줄 수 있는 자질은 여전히 부재하는 셈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34) 이러한 비대칭 격차의 요인으로서는 신분, 지위, 나이, 친소관계, 의사소통전략 등 담화 화용론의 영역에서 다양한 요소가 변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이 가장 강력한 비대칭화계의 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변별자질의 [+], [-]라는 부호는 한 자질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자질의 부재라는 유무대립의 개념이므로, [-화자겸양]은 화자가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는 [0]의 의미이지, ‘화자가 불손하다’는 [-1]의 의미가 아니다. 같은 논리로, [-청자높임]은 단순히 ‘청자를 높이지 않는다’는 [0]의 의미이지, ‘하대함으로써 청자를 낮춘다’는 [-1]의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해 둔다.

3.2. [격식] 자질의 배제

본고는 앞서 <표1>과 <표2>의 분류 체계에서 드러난 [격식] 자질의 모순을 확인하였다. 사실 <표5>에서 역시 [격식] 자질은 네 화계를 분류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비격식체인 해요/해체와의 변별 역시 직관적 수용 외에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종결어미가 통사 구조에 인허할 수 있는 자질을 설정함에 있어, [격식] 자질은 단순히 직관적이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격식] 자질 자체가 종결어미를 변별하는 자질이 아닐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1>과 같은 전통 체계에서 각 종결어미를 분류하는 기준에서 가장 우선되었던 자질은 ‘격식성’ 혹은 ‘격식체’였다. 그러나, 종결어미의 주된 세 기능—문장 종결 기능, 문장 유형 결정의 기능, 그리고 청자 대우의 기능 외에, ‘격식성’이라는 기능이 종결어미의 역할이라는 근거나 이유 역시 부재하다. 더군나나 ‘격식’이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식)적인 상황에서 예를 갖추는 것이므로, 격식성이란 개념은 그러한 ‘담화 상황’에 관련된 용어이지 ‘개별 종결어미 단독’으로 결정되는 성격의 자질이 아니다. 화자의 의사소통 전략으로 화계전환이 이루어져, 동일한 화자에 의해 종래의 격식체와 비격식체 화계가 동일한 담화상황에서 함께 어우러지더라도, 그 격식적 혹은 비격식적인 담화 상황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표2>의 ‘하오/하계’체는 [$\pm$ 격식] 자질 자질로 변별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뉴스나 회의와 같은 공식 혹은 격식적인 담화 상황에서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간간히 사용할 수는 있어도³⁵⁾ 격식체인 ‘하오/하계/해라’체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격식] 자질의 허구성을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행구의 통사구조에서 화자자질은 화자 논항에, 청자자질은 청자 논항에 인허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격식] 자질은 인허받을 자리가 불분명하다는 점³⁶⁾ 역시, [격식] 자질이 종결어미의 자질이 아니라는 데 힘을 실어 준다.

본고에서는 [격식] 자질이 아니라 [$\pm$ 화자겸양] 자질을 기준으로 화자 자질과 청자 자질을 구분하는 2원 체계를 상정하였는데, 이에 가장 많은 대우 자질을 지니는 최상위화계 하십시오체가, 바로 [격식]적인 담화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가정해 보고자 한다. 하십시오체가

35) 최윤지(2022) 참조

36) 좀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고는 종결어미를 변별하는 최소자질로서 [격식] 자질이 허구이며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격식] 자질이 존재한다면 종결어미가 지배하는 화자와 청자 논항 외에, ‘담화맥락’ 논항에 이 자질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고의 논의는 화자와 청자 논항에 주어지는 자질로 제한한다.

지니는 [+화자겸양] 자질은 신분이나 지위, 연령이 다른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든 화계와 더불어 대화쌍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해체와 해요체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화자겸양]의 ‘하오/하계/해라체’와 잘 어우러졌던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은 아니지만, 엄격한 반상의 구분과 신분 격차로 인해 {하십시오체-하오/하계/해라체}간의 비대칭 화계가 ‘격식적이고 고어투의 인상’을 주므로 이들 종결어미들이 모두 격식성을 띠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오/하계/해라체는 현대 한국어의 상관적 장면에서 그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현대의 {하십시오체-해요/해체}간의 대화쌍 역시 격식성을 띠 수 있다는 점에서 [격식]의 의미와 출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부르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격식]이 종결어미의 자질이 아니라, 모든 청자 대우 자질에서 [+]를 띠는 하십시오체가 [격식체 담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단독 종결어미가 아니라 이 모든 대우 자질을 지니는 최상위 화계 하십시오체가 ‘대화쌍’을 이루는 “담화”야말로 [격식] 자질을 가짐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한다.

3.3. ‘-이-’에서 기원한 [±청자높임] 자질의 등급화

지금까지 최상위 화계 종결어미 ‘-습니다’의 이전 형태소 분석을 통해 ‘겸양법’의 ‘-습-’에서 기원한, [±화자겸양]이라는 ‘화자자질’이 화자 논항에 부여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청자 논항에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자자질’의 일환으로 ‘공손법’ 선어말어미 ‘-이-’에서 기원하였을, [±청자높임] 자질을 살펴본다. 이에 ‘높임/안높임’ 자질을 설정하고, 또 다른 종속적 등급 기제로 ‘높임/아주높임’을 변별하도록 하여, 이를 각 화계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우선 서론에서 제기했던, 세 물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얻은 답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1) ㄱ. 청자를 대우하는 기제는 오직 [±높임] 뿐인가?

ㄴ. [±격식] 자질은 진정 종결어미의 자질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ㄷ. <표2>에 부재하는, [±높임]과 [±격식]에 이은 세 번째 ‘자질’은 무엇인가?

(12') ㄱ'. 청자를 [±높임] 외에도,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기제로 청자를 높여 대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화자겸양] 자질로 설정한다.

ㄴ'. [격식]을 종결어미 자질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격식성은 종결어미가 아니라 담화가 가진 특성이다.

ㄷ'. [±청자높임] 자질 외에 [±화자겸양] 자질을 상정하였으나, 기존의 [격식] 자질이 종결어미를 변별하는 자질로 합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여, 6개의 종결어미를 변별할 자질은 여전히 하나가 비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화자겸양]과 [±청자높임] 자질에 이은, 청자 대우의 여섯 종결어미를 변별할 마지막 자질은 어떻게 상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우선 [-화자겸양] 자질을 공유하는 하오/하계/해라체가 전통 체계에서 ‘예사높임-예사낮춤-아주낮춤’의 3등급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면, 이 세 화계를 변별하는 청자자질은 <표6>과 같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표 6> [-화자겸양] 화계를 변별하는 청자자질

종결어미	화자자질	청자자질	
하오체(예사높임)	[-화자겸양]	[+청자높임]	[+아주높임]
하계체(예사낮춤)	[-화자겸양]	[+청자높임]	[-아주높임]
해라체(아주낮춤)	[-화자겸양]	[-청자높임]	[-아주높임]

이를테면, 먼저 [±청자높임]의 청자자질로 [+]를 갖는 ‘하오/하계’체와 [-]를 갖는 ‘해라체’를 양분한다.³⁷⁾ 그리고 <표6>과 같이 [+청자높임]을 공유하는 하오체와 하계체는 [±아주높임]의 자질로써 변별하는 것이다.

기존에 하계체는 ‘예사낮춤’으로 분류되었으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하계체의 ‘낮춤’ 기제는 청자자질이 아니라 화자자질인 [-화자겸양]에서 기인한다. 모어 화자의 직관에서 하계체의 화자는 청자를 하대하는 듯한 어감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화자가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화자겸양] 자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하계체가 ‘예사낮춤’으로 분류된 것은 기존의 화계 체계가 화행구의 화자 논항에 주어지는 화자자질과 청자 논항에 주어지는 청자자질을 분리하지 못했던 데서 온 혼란이었던 것이다. 또한, 하계체의 화자가 청자를 지시하는 2인칭 화시소는 ‘너’가 아닌, ‘자네’로, 청자를 어느 정도 높여 대우하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하계체가 청자자질로서 [+청자높임]을 지니는 화계임을 보여 준다. 즉, 하계체는 [-화자겸양],[+청자높임],[-아주높임] 자질을 갖는다.

즉, 하계체와 하오체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청자 높임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청자높임] 외에도 [+아주높임] 자질을 상정한다. 화자겸양과 달리, 청자를 높이는 정도는 차등이 있는데, 높임 등급이 다양한 한국어 화계를 각각 변별하려면, [+청자높임]에 종속적인 [±아주높임] 자질을 설정하여, 높임의 등급을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표6>과 같이, [-화자겸양][+청자높임][+아주높임]의 자질을 갖는 하오체는 하계체의 [-아주높임] 자질로써 변별된다.

본고에서는 허구의 [격식] 자질로 양분되었던 이원적 체계의 대안으로, 화자자질과 청자자질로 양분되는 이원적 체계를 상정한다. 또한, [+청자높임]에 종속적인, [+아주높임]이라는 자질로써 청자자질 등급을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 자질의 수에 의한 4등급 체계를 얻을 수 있다.

37) 단, 본고에서는 [-청자높임]은 청자를 ‘하대’ 또는 ‘낮춤’은 부정적 기제[-1]가 아니라 그저 ‘높이지 않음(안높임)’이라는, [0]의 의미로 사용한다.

<표 7> 화청자자질로 분석된 종결어미 4등급 체계

종결어미	화자자질	청자자질		[+] 자질
하십시오체(아주높임)	[+겸양]	[+높임]	[+아주높임]	3
하오체(예사높임)	[-겸양]	[+높임]	[+아주높임]	2
하계체(예사낮춤)	[-겸양]	[+높임]	[-아주높임]	1
해라체(아주낮춤)	[-겸양]	[-높임]	[-아주높임]	0

<표7>에서, [$\pm$ 아주높임] 자질이 [+높임] 자질에 종속적이라는 의미는, [-높임]일 경우 [+아주높임]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청자높임] 자질을 갖는 해라체는 [-아주높임]을 갖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화자자질과 청자자질이 분리된 이원 체계 하에서 [$\pm$ 화자겸양] 자질은 [-아주높임] 자질과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또한 <표7>에서, 최상위 화계인 하십시오체는 3개의 청자 대우 자질에서 모두 [+]를 띠며, 하오체는 2개, 하계체는 1개, 그리고 해라체는 0개로, 4화계의 등급이 [+] 자질의 개수와 종류로 객관적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이 자질은 화행구에 표상된 화자 논향과 청자 논향에 부여되어, 통사 제약처럼 기능하는 자질 일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4. 현대 한국어 청자 대우 종결어미의 변별 자질

앞서 본고에서는 종결어미들을 변별하는 최소자질이 있다면, 6개의 각 화계에 모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만일 <표6>의 화자자질과 청자자질이 어떤 종결어미들을 변별할 수 있다면, 모든 화계의 종결어미에도 고루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pm$ 화자겸양]과 [$\pm$ 청자높임] 및 [$\pm$ 아주높임] 자질을, 종래에 비격식체로 분류되었던 해요체와 해체에서 확인해 보자.

(13) ㄱ.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는} 민이라고 합니다.

ㄴ.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민이라고 해요.

ㄷ. 안녕? {*저는, 나는} 민이라고 해. (개그콘서트, <꽃보다 아름다워>)

(13ㄱ, ㄴ)의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는 겸양의 1인칭 대명사 ‘저’와 비겸양의 ‘나’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의 체계에서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분류되었지만, 본고의 자질 분석으로는 [+화자겸양] 자질을 공유하며 [+청자높임] 등급이 달라서임이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13ㄷ)은 ‘저’의 사용이 불가한데, 이는 [-화자겸양] 화계에서 ‘저’가 제한되던 것과는 다른 기제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도록 하고, (13)의 순서를 고려하여 청자자질을 배분하면 아래와 같은 <표8>을 얻을 수 있다.

<표 8> [+화자겸양] 자질을 공유하는 세 화계

종결어미	화자자질	청자자질		[+] 자질
하십시오체(아주높임)	[+겸양]	[+높임]	[+아주높임]	3
해요체(두루높임)	[+겸양]	[+높임]	[-아주높임]	2
해체(두루낮춤)	[+겸양]	[-높임]	[-아주높임]	1

<표8>은 [+화자겸양] 화계에 두 청자자질을 배분하여 변별한 것이다. 우선 해체는 [-높임]으로 변별해 내고, [+높임]의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는 [±아주]로 변별하였다. 즉, 하십시오체는 [+겸양][+높임][+아주]라는 세 자질 모두 [+]를 가지며, 해요체는 [+겸양][+높임]의 두 자질이, 해체는 [+겸양]이라는 한 개의 자질만이 [+]로, 세 화계의 등급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11)과 달리 (13)에서는 겸양의 1인칭 대명사 제약이 없었으며, ‘네, 응’과 같은 대답말이 공기하고 ‘감사하다, 드리다’ 등의 어휘적 높임의 요소도 일관성을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표8>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8>에 따르면, (13c)과 같은 해체에서 ‘저’가 사용 불가한 이유는 [-청자높임] 자질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만 해체와 해라체의 [+화자겸양] 자질에 의한 변별 역시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표7>과 <표8>에서 상정된 자질을 한데 모아 현대 한국어 종결어미의 여섯 화계를 [+화자겸양] 자질로 양분하는 2원 체계를 구성하되, [+] 자질의 수를 기준으로 현대 한국어 청자 대우의 종결어미 4등급 체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9> 화청자 자질로 변별된 종결어미 4등급 체계

종결어미	화자자질	청자자질		[+]	종결어미	화자자질	청자자질	
				3	하십시오체	+humble	+respect	+super
하오체	-humble	+respect	+super	2	해요체	+humble	+respect	-super
하계체	-humble	+respect	-super	1	해체	+humble	-respect	-super
해라체	-humble	-respect	-super	0				

<표 9>는 기존의 전통적 이원 체계를 유지하되, 모든 화계를 [격식]이 아닌 [±화자겸양] 자질로 양분하고, 이후 청자자질을 적용한 것이다. [-화자겸양]의 화계가 연속성을 띠도록 배치하고, [+] 자질의 수를 고려하되 가장 상위에 위치한 하십시오체가 [+화자겸양] 자질을 공유하는 해요/해체와 함께 분류되도록 이원적 체계로 제시하였다. 자질의 수 표를 등급 체계로 전환하면, 하십시오체가 1등급, 해요체와 하오체가 2등급, 해체와 하계체가 3등급이며, 아무런 청자 대우 자질을 갖지 않는 해라체가 4등급으로 분류된다. <표9>는 현대 한국어에서 하오체와 하계체가 소멸중이며, 그 빈 자리를 해요체와 해체가 채워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소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현대 한국어 종결어미의 여섯 화계를 [$\pm$ 화자겸양] 자질로 양분하고 청자 높임의 등급대로 배치해 보면,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체계성을 포착할 수 있다.

(14) 마음에 드십니까?

(15) ㄱ. 예, **제** 마음에 꼭 듭니다. **감사합니다.** [+겸양][+높임][+아주]

 ㄴ. 네, **제** 마음에 꼭 들어요. **감사해요.** [+겸양][+높임][-아주]

 ㄷ. 응, 내 마음에 꼭 들어. 고마워. [+겸양][-높임][-아주]

(16) ㄱ. **그렇소.** 내 마음에 꼭 드오. 고맙소. [-겸양][+높임][+아주]

 ㄴ. **그렇네.** 내 마음에 꼭 드네. 고맙네. [-겸양][+높임][-아주]

 ㄷ. **그렇다.** 내 마음에 꼭 든다. 고맙다. [-겸양][-높임][-아주]

놀랍게도, [+화자겸양]의 자질을 공유하는 (15)의 각 화계는, 상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 네, 응”과 같은 대답말과 공기한다. 또한 [-청자높임]의 ‘해체’를 제외하면 ‘감사하다’와 ‘고맙다’ 모두 자연스러우며, 겸양의 1인칭 대명사 ‘저’와도 자연스럽게 공기한다.³⁸⁾ 반면 [-화자겸양]으로 분석되는 (16)은 대답말이 다소 어색하며 유독 ‘그렇다’라는 대용 동사의 활용형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 드라마나 소설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담화상황에서 발화되기 어려울 법한 이 (16)의 화계는, 현대 한국어 화자에게 적극적으로 선택받는 종결어미들은 아니다.³⁹⁾ 그에 비해 (15)의 [+화자겸양] 종결어미들은 한층 부드럽거나 친근한 느낌을 주며 현대 한국어 화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택’된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짧아지며 소위 존댓말과 반말이 구별될 뿐 아니라, 어미 결합 양상에도 매우 체계적인 일치를 보인다. 특히 (15)의 각 문장이 배치된 순서는 앞서 ‘하오/하계/해라체’의 등급 순서와도 일치하며, 이는 <표8>에 나타난 자질들의 양상과 일관성을 보인다. 이러한 여섯 화계 간 체계성은 각 변별자질로 설명 가능하지만, 그동안은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마냥 주목받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탐색한 현대 한국어 청자 대우의 종결어미 화계를 변별하는 최소자질은 한 개의 화자자질과 두 개의 청자자질로, [$\pm$ humble][$\pm$ respect][$\pm$ super]라는 세 자질이다. 청자 대우 자질의 수로 이들의 등급을 상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8) 본고에서는 화자인 1인칭 대명사만을 다루었지만, 종결어미가 지배하는 겸양과 비겸양의 대칭은 청자인 2인칭 화자소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감사하다’, ‘드리다’, ‘죄송하다’ 등의 어휘적 요소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수의적 대명사 및 어휘 요소의 자질 일치는 종결어미에 의한 통사적 제약으로 보이며,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9) 박지순(2015)에 따르면 하오체, 하계체의 말뭉치 출현 빈도는 최대 0.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혹 익살스러운 효과를 위한 상관적 장면에 쓰이기도 하지만, 시험의 지문, 또는 자문자답, 해라체는 일기문과 같은 문어에 쓰인다. 즉, [-화자겸양] 자질의 종결어미들은 상관적 장면보다는 실질적 청자가 배제된, 단독적 장면에 쓰이는 점이 흥미롭다.

<표 10> 화자자질과 청자자질로 분석한 종결어미 6분 체계

청자자질		화자자질	종결어미	자질의 수	등급
+respect	+supper respect	+humble	하십시오체	3	1
		-humble	하오체	2	2
	-supper respect	+humble	해요체	2	
		-humble	하게체	1	3
-respect	-supper respect	+humble	해체	1	
		-humble	해라체	0	4

4. 현대 한국어에 잔류하는 [-화자겸양] 화계의 종결어미와, 한국어 대우법 3원 체계

한편, 최하위 등급의 해라체는 0점으로, 세 자질 모두 [-]를 지니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해라체가 갖는 특성이 더 잘 드러나는데, 해라체는 청자를 대우하기 위해 화자 자신을 낮추지도, 청자를 높이지도 않는 화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십시오체와 함께 실질적 청자를 상징하는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면 두 화청자의 높낮이 격차가 가장 벌어지며, 실질적 청자를 상징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는 주로 자문자답 혹은 감탄과 같은 혼잣말이나, 일기문과 같은 문어체에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하계체 종결어미의 일부는 역시 단독적 장면에서 자문으로 쓰이다가 수행 역량이 달라지면서 실질적 청자를 상징하게 되었으며, 원래 갖고 있던 [-화자겸양]의 자질을 잃고 새로운 의미기능을 획득하면서, 해체로 통합하는 추세를 보인다.

간단히 [-화자겸양]의 자질을 공유하는 종결어미들은 현대 한국어에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상관적 장면에서 실질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대화쌍이 성립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⁴⁰⁾ 또한 하계체의 상당 어미들이 그 의미자질을 잃고 해체에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역시 해체와 하계체가 같은 등급에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6) 단독적 장면의 하오체

- ㄱ. 다음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ㄴ. 당기시오.
- ㄷ. 여러분,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17) 단독적 장면의 하계체(자문자답)

40) 박지순(2015)에 따르면, 말뭉치에서 하오체의 비율은 0.4%, 하계체의 비율은 0.2%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말뭉치에서의 비율이 실제 언어 사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ㄱ.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매운가?
- ㄴ. 뭐지? 지금 밖에 비 오나?
- ㄷ. 진짜 비 오네. 그냥 가야 되나?

(18) 단독적 장면의 해라체

- ㄱ. 와, 맛있겠다. 나두 먹고 싶다..
- ㄴ. 나는 짜장면이 좋다. 오늘도 먹었다. 맛있었다.
- ㄷ. 오늘은 이곳에서 취침한다. 실시!

(19) ㄱ.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점령하다!

- ㄴ. 기대하시라.

(16)의 하오체는 대면적 상황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거나 시험의 지문으로 사용된다. (17)의 하계체는 청자를 상정하지 않고 화자 자신이 청자가 되는 자문자답의 혼잣말로 해체에 합류되었고, 이 때 하계체 화계에서의 억양과 해체로 합류된 억양에 차이가 생긴다. 또한 수행 억양을 엮어 실질적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의문문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통합이 가능하다.

(18)의 해라체는[-화자겸양][-청자높임],[-아주높임]의 자질로 청자를 상정하지 않거나, 화자와 가장 가까운 청자로 화자 자신을 상정하거나, 높이지도 겸양하지도 않을 자신보다 하위자 청자를 상정하게 된다. 때문에 해라체는 자기 자신에게 쓰는 일기(문어체)나, 군대에서의 명령이나, ‘밥 먹어라’와 같이 해체보다 강하게 표현하는 관계에서 사용된다.

(19) 역시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 절대문으로, 화계가 해라체와 같이 ‘0’이지만, 시제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나 광고 문구에 쓰인다.

5.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청자 대우의 종결어미 체계가 객관적인 자질 설정으로 재구조화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은 화행 통사론의 영역에서 종결어미가 다루어지기 위함이고, 객관적 자질 분류 체계로 설명 가능한 한국어의 많은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세국어 겸양법과 공손법의 선어말어미 ‘-습-’과 ‘-이-’가 하십시오체 종결어미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종결어미가 지닐만한 대우 자질을 탐색해 보았다. 각 종결어미의 통시적 고찰보다는, 화자 논향과 청자 논향에 각각 부여되는 자질을 분리하고 귀납적으로 설정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담화·화용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화청자 정보를 통사론의 영역으로 되찾아와, 화자 논향과 청자 논향에 각각 부여할 수 있는 자질을 상정하고, 근문임을 보장하는 청자 대우 종결어미를 변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전통 체계에서 청자만의 기제

로 인식되었던 높임과 낮춤의 개념을 분리하여 화청자 자질이라는 2원 체계로 재설정하고, 불필요한 격식 자질을 배제했으며, 청자 자질 등급을 2원화하여 여섯 개의 화계를 자질로 변별해 4등급 체계를 보였다.

1. 먼저 화자자질로 [±화자겸양] 자질을 설정하였다. 이는 이전 시기에 겸양법을 기능하던 선어말어미 ‘-습-’이 ‘객체높임’에서 ‘화자겸양’으로 변화를 겪다가 형태를 소실하면서 청자 높임의 종결어미로 합류된 것이다.

2. 두 번째는 청자자질로 [±청자높임]을 설정하였다. 이전 시기에 공손법의 선어말어미 ‘-이-’가 그 형태를 잃고 청자 대우 종결어미에 합류된 것이다.

3. 세 번째는 [+청자높임] 자질에 종속된 [±아주높임] 자질로, 전통적인 한국어 높임 체계에서 ‘아주’와 ‘예사’의 차등이 있음을 표시해주기 위하여, 단순히 [+청자높임]만으로 분류했던 화계를 [±아주높임] 자질로 변별하여, 청자높임 등급의 차등을 나타낸다.

4. 이전에 ‘(청자)낮춤’으로 분류되던 것은 ‘안높임’의 개념으로 상정한다. ‘낮춤’에는 등급이 있지 않으며 종래에 청자 낮춤으로 인식되던 기제는 [-화자겸양]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석하였다. 청자 하대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속됨] 자질을 갖는 어휘적 요소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ex) 드시다-먹다-처먹다, 돌아가시다-죽다-뉘지다.

5. 청자를 대우하는 요소가 모두 [+인] 하십시오체는 격식성을 띠는 ‘담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6. 청자를 대우하는 요소가 모두 [-인] 해라체는 근문에서는 청자에게 명령하는 기제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청자 대우도, 화자 겸양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반근문에서 중화된 형태로 내포될 수 있음이 설명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화자 자신을 청자로 삼는 자문자답과 같은 단독적 장면에 쓰이거나, 실질적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 일기문, 또는 소설과 같은 문어체에 쓰인다.

7. [-화자겸양]의 하오체와 하계체는 동일 등급의 해요체와 해체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중이나, 일부 종결어미는 [-화자겸양]의 자질을 잃고 단독적 장면에서 자문으로 쓰이거나 수행 역양을 얻어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며 해체에 잔류하게 되었다.

8. [+화자겸양]의 화계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동등하게 주어로 삼는 청유형이 형성되기 어렵다. 때문에 [-화자겸양] 화계의 청유형이 현대에 와서 동일한 자질 수의 [+화자겸양] 화계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능력의 부족으로 본고에서 본디 의도했던 한국어 대우법의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청자 높임의 세 축에서 이 종결어미 자질이 문장 내에서 어떻게 조화롭고 입체적으로 청자 대우를 실현하는지와, 화자와 청자 및 수행 자질을 가지는 화행구에서 각 종결어미들이 화청자 자질을 부여받고 통사제약을 가지는지 등을 구조적으로 보이는 데까지 설명이 미치지 못하였다. 다소 의의가 있다면 다소 주관적, 직관적이었던 종결어미 변별 자질을 과거 한국어

대우법을 구성했던 선어말어미들의 종결어미 합류 과정에서 찾고, 이를 통해 최상위 등급의 종결어미 하십시오체의 자질로 설정하여 전체 종결어미에 적용시킨 것이다. [화자겸양] 자질의 발굴로, 청자를 높이는 기제와 자신을 낮추려는 화자의 의도가 종결어미를 통해 문장에서 실현되며, 현대 한국어에서 소멸의 길을 걷지 않은 종결어미를 제시해 보았다. 각 종결어미들 자체가 갖는 속성들이 통사론의 영역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앞으로도 화행구나 지각구 연구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이전에 담화화용론의 영역에서 설명되던 화청자 관련 정보들이 통사론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규선(1991), 「20세기 초 국어의 존경법 연구」, 『인문과학논집』, 3-19쪽.
- 강규선(1992), 「17세기 국어의 경어법 연구」, 『인문과학논집』, 3-23쪽.
- 강규선(1998), 「국어의 겸양법 연구」, 『인문과학논집』 18, 101-117쪽.
- 강창석(2020), 「국어 경어법의 본질과 체계」, 『언어와 정보 사회』 39, 51-86쪽.
- 고광모(2002), 「명령법 어미 ‘-게’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한글』 257, 129-167쪽.
- 김용하(2022), 「화행 통사론의 전개와 한국어의 근문 현상」, 『인문학연구』 51, 113-138쪽.
- 김태엽(2000), 「해체의 ‘-네’와 하계체의 ‘-네’」, 『우리말글』 20, 17-38쪽.
- 김태엽(2005), 「국어의 어휘적 높임 대립」, 『우리말글』 4, 33-54쪽.
- 김현주(2012), 「종결어미 {-으세요}의 형성과 화행의 편향적 관련」
- 목정수(2013),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 목정수(2014),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 박석준(2005), 「초급 한국어 교재의 청자 높임법」, 『한말연구』 17, 85-107쪽.
- 박소영(2022), 「심리술어와 증거성, 그리고 주어 인칭 제약 및 완화의 통사론」, 『인문학연구』 51, 7-42쪽.
- 박재연(2003), 「국어 양태의 화청자 지향성과 주어 지향성」
- 박지순(201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상대높임법 체계의 제 문제」, 『문법 교육』 20, 77-108쪽.
- 박지순(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오체, 하계체 교육 내용 연구」
- 박지순(2019), 『현대 국어 상대높임법의 맥락 분석적 연구』, 신구문화사.
- 서정목(1988),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1) - 읍니다체」
- 성기철(1985), 「국어의 화계와 격식성」, 언어 10, 143-170쪽.
- 성기철(1996), 「현대 한국어 대우법의 특성」
- 성기철(1999), 「20세기 한국어 대우법의 사회언어학적 변천 -청자 대우법을 중심으로」
- 성기철(1999), 「20세기 청자 대우법의 변천 - 화계의 사회언어학적 변천과 관련하여(구)」
- 성기철(2007),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 교육』, 글누림.
- 신지영 외 18인(2012), 『한국어학의 이해』, 지식과 교양.
- 유송영(1994),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 힘과 유대(1)」
- 유송영(1998), 「국어 호칭 지칭어와 청자 대우 어미의 독립성-담화 상황」
- 유송영(2002), 「호칭 지칭어와 2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화자-청자의 관계」
-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 유현경 외 9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윤영은(2021), 「‘나’와 ‘저’의 전략적 경어법 ‘나’ 앞에 놓기와 뒤에 놓기」, 『언어과학』 28.4, 151-175쪽.
- 윤용선(2012), 「국어 대우법의 통시적 이해」,
- 이경우(1994), 「최근세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2)」, 『이화어문논집』 13, 89-109쪽.
- 이경우(2004),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3)」, 『국어교육』 113, 545-587쪽.

- 이승녕(1964), 「경어법연구」, 『진단학보』 25-27, 307-364쪽.
- 이승희(2012), 「명령형 종결어미의 역사적 변화」
- 이은희(2010),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 연구」, 『문법 교육』 13, 281-315쪽.
- 이익섭(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39-64쪽.
- 이장희(2011), 「겸양 대명사 ‘저’ 생성의 과정」, 『영남학』 19, 471-501쪽.
- 이정민(1981), 「한국어 경어 체계의 제문제」
- 이정복(1996), 「국어 경어법의 말 단계 변동 현상」
- 이정복(1999),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에 대하여」, 『어학연구』 35, 91-121쪽.
- 이정복(2006),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 47, 40-448쪽.
- 이정복(2011), 「한국어 경어법의 주요 기능」, 『우리말 글』 52, 25-53쪽.
- 이흥배(1971a), 「이행소와 국어 변형 문법-I」, 『한글』 147.
- 이흥배(1971b), 「이행소(performative)와 국어 변형 문법-II」, 『한글』 148, 1971b, pp. 17-218.
- 임동훈(2006),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47, 287-319쪽.
- 임창국·김양진(2022), 「한국어 호격어 연구사: 현황과 전망」, 『인문학연구』 51, 139-167쪽.
- 임홍빈(1983), 「국어의 ‘절대문’에 대하여」, 『진단학보』 56, 97-136쪽.
- 전후민(2015), 「혼잣말 종결어미 연구」, 『한민족어문학』 70, 6-34쪽.
- 최윤지(2019), 「상대높임 등급 혼용 현상에 대한 일고찰: 텔레비전 뉴스에 나타나는 해요체의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37, 139~180쪽.
- 허세문(2022), 「지각자의 성격에 대한 소고-화행구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1, 43-112쪽.
- 황문환(1991), 「1인칭 겸양어 ‘저’의 기원」, 『국어학』 21, 국어학회, 53~77쪽.
- 성기철(1970), 「국어 대우법 연구」. 논문집(충북대) 4.
- 박영순(1985), 『한국어통사론』. 집문당
- Ross(1970), 「On Declarative Sentence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 Speas·Tenny(2003), 「Configurational Properties of Point of View Roles. A-M. Di Sciullo ed」, 『Asymmetry in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현대 국어 청자 대우 종결어미의 [화자낮춤] 자질”에 대한 토론문“

허세문(한국외대)

발표 논문은 화자와 청자가 화행관련 기능핵 sa^0 와 SA^0 에 의해 독립적으로 도입된다는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라 sa^0 에 ‘화자 겸양’ 자질이 그리고 SA^0 에 ‘청자 높임’ 자질이 분배되어 있다는 주장이 가지는 장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관련 선어말어미가 모두 ‘자질’로 변화되었다는 입장에서, 이들 자질만을 이용해 (적어도) 한국어의 상대 높임 체계를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이어가려 합니다.

1. 발표 논문에서는 [±격식]이 이론 내적으로나 실제 그 사용에 있어서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는데, ‘통사적 분포’라는 측면에서 소위 ‘비격식’과 ‘격식’ 어미가 구분된다는 기존 논의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발표 논문은 두 화행핵에 명세되는 몇 가지 ‘자질’ 조합을 중시하므로 격식, 비격식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종결 어미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분포에 대한 차이는 꽤 명확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소위 비표준적 종결 형식(예: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다고(요) 등; An 2022, 홍용철 2022 등 참조)이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격식 어미의 분포가 더 자유롭다는 논의는 많습니다. 물론 [±격식] 자질이 이러한 분포적 차이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구조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자질’과 관련지어 재해석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 <표 10>에 제시된 자질 체계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표 10> 화청자 자질로 모두 변별된 여섯 화계

종결어미	화자자질	청자자질		종결어미	화자자질	청자자질	
하십시오체	+겸양	+높임	+super				
해요체	+겸양	+높임	-super	하오체	-겸양	+높임	+super
해체	+겸양	-높임	-super	하계체	-겸양	+높임	-super
				해라체	-겸양	-높임	-super

여기에서 ‘해요체’와 ‘해체’ 이 둘만을 특정할 수 있는 자질 조합은 [+겸양, -super]인데 이를 통해 구종상의 분포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발표

논문에서 강조한 ‘기능핵의 특성에 기반을 둔 분석’을 고려하면 ‘구조상의 특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격식]이 실현될 수 있는 특정 위치의 기능핵과의 연관성을 찾는 등 통사적인 면을 고려한 재해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질 체계의 효율성’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격식’은 언어적으로 보았을 때 ‘화자검양’이나 ‘청자높임’과 다르게 ‘존대/대우’ 관련 표현만을 위한 자질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도 여러 통사현상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격식]이라는 자질이 언어 체계 내에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자질을 이용하여 특정 현상의 분포/구조와 관련된 특성을 포착하는 것도 이론 내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발표 논문에서 가정하는 존대 등급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기존에 많이 논의되던 이원적 분석들에서는 격식표현과 비격식 표현 간의 ‘존대 등급’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는데, 이들을 포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여 기존의 ‘일원적 방식 (예: 하십시오체 > 해요체> 하오체 > 하계체 > 해체> 해라체 등)’이 가지는 특성도 어느 정도 공유한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 ‘하십시오체’와 ‘해요체’가 소위 공손성의 등급 차이를 보이면서 구분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등급이 배타적이 아니라면 굳이 등급을 나눌 필요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 ‘해요체’는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다양한 논의에서 ‘해요체’가 사실 ‘하십시오체’와 (ia)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대응 관계가 (ib)처럼 ‘하오체’까지 연결되는 등, 비격식체와 격식체 사이의 배타적인 등급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i) a. 어떻습니까? 물건이 참 좋지요? (하십시오체-해요체)

b. 봐요. 내말이 맞지 않소. (해요체-하오체) (김영희 1996)

발표 논문에도 제시된 아래 <표 1>이 [±격식]을 가정한 이원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 ‘해요체’가 그 존대 등급에 있어서 두 격식 높임 표현 모두와 양립 가능하다는 점이 잘 드러납니다. 물론 이원 분석과 일원 분석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표 1>과 같은 구분이 더 정당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발표 논문도 이들과 구분되는 독창적인 장점이 많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발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은 등급의 구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표 1> 전통적인 청자 대우 종결어미 6등급 체계(한국어학의 이해, 2012:21)

격식	높임 표현		낮춤 표현	
	하십시오 아주높임	하오 예사높임	하게 예사낮춤	해라 아주낮춤
비격식	해요 두루높임		해 두루낮춤	

- (13) ㄱ. 예, 제 마음에 꼭 듭니다. 감사합니다. [+화자겸양]
 ㄴ. 네, 제 마음에 꼭 들어요. 감사해요. [+화자겸양]
 ㄷ. 응, 내 마음에 꼭 들어. 고마워. [+화자겸양]
- (14) ㄱ. 그렇소. 내 마음에 꼭 드오. 고맙소. [-화자겸양]
 ㄴ. 그렇네. 내 마음에 꼭 드네. 고맙네. [-화자겸양]
 ㄷ. 그렇다. 내 마음에 꼭 든다. 고맙다. [-화자겸양]

이전 발화에 대응(response)하는 발화에서, [+화자겸양]이 드러난 화계가 사용되면 ‘예 > 네 > 응’의 등급 차이를 보이는 ‘대답말’이 사용 가능하지만, [-화자겸양]이 드러나면 ‘그렇소 > 그렇네 > 그렇다’와 같은 표현이 등급 차이를 보이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발표 논문은 (13)과 (14)가 <표 10>에서 드러나는 등급의 구분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아주 강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네, 제 마음에 꼭 듭니다. 감사합니다.’나 ‘예, 제 마음에 꼭 들어요. 감사해요.’와 같은 연쇄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렇네요(그래요)/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꼭 듭니다. 감사합니다.’나 ‘그렇습니다/그렇네요(그래요). 제 마음에 꼭 들어요. 감사해요’같은 표현들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즉, (13)은 오히려 (i)과 같이 이들이 서로 상호 교체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소. 내 마음에 꼭 들어요. 감사해요.’는 이상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표 1> 식의 접근이 더 정확하게 포착하는 환경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발표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표 1>과 같은 분석도, <하십시오체 vs. 하게체>, <하오체 vs. 해라체>는 [±화자겸양] 자질로, 그리고 <하십시오체 vs. 하오체>, <하게체 vs. 해라체>는 [±청자높임] 자질을 이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 10>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super]를 통해 드러나는 <하십시오체 vs. 해요체 vs. 해체> 사이의 등급 차이가 탄탄하게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생각보다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체계의 효율성 부분에서도 구조적 분포의 측면에서는 [-격식] 기반 자연 부류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더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보았는데, 사실 이 질문들이 발표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사 구조’를 중시한다면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화행핵에 기반을 둔 관련 논의에서 ‘-요’의 구조/분포적 특수성을 강조한 연구(박소영 2019, 임창국 2020, 홍용철 2022, An 2022 등)도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으면 발표 논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영희. 1996. 문법론에서 본 상대 높임법의 문제. 한글 233: 161-186.
- 박소영. 2019. 한국어 독립성분과 화용 정보의 통사구조 표상. 국어학 89: 25-62.
- 임창국. 2020. 통사-화용-운율 접합면에서의 한국어 문중 ‘-요’ 첨가에 대한 시론. 언어와 정보 사회 41: 211-232.
- 홍용철. 2022. 한국어의 상대 높임법. 생성문법연구 32-1: 195-220.
- An, Duk-Ho. 2022. Clause types, intonation, and stranded embedded clauses. In Maud Péliissier & Agnès Celle (eds.), Non-canonical questions at the syntax-Prosody interface. *Journal of Linguistics*, Special Issue, 1-24.

‘1인분’의 의미 변화

- MZ세대 담론을 함께 살피며 -

백준영(연세대)

1. 서론

‘1인분’이라는 단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의미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량이다. 대부분 음식점에서 가격을 표시하고 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음식의 단위라 생각할 수 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굳이 학습하거나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그 의미가 통용되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익숙한 단어이다.

그런데 이 ‘1인분’이라는 단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새로운 ‘1인분’은 한 사람이 해내야 하는 사회적 분량 혹은 역할의 양을 의미한다. 이때 이 단어의 새로운 의미와 함께,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도 음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의 부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1인분’의 의미 변화 양상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변성은 언어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언어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의미와 형태가 달라진다. 이때 많은 사회·문화적 요소가 언어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언어의 변화된 양상을 살피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깊게 알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인분’의 의미 변화는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 성과를 통해 밝힐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의미의 ‘1인분’이 사용되는 맥락과 새로운 의미에 내재하는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방향을 고려하여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 성과의 의의와 함께 동시에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새로운 의미의 ‘1인분’을 말한다. 3장에서는 새로운 ‘1인분’의 실제 사용 양상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1인분’을 현 사회의 중심 세대인 MZ세대 그리고 MZ세대의 담론과 연결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다. 5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밝히고 이 연구에서 확인한 ‘1인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2. 선행 연구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의미의 단어 ‘1인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때 연구 과정에서

‘1인분’은 기존 언어 사용자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는 동시에 새롭게 지닌 의미를 다른 맥락에서 사용한다는 사용 양상을 핵심 생각으로 다룬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세 가지의 방향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신어의 생성과 원인 그리고 자리매김한 신어에 관한 연구이다. 셋째 게임에서 사용하여 사회적인 신어가 된 언어에 관한 연구이다.

의미 변화와 관련한 연구 중 신중진(2021)은 ‘의미 변화’의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연구자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연도별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그와 함께 연구자들이 수용한 의미 변화의 이론을 소개한다. Meillet와 Ullmann의 의미 변화 이론을 통해 의미 변화의 요인과 원인을 정리하며 의미 변화에 관한 방법론과 의미 변화의 성질 방법론을 말한다. 이때 두 연구자의 이론 외에 의미 변화의 요인으로 첨가한 문화성과 의미 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사회적 원인을 이 연구에서 살피고자 한다. 의미 변화의 다양한 요인과 원인 가운데서 언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며 문화성과 사회적 원인은 언어의 의미 변화에 더욱 적극적인 영향이 되었다. 그와 함께 의미 변화 연구 중 의미가 달라진 단어를 분석하고 실제 사용 양상을 확인하는 연구인 이민우(2011)는 말뭉치를 분석하여 동사 ‘놓-’의 의미 변화의 양상을, 조남호(2001)는 마누라의 시대별 의미 변화 연구를 했다. 이 두 연구는 동사의 어근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뭉치와 시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1인분’의 경우와 같이 활발하게 쓰이는 기존 의미와 함께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 다른 상황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에 관한 연구 성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신어에 관한 연구로는 문금현(1999), 김지혜(2018), 최형용(2019), 이수진(2002), 송현주(2022)를 확인했다. 문금현(1999)은 신어를 통해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신어의 생성 동기에 따라 자연적인 방식과 인위적인 방식으로 구분한다. 김지혜(2018)는 신어가 만들어진 후 정착하게 되는 요인을 언어의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말한다. 물론 신어의 소멸과 정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신어는 언어 사용자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와 더불어 사회와 문화 요소가 정착 여부와 밀접하다고 말한다. 최형용(2019)은 신어의 범위와 함께 신어의 의미 관계를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로 구분하여 말한다. 이수진(2002)은 신어의 생성을 언어의 역동성을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된 신어를 총 16개의 의미 범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이때 신어의 과반수가 사회·경제·정치와 행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송현주(2022)는 의미적 신어를 중심으로 신어와의 의미 관계를 말한다. 의미적 신어는 부정적 의미가 약화하거나 사라진 경우, 전문적 영역에서 사용되던 의미가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소개한다. 그와 함께 신어의 의미 관계를 유의 관계와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신어 연구에서 형태 중심으로 성과가 축적되었다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의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연구적 의의가 있다. 신어에 관한 연구 성과 중 새로운 ‘1인분’의 특성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표 1> 신어에 관한 연구 성과를 통해 살피는 새로운 ‘1인분’

단어	문금현(1999)	김지혜(2018)	최형용(2019)	이수진(2022)	송현주(2022)
‘1인분’	• 사회 이해 • 자연적인 방식	• 언어 사용자의 욕구 • 문화 요소 밀접	• 기존 ‘1인분’과 유의 관계	• 사회생활 의미 범주	• 단어 의미의 확장

실제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게 되는 많은 표현이 게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혹은 그에 관한 내용이 블로그 기사¹⁾에서 종종 다뤄진다. 실제 삶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는 ‘신박하다’²⁾와 ‘하드캐리’³⁾를 생각할 수 있다. 이선영·이영경(2019)은 ‘-템’이라는 어근이 붙어 만들어지는 신어에 대해 살필 때 신어의 시작점이 게임 분야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게임에서 생성되어 사회 분야로 확장되는 신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의미의 ‘1인분’ 역시 게임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단어이다. 게임에서는 특히 결투를 통한 승리를 과업으로 삼고 능력치를 키워가야 할 때 개인이 해내야 하는 몫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에서 사용하게 된 ‘1인분’이 게임을 넘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사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라는 삶의 전반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새로운 단어의 시작점을 살펴야 하는 유의미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선행 연구는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와 신어에 대한 것이었다. 앞선 연구 성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 다루는 ‘1인분’의 의미 변화의 원인과 요인 그리고 신어적 특성을 볼 수 있었지만, 기존 의미는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의미가 생긴 ‘1인분’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어지는 3장과 4장을 통해 기존 연구 성과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1인분’의 사용과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3. 새로운 ‘1인분’의 의미와 사용: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뉴스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1인분’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지니게 된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1인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핀 후 달라진 새로운 의미와 그 사용 맥락을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뉴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1인분’의 의미를 사전에서 확인했을 때 그에 관한 의미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인분’을 검색했다.

1) ‘2022년 최고의 유행어...“꺾이지 않는 마음”’ GAMEPEL <http://www.game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90> 2022년 12월 20일 입력

2) ‘[교양공감] 알쏭달쏭, 게임에서 비롯된 신조어들’ brunch <https://brunch.co.kr/@pjsprau/70> 2017년 10월 20일 작성

3) ‘일상 속 신조어, 출처는 게임?’ KRAFTON <https://blog.krafton.com/1223/> 2019년 12월 3일 입력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의존명사)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의 양을 재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⁴⁾
 우리말샘⁵⁾: (의존 명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람 수를 기준으로 분량을 세는 단위.
 한자어 수와 함께 쓴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서 밝히고 있는 ‘인분’의 의미는 공통으로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는 분량이라는 것이다. 우리말샘에서는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단어가 쓰이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사람 수를 기준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분량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다. 어휘 사전은 아니지만, 언어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1인분’의 단어 형성에 관해 설명한다.

‘1인분’의 단어 형성: ‘1인분’은 ‘1인’ 뒤에, ‘분량’의 뜻을 더하는 ‘-분(分)’이 붙어 만들어진 말입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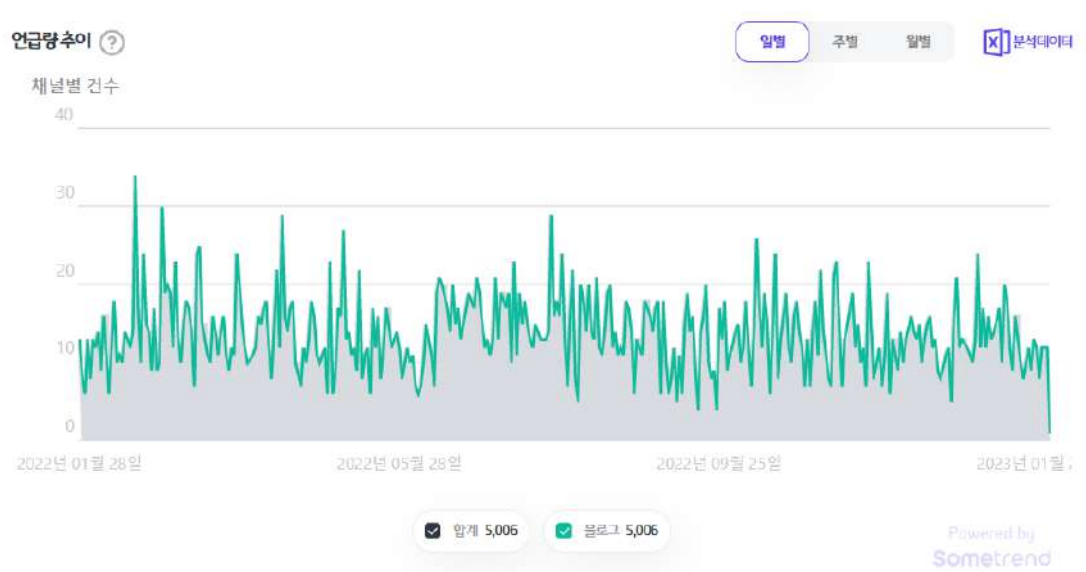
이 역시 우리말샘과 같이 1인의 분량의 의미 정도로 단어 형성 관점에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어휘 사전과 국립국어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1인분’의 의미는 매우 익숙한 의미이다. 새롭게 형성된 의미의 ‘1인분’은 아직 언급되지 않는다. 사전에서 말하는 바를 토대로 아래 표를 통해 기존 ‘1인분’과 의미 변화가 이뤄진 새로운 ‘1인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1인분’과 새로운 ‘1인분’의 의미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형태는 완벽하게 같다. 더불어 ‘어떤 것’의 분량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분량의 대상이 되는 것이 먹을 것에서 해야 할 것으로 의미가 변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전영철(2016)이 정리하여 기술한 인지의미론에 따르면 언어 표현의 의미와 인간의 정신에 자리 잡은 표상과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기존의 ‘1인분’의 의미와 새로운 ‘1인분’의 의미가 대응하고 있는 정신의 표상에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1인분’이 사용 되는 양상을 확인하며 그 부분에 대해 더 밝히고자 한다.

<표 2> 기존 ‘1인분’과 새로운 ‘1인분’의 차이 확인

단어(형태)	분량의 의미	대상
기존 ‘1인분’	○	먹을 것(음식 의미)
새로운 ‘1인분’	○	해야 할 것(역할 의미)

4) ‘인분’ 검색 결과 고려대한국어사전-NAVER 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3fb3ebbe0f04d6fa254bb56e3e5312f>
 5) 실생활에서 쓰는 말, 새로이 나타난 말, 지역에서 쓰는 말 등을 국민과 함께 모으고 만들어가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이다. 국립국어원 사전 소개 https://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014&mn_id=193 ‘인분’ 검색 결과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72211&viewType=confirm
 6) “1인분’의 단어 형성’ 우리말 바로쓰기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https://ko.dict.naver.com/#/correct/korean/info?seq=320> 2010.01.28. 작성

이 연구에서는 사전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1인분’을 언어 사용자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새로운 의미의 ‘1인분’의 실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썸트렌드7)의 단어 언급량 추이 분석과 함께 매체별 사용 양상을 확인했다. 언급량 추이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로 1년간의 ‘1인분’이 언급된 횟수와 실제 사용을 검색했다. ‘1인분’의 기존 의미가 일반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단어라는 것을 고려하여 ‘1인분’과 ‘역할’을 함께 검색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는 새로운 의미의 ‘1인분’을 결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매체별 순서는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뉴스이다.



<그림 1> ‘1인분’ ‘역할’ 네이버 블로그 검색, 2022년 1월 28일 ~ 2023년 1월 27일

- (1) 조용한 사직은 보통 **1인분** 이상 해내는 사람들이 “나 지쳐서 이제부터는 **1인분**만 할래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고 월급루팡은 **1인분**에도 못미치게 일을 해놓고서 “나 일했으니깐 **1인분**만큼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니 실상 둘이 반대인 셈이다.⁸⁾
- (2) 항상 최소 **1인분**의 몫을 해야한다는 이상한? 부담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이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⁹⁾
- (3) 10시 30분 - 10시 퇴근에 적응되기 전에 업무도 적응 과정이라 피곤했지만 **1인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게 더 힘들었다.¹⁰⁾
- (4) 글썄요... 일단 회사 내부에서 **1인분**을 할 수 있을정도로 성장해내는게 1차적인 목표이고, 회사에 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¹¹⁾

7) 썸트렌드는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 바이브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SNS 빅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사람들이 SNS에 작성한 문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원문을 제공한다. 썸트렌드란? <https://some.co.kr/service/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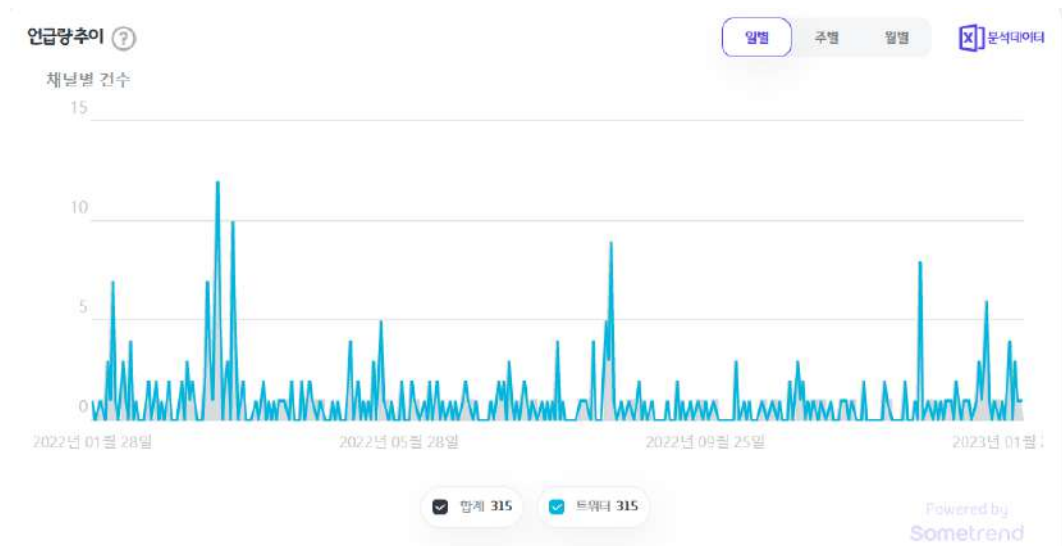
8)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 혼자 주절대는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ccess3747/222995877533> 2023.01.27. 작성

9) ‘23.01.17 어른이되면’ 지이 발자국 <https://blog.naver.com/ssw6913/222994353584> 2023.01.26. 작성

10) ‘브레이크타임에 메뉴를 외우는 일’ Writemotion <https://blog.naver.com/gchhg2005> 2023.01.23. wkrtjd

- (5) 수영도 배우고 **1인분**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¹²⁾
- (6) 경기 내에서 **1인분**을 하는 중앙 수비수는 랑글레, 벤 데이비스, 로베로밖에 없습니다.¹³⁾
- (7) 내 입장에서 비혼이나, 결혼이나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나 스스로가 온전한 **1인분**의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¹⁴⁾
- (8) **1인분** 역할 잘하기¹⁵⁾

네이버 블로그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의 개인적 취향과 관심사 그리고 개성 있는 어투 사용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이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 2022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언급된 ‘1인분’에 대한 결과 총 5,006번의 언급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언급된 블로그의 글부터 8개의 실제 사용 내용을 확인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로 기술했다.



<그림 2> ‘1인분’ 그리고 ‘역할’ 트위터 검색 결과, 2022년 1월 28일 ~ 2023년 1월 27일

- (1) 찬헌이 작년에 **1인분**도 못한거 개빡치긴 했어도 투수조베테랑역은 그래도 해준거같고...¹⁶⁾
- (2) 늘 자신이 이 팀에서 **1인분** 정도의 일은 하고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그래도 최연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세진이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청우도...¹⁷⁾

11) ‘[일상일기] 취업 그리고 이사(나의 이사이야기)’ 패션이란 무엇일까 <https://blog.naver.com/hearud2/222991283537> 2023.01.23. 작성

12) ‘(영화후기) 아바타 2’ 너나위처럼 <https://blog.naver.com/paramedic9406/222990979476> 2023.01.22. 작성

13) ‘토틀름 왜 이렇게 부진할까? (2)’ 복현동 홀리건 https://blog.naver.com/bokhyeon_hooligan/222990706430 2023.01.21. 작성

14) ‘2023년 첫 명절과 결혼에 대해’ 30대 백수의 나를 찾는 여행기 https://blog.naver.com/district9_book/222990584634 2023.01.21.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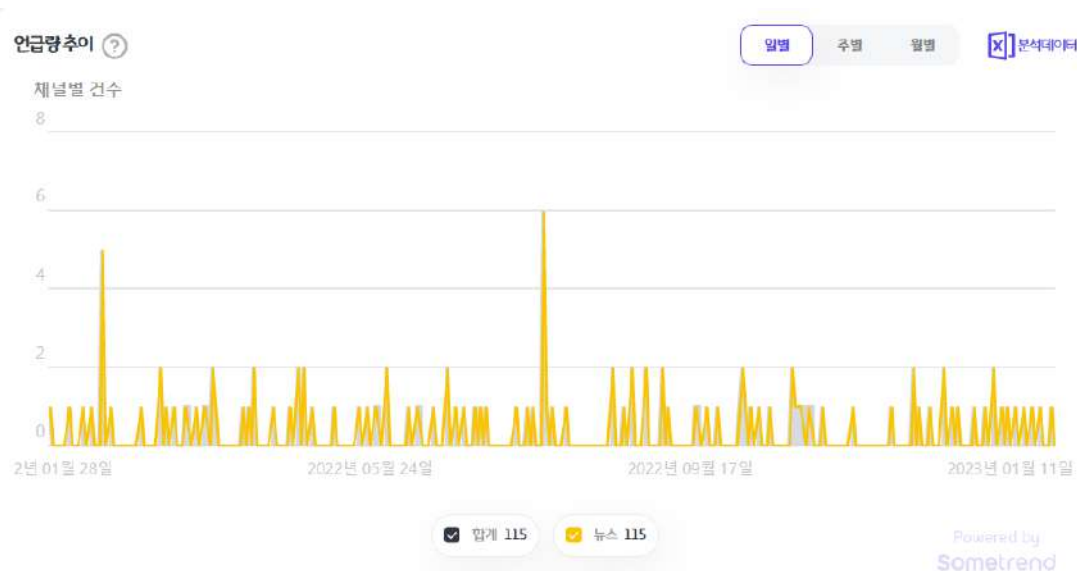
15) ‘Hi 2023’ NAMSSI :: Blog <https://blog.naver.com/namssiblog/222990080706> 2023.01.20. 작성

16) 차펜 @cha_pen5 https://twitter.com/cha_pen5/status/1618628441510940679 2023.01.13. 작성

17) 봄 @byop___ https://twitter.com/byop___/status/1618302331866734592 2023.01.26. 작성

- (3) 아무래도 신기사니까 맡은 역할에서 **1인분**은 하겠지만 평소엔 그냥 싸움 자체에 흥미가 없을 것 같네요¹⁸⁾
- (4) 다들 **1인분**은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¹⁹⁾
- (5) 업계 물 좀 먹은 사람 중 자꾸 주니어를 벗어나려면 뭘 해야 한다거나 자기 역할 **1인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데, 그거 다 자체 기준이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값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 있나?²⁰⁾
- (6) 교생이나 실습생이 과연 **1인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²¹⁾
- (7) 그리고 원 트윗과는 다르게 큰 회사들은 당장 **1인분** 할 개발자 없다고는 불평 크게 안하는 것 같음.²²⁾
- (8) 나는 내가 그 자리에서 **1인분**을 다하는 것(신조를 지키든 PC의 캐릭성을 지키든)을 전제로 서로 어우러지다가 다시 포지션을 정립하며 이기는 역할, 지는 역할의 시너지를 내는 걸 좋아하는 거지 누굴 설득해라!²³⁾

트위터는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 짧은 시간에 생각을 속도감 있게 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어떤 특정 사건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마치 댓글이 다는 듯한 방식으로 남길 수 있다. 트위터 검색 결과 2022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언급된 ‘1인분’에 대한 결과 총 315건의 언급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언급된 트위터의 글부터 8개의 실제 사용 내용을 확인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로 기술했다.



<그림 3> ‘1인분’ 그리고 ‘역할’ 인터넷 뉴스 검색 결과, 2022년 1월 28일 ~ 2023년 1월 27일

18) 키위 @ourgreenyday <https://twitter.com/ourgreenyday/status/1617973271982673922> 2023.01.25. 작성

19) 11.13 @forsonnenblumly <https://twitter.com/forsonnenblumly/status/1615118534350077952> 2023.01.17. 작성

20) Hyun-woo Park @lqez <https://twitter.com/kssjetaime/status/1613890280759136257> 2023.01.12. 작성

21) 4= 4≠ PANG @Panguin0619 <https://twitter.com/Panguin0619/status/1613419888135262208> 2023.01.12. 작성

22) 유진숙의 타임보이요 @Final_Fall <https://twitter.com/EjjiBlue/status/1612973930356305921> 2023.01.10. 작성

23) 니레 @ainography <https://twitter.com/ainography/status/1612405232256061441> 2023.01.19. 작성

- (1) 채용됐으면 적어도 **1인분**의 일은 해나가야 한다²⁴⁾
- (2) 가드진 줄부상시 나와서 **1인분**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²⁵⁾
- (3) 수비에서는 늘 **1인분**의 몫을 했다.²⁶⁾
- (4) 두 사람이 **1인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주연 다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때다.²⁷⁾
- (5) 2019-2020 시즌 72경기에 출전, 경기다 12.1 득점 5.1 어시스트를 기록, NBA 포인트가드로서 **1인분**의 역할만큼은 확실히 해냈다.²⁸⁾
- (6) 이태양은 30경기(17선발) 112이닝 8승 3패 1홀드 평균자책점 3.62로 활약하며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냈다.²⁹⁾
- (7) 이뿐 아니라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를 총횡무진 넘나드는 등 모든 포지션에 배치하더라도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줄 선수임에 분명하다.³⁰⁾
- (8) 네 선수 모두 출전했을시 **1인분**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³¹⁾

인터넷 뉴스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와 트위터와 달리 뉴스 주제의 선정 제약과 기술 방식의 제한이 큰 매체이다. 문장을 구성할 때 역시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 언급 검색 결과 2022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총 언급량은 115개였다.

새로운 의미의 ‘1인분’을 사용한 실제 예시를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 확인했다. 이때 ‘1인분’이 포함된 문장의 내용과 함께 이수진(2022) 분류한 16개의 의미 범주에 따라 그 내용을 구분하였다. 이때 16개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따로 구분하여 표에 기술하였다. 이러한 확인 과정에서 새로운 ‘1인분’의 의미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확인한 내용을 아래의 표로 재정리하였다.

<표 4> 매체별 ‘1인분’의 실제 사용 양상과 판단 기준 분류

번호	매체	내용	의미 범주	판단 기준
1	네이버	(1) 조용한 사직은 보통 1인분이상 해내는 사람들이 “나	사회생활	자신

- 24) ‘기성세대보다 더 권위적이라는데...‘젊은 꼰대’ 그들은 누구인가’ 매경ECONOM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79636?rc=N&ntype=RANKING> 2023.01.22. 입력
- 25) ‘[NBA] 보스턴 에이스 테이텀, 방출된 챔바 워커 영입 러브콜 보냈다!’ JUMPBALL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65&aid=0000240558> 2023.01.08. 입력
- 26) ‘IBK 살림 책임지는 표승주, 득점도 김연경 다음 국내 2위...이대로면 데뷔 첫 500점도 꿈 아니다’ MK스포츠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410&aid=0000911929> 2022.12.13. 입력
- 27) ‘[HI★첫방] ‘금혼령’ 박주현·김영대, 주연의 존재감 필요할 때’ 한국일보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469&aid=0000712155> 2022.12.09. 입력
- 28) ‘[NBA 모두가 잊은 ‘황금 드래프트 1순위 출신’, 709일만에 부활’ JUMPBALL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65&aid=0000239019> 2022.12.07. 입력
- 29) “‘아직 몸 대신 입만 풀었어요” 이태양은 한국시리즈가 마냥 좋다 [KS3]’ 엑스포츠뉴스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311&aid=0001520694> 2022.11.04. 입력
- 30) ‘36년 만에 본선행 캐나다, 4년 뒤 위한 초석 다질 수 있을까?’ OhmyNews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47&aid=0002371070> 2022.10.30. 입력
- 31) ‘무적함대’ 스페인, 세대교체 통해 12년만에 월드컵 우승 도전’ OhmyNews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47&aid=0002370935> 2022.10.28. 입력

	블로그	지쳐서 이제부터는 1인분만 할래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고 월급루팡은 1인분에도 못미치게 일을 해놓고서 “나 일했으니깐 1인분만큼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니 실상 둘이 반대인 셈이다.		
2	네이버 블로그	(2) 항상 최소 1인분의 몫을 해야한다는 이상한? 부담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삶	자신
3	네이버 블로그	(3) 10시 30분 - 10시 퇴근에 적응되기 전에 업무도 적응 과정이라 피곤했지만 1인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게 더 힘들었다.	사회생활	자신
4	네이버 블로그	(4) 글썄요... 일단 회사 내부에서 1인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내는게 1차적인 목표이고,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회생활	자신
5	네이버 블로그	(5) 수영도 배우고 1인분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삶	자신
6	네이버 블로그	(6) 경기 내에서 1인분을 하는 중앙 수비수는 랑글레, 벤데이비스, 로베로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타인
7	네이버 블로그	(7) 내 입장에서는 비혼이나, 결혼이나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나 스스로가 온전한 1인분의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삶	자신
8	네이버 블로그	(8) 1인분역할 잘하기	삶	자신
9	트위터	(1) 찬헌이 작년에 1인분도 못한거 개빡치긴 했어도 투수조베테랑역은 그래도 해준거같고...	스포츠	타인
10	트위터	(2) 늘 자신이 이 팀에서 1인분정도의 일은 하고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그래도 최연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세진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청우도...	스포츠	타인
11	트위터	(3) 아무래도 신기사니까 맡은 역할에서 1인분은 하겠지만 평소엔 그냥 싸움 자체에 흥미가 없을 것 같네요	통신 및 게임	타인
12	트위터	(4) 다들 1인분은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삶	타인
13	트위터	(5) 업게 물 좀 먹은 사람 중 자꾸 주니어를 벗어나려면 뭘 해야 한다가나 자기 역할 1인분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데, 그거 다 자체 기준이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값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 있나?	사회생활	자신
14	트위터	(6) 교생이나 실습생이 과연 1인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	사회생활	타인
15	트위터	(7) 그리고 원 트윗과는 다르게 큰 회사들은 당장 1인분 할 개발자 없다고는 불평 크게 안하는 것 같음.	사회생활	타인
16	트위터	(8) 나는 내가 그 자리에서 1인분을 다하는 것(신조를 지키든 PC의 캐릭성을 지키든)을 전제로 서로 어우러지다가 다시 포지션을 정립하며 이기는 역할, 지는 역할의 시너지를 내는 걸 좋아하는 거지 누구 설득해라!	통신 및 게임	자신
17	인터넷 뉴스	(1) 채용됐으면 적어도 1인분의 일은 해나가야 한다	사회생활	타인
18	인터넷 뉴스	(2) 가드진 줄부상시 나와서 1인분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스포츠	타인
19	인터넷 뉴스	(3) 수비에서는 늘 1인분의 몫을 했다.	스포츠	타인
20	인터넷 뉴스	(4) 두 사람이 1인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주연 다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때다.	엔터테인먼트	타인

21	인터넷 뉴스	(5) 2019-2020 시즌 72경기에 출전, 경기다 12.1 득점 5.1 어시스트를 기록, NBA 포인트가드로서 1인분의 역할만큼은 확실히 해냈다.	스포츠	타인
22	인터넷 뉴스	(6) 이태양은 30경기(17선발) 112이닝 8승 3패 1홀드 평균자책점 3.62로 활약하며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냈다.	스포츠	타인
23	인터넷 뉴스	(7) 이뿐 아니라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를 총횡무진 넘나드는 등 모든 포지션에 배치하더라도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줄 선수임에 분명하다.	스포츠	타인
24	인터넷 뉴스	(8) 네 선수 모두 출전했을시 1인분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스포츠	타인

앞서 다루었던 매체별 ‘1인분’의 실제 사용을 표를 통해 정리하며 그 단어가 쓰인 내용 영역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때 총 24개의 예시 중 사회생활 7개, 스포츠 9개, 삶 5개, 통신 및 게임 2개, 엔터테인먼트 1개였다. 물론 조사 기간 내 모든 경우를 볼 수 없었기에 특정 영역에서 이 단어를 가장 많은 빈도로 언급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된 ‘1인분’이 특정 한 영역이 아닌 다양한 사회의 영역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접근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1인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자신 혹은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영역에서 부여된 한 사람의 몫을 했는지, 해야 하는데 혹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의 몫을 다했는지 판단할 때도 해당 단어를 사용했다. 다시 말해, 자신 스스로나 타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미 변화한 ‘1인분’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의미의 ‘1인분’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시점에서 의미 변화한 새로운 ‘1인분’을 언어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4. 새로운 ‘1인분’과 MZ세대 담론

이 연구에서는 ‘1인분’의 새로운 의미와 함께 사용되는 맥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정 생각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1인분’이 의미하는 바가 한 사람의 사회적 분량 혹은 역할의 양을 단순히 나타내는 의미를 넘어, 한 개인이 제대로 자신에게 부여된 몫을 했는지, 혹은 나와 함께 일하는 타인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지표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존 ‘1인분’이 사용되던 의미와 상황 맥락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1인분’이 사용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살필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신어를 발견하는 유의미한 순간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신어를 이해하기 위해 신중진(2021)이 밝힌 언어의 의미 변화에서 사회적 원인이 작용한다는 논의를 발전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시점의 모

습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어의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MZ세대³²⁾ 담론을 함께 살핀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말한다. 현재 20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이르는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세대 개념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연령대로, 대학에서부터 여러 직업군에 포진된 세대이다. 이런 MZ세대는 기성세대라 할 수 있는 세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사회를 이해하고 말해 오던 방식에서 다루기 어려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렇기에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임에도 사회적으로 계속된 부정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한 관심은 MZ세대를 향한 부정적인 담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새로운 의미의 ‘1인분’을 생성하고 언어 사용자가 활발히 사용하는 데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MZ세대에 관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확인했다. 유정균(2021)은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MZ세대의 특성을 말한다. 근래에 들어서며 많은 사회 집단과 언론에서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을 다루며 MZ세대의 문제를 꼬집는 듯한 언급이 많으면서도 실제 MZ세대의 삶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MZ세대의 생각을 밝히고 그들의 이해하는 데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최섫별(2022)은 MZ세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고 말하며, MZ 세대의 핵심 정체성이 디지털네이티브³³⁾라 말한다. 이들은 실제 삶보다 온라인의 삶을 더 익숙하게 느끼며 사회적 관계 역시 SNS를 통한 다수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관심사와 취미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한시적으로 맺는 것이 특징이다. 그와 함께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말한다. 양승훈(2022)은 MZ세대 중 연령대가 20대인 Z세대는 이렇게 특정 용어로 묶이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 한다. MZ세대에 관한 부정적인 담론은 시대별로 존재했던 부정적인 청년담론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자는 MZ세대에 관한 부정적인 담론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강점을 주목하지 않은 시대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MZ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 사회 모습을 기대한다고 한다. 이렇게 확인한 근래의 MZ세대에 관한 연구 세 편을 통해 아래와 같이 MZ세대 담론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MZ세대 담론 핵심 내용

1. 기성세대가 이룩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거부한다.
2.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한시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3. 개인 중심적이다.

32) MZ세대는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00733&cid=43667&categoryId=43667>

33) '디지털네이티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6988&cid=43665&categoryId=43665>

정리된 핵심 담론을 통해 MZ세대가 가지게 되는 사회적·관계적 어려움을 엿볼 수 있었다. 계속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은 내재하는 상태에서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회적 개인으로의 의미적 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된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스스로 제대로 된 몫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함께 혼란을 겪는 개인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지금도 존재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갈등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더 답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개인이 해내야 하는 분량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존재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보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된 ‘1인분’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폈다. 지금까지 언어 의미 변화와 신어에 관한 연구 성과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 의미가 있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기존 ‘1인분’이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과 관련한 의미는 활발하게 사용된다. 그와 함께 개인의 사회적·업무적 역할의 양으로의 의미 역시 다양한 매체와 여러 언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이렇게 사용되는 새로운 의미의 ‘1인분’이 게임에서 처음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 신어 중 그 처음 사용 시작점이 게임인 단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에 관한 연구 성과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 생성되고 사용하게 될 신어에 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게임과 신어에 상관성과 생성 기제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담론이 단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문화·경제를 이끄는 핵심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함께 새로운 사회 전반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때 기존에 유지해 오던 공동체 중심의 생각들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의미의 ‘1인분’에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일정한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내재한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과 더불어 타인인 누군가가 사회 안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또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생각은 계속해서 어떠한 것이든 꼭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압박을 주어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부담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언어 사용자가 ‘1인분’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 생각한다. 아직 ‘1인분’의 새로운 의미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을 만큼 양적으로 축적된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 의미에 관한 고민을 권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 김선애(2021), MZ세대의 직업문화, 충북 Issue & Trend 45, 14-19, 충북연구원.
- 김지혜(2018), 신어의 정착에 기여하는 언어의 내·외적 요인 분석 : 2005년 신어 중 단일어를 중심으로, 대학교양교육연구2(3), 29-54,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295~325, 국어학회.
- 송현주(2022), 의미적 신어와 신어의 의미 관계, 한국어 의미학 76, 103-131, 한국어의미학회.
- 신중진(2021), 의미 변화 이론의 수용 그리고 새 관점, 한국어 의미학 72, 31-57, 한국어의미학회.
- 양승훈(2022), ‘MZ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철학과 현실 132, 77-94, 철학문화연구소.
- 유정균(2021), MZ세대를 들여다보다, 이슈&진단 479, 1-25, 경기연구원.
- 이민우(2011), 한국어 동사 ‘놓-’의 의미 변화 양상 분석, 한국어 의미학 36, 265-283, 한국어의미학회.
- 이선영·이영경(2019), 신어 형성과 어휘의 확장 - ‘템’ 관련 신어를 중심으로, 泮橋語文研究 51, 169-189, 반교어문학회.
- 이수진(2022), 2015-2020년 신어의 사회문화적 특성 연구-‘사회·경제·정치’ 영역 신어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94, 99-131, 한국문학언어학회.
- 전영철(2016), 한국어 의미 연구와 의미 이론, 한글 313, 5-25, 한글학회.
- 조남호(2001), “마누라”의 의미 변천, 한국어 의미학 9, 199-220, 한국어의미학회.
- 최샛별(2022), 한국의 M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지식의 지평 32, 63-76, 대우재단.
- 최형용(2019), 의미 관계와 신어 형성, 한국어 의미학 66, 35-74, 한국어의미학회.

참고 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 네이버 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
- 썸트렌드 <https://some.co.kr/>

“‘1인분’의 의미 변화 - MZ세대 담론을 함께 살피며 -”에 대한 토론문

김산(고려대)

이 발표문에서는 ‘1인분’이라는 표현이 <한 사람이 해내야 하는 사회적 분량 혹은 역할의 양>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밝히고 ‘역할’ 관련 맥락에서의 그 사용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 사회적 원인과 의미 변화의 특징도 지적하였습니다. 덕분에 ‘1인분’이라는 표현의 사용 양상을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토론문은 발표문 읽는 과정에서 들었던 의문 2가지를 적은 것입니다.

1. ‘1인분’의 의미.

‘1인분’의 의미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인분’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말씀부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발표문에서 제시된 <한 사람이 해내야 하는 사회적 분량 혹은 역할의 양>이라는 의미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새로운 의미 말고 기존의 의미로 분석될 가능성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어 봅니다.

발표문에 제시된 ‘1인분’ 예문을 봤을 때, <한 사람이 해내야 하는 사회적 분량 혹은 역할의 양>의 새로운 의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맥락이 회사, 스포츠 팀, 사회 등인데, 이들은 대략 ‘한 사람이 소속된 조직’으로 정리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 [역할]이라는 의미는 과연 ‘1인분’의 것인지, 맥락에서 온 것은 아닌지, 이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1인분’이 [역할]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대상은 자연스레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소속 조직’ 관련 요소들이 사라져 맥락이 중립적일 경우에, 예문 자체로만 보았을 때, 그 ‘1인분’의 대상은 역할 말고 음식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은 <어떤 사람이 음식이나 어떤 제작물을 1인용 분량만 만들겠다고 선언하다> 정도로 분석될 수도 있고, (2)는 <항상 적어도 1인용 분량의 음식이나 제작물을 만들어야 된다> 정도로 분석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1인분’은 역할 관련 의미 보다는, 단순히 <1인 분량> 정도로 분석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나 지쳐서 이제부터는 **1인분**만 할래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고...

(2) 항상 최소 **1인분**의 몫을 해야 한다는...

(토론자: ‘몫’이 <역할 분량>의 뜻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맥락에서 지워 봤습니다)

한편, 발표문에서는 기존 ‘1인분’의 의미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제시하고, 그 근거로 ‘인분’과 ‘1인분’의 사용 맥락이 많은 경우에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관찰을 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맥락 속에 항상 ‘음식’이나 ‘취식’ 관련 표현들이 동반된다”는 점이, 그 [먹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가 ‘인분’, ‘1인분’의 것이라기보다는 맥락 속의 ‘음식’이나 ‘취식’ 관련 표현의 것일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인분’은 ‘물감 100인분’과 같은 사용례도 있는데요,¹⁾ 이것을 다음 (3), (4)에 ‘음식’ 대신 넣어 보면, 예문들의 의미는 [먹을 수 있는]과 무관해 지게 되는 듯합니다. 그러면 ‘인분’은 기존에 사전에서 제시된 대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람 수를 기준으로 분량을 세는 단위>로 분석될 수 있고, ‘1인분’의 기존 의미도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 제시된 대로, <1인의 분량> 정도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3)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인분’ 예문.

김치찌개 이 **인분**

불고기 일 **인분**은 팔지 않습니다.

여기요, 불고기 삼 **인분** 추가요.

떡볶어 4**인분**을 둘이서 다 먹어 치웠다.

(4) 「우리말샘」에 제시된 ‘인분’ 예문.

아만찬에는 기부자들이 제공한 3000**인분**의 음식이 마련됐다.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체가 소외 계층을 위해 떡볶어 2012**인분**을 나눠 주는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으로 ‘1인분’에 대해 “<1인 분량>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 대상으로 ‘먹을 것’과 ‘해야 할 것’을 취할 수 있다” 정도로 분석할 가능성을 제기해 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1인분’의 의미 변화 특징

발표문에서는 ‘1인분’의 의미 변화 특징에 대해, 그 새로운 의미가 기존 의미와 동시에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1인분’의 의미 변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새로운 의미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새로운 의미가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일단 ‘의미 변화’의 정의를 의미론 개론서에서 찾아보면 “하나의 형식에 대한 중심적 의미가 A에서 과도기를 거쳐 B로 바뀌는 현상인데, 이 과정에서 A, B가 공존하는 중간 단계

1) 출처: <https://blog.naver.com/dearmycanvas/222415397195>

를 거치게 된다.” 정도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윤평현 2008: 193-195, 임지룡 2018: 318-321 등 참고).

위 정의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발표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의미와 기존 의미가 동시에 활발하게 사용되는 현상’은 ‘1인분’ 특유의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의미 변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거치는 중간 단계로 보이는데요, 혹시 발표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의미 변화’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1인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은 특징이 자세하게는 어떤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의 임시어 형성 연구

이찬영(연세대)·윤나영(연세대)

1. 서론

단어 형성론의 주된 목적은 공시적인 단어 형성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화자의 단어 형성 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단어의 형태를 분석하여 의미를 해석해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탐구하는 ‘표현론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정한데로 2019),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 역시 사전 등재어와 같은 공인어가 아니라 화자의 즉각적인 형성 동기에 따라 명명된 결과인 ‘임시어’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단어 형성 연구에 있어서 ‘임시어를 중심으로 한 표현론적 접근법’이 지닌 중요성과 의의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반면, 임시어와 표현론적 접근법의 개념에 충분히 부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화자가 즉각적인 형성 동기를 지니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그렇게 형성된 결과로서의 임시어를 수집하는 과정은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단어 형성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어’ 자료는 어느 정도 공인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사용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공시적 단어 형성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다른 방법론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자연스러운 단어 형성 양상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화자의 공시적 단어 형성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대상인 ‘임시어’의 정의적 속성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고자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의 임시어 형성 양상을 관찰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일반 화자들이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단어 형성 동기에 의해 다양한 임시어들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연구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진정한 임시어 형성의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었던 연구 대상 자료의 폭을 넓힘으로써 이전까지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단어 형성 양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임시어 형성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들을 통해 관찰 대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본고에서 생각하는 임시어 형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임시어 형성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서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을 제시하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임시어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임시어 자료 분석 결과로부터 확인된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들로부터 단어 형성론적 의의에 대해 고찰한다.

2. 임시어 형성 현장으로서의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

2.1. 임시어 형성 연구의 흐름과 한계

오랜 기간 동안 단어 형성론의 주된 탐구 대상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표준(norm)으로 규약화(conventionalization)된 것으로 한정되어 왔다. 즉 사전 등재어나 일부 공인을 받은 신어 등과 같이 대부분의 언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단어만이 단어로서의 ‘실재성’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되어 온 것이다. 물론 이들 단어도 최초에는 누군가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그 형성 방식을 논할 수 있겠으나, ‘저장’과 ‘변화’라는 통시적 과정 역시 수반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단어 형성 능력이 발휘되는 시점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전 등재어 및 공인어에 대해서만 실재성을 부여하고 관찰 대상으로 삼은 연구의 흐름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는 이미 여러 논의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이상욱 2004, 2007; 김민국 2009; 정한데로 2013가, 2013나, 2014나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자의 단어 형성 능력을 반영해 주는 대상으로 ‘임시어(nonce words)’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임시어는 ‘화자의 즉각적인 필요(immediate need)에 의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복합어’로 정의된다(Bauer 1983: 45). 이 정의는 ‘임시어 형성 → 공인화 → 어휘화’와 같은 과정을 전제로 하는데, 즉 모든 단어는 형성될 때 임시어의 자격을 가지며 그중 대다수는 사용 이후 금방 사라지고 일부는 사전에 등재되는 등의 공인화 과정을 거친다. 달리 말하면 임시어는 외부의 요인에 의한 제약이나 변화의 과정이 개입되지 않고 형성의 순간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들로서, 화자의 공시적 단어 형성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이 단어 형성론의 연구 대상으로서 임시어가 지닌 중요성과 가치는 여러 논의에서 강조되었지만, 실제적 차원에서의 탐색은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임시어는 대개 발화의 시점에 그 지위를 유지하다가 직후 사라져서 그 실체를 적절히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개별 화자에 의해 하루에도 수없이 이루어지는 문장의 형성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단어의 형성은 훨씬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화자가 새로운 개념 및 대상을 명명하기 위해 단어를 형성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자료를 얻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구 대상으로서의 임시어가 지닌 중요성이 강조된 것에 비해 실제로 임시어

자료를 관찰함으로써 단어 형성론적 의의를 도출해 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에서 채택된 방안이 바로 ‘신어’에 대한 탐구이다. 오늘날의 단어 형성론 연구는 신어 자료를 직접적인 관찰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어는 사전 등재어나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단어들과 비교했을 때 형성의 순간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미처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성 방식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어는 사전 등재어 등에 비해서는 공인화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단어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의미의 양상을 관찰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신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하는 <신어> 조사 자료집에 수록된 단어들을 구체적인 연구 대상 자료로 삼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문 기사 및 방송 뉴스 대본에서의 출현 양상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최준 2020)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의 단어 형성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며 특정한 사용역의 성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임시어의 개념적 속성에 부합하는 연구 대상을 수집하기 위해 ‘명명 과제’를 통해 화자의 공시적인 단어 형성 과정을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정한데로(2013나)에서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그 명칭이 확고하지 않은 개체에 대하여 적절한 명칭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설문 조사 과제를 수행하였다. 박혜진(2019)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명명 과제가 이루어졌고, 이현희(2013)에서는 특정한 색채값을 가지는 색편(color chip)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표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언어화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화자들이 특정한 형식으로 언어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단어 형성의 현장을 적절히 포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명명에 대한 과제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요구된 단어 형성의 결과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단어 형성의 결과물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임시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여 간략하게나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한데로(2014나)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제시해 온 임시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임시어의 개념

	구분	형성	등재	내적 기준
가	임시어1	○	× (사회 어휘부)	×
나	임시어2	○	× (개인 어휘부)	×

다	임시어3	○	× (개인 어휘부)	○
---	------	---	---------------	---

이들 세 유형은 어휘부의 개념 및 내적 기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결국 ‘형성 이후’, ‘등재 이전’의 대상을 명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이때의 임시어는 등재의 단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노명희(2018)에서는 이와 같이 단어의 지위 변화와 관련하여 신어의 전 단계, 즉 등재 이전의 단계로 임시어를 이해한 경우를 ‘임시 사용(nonce use)’이라 하고, ‘임시 형성(nonce formation)’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은 화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어의 지위가 변화하는 과정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임시어가 나타내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노명희(2018)에서는 ‘임시 형성’을 ‘생산적 규칙에 의해 형성되므로 단어의 형성이 임시적이어서 어휘부에 저장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송원용(2000)의 임시어 개념을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형성 과정과 관련한 임시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는 못했다고 본다. 임시어를 ‘임시 형성’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단어 형성의 결과’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가 새롭게 형성되면 그 대상은 임시어로서의 자격을 지니게 되고, 이후 그 중 일부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한편 일부는 신어 또는 공인어의 지위를 획득하며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형성의 시점을 중심에 놓고 있는 본고의 관점에서 ‘단어의 형성’은 곧 ‘임시어의 형성’으로 치환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시어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먼 훗날에 엄연한 공인어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단어도 형성 당시에는 임시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¹⁾

개별 화자가 특정한 지시 개념을 언어화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형성되는 임시어는 화자의 공시적 단어 형성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단어 형성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자료인데, 대부분은 형성 직후 사라져 더 이상 쓰이지 않을뿐더러 형성의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간극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대상 및 방법 중 하나로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의 임시어 형성 양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 자료는 새로운 단어가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화자의 공시적 단어 형성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새로운 대상을 분석한 결과 그간의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이

1) 노명희(2018:52)에서는 임시어를 ‘특수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당면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어진 단어’로 보았는데, 이때 ‘특수한 상황’의 구체적인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다. 예컨대 여기에서 임시어의 예로 제시한 ‘딸바보, 절거지바보’ 등과 ‘일반적인 단어형성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임시어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결정장애, 헬조선, 달관세대’ 등이 가지는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식은 임시어로서 관찰되는 단어들의 대부분은 화자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금방 사라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새롭게 형성된 임시어 중에서 신어 및 공인어로 발달해 가는 단어의 수효가 극히 일부뿐이기 때문이지 임시어는 형성 당시부터 임시어로서의 숙명을 타고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야말로 화자의 공시적 단어 형성 능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2.2.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의 개념과 특성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이란 방송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결합한 새로운 미디어 장르로서(Recktenwald 2017), 특정인이 자신을 촬영하거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송출함과 동시에 시청자들이 접속해서 자유롭게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1> 온라인 스트리밍 화면 구성 예시
(Recktenwald 2017:70)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언어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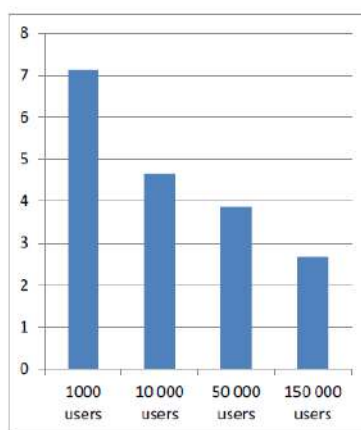
- 가.현장성: 발화의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 나.맥락의존성: 발화가 상황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
- 다.휘발성: 발화가 이루어진 직후 빠르게 사라진다.
- 라.간결성: 발화의 길이가 매우 짧은 편이다.
- 마.자발성: 발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의 특성은 곧 여기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명명의 단위가 임

2) 이찬영(2022)에서는 혼성어 범주에 국한하여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 나타나는 단어 형성 양상을 시론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찬영(2022)에서의 논의를 보충·확장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밝혀 둔다.

시어의 개념에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우선 (1가, 나)와 (1다, 라)는 각각 밀접하게 연관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에 대한 반응이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방송 상에서의 장면이나 상황, 채팅창 내의 다른 발화들 등의 맥락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이는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이 인터넷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변이어(變異語)로서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찰 가능한 발화 상황 중에서 일상 언어에 매우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특성 역시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단어 형성은 화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맥락 의존적인 상황에서의 단어 형성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다, 라)는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 임시어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한다.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은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되지만 다른 통신 언어 매체와는 달리 화자의 발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채팅 참여자가 많을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화자는 자신의 반응이나 의견 등을 긴 문장의 형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또는 구 등의 짧은 형식으로 입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역시 채팅 참여자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Olejniczak(2015:3)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 수와 발화 길이 간에 유의미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남을 밝혔다.



<그림 2> 참여자 수에 따른 문장 당 단어 수 (Olejniczak 2015:3)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는 긴 형식의 발화보다는 단어 단위의 짧은 발화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새로운 임시어 형성 역시 다른 매체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마)는 명명 과제의 결과나 순화어 자료 등과 가지는 주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요구에 따른 단어 형성 결과 역시 엄연한 임시어의 지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화자의 공시적 단어 형성 능력’이 발현된 결과로서의 개념에 더욱 부합하는 것은 화자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형성한 새로운 단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 관찰되는 단어 형성은 과제나 요구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화자의 자발적 욕구 및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발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은 ‘전자 통신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글자 언어’라는 점에서(이정복 2003:21) ‘통신언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통신언어와 관련한 그간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매체로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이 있는데(Georgakopoulou & Spilioti(2016), 허상희 2016, 허상희·최규수 2012, 시정곤·장정우 2017, 김유진 2021 등),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은 이들 매체와 비교했을 때에도 임시어 형성 양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발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자체는 단독적이지만 해당 발화가 타인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방백’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 한편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은 방송 출연자 및 채팅창 내의 다른 참여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상 대화 속에서의 단어 형성 과정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를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고정성을 띠는 다른 매체와 달리, 실시간 채팅은 매우 빠르게 휘발되기 때문에 긴 발화보다는 짧은 단어 위주의 발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매체에 비해 구어성이 높고, 이는 임시어 형성의 동기로 이어지게 된다.

3. 임시어 자료 수집 및 분석

구체적인 분석 대상이 된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 자료

	A	B
방송 주제	과학 특강 및 잡담	사회·경제 이슈 해설
방송 일자	2022년 8월 31일	2022년 9월 18일~11월 27일
채팅 참여자 수	7,229명	-3)
발화(채팅) 수	42,199개	-
방송 시간	2시간	2시간
플랫폼	트위치	트위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4)	204만 명	255만 명

3) 플랫폼의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 A는 단일 방송의 모든 채팅을 텍스트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반면 B는 텍스트화하지 못하고 방송 화면으로부터 임시어를 찾아 수집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A와 달리 B는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방송으로부터 임시어 자료를 수집하였고, 채팅 참여자 수 및 발화(채팅)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본래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참여자들이 채팅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 가능한 한 가까운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스트리머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참여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이나 자신의 의견 등을 채팅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선정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청자 및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발화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논의를 참고하여(Olejniczak 2015), 채팅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방송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길이가 짧은 채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단어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부터 임시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임시어는 그 특성상 특정한 형식이나 구조를 바탕으로 추려낼 수 없고, 연구자가 말뭉치 전체를 검토하여 이전에 형성된 적 없는 새로운 형성의 결과라고 판단되는 단어를 직접 추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 말뭉치를 검토하여 특정한 지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화자가 새롭게 형성했다고 판단되는 단어들 중에서 사전이나 신어 자료집, 인터넷 등에서 고정된 의미로 쓰인 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들을 임시어로 보고 수집·분석하였다. 임시어 자료들을 형식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파생어, 합성어, 혼성어, 두음절어’의 총 네 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정보를 보려면 다음과 같다.

<표 3> 유형별 임시어 출현 빈도

	A	B
합성어	195	59
혼성어	97	15
두음절어	13	3
파생어	9	0
합계	314	77

유형별 출현 빈도는 두 자료 모두에서 ‘합성어→혼성어→두음절어→파생어’ 순으로 나타났다. 합성어의 대부분은 ‘N+N’형 합성명사가 차지하였다.⁵⁾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채팅 참여자 수와 분석 대상 방송 길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 비해 A에서 훨씬 많은 양의 임시어가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방송의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B는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한 반면 A는 오락·예능적인 성격이 강해서, 임시어 형성 동기가 A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 못하였다. 다만 채널 구독자 수를 참고했을 때 채팅 참여자나 채팅 수에 있어서 A와 B가 특기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2023년 1월 27일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기준.

5) 합성명사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성·의태어, 어근, 관형명사 등 구성요소의 명사성이 떨어지는 예들도 관찰되었는데, 이들 역시 합성어로 포함하여 다루었다.

날랏특집, 멍멍족보, 호방쥐, 매품귀신, 간이핵폭발

4. 임시어 자료의 특성과 단어 형성론적 의의

본 연구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 관찰되는 임시어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그렇지만 화자의 단어 형성 능력이 발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특성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은 통신언어의 일종으로서 다른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존재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는 화자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단어를 형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반영해 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임시어 자료들이 보이는 몇 가지 주된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단어 형성론적으로 가지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4.1. 맥락 의존성

임시어는 언제나 특정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형성 당시의 맥락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은 일찍이 김광해(1982)에서 지적된 바 있다.

(2) 호박마차

호박같이 생긴 마차, 호박을 실은 마차, 호박 속에서 나온 (동화 속의) 작은 마차, 호박을 재료로 만든 모형 마차, 호박의 표면에 그려져 있는 마차, 문에 호박을 그린 마차 등

합성명사 ‘호박마차’는 단독으로 제시되었을 때 (2)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요정이 호박에다 마술을 부려서 만든 마차’의 의미로 쓰인다(김광해 1982: 9). 이처럼 다양한 의미 해석의 가능성 가운데에서 특정 의미가 선택되는 것은 ‘호박마차’의 형성 맥락에서 화자의 명명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 역시 맥락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하여 추론해 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처럼 형태로 드러나지 않은 구성성분 외의 부가적인 의미에 주목해 왔으나(황화상 2001, 정한데로 2014가 등), 그에 대한 예시로는 대부분 의미가 고정되어 있거나 구성성분만으로 전체 의미를 충분히 추론해 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맥락에 의해 의미가 구성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는 임시어 형성 당시의 방송 내용과 앞뒤 채팅 내용이 상황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시어와 맥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3) 가. 시간몽둥이

나. 쥐다닥
다. 낮대밤괴

(3)에 제시한 합성명사, 혼성어, 두음절어는 각각의 형식만을 보아서의 지시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3나, 다)는 형식 삭감을 겪음에 따라 구성성분의 원래 형식이 무엇인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들 임시어가 형성될 당시의 맥락 정보를 참고하면 구성성분 형식뿐만 아니라 전체 지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4) 가.(출연자2가 강의를 매우 길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상황)

출연자1: 새로 오신 뉴페이스가 있으면 “좀 적응하실 수 있게 오늘은 좀 짧게” 이게
옳은 생각이지, “맛좀 봐”, “너 한 번 두고 보자” 뭐 이거는 잘못된 반응이
다, 제가 봤을 때

가' 관련 채팅: “본때를 보여주마”, “매운맛좀 보여줘?”, “잘못 걸렸다”

→ ‘시간몽둥이’: (방송) 시간으로 봉변을 당하게 하는 것.

나.(쥐가 기계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실험 장면을 보며)

출연자2: 지금 기계쥐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나랑. 쥐는 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
식을 집으러 갈 때 기계쥐가 앞으로 가면은 놀래서 도망가요.

나' 관련 채팅: “호다닥”, “사람도 도망갈듯”, “화들짝”

→ ‘쥐다닥’: 쥐가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 (쥐+후다닥)

다.(괴담을 주제로 한 강의에 대한 대화를 하는 상황)

출연자2: 저는 새벽 3시, 4시, 5시 이때 항상 괴담 게시판에 봤다.

출연자1: 낮에는 대외활동을 해야 되고

→ ‘낮대밤괴’: 낮에는 대외활동을 하고, 밤에는 괴담 게시판을 보는 것.

(4가, 나)의 경우 방송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그리고 출연자들의 대화와 관련해서 합성명사 및 혼성어의 형식으로 임시어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상황 맥락에서는 임시어 구성성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성자는 특정한 지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 것이다. 한편 (4다)의 경우에는 출연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두음절어를 형성한 결과이다.⁶⁾

6) (9다)의 ‘낮대밤괴’는 ‘낮X밤X’를 기반으로 한 몇몇 신어에 기반하여 유추의 과정을 통해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9가, 나)의 ‘시간몽둥이’, ‘쥐다닥’은 ‘시간X’, ‘X몽둥이’, ‘X다닥’ 등과 같이 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단어 또는 유추의 틀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추에 의한 형성으로 보기 망설여진다. 그리고 혼성어의 경우에는 삭감 규칙의 실재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송원용 2020) ‘시간몽둥이’는 단순 결합 규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구성성분을 연결해 주는 의미가 매우 복잡하고 개체특이적(idiosyncratic)이라는 점에서 규칙에 의한 형성으로도 보기 어렵다. 이찬영(2023: 185-199)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하여 Haspelmath & Sims(2010)의 ‘단어 틀(word schema)’ 개념을 활용하여 ‘틀에 의한 형성’을 제안하였다. 단어 틀은 다시 고정형 형식이 포함되어 있어 추상화 정도가 낮은 ‘저층 위 틀’과 고정형 형식 없이 변형 및 의미 관계로만 구성되어 추상화 정도가 높은 ‘고층 위 틀’로 나뉘는데, 이때 ‘고층 위 틀’은 유추의 기반을 특정하기 어려우면서도 복합적인 의미 관계를 지니는 단어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임시어 형식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지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반면 맥락 정보가 제시되기만 하면 지시 개념 파악이 매우 용이해진다는 사실은 임시어의 형성과 해석 과정에 있어서 맥락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임시어는 공인화 과정을 겪기 전 단계에 놓여 있어 그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2. 의미 관계 및 지시 개념의 다양성

지시 개념은 복합적인 데 비해 단어는 형식적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어와 지시 개념 간의 관계, 특히 복합어의 형식으로 외현되지 않은 ‘부가 의미’가 나타나는 양상은 단어 형성론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합성명사는 형식 삭감을 겪지는 않았지만 선·후행 성분이 모두 명사라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 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두음절어 및 혼성어는 형식 삭감을 겪음에 따라 구성성분의 원래 형식 및 이들이 지시 개념과 가지는 관계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간의 논의들에서 제시되어 온 복합어의 의미적 특성들을 유형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5) 합성명사

가. 논항 관계: A가 B의 ‘재료’, ‘수단방법’, ‘장소’, ‘시간’, ‘용도’, ‘원인’, ‘목적’, ‘소유’...

(이재인 1991, 김창섭 1996, 최경봉 1998, 김인균 2002, 채현식 2003, 정한데로 2014가)

나. 비유 관계: (최지훈 1999, 채현식 2006가, 2006나; 김진해 2014, 정한데로 2014가, 최희주 2022)

① 은유적 수식어: 총알택시, 꿀참외, 고추잠자리, 강철 멘탈, 찰떡코디, ...

② 은유적 핵어: 죽부인, 돈세탁, 바늘귀, 웃음바다, 딸바보, ...

(6) 혼성어

가. 노명희(2010: 263-264)

① 계열적 혼성어: 유사한 의미장에 속하는 두 단어가 동일한 위치에 출현할 수 있음.

예) 거렁뱅이(←거지+비렁뱅이), 개그운서(←개그맨+아나운서)

② 통합적 혼성어: 두 단어가 같이 출현하여 구를 형성할 수 있음.

예) 유티즌(←유비쿼터스 네티즌), 모티켓(←모바일 에티켓), 에코투어(←에콜로지컬 투어)

나. 이찬영(2016: 67-71)

7) 두음절어의 경우 구 또는 문장으로 된 원형식에 그대로 대응되므로, 구성성분 간의 의미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11가)의 ‘통합적 혼성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① 내심적 혼성어: 호캉스(←호텔+바캉스), 모티즌(←모바일+네티즌), 박탄주(←박카스+폭탄주)
- ② 외심적 혼성어: 개짱이(←개미+베짱이), 뮤페라(←뮤직+오페라), 키친브러리(←키친+라이브러리)
- ③ 동격 혼성어: 셀렌타인데이(←셀+발렌타인데이), 기레기(←기자+쓰레기), 뽏통령(←뽏로로+대통령)
- ④ 대등 혼성어: 엄빠(←엄마+아빠)

(5), (6)에 제시한 유형들은 기존의 합성명사 및 혼성어 자료들을 분석하여 분류한 결과인데,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 관찰되는 임시어 자료들 중에서는 이들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거나, 적절한 분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관찰된다.

- (7) 가. 과학악귀(과학을 설명해 주는 악귀), 스퀴트세수(스퀴트를 하면서 하는 세수), 수명배틀(수명을 비교하며 겨루는 것), 고문바퀴(고문하는 데 쓰이는 바퀴)
나. 과학고봉밥(과학 특강의 양이 많은 것), 도파민샤워(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것), 유교탈레반(유교 사상에 대한 근본주의자), 헤자엑기스(핵심이 되는 내용만 모아 놓은 것), 스파수용소(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스파)
다. 슈뢰딩거티셔츠(‘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 온라인백신(온라인 공간상에서 맞는 백신)
- (8) 가. 궤러사이트(궤도+패러사이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궤도(人名)
캐버지(캐리어+아버지):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캐리어(人名)
슈카소(슈카+피카소)
푸재앙(푸탄+재앙)
나. 흔들라이팅(흔들+가스라이팅), 귀신동절(귀신+어리동절), 문풍당당(문과+위풍당당)

(7가)는 선·후행 명사 간에 형성되는 의미 관계가 (5가)의 ‘논항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부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합성명사의 예이다. 의미의 고정화 단계를 거친 공인어는 선·후행 명사 간의 의미 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명확해서 그 유형을 어느 정도 목록화할 수 있는데, 새롭게 형성된 임시어들 중에서는 단순한 의미 관계에 기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밑줄 친 부가 의미를 참고했을 때 ‘수단’, ‘목적’, ‘재료’ 등과 같은 의미 범주의 명칭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임시어 합성명사의 의미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유한한 의미 범주 목록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개별 단어들이 지시 개념을 언어화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 더욱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5나)에서는 선·후행 명사 중 하나가 비유적으로 해석되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시 개념을 나타내는 합성명사들을 제시하였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

러한 합성명사 형성 및 해석의 과정을 ‘은유’를 통해 설명하였다. 즉 선·후행 명사의 특정한 의미 성분이 활성화되어 근원 개념과 목표 개념 간의 사상(mapping)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양상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이른바 ‘은유적 합성명사’는 ‘논항 관계’에 기반한 합성명사에 비해 다소 예외적이고 특이한 유형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임시어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성성분이 모두 축자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은유적 합성명사 중에서는 (5나①)과 같이 수식어 명사가 은유적으로 해석되는 유형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자료에서는 (5나②)와 같이 핵어 명사가 은유적으로 해석되는 유형이 보다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는 점이다. (7나)에서의 ‘과학고봉밥, 도파민샤워, 유교탈레반’이 그 예인데, 후행 명사인 ‘고봉밥, 샤워, 탈레반’이 축자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특정 의미 속성이 활성화됨에 따라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선행 명사와 의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은유적 합성명사를 구체적으로 다룬 김진해(2014)에서는 Benczes(2006)의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은유적 합성명사의 유형을 ‘은유적 수식어+머리어’, ‘수식어+은유적 머리어’, ‘은유적 수식어+은유적 머리어’, ‘전체가 은유’의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중 ‘은유적 수식어+은유적 머리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예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7나)에 제시한 ‘혜자액기스’가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합성명사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혜자’는 본래 고유명이지만 최근 ‘가격에 비해서 양과 질이 우수하다. 가성비가 좋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고⁸⁾ ‘액기스’는 본래 의미인 ‘재료를 진하게 또는 바짝 졸인 액체’로부터 은유를 통해 ‘핵심적이고 유용한 것’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이 합성명사는 선·후행 명사 모두 은유적으로 해석되고 이들 간의 의미 관계를 통해 지시 개념을 나타내는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넓은 의미의 ‘비유’ 의미에는 은유와 함께 ‘환유(metonymy)’가 포함된다. 인지언어학 논의에서는 은유와 환유가 함께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Lakoff & Johnson(1980) 이후 은유와 환유는 표현이나 수사학적 목적의 ‘비유’ 차원에 머물렀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고와 일상 언어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는 개념적 차원의 기제라고 보는 관점이 자리잡게 되었다.⁹⁾ 이와 관련하여, 복합어에서 나타나는 비유적 의미는 주로 은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근원 개념과 목표 개념이 동일한 영역 내에서의 ‘전체와 부

8) 다음은 ‘혜자’가 은유적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 용례이다.

가. 브라이덜샤워 한번에 준비하기 혜자세트. 22% 할인.

나. 신용카드 부문에서 혜택이 좋은 일명 ‘혜자 카드’는 1위가 OO, …로 분석됐다.

다. 뭐죠 왜케 혜자야 예전에 샘플 써보고 지금 쓰는 스킨토너 다 써갈때 사려고 메모해두고 이번에 구매했는데 역시 나 축축 보습 짱좋아요.

9) 은유와 환유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찬영 2023:74)

	은유	환유
두 개념의 관계	유사성(similarity)	인접성(contiguity)
두 개념의 위치	독립된 두 영역	동일한 영역
주요 기능	이해하기	지시하기

분’ 또는 ‘부분과 부분’으로서의 관계로 표상되는 것을 환유로 이해한다면 합성명사에서도 환유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 있다. (7다)가 그 예인데, ‘슈뢰딩거티셔츠’의 전체 지시 개념을 고려했을 때 선행 명사 ‘슈뢰딩거’가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목표 개념은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림’이다. 이를 근원 개념인 ‘슈뢰딩거’와 비교한다면 다소 복합적인 개념을 대표하는 특정 개체로서 해당 개념을 대신하는 환유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백신’에서 ‘온라인’은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지시 개념을 참고한다면 그 목표 개념은 ‘온라인 공간상’이라는 공간적 의미이다. 이 역시 특정 명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개념을 나타내는 환유 기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합성명사에서 은유뿐만 아니라 환유에 의한 형성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 관찰되는 이유는 합성명사의 형식적·구조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지시 개념은 다소 장황하고 복합적인데, ‘N+N’의 구조에 맞춰 표현하고자 함에 따라 장황한 표현을 하나의 명사로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적인 형식 및 요소를 가지고 복합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다 복합적이고 정밀한 표현을 명사로 단순화하여 나타내는 환유 기제의 사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이찬영 2023:80-81).

(8)은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의미 유형에 따라서는 적절히 분류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는 혼성어들의 예이다. (8가)는 후행 단어의 특정한 의미적 속성이 선행 단어에 사상되는 이른바 ‘선행(先核) 은유적 혼성어’의 예이다. 한국어에서는 후핵 성분이 의미적 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처럼 은유적으로 해석되는 혼성어 중에서는 선행 단어가 의미적 핵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선영(2016: 52-54)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로 ‘기레기(←기자+쓰레기)’, ‘닥터테이너(←닥터+엔터테이너)’,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카페브러리(카페+라이브러리)’ 등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최형용(2022)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혼성어를 “‘키크라니’형 혼성어”라 명명하고 다양한 예들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에서도 (8가)와 같이 선행 은유적 혼성어가 여럿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선행 요소가 특정 인물을 나타내고 후행 요소는 해당 인물에 대해 나타내고자 하는 속성을 뜻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최형용(2022)의 언급처럼 선행 은유적 혼성어가 더 이상 예외적이고 개체 특이적인 형성 방식이 아니라 한국어 혼성어에서 엄연히 하나의 부류를 이루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 대상에 대한 속성을 단어 형식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구조에 기반하여 쉽고 빠르게 임시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나)에 제시한 혼성어들 역시 선·후행 요소 간의 의미 관계 및 구성요소와 전체 지시 개념 간의 관계가 다소 복잡하여 유형 분류가 쉽지 않은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어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시 개념 및 대상을 ‘명명’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흔들라이팅’, ‘귀신동절’, ‘문풍당당’과 같은 임시어들은 과연 명명, 즉 ‘이름 짓기’의 결과로 볼 수 있을지 다소 고민하게 만든다. 물론 모든 언어 형식의 산출은 넓은 의미에서 특정 개념을 언어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단어 형성의 동기 및 결과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념에 대한 명명보다는 새로운 형식을 통한 ‘표현’ 그 자체에 보다 초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양상을 고려했을 때, 보다 다양한 임시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화자의 단어 형성 동기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4.3. 동의/유의 관계 임시어 형성

정한데로(2022)에서는 하나의 지시 개념에 대한 복수의 명명 결과, 즉 ‘동의 관계 어휘의 단어 형성’ 양상을 관찰하면서 ‘개념화’와 ‘언어화’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즉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개념화하고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화자에 따라 현저한(salient) 속성을 부각하고 구체적인 형성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동의 관계 어휘가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은 상황 맥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채팅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시 개념에 대하여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임시어를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 (9) 가. 짱트로피, 킹트로피 / 갓질방, 킹질방
 나. 휴먼오븐, 인간오븐 / 관통맨, 피어싱맨
 다. 억지관통, 억관통 / 또관통, 또통 / 짹개리, 짹리어
 라. 메카쥐, 메카랫, 메카닉쥐, 메카짹, 메카제리, 메카마우스

(9가)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 ‘짱’, ‘킹’, ‘갓’이 각각 사용되어 동일한 지시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라는 점에서 ‘동일 어근 결합 파생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9나)는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어종만을 달리하여 교차되어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형성은 개별 화자의 인지 체계 내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친숙한 요소를 선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다른 화자에 의해 형성된 단어와 차별화하기 위한 의도가 발현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임시어가 특정한 어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표현 효과를 위한 유희적 목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9다)는 형식 삭감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억지관통-억관통’, ‘또관통-또통’은 형식 삭감이 없는 합성어와 형식 삭감을 수반한 혼성어가 동일한 지시 개념을 나타내는 예로, 어떤 지시 개념은 특정한 단어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기도 하는 반면 동일한 지시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유형의 단어 형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짹개리-짹리어’는 후행 요소인 ‘개리어(人名)’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른 경우인데, 이는 개별 화자에 따라 혼성어 구성요소로 나타났을 때 의미 해석에 있어서 용이하

다고 판단되거나 인지적으로 현저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9라)는 하나의 지시 개념에 대해 매우 다양한 형성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어종, 형식 삭감 여부 및 방식, 동의어 구성요소 등과 같은 측면이 달라짐에 따라 형성의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화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해 단어를 형성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이라는 환경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앞에서 나온 단어를 참고하여 유추적으로 새로운 임시어를 형성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김광해(1982), 「복합명사의 신생과 어휘화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국어국문학회, 5-29.
- 김민국(2009), 「접미사에 의한 공시적 단어형성 연구-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의 경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2021), 「서울특별시 SNS 통신 언어의 특징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91,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9-47.
- 김인균(2002), 「합성명사의 의미 관계와 사이시옷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11, 한국어의미학회, 119-137.
- 김진해(2014), 「은유적 합성명사의 결합관계와 인지언어학적 해석」, 『국어학』 70, 국어학회, 29-57.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노명희(2010),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55-281.
- 노명희(2018), 「임시어의 특성과 유형」, 『국어학』 85, 국어학회, 45-82.
- 박재연(2014), 「한국어 환유 표현의 체계적 분류 방법」, 『한국어 의미학』 45, 한국어의미학회, 1-30.
- 박혜진(2019), 「표현론적 관점의 단어 형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원용(2000), 「현대국어 임시어의 형태론」, 『형태론』 2-1, 1-16.
- 송원용(2020), 「혼성이라는 형태론적 과정의 재구성」, 『형태론』 22-2, 236-284.
- 시정곤·장정우(2017), 「실시간 모바일 메신저에 나타난 세대 간 언어 사용 양상 연구-20대와 60대 이용자의 카카오톡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76, 한국어학회, 1-54.
- 이상욱(2004), 「‘-음’, ‘-기’ 명사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욱(2007), 「임시어의 위상 정립을 위한 소고」, 『형태론』 9-1, 47-64.
- 이선영(2016), 「혼성어의 위상에 대한 일고찰」, 『어문연구』 4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7-66.
- 이재인(1991), 「국어 복합명사 구성의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612-628.
- 이정복(2005),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 언어 분석하기-최근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37-79.
- 이정복(2012), 스마트폰 시대의 통신 언어 특징과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20-1, 한국사회언어학회, 177-211.
- 이찬영(2016), 「현대 한국어 혼성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찬영(2023), 「한국어 합성명사의 형성과 해석: ‘N+N’형 임시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2013), 「의도적 단어 만들기에 나타난 조어 방식 연구」,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235-268.
- 정한데로(2013가), 「임시어의 실재성 확립을 위하여」, 『어문연구』 41-1, 한국어문교육연구

- 회, 119-149.
- 정한데로(2013나), 「명명 과제를 기반으로 한 임시어의 형태론-도구 명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68, 국어학회, 367-404.
- 정한데로(2014가), 「국어 등재소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한데로(2014나), 「임시어에 관한 몇 문제」, 『국어학』 71, 국어학회, 61-91.
- 정한데로(2019), 「표현론적 접근과 단어형성론」, 『어문연구』 4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7-144.
- 정한데로(2022), 「동의 관계 어휘의 단어 형성-표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어학』 103, 국어학회, 345-390.
- 채현식(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 채현식(2006가), 「합성명사의 의미 전이와 관습화」,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5-23.
- 채현식(2006나), 「은유표현의 해석과 유추」,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377-397.
- 최경봉(1998),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태학사.
- 최준(2020), 「한국어 신어 탐색 방법론의 실제」, 『언어사실과 관점』 51, 151-172.
- 최지훈(1999), 「전의(轉義) 합성명사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2022), 「‘킵라니’ 신어 혼성어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4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7-68.
- 최희주(2022), 「한국어 명사 연쇄 구성 내 다의 현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상희(2016), 「대학생의 카카오톡 언어 사용 분석」, 『한글』 314, 한글학회, 103-143.
- 허상희·최규수(2012), 「트위터에서 트윗(tweet)의 특징과 유형 연구」, 『한민족어문학』 61, 한민족어문학회, 455-494.
-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czes, R.(2006), *Creative compounding in English*,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eorgakopoulou, A. & Spilioti, T.(eds.)(2016), *The Routledge Handbook of Language and Digital Communication*, Routledge.
- Haspelmath, M., & Sims, A. D.(2010), *Understanding Morphology*(2nd ed.), Hodder Education. [오규환·김민국·정한데로·송재영 옮김(2015), 『형태론의 이해』, 역락.]
-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lejniczak, J.(2015), A linguistic study of language variety used on Twitch.tv: descriptive and corpus-based approaches, *International conference RCIC* '15, 1-6.
- Recktenwald, D.(2017), Toward a transcription and analysis of live streaming on Twitch, *Journal of Pragmatics* 115, 68-81.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에서의 임시어 형성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정한대로(가천대)

‘사전등재어’, ‘신어’를 잇는 다음 패러다임으로서 ‘임시어’에 관한 연구가 중요함을 꾸준히 강조해 온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 발표의 연구 목적과 방법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연구 대상(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 자료)을 활용한 발표자 선생님의 도전적인 시도와 노력의 성과가 잘 드러나는 발표였기에 토론자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자료 수집 방법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기에, 이 연구의 임시어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 임시어 지위 검토 방법

채팅 창에서 수집한 자료가 임시어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맞는지, 가령 다른 특정 언어 공동체에서 활용되는 표현은 아닌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듯합니다. 임시어 확인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활용한 인터넷 사이트나 도구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단어 또는 구 판별 방법

단어 형성, 특히 임시어 형성 연구에서는 조사된 자료의 단어(X0) 지위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듯합니다. 명명 과제(naming task)는 목표 대상의 명명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결과물을 X0로 파악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만, 채팅 문장에 드러난 목표 대상을 연구자가 직접 추출하는 경우는 이를 단어로 볼지 구로 볼지 고민스러울 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이때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띄어쓰기를 포함한 구성도 연구 대상에 포함한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 임시어’의 사용역에 따른 특성

(11쪽) “임시어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성성분이 모두 축자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채팅 공간에서 명명 화자는 뻔한 단어 형정보다는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참신한 단어 형성”(이른바 ‘성공한 드립’)을 의도하는 경우가 많을 듯합니다. 이러한 참신성은 ‘낮선 구성성분’(발표에서 소개된 ‘몽둥이, 고봉밥, 탈레반’ 등)과 ‘낮선 방식’(혼성, 두음절화 등)을 활용하되 ‘맥락’과 잘 어우러진 방식으로 시도될 때 채팅 참여자들로부터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듯합니다. 사용역에 따른 이러한 특성이 본 연구의 대상인 ‘임시어’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11쪽)의 위와 같은 기술은 ‘임시어’ 전반에 걸친 해석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 연구가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였지만, 결국은 이 발표의 연구 대상 역시 사용역이 지닌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 ‘시간몽둥이’의 단어 형성

(각주6)에서 ‘시간몽둥이’는 단순 결합 규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구성성분을 연결해 주는 의미가 매우 복잡하고 개체특이적(idiosyncratic)이라는 점에서 규칙에 의한 형성으로도 보기 어렵고, 이에 이찬영(2023)은 이를 ‘단어 틀’(word scheme)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보았습니다. 이때 ‘추상화된 틀의 형식’(예. [X-뽕], [X-꾼])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귀납화된(패턴화된) 규칙’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또는 ‘항화상’(2010)에서 언급한 ‘스님자장, 다람쥐택시 등’에 적용된 ‘규칙’)에 의해 ‘시간몽둥이’를 형성할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가. 명명 의도: (방송) 시간으로 봉변을 당하게 하는 것.

나. 명명 과정: ① 개념화: ‘시간’ + ‘몽둥이’(봉변을 당하게 하기)

② 언어화: ‘시간+몽둥이’ 결합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신어의 언어적 특징 고찰

- 2020~2022년 「서울경제」에 실린 신어를 중심으로 -

티엔위(전남대)

1. 들어가는 말

언어는 현상을 반영하고 현상은 언어를 통해 표출될 수 있다. 소위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다. 각 시대에 등장한 신어를 통해 즉각적으로 그 당시 한 사회의 제반 모습과 국민의 삶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 사태 이후 ‘집콕’, ‘온택트’, ‘돌밥돌밥’, ‘무관중경기’, ‘포스트 팬데믹’, ‘코로나케이션’, ‘마스크 없무새’ 등 다양한 코로나 관련 신어·유행어가 봇물 터지듯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시대 현상의 변화와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시대에서 창출된 신어·유행어는 당시의 정치경제부터 국민의 삶의 모습과 심리상태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회 현상과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신어·유행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연구는 언어학을 비롯한 각 학문 분야에서 주목을 받게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 최근에 코로나 관련 신어의 연구도 각 언어권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연구는 코로나 초기에 나타난 신어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성된 신어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한국에서 최근 3년 동안 나타난 미디어 신어·유행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추출하여 유형별로 나눠 형태와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어 자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로서 본인이 수집한 200여 개의 신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 신어의 유형, 조어법 및 의미 범위 등의 형태와 의미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용의 측면에서 향후 온·오프라인 한국어 코로나 관련 신어사전 편찬이나 코로나 어휘 학습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비교 언어학 측면에서 다른 언어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미디어 신어와 비교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및 조사자료

2.1. 선행연구

지금까지 국내에서 언어학적 관점으로 코로나 관련 신어 및 유행어를 논의한 연구로 주로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 이해미(2020), 강희숙(2021), 백선주(2021), 남길임·안진산·강현아(2021), 김주아(2021), 티엔위(2021)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어학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 강희숙(2021), 백선주(2021), 남길임·안진산·강현아(2021)가 있다.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개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신어를 수집하여 코로나 관련 신어의 사용양상, 개별용어의 사용 빈도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또 이들 신어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언어생활에 미친 영향 및 한국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 대처방식 등을 고찰하였다.

강희숙(2021)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신어의 유형과 사용양상에 초점에 맞추면서 특히 신어 속에 나타난 언택트나 비대면 문화, 집콕 문화, 온택트 소통, 정부의 각종 제도와 대책 등과 관련한 소위 코로나 뉴노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백선주(2021)에서는 2020년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중에 ‘언택트(untact)’, ‘멘탈데믹(mentaldemic)’, ‘어퍼웨어(upperwear)’와 같은 영어에서 차용한 외래어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이들의 절단·결합 방식 등을 형태론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남길임·안진산·강현아(2021)에서는 사전학과 말뭉치 언어학적 관점에서 신문 기사와 해당 기사문에 달린 댓글을 활용하여 코로나 신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들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의 사용양상, 출현 빈도 및 고빈도 코로나 신어인 ‘K-방역’의 사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초기의 신어를 한정하여 고찰대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로서 수집한 신어가 아무리 기준을 세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달리 본고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최초의 경제 전문지인 「서울경제」에 실린 신어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고찰하여 이들 신어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특징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들을 통해 코로나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에서 생성된 미디어 신어의 어종, 형태 및 의미영역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초기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신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기간의 신어를 정량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2.2. 조사자료 및 신어 추출

‘신어’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로 뜻풀이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로 생긴 말, 기존 낱말의 형태를 이용해서 만든 말, 기존 낱말의 의미를 확장해서 만든 말, 외국어에서 차용한 말’을 ‘신어’로 정의하고 있다.¹⁾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유행어²⁾도 신어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하여 ‘신어’의 범위를 확장하여 코로나19가 벌어진 이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인터넷에서 빈번히 사용된 유행어를 모두 포함하여 ‘신어’로 논의하고자 한다.

2020년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어 자료가 없었기에 연구자 개인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자가 주로 경제 전문지인 「서울경제」에 등재된 신어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서울경제」에서 「신조어 사전」이라는 칼럼이 있어 정기적으로 신어가 올라간다. 본고에서 수집한 신어는 주로 거기에 실려 있는 신어이다.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³⁾

<표 1> 2020~2022년 「서울경제」에 실린 신어 일례

년도	게시일	신어	뜻풀이
2020	2020.01.16	편리미엄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
	2020.02.13	하드캐리	중요한 게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
	2020.03.08	쓸쓸비용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기분 전환하려고 지출하는 비용
	2020.04.23	돌밥돌밥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또 밥 차린다’의 줄임말
	2020.05.31	싫존주의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달라
	2020.06.07	카멜레존	카멜레온과 구역을 뜻하는 합성어로 상황에 맞춰 용도를 바꾸는 소비 공간
	2020.07.02	휘게 라이프	휘게(hygge)는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노르웨이어로 휘게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2020.08.13	구레니얼	20~30대 젊은이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베이비붐 세대
	2020.09.27	공스장	공원 헬스장
	2020.10.25	멘탈데미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대유행
	2020.11.19	몸테크	낡은 주택을 매입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불편한 주거환경을 감수하고 거주하는 것
2021	2020.12.31	코로나 레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
	2021.01.10	뇌피셜	검증된 사실 아닌 자신만이 인정하는 의견
	2021.02.14	메타버스	현실을 초월한 3차원 가상 세계

1) 전명미(2005), 「현대 국어 신어 형성 양상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쪽, 재인용.

2) ‘유행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 신어의 일종으로 해학성, 풍자성을 띠며 신기한 느낌이나 경박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로 뜻풀이되고 있다.

3) 이 표는 「서울경제」에서의 「신조어 사전」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2021.03.25	스펜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의 과잉 소비
	2021.04.08	워라블	‘일과 삶을 적절하게 섞는다’를 줄인 말
	2021.05.06	쫄쫄파리	작은 노력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2021.06.20	세컨슈머	일시적 편리를 추구하기보다 장기적 가능한 삶을 위해 대책을 찾는 소비자
	2021.07.25	코로나얼	코로나 사태에 태어난 세대
	2021.08.26	결송합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
	2021.09.02	맘시생	육아나 집안일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주부
	2021.10.31	백신세딩	백신접종 꺼리는 사람들의 부작용 음모론
	2021.11.07	이선좌	‘이미 선택된 좌석’의 줄임말
	2021.12.05	코비디오 파티	온라인에서 열리는 파티
2022	2022.01.24	꾸자사모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으자’의 줄임말
	2022.02.27	노가더	막일을 생업으로 삼는 청년 노동자
	2022.03.07	식집사	식물을 가족같이 돌보며 애정 쏟는 사람
	2022.04.18	마해자	마스크로 미모 가려 피해를 입는 사람
	2022.05.30	바크닉	오토바이 타고 도시 근교·오지서 즐기는 캠핑
	2022.06.27	워런치족	점심시간에 짬을 내 산책 등 유산소운동을 하는 직장인
	2022.07.04	편도족	고물가 시대,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 해결
	2022.08.08	엠비슈머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에 놓은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아끼는 사람
	2022.09.04	미코노미	자신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경제활동
	2022.10.17	조용한 사직	실제로 퇴사를 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일터에서 떠나 최소한의 업무만 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
	2022.11.07	환승이직	재직중 준비해 퇴사후 곧바로 새직장 출근
	2022.12.26	슈링크플레이션	기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것

3. 2020~2022년 미디어 신어의 언어적 특징

3장에서는 앞서 구축한 미디어 신어 목록을 바탕으로 이들의 어종, 구성, 의미영역 등을 분석하여 형태와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미디어 신어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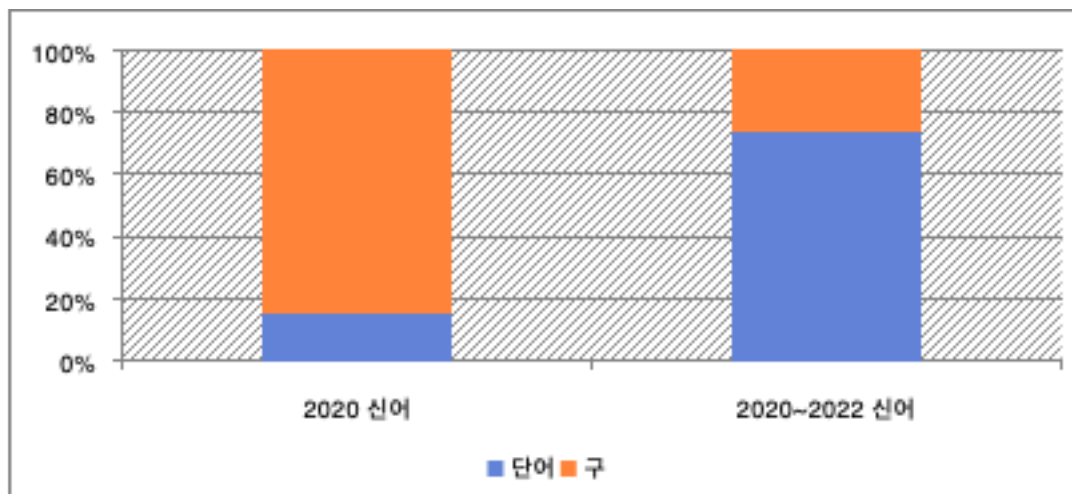
3.1. 형태적 특징

한국어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생성된 미디어 신어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앞서 목록화한 신어를 단어와 구로 나누고, 단어는 다시 어종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2020~2022년 미디어 신어의 구성

구성	어종	수	비율	예
단어	고유어	8	5.0%	돈쫄, 꿀올, 땡줍, 먹노매, 돌밥돌밥, 쫄쫄따리
	한자어	20	12.6%	뇌절, 삼일절, 시심비, 공태기, 일생가, 십한이온, 고진감래
	외래어	43	27.0%	큐코노미, 멘탈데미, 프래밀리, 모디슈머, 맘고리즘, 코로나케이션, 슈링크플레이션
	혼종어	88	55.3%	극딜, 갓수, 마꾸, 뇌피셜, 팔로인, 소피커, 편리미엄, 하락무새, 할매니얼, 워런치족
	소계	159	74.6%	
구		54	25.4%	환승 이직, 방구석 여포, 영구적 위기, 킹리적 갓심, 팝콘브레인, 보유세 푸어, 치킨 눈치 게임, 스트리밍 라이프
합계		213	100%	

위의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20~2022년에 수집한 213개 미디어 신어 가운데 159개(74.6%)가 단어, 54개(25.4%)가 명사구였다. 이는 코로나 초기에 나타난 신어에서 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코로나 초기 신어⁴⁾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신어의 단어와 구의 분포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2020 신어와 2020~2022 신어의 단어와 구의 분포율

코로나 초기 신어에서 단어보다 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수진 외(202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 신어에 방역 정책,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대폭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방역 시스템’, ‘사회적 거리두기’,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등의 용어가 빈번히 출현했기 때문이다.

단어가 어종별로 살펴보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및 혼종어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중에

4) 코로나 초기 신어의 단어와 구의 비율은 이수진 외(2020)를 참조하였다.

혼종어(88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래어(43개), 한자어(20개), 고유어(8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어에 따른 신어를 단일 원어와 복합 원어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단일원어의 외래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원어에서 외래어와 한자어의 결합 유형이 가장 많았다. 원어에 따른 신어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2020~2022년 미디어 신어의 결합유형

		어수	비율	예시
단일원어	고유어	8	3.8%	돈쫄, 개린이, 먹노매
	한자어	27	12.7%	뇌절, 삼일절, 행복회로
	외래어	75	35.2%	샐러던트, 맘고리즘, 메타버스
복합원어	고+외/외+고	18	8.5%	발컨, 할파파, 피켓팅
	고+한/한+고	39	18.3%	국룰, 쓸쓸비용, 하락무새
	외+한/한+외	42	19.7%	갓생, 맘시생
	고+외+한	4	1.9%	랜친실안,
합계		213	100%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원어에서 외래어의 비율이 가장 높아 35.2%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서 한자어의 비율이 12.7%로 나타났으며 고유어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복합원어에서 한자어와의 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외래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이 두드러져 각각 19.7%, 18.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디어 신어의 어휘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구를 제외한 단어(159개)를 분석해 보았다. 단어를 조어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는 먼저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09:201). 그리고 합성어는 합성의 방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합성, 혼성,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합성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혼성은 두 개 이상의 단어의 앞이나 뒷부분을 절단하여 새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며, 축약은 일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구의 일부분을 축약한 것이다⁵⁾. 파생어는 파생의 위치에 따라 접두 파생과 접미 파생으로 구분될 수 있다⁶⁾.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신어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5) 혼성어와 축약어에 대해 구별하기 어려운 신어도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노명희(2019)에 따라 분류하였다. 노명희(2019)는 혼성어와 축약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약어는 원칙적으로 본말이 존재하지만 혼성어는 본말이라 할 수 있는 형식이 따로 없다. 나. 약어와 본말은 모두 통용되며 격식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다. 약어는 본말의 의미초점이 되는 음절을 선택, 혼성어는 의미를 반영하는 형태소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절단되어 형성된다. 라. 혼성어는 형성에 관여하는 두 단어 가운데 후행 단어가 혼성어의 기반이 되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 마. 약어는 본말의 단어 어절에서 대표음절을 선택하여 형성 되므로 본말의 전체 단어 수나 어절 수에 기반하여 형성되지만 혼성어는 두 단어 가운데 후행 단어의 음절수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6) 신어의 분류 기준에 대해 이수진·김예니(2014)를 참조하였다. 이수진·김예니(2014),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한국사전학』 23, 한국사전학회, p.6.

<표 4> 2020~2022년 미디어 신어의 조어법에 따른 분류

구분	형성법	어수	비율	예	
단일어	차용	3	1.9%	샷건, 앵슛, 하울	
	이의	2	1.3%	재질, 고진감래	
	생성	1	0.6%	뇌절	
	유추	1	0.6%	십한이온	
	소계	7	4.4%		
복합어	합성		18	11.3%	갓생, 흙집, 밥경찰, 쓸쓸비용, 미닝아웃, 캠퍼터디
	혼성		60	37.7%	뇌지컬, 슬세권, 공스장, 마기꾼, 편리미엄, 코로나얼, 스펀데믹
	축약		55	34.6%	집관, 깊꾸, 일생가, 가취관, 워라블, 내또출, 돌밥돌밥
	파생	접두	3	1.9%	극덜, 대유잼, 무지출
		접미	16	10.1%	팔로인, 급여체, 삼일절, 포미족, 프로아나족
		소계	19	11.9%	
	소계		152	95.6%	
합계		159	100%		

위의 <표 4>를 통해 한국어의 신어는 단일어에 비해 복합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합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95.6%로 가장 높았고 단일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단일어는 생성, 이의, 차용, 유추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중 차용이 1.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이의 1.3%, 생성과 유추는 모두 0.6%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복합어 중에서는 혼성어가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축약어가 34.6%, 파생어가 11.9%, 합성어가 11.3%로 나타났다. 혼성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의 앞이나 뒷부분을 절단하여 새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뇌지컬’, ‘슬세권’, ‘편리미엄’, ‘코로나케이션’ 등이 있다. 혼성이라는 조어법은 신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축약어는 주로 각 단어나 구의 첫음절을 취하여 생성된다. 한국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어휘의 예는 ‘집관’과 ‘돌밥돌밥’이다. ‘집관’은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판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가지 못하여 집에서 경기를 관람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돌밥돌밥’은 ‘돌아서 밥하고 돌아서 또 밥한다’의 줄임말이다. 그 이외에 ‘끌올’, ‘코끌모’, ‘내또출’, ‘가취관’, ‘부취존중’, ‘랜친실안’ 등도 있다.

파생어에서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의 비율은 각각 1.9%, 10.1%였으며 접사는 주로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접두사는 ‘극(極)-’, ‘대(大)-’, ‘무(無)-’가 있고 접미사는 ‘-인(人)’, ‘-체(體)’, ‘-절(節)’, ‘-족(族)’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자어의 생산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2. 의미적 특징

3.2.1. 의미변화

언어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새로 단어를 만들기보다 기존 어휘의 어형을 빌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의 일부를 언어재료로 삼아 다른 형태소와 결합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신어는 기존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재질’은 원래 명사로 재료가 가지는 성질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신어로서 주로 사람이나 사물의 느낌이 매력적이거나 주목을 받을 때 칭찬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⁷⁾. 그리고 ‘고진감래’는 원래 사자성어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신어로서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의 줄임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음(諧音)으로 생성된 신어중에 ‘삼일절’이라는 신어도 있다. ‘삼일절’은 본래 ‘3월 1일인 국경절’인데 최근에는 신어로서 ‘31세를 넘으면 절대 취업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신입사원으로 30대보다 젊은 20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어에서 외래어에서 차용된 신어가 원어의 의미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영어 ‘하울(haul)’⁸⁾은 원래 ‘아주 힘들여 끌나’, ‘몸을 간신히 움직이다’, ‘억지로 끌고가다’라는 뜻인데 한국어의 언어 환경에서는 주로 “특정 브랜드 제품을 대량 구매한 후에 사용 후기를 타인과 공유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대상이 되는 카테고리 뒤에 ‘하울’을 붙여 ‘K-뷰티 하울’, ‘화장품 하울’, ‘가을 신상 하울’ 등과 같이 ‘-하울’이라는 형태로 사용된다.

3.2.2. 의미 범주의 특징

이 절에서는 미디어 신어의 의미 범주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미적 특징을 경제, 사회, 교육, 보건·의학, 의식주 생활 등의 1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⁹⁾

7)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6L96JT7>

8)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haul’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① to pull something/somebody with a lot of effort, ② to move yourself somewhere slowly and with a lot of effort, ③ to force somebody to go somewhere they do not want to go.

9) 어휘의 의미 범주는 한송화 외(2015)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 주도에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채택하였다. 한송화 외(2015)에서 의미범주를 인간, 삶,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교육, 종교, 문화, 정치와 행정, 자연, 동식물, 개념, 보건·의학으로 분류하였다.

<표 5> 2020~2022년 미디어 신어의 의미 범주

분야	어수	비율	예
사회생활	84	39.4%	발건, 중꺾마, 코끝모, 플로깅, 그린워싱, 재텔근무, 환승이직, 에코사이드, 조용한 사직, 영구적 위기, 코비디오 파티
경제생활	57	26.8%	돈쫄, 몸테크, 스펀데믹, 편리미엄, 큐코노미, 쓸쓸비용, 셀피노믹스
인간	29	13.6%	갓수, 먹노매, 마기꾼, 팔로인, 라떼파파
삶	20	9.4%	워라블, 공스장, 모캅스, 휘게 라이프, 스트리밍 라이프
보건·의학	6	2.8%	백신세딩, 멘탈데믹, 보어 아웃,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문화	4	1.9%	앵슛, 캐봉, 컴눈명, 밀보드 차트
의생활	3	1.4%	M뷰티, 슬세권, 원마일 웨어
식생활	3	1.4%	돌밥돌밥, 밥경찰, 봉세권
교육	2	0.9%	코로나케이션, 캠퍼스터디
개념	2	0.9%	메타버스, 마라클 모닝
자연	1	0.5%	십한이온
주생활	1	0.5%	홀로가
동식물	1	0.5%	시고르자브종
합계	213	100%	

위의 <표 5>에서 보듯이 한국의 미디어 신어는 의미영역에 따라 크게 삶, 경제, 사회, 교육, 인간, 자연, 개념, 문화, 동식물, 보건·의학, 의식주 생활 등의 1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중 사회생활 분야의 신어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 39.4%를 차지하였다. 이는 코로나 초기에 정치·행정 분야의 신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코로나 초기에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집단감염 사태를 제어하며 확산세를 꺾기 위해 각종 방역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신어가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반면에 워드코로나 모드의 시행과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했으므로 각종 과도한 방역 정책보다 사회활동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생활 분야의 신어는 주로 인간관계, 사회활동, 사회문제 및 언어 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신어를 예로 들면 ‘마싸’, ‘가취관’이다. ‘마싸’는 ‘나의(my)’와 어느 한편을 뜻하는 ‘사이더(sider)’를 결합하여 생성된 말인데 타인의 평판을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가취관’은 ‘가벼운 취향 위주의 관계’의 줄임말인데 즉 자기의 취향대로 모이는 관계를 의미한다. ‘마싸’와 ‘가취관’을 통해 MZ세대들은 기존 세대들이 공동체주의를 중요시하는 것과 달리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

사회활동 관련 신어를 예로 들면 ‘플로깅’, ‘비치코밍’, ‘레스 웨이스트’가 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조깅(jogging)’을 결합하여 생성된 신어인데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달리거나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이르는 말이다¹⁰⁾. 이는 환경운동에서 출발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비치코밍’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비치코밍’은 ‘해변(beach)’과 ‘빗질(combining)’의 합성어로 해변에서 빗질하듯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활동을 뜻한다¹¹⁾. ‘레스 웨이스트’는 그대로 영어 ‘Less Waste’에서 차용한 말인데 ‘쓰레기 줄이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포장·배달 음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등 배달 용기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쓰레기 줄이기를 지향하는 환경운동인 레스 웨이스트를 실시하였다.

사회문제 분야의 신어는 주로 직장과 취업 관련 신어이다. 이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 ‘샐러던트’, ‘취업준비준비생’, ‘환승이직’, ‘조용한 사직’ 등이 있다. ‘취업준비준비생’은 취업 준비를 준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 취업 문제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져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면서 생긴 표현이다. ‘샐러던트’는 직장인을 뜻하는 ‘샐러리맨(salary man)’과 ‘학생(student)’을 결합한 말인데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는 직장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환승이직’은 ‘환승’과 ‘이직’을 합친 말인데 재직 중인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퇴사 후 곧바로 재취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조용한 사직’은 영어 ‘Quiet quitting’에서 유래한 말인데 지금은 “주어진 업무 이상에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만큼 최소한 일만 한다”는 뜻이다.

언어 행위 관련 신어는 주로 긴 문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핵심 글자를 추려 표현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축약어이다. 예컨대 ‘깊꾸’는 ‘기프트콘 꾸미기’의 축약어이고, ‘일생가’는 ‘일상생활 가능하세요?’의 축약어이고 ‘어덕행덕’은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의 축약어이다. 또한 ‘ㅈㅂㅈㅇ’와 같이 초성만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어도 있다. ‘ㅈㅂㅈㅇ’는 ‘정보 줌요’의 초성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때 ‘정보 알려주세요’의 줄임말로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도덕책’과 ‘도대체’처럼 같은 초성을 가지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신어도 있다. ‘도덕책’은 초성이 같은 부사인 ‘도대체’를 대신하여 쓰이는 말인데 일반상식에서 벗어난 기행을 비꼬는 말투로 쓰이기도 하며 타인의 뛰어난 성과를 칭찬할 때도 사용되곤 한다.

경제생활 분야와 관련 신어가 26.8%로 2위를 차지하였다. 경제생활 분야의 신어는 주로 재테크, 소비행위, 경제 상태로 세분될 수 있다. 재테크 관련 신어는 ‘몸테크’, ‘짠테크’, ‘취테크’, ‘리셀테크’ 등이 있다. ‘몸테크’는 ‘몸’과 ‘재테크’를 합친 말로 변두리에 있는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하기 위해 몸이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참고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짠테크’는 ‘짠돌이’와 ‘재테크’를 합친 말인데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 재테크하는 것이고 ‘리셀테크’는 재판매를 뜻하는 ‘리셀(resell)’과 재테크를 합친 말인데 한정판을 구매하여 고가로 재판매를 통하여 재테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1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S5RSIMM>

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65WGZS7ZM>

소비행위 관련 신어는 ‘미코노미’, ‘포미족’, ‘시심비’, ‘편리미엄’ 등이 있다. ‘미코노미’는 ‘나(me)’와 ‘이코노미(economy)’를 합친 단어로 자신을 주체로 하여 자기를 위해 아낌없이 과감하게 소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바로 ‘포미족’이다. ‘시심비’는 ‘가성비’와 ‘가심비’에서 유래한 말인데 시간 대비 자신의 만족감을 가리킨다.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premium)’을 합친 말인데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돈을 주고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상태 관련 신어는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난을 나타내는 신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로 들면 ‘편도족’, ‘런치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등이 있다. ‘편도족’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고 ‘런치플레이션’은 ‘점심(lunch)’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고물가로 인해 점심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를 뜻하는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인데 원래 상품의 가격을 유지하고 내용물의 크기와 용량을 줄여 판매하여 변칙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 관련 신어의 경우 13.6%로 3위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면 ‘갓수’, ‘할파파’, ‘라떼파파’ 등이 있다. ‘갓수’는 신을 뜻하는 ‘갓(God)’과 ‘백수’를 결합하여 생성된 표현인데 이는 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받은 용돈만으로도 일반 직장인보다 풍족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할파파’와 ‘라떼파파’는 모두 육아 관련 신어이다. ‘할파파’는 ‘할아버지’와 ‘아빠’를 뜻하는 영어 표현인 ‘파파(papa)’를 결합하여 생성된 말인데 맞벌이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라떼파파’는 남성 육아 휴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생긴 표현인데 즉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가리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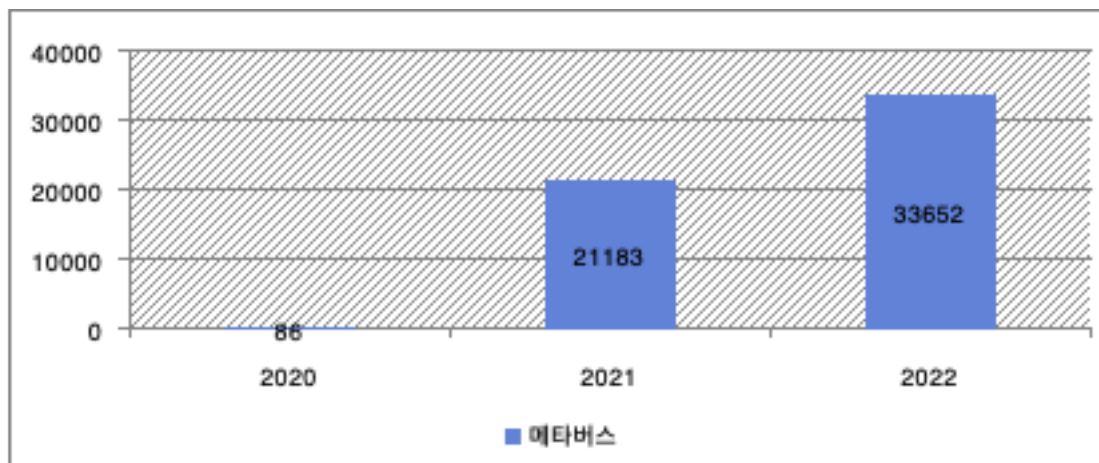
뒤를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은 인류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미디어 신어에서 삶에 관련한 어휘가 9.4%의 비율로 나타나 4위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홈집’, ‘갓생’, ‘바크닉’, ‘모캅스’, ‘워라블’ 등이 있다. 한편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 신어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예컨대, ‘개린이’, ‘강직인’, ‘펫팸족’ 등이 있다.

이외에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제반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의식주 생활 관련 신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의생활에서의 ‘원마일 웨어’, 식생활에서의 ‘돌밥돌밥’, 주생활에서의 ‘홀로가’ 등이 있다. 의생활 분야에서 ‘원마일 웨어’는 집에서 입는 옷인데 집 근처에서 활동할 때도 외출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이르는 말이다. 식생활 관련 신어는 ‘돌밥돌밥’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돌밥돌밥’은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하다’의 축약어이다. 코로나로 인해 외식보다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주 밥을 차려야 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표현이다. 주생활의 분야에서 잘 알려진 신어는 ‘홀로가’이다. ‘홀로가’는 ‘당신의 인생은 한번뿐이다’의 줄임말인 ‘올로(YOLO)’와 한자어 ‘가(家)’가 결합하여 파생된 말이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자제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헬스

장, 카페, 영화관 등 밖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개별화된 주거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교육 분야도 커다란 영향을 받고 변화하였다. 등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어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업이 없는 날은 모두 방학이라는 뜻으로 ‘코로나’와 ‘방학(vacation)’을 결합한 ‘코로나케이션’이라는 신어가 생겨났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영향을 받은 코로나 세대들은 ‘캠스터디’라는 새로운 공부법도 생겨났다. ‘캠스터디’는 ‘웹캠(webcam)’과 ‘스터디(study)’의 합성어로 스터디 모임 구성원들이 현실 공간 대신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컴퓨터의 웹캠이나 휴대폰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에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코로나 초기에 나타난 신어중에 ‘코로나19’, ‘우한코로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 반면에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나타난 신어중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슨(Neat Stephenson)이 1992년에 쓴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ch)』에 처음 등장한다. 좁은 의미로 정의하자면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인터넷 기반의 3차원 온라인 가상세계를 의미한다¹²⁾.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메타버스’가 신문에서의 출현 빈도가 다음과 같다¹³⁾.



<그림 2> 2020~2022년에 ‘메타버스’의 출현 빈도

신어는 한 사회의 제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매개물이다.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삶 등 한 사회 전반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미디어 신어를 분석하여 살펴

12) 노성산, 김세미나, 오혜신(2021), 『뉴미디어 트렌드 2022』, p.199.

13) 빅카인즈(BIG KINDS)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검색일: 2023년 1월 22일

보는 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경제」 신문지에 실린 미디어 신어를 수집하여 이들 신어의 형태·의미적 특징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에서 사용된 신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특징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최근 3년 동안에 나타난 미디어 신어중에서 단어와 구는 각각 159개, 54개로 나타났다. 어종별로 살펴볼 때 혼종어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순으로 나타났다. 원어에 따른 신어의 유형은 단일 원어와 복합 원어로 나눌 수 있다. 단일 원어의 외래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 원어에서 한자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고유어 등의 한자어 결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중 한자어와 외래어의 결합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고유어와 외래어의 결합은 비교적 적었다. 그리고 셋 이상의 원어가 결합된 ‘고유어+외래어+한자어’ 유형도 발견되었다.

둘째, 조어적 측면에서 신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어는 혼성 > 축약 > 파생 > 합성 > 단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생어에서는 접미 파생으로 생성된 신어가 가장 많았고 단일어에서는 차용으로 생성된 신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의미 범주에 따라 신어를 삶, 경제, 인간, 사회, 의식주 생활 등 13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사회생활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생활, 인간 및 삶 관련 분야의 신어도 적지 않게 보였다.

신어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신어들을 정량적으로 수집하여 고찰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작업이다. 특히 20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집된 신어 목록이 없다. 본고에서 수작업으로 목록화한 신어가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개인 연구자의 여건상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신어를 모두 수집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훗날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주아(2021), 「언어로 보는 중국의 ‘코로나19’」,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0호, pp.329-359.
- 강희숙(2021), 「코로나-19 신어와 코로나 뉴노멀」, 『인문학연구』, 제61호, pp.115-138.
- 남길임, 안진산, 강현아(2021), 「기사문과 댓글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의 사용 양상과 사전학적 기술」, 『한국사전학』, 제38호, pp.67-101.
- 남길임 외(2021),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 한국문화사.
- 노성산, 김새미나, 오혜신(2021), 『뉴미디어 트렌드 2022』, 샌드박스네트워크.
- 백선주(2021), 「코로나 시대의 신조어의 형태론적 분석」, 『인문사회21』, 제12집 6호, pp.963-974.
-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 「코로나-19 신어의 수집과 사용 양상 연구」, 『한국사전학』, 제46집, pp.136-171.
- 이수진·김예니(2014),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한국사전학』, 제23호, pp.232-262.
- 이수진(2022), 「2015-2020년 신어의 사회문화적 특성 연구」, 『어문론총』, 제94집, pp.99-131.
- 이해미(2020), 「코로나 시대의 신조어, 일본 사회」, 『비교문화연구』, 제60집, pp.275-300.
- 정한데로(2021), 「코로나19 신어와 언어 공동체」, 『어문논집』, 제88집, pp.93-128.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신어의 언어적 특징 고찰”에 대한 토론문

이동혁(부산교대)

지난 1월 30일에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일부 해제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격리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에 큰 변화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명명한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어일 것입니다. 티엔위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 격동기의 신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작성된 「서울경제」의 ‘신조어 칼럼’에서 신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 1>을 포함하여 모두 213개의 미디어 신어 자료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태 특징과 의미 특징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신어의 판별 기준

이 글에서는 ‘신조어 칼럼’(2020-2022)에 실린 이른바 신조어를 신어로 별다른 비판이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정한 신어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령 <표 1>에 ‘하드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풀이를 하신 대로 게임이라는 사용역에 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무렵에 사용역을 스포츠, 연예 등의 분야로 확장한 것으로 토론자가 확인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진대 ‘하드캐리’가 과연 이른바 코로나 시대의 신어라고 할 만한 것일까요?

(1) 가. '14잔루' 한화, '3타점' 김경언 하드캐리가 살렸다(마이데일리, 2015. 8. 11.)

나. 무한도전 '하드캐리' 홍진경, 전지현과 어느 정도로 친하길래? (데일리한국 2015. 10. 24.)

아래에 이수진 외(2020)에서 적용한 신어 판별 기준을 옮겨 봅니다.

표 2. '신어' 판별 기준에 대한 관점

		국어원 신어	코로나-19 신어
①	최초 출현일	전년 7월~당년 6월	2019년 12월 이후
②	사전 등재 여부	미등재 형태 또는 의미	미등재 형태 또는 의미
③	빈도	3회 이상	1회 이상
④	사전 표제어로서의 가치	비속어, 비하 의미, 특정 개인 및 집단 관련 어휘 등 제외하며 제한적으로 수집	고려하되 포괄적으로 수집

2. 이수진 외(2020)

이 글에서는 이수진 외(2020)의 연구 결과를 코로나 초기의 신어 분석 자료로 참고 발표자가 수집한 신어는 코로나 전 시기의 자료로 삼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연구의 신어 판별 기준이 다르고, 수집한 신어 목록 역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수진 외(2020)에서는 총 302개의 신어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 글에서는 그보다 적은 213개였습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성된 신어인가?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성된 신어의 연구’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시대에 생성된 신어의 연구’이겠지요?

4. 기타

제목과 서론에 기술한 글에 따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생성된 신어와 코로나 시대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 관련성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목과 달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생성된 신어의 언어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단조롭게 살펴보는 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버드옌칭(Harvard-Yenching) 도서관 소장본

『新撰日韓會話』에 대한 고찰

박진완(京都産業大)

1. 서론

하버드옌칭(Harvard-Yenching) 도서관 소장본 『新撰日韓會話』(1904)의 권수(卷首)에 찍힌 ‘小泉’은 小泉貞造(고이즈미 데이조)의 소장인으로서, 본서의 권말 필사기에 기재된 橋本貞造(하시모토 데이조)와 동일 인물로 파악된다.¹⁾ 즉 본서는 러일전쟁 때 종군(從軍)한 小泉貞造가 朝鮮駐劄軍司令部에 부임한 직후, 大野參謀의 육군통역으로서 元山에 체재할 때 작성된 것이다(박진완, 2021:241-244 참조).

본서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서번호: TK5973-08-3484

입수 정보: The Chinese-Japanese Library of the Harvard YENCHING Institute at Harvard University. AUG 27 1959

서명: 外題『新撰日韓會話 完』

형태 사항: 寫本 1冊, 27×19cm. 1卷, 目次 2葉과 本文 89葉의 總 91葉.

筆寫記: 卷首 ‘朝鮮洪爽鉉著, 日本橋本貞造譯, 李範益校閱’

明治三十七年(1904)六月十一日元山駐劄部ニ於テ始作

全 二十七年(1894)九月七日 東京博文館再版²⁾發行

卷末 ‘明治三十七年(1904)六月二十六日 駐劄軍司令部 大野參謀ニ隨行シテ元山ニ滞在中

譯謄ス 陸軍通譯 橋本貞造’

교정 기록: 金島苔水著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1904.10) 參考 39-3-27.

권수의 필사기를 통해 본서의 저자는 洪爽鉉이고, 역자는 小泉(=橋本)貞造이며, 교열자는 李範益임을 알 수 있다. 본서의 성립 시기를 전후하여 洪爽鉉과 李範益도 陸軍通譯으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新撰日韓會話』(1904)는 ‘陸軍通譯에 의해 작성된 조선어학습서’라는

1) 하버드옌칭도서관의 한국 고서 중 일부는 국립중앙도서관과의 디지털화 프로젝트(National Library of Korea-Harvard Yenching Library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에 의해 원문 화상이 공개되어 있다. 현재 다음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3772742\\$29i](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3772742$29i)

2) 필자는 再版(1894.9.7)을 찾을 수 없었으나, 初版(同年.8.27)과 三板(同年.10.30)이 내용상 동일하므로, 재판도 초판과 같은 내용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초판 国立国会図書館蔵本(請求記号:71-244)을 영인한 『근세 및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 자료 총서』(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제10책을 참조했다.

의의를 가진다. 이때 洪奭鉉이 쓴 원저(原著) 『新撰朝鮮會話』(1894)는 조선어 회화 본문이 가타가나(片仮名)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小泉貞造에 의해 한글로 복원(원문은 譯)되었고, 서명도 『新撰日韓會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李範益에게 교열을 맡겼는데, 권말에 ‘金島苔水著日鮮會話三十日速成 參考 39-3-27’이라고 하므로, 교정은 明治39년(1906)년 3월 27일에 완료되었고, 金島苔水(가나시마 다이스이)와 李鎮豐이 쓴 『日鮮會話三十日速成』(1904.10, 靑木嵩山堂)³⁾이 주로 참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저인 『新撰朝鮮會話』는 明治時代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어 학습서 가운데 한국인에 의해 제작된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며, ‘허다(爲)’ 등의 예를 통해 본서의 가나(仮名) 표기는 중부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기영, 2005:32-33 참조). 한편 이강민(2017:56)에서는 “본서에 내재된 한국어를 자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타카나의 해독을 통한 한국어 대역의 재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와 같이, 『新撰朝鮮會話』의 조선어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는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다.

그러나 小泉貞造가 이를 한글로 복원한 『新撰日韓會話』를 통해 조선어 음운사와 문법사, 어휘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근대어를 반영하는 언어 현상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新撰日韓會話』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내용 분석을 통해, 본서의 성립 과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아울러 본서에 사용된 조선어에 대한 어학적 분석을 통해 개화기 자료로서의 가치를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2. 성립 과정

『韓語教程』(1906)은 洪奭鉉著 『新撰朝鮮會話』(1894)를 모델로 해서, 여기에 육군통역관 세 명, 곧 洪奭鉉, 小泉貞造, 李範益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반영하여 각색된 것인데(박진완, 2021), 같은 논문에서 세 명의 이력에 관해 논구한 바 있다. 2장에서는 그들의 행적 중에서 『新撰日韓會話』의 필사를 전후한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2.1. 원저자 洪奭鉉

京城日語學校의 수재였던 洪奭鉉은 재학 중 어느 날, 몰래 인천으로 내려가 일본 군함을 구경하다가, 조선관인으로부터 반역자로 의혹을 받고 학교에서 추방당했다. 이에 분개하여 그는 1894년 3월 31일 이세마루(伊勢丸)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같은 해 9월 東京專門學校(현 早稻田大)에 입학했다(『東京朝日新聞』 1894년 4월 8일: 1면 「朝鮮の少年日本に走る」).

3) 国立国会図書館蔵本(請求記号:特65-516), 영인본은 前掲書, 제24책 참조.

洪奭鉉(1873~1931)의 이력

1891년 6월 (京城)日語學校 修業

1897년 6월(24세) 東京專門學校(現, 早稻田大學校) 졸업

동 7월 東京陸軍士官學校 附屬射的術 졸업

1903년 2월 14일 仁川日本碇泊場司令部通譯員 被雇

同 8월 13일(30세) 韓國駐劄日本軍司令部通譯 轉任被雇

1904년 9월 通譯員依願解雇

갑오개혁기(甲午改革期) 초기 유학생 중 한 명이었던 洪奭鉉은 1894년 12월에는 中島安邦(나카지마 야스쿠니)가 神田(간다)의 雲陽小學校 내에 朝鮮語學會를 설립했을 때 교사로 초빙되었다. 또한 1895년 2월에는 麹町区(고지마치 구)의 明治議會 내에 朝鮮語研究會가 설립되었을 때에도 교사로 초빙되었다(『早稻田文学』, 1895:111 彙報).

『新撰朝鮮會話』의 <광고문>에는

朝鮮 洪奭鉉『新撰朝鮮會話』:

著者は現今我國に留學せるの人。今日韓の事變に際し兩國に於ける談話を對照成譯して同道に於ける人生有用の會話を網羅して餘す所なし。苟くも我が國民たるものは此の日韓大會話書を携えて東洋の雲脚に後れざるを圖れ 東京博文館蔵版

필자역: 저자는 지금 우리나라(日本)에서의 유학생. 오늘날 일본과 한국간의 사변에 있어서 양국의 담화를 대조번역하여 한국에서의 인생에 유용한 회화를 망라하여 남김이 없다. 적어도 우리 국민은 이 일한회화서를 가지고 동양의 형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도쿄 博文館 장판

이라고 하며, 간기(刊記)에는 ‘明治27年 8月’ 인쇄 및 발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洪奭鉉이 1894년 3월 약관 21세에 단신으로 일본으로 도향한 직후부터 출간을 준비해, 그해 9월 東京專門學校에 입학하기 직전에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에 大日本実業学会 商科의 第一期 강의록(講義錄)으로서 총 129쪽의 『朝鮮語』(1894)⁴⁾도 출간되었다.

요컨대 洪奭鉉은 『新撰朝鮮會話』의 저술을 전후하여 東京專門學校에 입학하는 한편 교사로도 활동했다는 이력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된 『朝鮮語』의 존재를 통해 볼 때, 그는 유학 이전부터 상당한 어학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2. 필사자와 교열자

<표 1>을 통해 小泉貞造(1870~?)의 이력을 보면, 그는 조선 입국 초기에 본명을 숨기

4) 서명은 『商科第一期講義錄: 朝鮮語』(朝鮮 洪奭鉉 講)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의 강의를 大日本実業学会 측에서 정리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간년 미상이나, 『商科第二期講義錄: 大日本産物尽』(1895, 四屋俊平 著)보다 앞선 것임에는 틀림 없다. 洪奭鉉이 1894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립 시기는 1894년으로 추정된다.

고, 橋本彰美라는 이름으로 1893년에 도항하여, 1903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조선 유학 시절(23세~33세)을 보냈다. 釜山에서 일본어 가정교사 일을 시작하였고 조선 팔도를 견학했으며, 이동 중에도 당시에 편찬된 조선어 학습서와 고소설류를 베껴 가면서 조선어를 학습했다. 그는 1904년부터 1932년까지 30여 년간 육군통역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고문헌 자료를 필사했다.

<표 1> 小泉貞造의 이력(박진완, 2021:242)

연도(연령)	주요 행적
1870년 1월 11일	父 橋本善三郎. 福井縣 南條郡 王子保村 塚原 출생. 그후에 小泉家로 입양됨. 父 小泉儀左衛門. 海軍軍醫學校 입학, 東京 國民英學會 修學, 明治大學 修學.<京城市民名鑑>
1893년 8월(23세)	유학생으로 釜山 倭館으로 건너옴.
1896년 2월 ~	조선 各道를 다니면서 實地 견학을 몇 년 하였음.<在朝鮮內地人 紳士名鑑>
1903년(33세)	父 小泉儀左衛門의 병으로 일시 귀향.
1904년 2월(34세) ~	러일전쟁 종군. 朝鮮駐劄軍司令部 陸軍通譯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퇴임 때까지
1932년 10월(62세)	역대 駐劄軍 司令官인 長谷川好道부터 南次郎까지 14명의 通譯官 歷任.

그의 학습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에 편찬된 조선어 학습서류인 再刊本 『交隣須知』(1883)와 洪奭鉉著 『新撰朝鮮會話』(1894)를 직접 베껴 가면서 학습했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단순한 필사에 그치지 않고 『新撰日韓會話』(1904)로 서명을 바꾼 뒤, 조선어 원문을 표기할 때 사용된 가나(仮名)를 한글로 복원했으며, 李範益에게 교열까지 맡겼다.

한편 李範益(1883~?)은 官立外國語學校를 졸업하고 모교와 普光學校, 敦明義塾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小泉貞造가 다녔던 明治大學에서 修學한 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陸軍通譯으로 종군하였다.

李範益의 이력

1902년 12월(19세) 外國語學校 日語普通科 졸업
 1903년 5월 28일 任 外國語學校 教官, 敍判任六等
 1904년 2월 普光學校 교사
 1904년 6월 學部事務見習
 1905년 9월 27일(22세) 命 日本國陸軍省 陸軍通譯
 1907년 3월 8일 日本國陸軍省陸軍通譯依免
 1935년 2월 忠淸南道知事
 1940년 5월(47세) 滿洲國 參議府 參議

이상 본서의 성립과 관련된 세 명의 이력을 보면, 駐劄軍 陸軍通譯으로서 1903년부터 洪奭鉉(30세)이, 이듬해에 당시 34세의 小泉貞造가, 그 다음 해에는 李範益(22세)이 차례로 부임했으므로, 1905년부터 이들은 같은 곳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다. 이들이 교우(交友)하면

서 우선적으로 착수한 것이 洪奭鉉著『新撰朝鮮會話』(1894)에 대한 한글 복원 작업이었다.

3. 『新撰日韓會話』의 구성과 내용

『新撰日韓會話』는 제1~8과까지 총 8개 부문(部門)의 어휘와 제9~34과까지 총 26과의 회화문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을 배경으로 다양한 주제와 장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회화가 수록되어 있다.

『新撰日韓會話』의 목차는 원저 『新撰朝鮮會話』의 그것과 모두 일치한다. 본서의 전체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속에는 시작 부분의 엽수와 ‘앞면/뒷면’(a/b)을 표시한다.

第一 天道部(1a), 第二 地道部(1b), 第三 萬物部(2a), 第四 人倫部(4b), 第五 人事部(5b), 第六 數部(6a), 第七 月日部(6b), 第八 時表部(7b), 第九 會話初門(8a), 第十 朝起の話(13a), 第十一 散歩の話(14a), 第十二 冬節の話(15a), 第十三 訪問の話(17b), 第十四 時計の話(19b), 第十五 商賈人の話(21b), 第十六 時間の話(25a), 第十七 漁父の話(26b), 第十八 漁父歸りの話(29a), 第十九 遠足の長話(30b), 第二十 雨日の話(40a), 第二十一 鐵道の話(45a), 第二十二 南漢山見物の話(49a), 第二十三 草木の話(56a), 第二十四 鍊武臺の話(58a), 第二十五 獵夫の話(62b), 第二十六 病疾の話(67a), 第二十七 朝鮮の四月初八日の話(70a), 第二十八 學校の話(73a), 第二十九 兵隊の話(76a), 第三十 日韓會話問答(79b), 第三十一 形容詞(85a), 第三十二 歌(86a), 第三十三 手紙文(87b), 第三十四 地名の部(88b)

위에 제시한 목차를 통해 『新撰日韓會話』의 본문 구성을 보면 우선 제1과 「天道部」(1a)에서 제8과 「時表部」(7b)까지는 분류어휘 목록으로서 물명(物名)과 친족 어휘, 숫자와 같은 기본 어휘를 모아 두었다. 그리고 제9과 「會話初門」(8a)부터 제30과 「日韓會話問答」(84b)까지는 회화문을 제시하는데, 총 76엽에 걸쳐 있으므로 분량 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부록에서는 제31과 「形容詞」에서 주요 형용사의 활용형을 보이고, 이어서 仁川에서 구전되는 ‘아리랑’(제32과), 서간문의 예(제33과), 조선 팔도 및 주요 지명(제34과)의 순으로 제시한다.

우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목차의 번호를 숫자로 제시한다.

- (1) a. 일반적 장소: 14 時計 수리점, 15 羅紗屋, 19 料亭, 21 停車場, 26 病院, 28 學校
- b. 특수한 장소: 19 船上(선상 뱃놀이), 22 南漢山, 24 鍊武臺

時計 수리점, ‘羅紗屋’(의상실), ‘料亭’(음식점), 정거장, 병원과 학교에서 일어날 만한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仁川行) 船上’과 南漢山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의 회화를 제시한다. 특히 제24과에서는 ‘鍊武臺’에서 벌어지는 양국 ‘兵隊’에 관한 대화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본서에서 보이는 특수한 예로서 인정될 수 있다.

『新撰日韓會話』에는 같은 시기의 조선어 학습서와는 달리 조선어의 발음이나 문법에 대한 해설 없이 단어와 회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본서가 문법서가 아닌 실용 위주의 회화서를 의도했던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다음과 같이 원저자 洪奭鉉의 개인적 경험을 투영하여 대화를 이끄는 장면이 등장한다. 제22과 「南漢山見物の話し」는 등장인물인 A: 일본인 伊藤(이토우, 18a)와 韓人 B: ‘李重元(25세, 8b)’이 南漢山에 소풍갈 때 나눈 대화로서, (1b)에서는 南漢山까지 남은 거리에 대한 질문하고 있다.

- (2) a. A: 조선 제일 유명한 남한산에 갑시다 - B: 그리하옵시다<『新撰日韓會話』, 49b>
b. A: 여긔서 남한산거장 몇 니나 되오 - B: 여긔서 삼 니나 되오<상동, 50b>

이처럼 각 장면에 포함된 대화쌍 하나(one turn)는 두 사람의 ‘질의 - 응답’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을 ‘老兄’(貴君, 君, あなた, 그디)으로 부르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과 신분 상 동일한 관계로 파악되므로, 전반적으로 <하오체>가 사용되고 있다.

대화의 주제를 보면 조선과 일본 양국의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 전반에 대해 다룬다. 이때 제30과 「日韓會話問答」에서는 조선 기생(妓生)에 대한 대화도 1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 남성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다루어 학습 의욕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편찬 방침의 효과인지는 모르나, 본서는 初版 발행(1894.8.27) 이후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三版(1894.10.30)을 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다.

4. 언어적 고찰

4.1. 가나(仮名) 표기

洪奭鉉著 『新撰朝鮮會話』(1894)에 수록된 조선어는 당시의 정제되지 않은 회화문, 곧 생생한 구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가나(仮名)로만 표기된 회화문을 어떻게 조선어로 복원하느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小泉貞造가 쓴 『新撰日韓會話』(1904)의 조선어 복원문을 통해 전자의 가나(仮名) 표기는 후자의 한글 표기에 대응시킬 수 있으므로, 두 표기를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언어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新撰朝鮮會話』에서 회화문을 제시하는 스타일에 따라 ‘○ 일본어 문장 - ● 조선어 가나 표기’의 순으로, 『新撰日韓會話』에서 복원된 조선어 문장은 ◎ 뒤에 보이기로 한다. 이하 용례를 제시할 경우, 문헌 약칭으로 <朝會>(페이지 수)와 <韓會>(엽수, 앞뒷면 a/b)를 사용하며, 특기할 사항이 없는 한 『新撰日韓會話』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3) ○朝鮮人ハ何ヲ喰イマスカ

●テウソン、サラムウン、ムオル、モクオ<朝會143>

◎조선 사람은 무얼 먹오<韓會:79b>

(3)의 예를 통해 《朝會》에서의 가나(仮名) 표기는 쉼표(、)를 이용하여 ‘조선/ 사람은/ 무얼/ 먹오’와 같이 조선어를 단어나 어절 단위로 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어를 발화할 때의 호흡 단위에 맞추어 분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원저자인 洪奭鉉은 일본어 문장에 대응하는 조선어 문장을 상정한 뒤, 그것의 복원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 가나 표기를 기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洪奭鉉講『朝鮮語』(1894)의 첫머리에 달린 언문표(諺文表)는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표 2> 『朝鮮語』 諺文表<p.2-3>

	平聲	去聲	入聲	上聲	全上	平聲	
	開口音	咽喉音	舌音	脣音	牙音	牙音	開口音
母音 父音	トト(アー,ヤ)	トト(オー,ヨー)	トト(オ,ヨ)	トト(ウ,イウ)	トト(ウ,イ,ア)		
ㄱ	가가(カー,キヤ)	거거(코어,키코어)	고교(코,키코)	구교(쿠,키우)	그기(크어,키,카)		
ㄴ	나나(ナー,ニヤ)	너너(ノー,ニョー)	노노(ノ,ニコ)	누뉴(ヌ,ニウ)	느니(너어,니,나)		
ㄷ	다다(ター,チヤ)	더더(トー,チョー)	도도(ト,チコ)	두두(ト,チウ)	드디(트어,치,타)		
ㄹ	라라(ラー,リヤ)	러러(ロー,リョー)	로료(ロ,リコ)	루류(ル,リュウ)	르리(러어,리,라)		
ㄴ	마마(マー,ミヤ)	머머(モー,ミョー)	모묘(モ,ミコ)	무뮤(ム,ミウ)	므미(머어,미,마)		
ㅂ	바바(バー,ビヤ)	버버(ボー,ビョー)	보뷰(ボ,ビコ)	부뷰(ブ,ビウ)	브비(버어,비,바)		
ㅅ	사사(サー,シヤ)	서서(ソー,ショー)	소쇼(ソ,シコ)	수슈(ス,シウ)	스시(서어,시,사)		
ㅇ	아아(アー,ヤ)	어어(オー,요어)	오요(オ,ヨ)	오유(ウ,イウ)	우이(우어,이,아)		
ㅈ	자자(チャ,チヤ)	저저(チョー,チョー)	조쵸(チコ,チイコ)	주쵸(チウ,チイウ)	즈지(쵸어,치,치아)		
ㅊ	차차(ツチャ,ツチヤ)	쳐쳐(ツョー,ツイョー)	초쵸(ツオ,ツイコ)	추쵸(ツウ,ツイ우)	츠치(쵸어,치,치아)		
ㅋ	카카(カ°,キ°ヤ)	커커(コ°,キ°코)	코쿄(コ°,キ°코)	쿠쿄(ク°,キ°우)	크키(크°어,키°,카°)		
ㅌ	타타(タ°,チ°야)	터터(ト°,チ°코)	토토(ト°,チ°코)	투투(ト°,チ°우)	트터(트°어,치°,타°)		
ㅍ	파파(パー,ピヤ)	퍼퍼(ポー,ピョ어)	포표(ポ,ピコ)	푸표(プ,ピ우)	프피(퍼어,피,파)		
ㅎ	하하(ハー,ハヤ)	허허(ホー,ヒョ어)	호효(ホ,ヒ코)	후효(フ,ヒ우)	흐히(허어,히,하)		

모두(冒頭)에서는 韓國諺文(=한글)의 문자 체계를 父音(14字)과 母音(11字)으로 나누고, ‘父音’, 곧 현재의 자음 중에서 /ㅈㅊㅋㅌㅍㅎ/는 그 이외의 자음에 비해 강하게 발음하는 ‘剛音’으로 부른다.

父音(14字)

ㄱ(키옥), ㄴ(니운), ㄷ(치크), ㄹ(이울), ㄴ(미오), ㅂ(비오), ㅅ(시오), { }ㅇ(하링),
ㅈ(치야), ㅊ(치야), ㅋ(카°), ㅌ(타°), ㅍ(파), ㅎ(하)

母音(11字)

ㅏ(아), ㅑ(야), ㅓ(오), ㅕ(요), ㅗ(우), ㅛ(이우), ㅜ(우어), ㅡ(이), ㅚ(아)

ㅈㅊㅋㅌㅍㅎ의六字は剛音とす。ㅏㅑ의二字はㅗㅛの去聲にして、ㅜはㅛの上聲なり、但此三者は日本
に無き所にして、精密なる発音は口授にあらざれば知り得難し<第一編 諺文(假名), p.1>

또한 모음 ‘ㅏ, ㅑ, ㅓ’에 관해서 ㅏ(ㅏ)와 ㅑ(ㅑ)는 각각 ㅏ(ㅏ)와 ㅑ(ㅑ)에 대한 ‘去聲’이고, ㅓ(ㅓ)는 ㅓ(ㅓ)에 대한 ‘上聲’이라고 하였다. <표 2>를 참조하면 이는 발음의 장단(長短)을 이용한 설명으로 이해되는데, ㅏ(ㅏ)와 ㅓ(ㅓ)의 구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4.2. 조선어 복원

洪奭鉉은 이전 시기까지 정립되지 않았던 조선어에 대한 가나 표기를 『朝鮮語』(1894)의 ‘諺文表’에서 정리하여 그 표기 규범을 제시하였고, 이를 『新撰朝鮮會話』(1894)에도 일부 적용시켜 나갔다고 판단된다. 이는 韓人에 의한 조선어 ‘가나(假名) 문자 표기법’의 시초로 평가할 수 있으며,⁵⁾ 그 개요는 형태를 중시하는 표의적(表意的) 방식과 음소를 중시하는 표음적(表音的) 방식이 절충된 것으로 요약된다.

『朝鮮語』에서는 유사한 발음인 ‘ㅏ:ㅓ’, ‘ㅑ:ㅓ’, ‘ㅓ:ㅓ’에 대해 각 쌍의 전자를 장음(長音), 후자를 단음(短音)으로 발음하여 양자를 구분하게끔 하였는데, 이를 《朝會》 회화문의 표기에 반영한 것은 표의적(表意的)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하에서는 《韓會》의 한글 복원문을 참고로 하여 《朝會》에서 드러나는 가나 표기의 주된 특징에 대해 몇몇 용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朝會>’, ‘<韓會>’의 순으로 표시).

- (4) a. チョン、ユー、チャン 정거장<77, 45a>, チンコカイ 진고기<11, 9a>
b. 더욱 トーウク<74, 43b>, トサラム 두 사람<79, 46b>

(4a)에서는 장단(長短)으로 구별된 ユ-와 ㅑ가 각각의 두 번째 음절 ‘정거장’과 ‘진고기’로, (4b)의 ト-와 ト도 역시 ‘더’와 ‘두’로 달리 복원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韓會》에는 원저자 洪奭鉉의 가나 표기 방식, 곧 장단을 활용하여 모음을 형태적으로 구분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그러나 ‘역:옥(ㅏ), 격:곡(ㅑ), 극:국(ㅓ)’<『朝鮮語』, p.3-4>과 같이 받침(원문의 附着音)이 있는 경우에는 장단(長短)이 중화(中和)되어 더 이상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더욱이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 세 모음(ㅏ, ㅑ, ㅓ)에 관해서는 “정밀한 발음은 말로써 가르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朝鮮語』, p.1>고 한 바와 같이 『新撰朝鮮會話』의 표기에는 장단의 구분이 엄밀히 지켜지지 않았다.

예컨대 동사 스ル(爲)에 관한 표기를 보면, (5)와 같이 《朝會》에서는 장단으로 구별된 ハ-와 ハ, 그리고 ホ-의 세 가지 표기가 등장한다.

- (5) a. ハーユ 노리도 하교<151, 84b>, ハーヲ 무어시라 하오<46, 28b>

5) 현대국어를 가나(문자)로 쓰는 표기법은 1987년 문교부에서 교과서 편수자료로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을 공고한 것이 최초이다.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 제3장 표기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ハーオ 안국이라 헝오<10, 8b>
 b. ハコ 충원이라 헝고<10, 8b>, クロハシヲ 그리헝시오<64, 38b>
 b'. ハオブシ 외누리 하옵시다<37, 23b>, ハヌン ㄴ라고 허는 고시요<80, 47b>
 c. クロホーイツカ 그리허잇가<13, 10a>, ホーチー 녁ᄃᆞᆫ허지<88, 51b>, ホーイツカン 약허
 온잇가, 약허닛간<106, 60b 2개>

『朝鮮語』諺文表를 참조하면, 《朝會》의 호-는 《韓會》에서 (5c)처럼 예외 없이 ‘허-’에 대응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하에 대한 복원 양상은 원칙에서 벗어난 예가 다수 출현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받침이 없는 용례만 추출하여 그 양상을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하-, 하(爲, 슨)에 대한 복원 양상

韓會 朝會	하-	헝-	허-	총계
하-	126(94%)	8(6%)	*	134개
하	52(80%)	11(17%)	2(3%)	65개

우선 장음 하-에 대한 《韓會》의 복원 양상을 살펴보면, 諺文表에서 제시한 대로 (5a) ‘하 고, 하오’와 같이 거의 모두 ‘하-’에 대응되며(94%), ‘헝-’로 혼동된 예 (5a')가 소수 보인다. 이에 반해 단음 하에 관해서는 원칙대로 ‘헝-’로 복원된 예보다, 이에서 벗어난 ‘하-’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다(80%). 더욱이 ‘허-’로 복원된 ‘ハヌン (만리창이라고) 허는 고시요’<朝會80, 韓會47b>도 나타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新撰日韓會話』의 아래아(ゝ)에 관한 표기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의 회화문은 아래아(ゝ)가 소실된 이후의 근대적 표기를 보여주는데, ‘헝습’ (行習)<64a>과 같이 일부 한자음에 보수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에 따라 동사 어간 ‘헝-’로 복원되어야 할 곳에 ‘하-’로 교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표 3>의 슨(爲)에 관한 용례 중에서 어간 ‘헝-’로 복원된 것은 총 199개 중 11개(5.5%)에 불과하다. 이는 조선어의 복원 과정에서 諺文表의 규칙보다 실제 발음이 더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朝會》의 원래 가나 표기에 따르지 않고 실제 발음대로 복원한 예마저 보인다. 일례로서 ‘朝鮮’에 관한 가나 표기는 テウソン(te-u-so-n)으로 나타나지만, 《韓會》에서는 1개 (묘선<49b>)를 제외하고 모두 구개음화 이후의 표기인 ‘쵸선’<50a 등 26개>으로 복원되었다. 洪奭鉉이 규범적인 표기 てう(teu)로 적은 것에 반해 小泉貞造는 실제 발음(工段+ウ(-eu)> [-jo:])대로 ‘쵸’[tʃo:]로 복원했던 것이다.

또한 종성과 관련된 가나 표기는 <표 4>와 같이 정리되는데,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韓會》는 변화한 음대로 복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4> 『新撰朝鮮會話』의 가나 표기(終聲)

종성	ㄱ	ㄷ	ㅂ	ㄴ	ㅁ	ㅇ	ㄹ
가나	ク(ku)	ツ(Q)	ブ(bu)	ン(n)	ム(mu)	グ(gu)	ル(ru)

그 대표적인 예로서 비음화(鼻音化)를 든다.

- (6) a. 형태소 내부: 합니다 ハブニタ(云ヒマス)<122, 62b>, 둠니다 トンニタ(用井マス)<72, 42b>
 b. 형태소 경계: 거진말 ユチンマル(偽)<39, 27a>
 c. 단어 경계: 함 번 ハームボン(一度)<55, 33a>

<표 4>의 가나 표기 대응 규칙에 따르면 (6a)는 ‘합니다’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비음화를 겪은 ‘합니다’<韓會62b>로 나타난다. 또 형태소 외부의 예로서 (6b) 합성어 ‘거진말’(←거짓 + 말)<韓會27a>은 물론, (6c) ‘함 번’(←한 번)<韓會42b>과 같이 단어 경계(수사#단위성 의존명사)에서도 비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新撰朝鮮會話』(1894)에서 이미 비음화된 トンニタン<朝會72>를 복원한 (6a)의 ‘둠니다’(←둑니다)<韓會42b>를 통해 볼 때, 개화기 당시에 비음화가 생산적인 음운 규칙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예들은 《朝會》의 가나 표기를 한글 복원 과정에서 당시의 실제 발음이 준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예이다. 결국 小泉貞造이 복원한 『新撰日韓會話』(1904)에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어의 발음 현실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조선어학습서로서의 가치

『新撰日韓會話』에서는 주석(註釋)을 활용하여 회화문에 등장하는 어휘와 문법에 대한 설명 및 그와 관련된 예문을 제시한다.

- (7) a. ◎노형 이 시계는 어딴 사섯소<20b>
 (난외 상단) 公の時計は 어디선テ 사섯소
 셔ハ接續詞⁶⁾에서(ニテ)ノ略ニシテ地名ニ付シ(ヨリ)又ハ(カラ)ニ当タル<20a>
 b. ◎노형 (&문)병 보라(히로) 아니 가시카요
 가시카요トハ此レ全羅道ノナマリニ非ズヤ<69a>

(7a)에서 조사 ‘-셔’는 ‘-에서’(ニテ)에서 ‘-에’가 생략된 어형으로서 지명에 부착되어, ヨリ 혹은 カラの 용법(필자주: ‘에서’ 혹은 ‘부터’)에 대응한다고 설명한다. 또 (7b)에서는 ‘-

6) 원문은 ‘接續詞’로 되어 있으나, 현대 일본어 문법에서는 접속조사(接續助詞)로 기술한다.

기요'에 대한 주석으로서, “이것은 전라도 방언이 아닐까”라고 하였다. 그러나 小倉進平(1944:346)에서 ‘-기오(요)’는 黃海道와 咸鏡道 방언으로서 ‘하기오’와 같이 동사 여간에 붙어 청유, 희망을 나타낸다고 설명되어 있다. 지역 비정(比定)에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으나, 방언형이라는 판단 하에 ‘가시기요’는 ‘가시요’로 올바르게 수정되어 있다.

한편 교정 기록에서 언급한 대로 『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1904.10)⁷⁾을 참조하여 수정한 곳으로는 (8)과 같이 출발과 종료를 나타내는 조사 ‘-벗뎌 -거징/거진’이 ‘-부터 -까지’로 일괄 수정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8) a. (9)오월 달. 부터. 장마가. 시작호오?<速成p.92>

◎오월 달벗뎌(→부터) 시작호오<韓會40b>

b. (18)예서. 원산까지. 얼마쯤 되오<速成p.127>

◎여기서 삼기거진(→까지) 얼마쯤 되오<韓會32a>

그 외에도 《韓會》에서는 복원된 조선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표현에 관해서는 수정선(修正線)을 긋거나 방점을 치고 수정후의 표현을 주서(朱書)⁸⁾로 행간에 직접 기입한다. 또한 (7b)에서 &로 표시한 바와 같이 어형과 표현을 보충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병 보라’는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인 ‘문병(問病)호로’로 수정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데, 《朝會》가 쓰인 것이 1894년이고, 《韓會》의 작성 후 李範益에 의해 수정이 완료된 것이 1906년인 것을 상기하면, 약 10년간의 언어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5.1. 표기와 형태

2인칭 대명사 ㄴ(御前)ㄴ에 대한 《韓會》의 ‘니가’를 李範益이 ‘네가’<71b>로 수정한 것은 아래아(·)가 소실된 이후의 근대적 표기 표기를 보여주는 예인데, 1인칭 대명사가 포함된 ‘네나라 니 나라’(<56b> 등 7개)는 ‘우리나라’로 일괄 수정되었다.

또 속격 조사는 ‘-에’와 ‘-의’가 혼용되고 있었으나, ‘-에’를 ‘-의’로 활발히 수정하고 있으므로(外國人ノ居留地 외국 사룸에(→의) 거류지<57b>) 점차 ‘-의’의 형태로 통일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구어적 환경에서는 격조사 생략이 자연스러우므로 ‘노형 조선 에(×) 가서 비 마져 보앗소’<40a>와 같이 조사 ‘-에’를 삭제한 예가 보인다(이하 ×로 표시).

7) 단기간에 조선어 습득을 꾀한 학습서로 ‘第1編 豫修, 第2編 會話, 第3編 參考’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18日 회화 문 중에 ‘나는 금도대쥬(金島苔水)이요, 직함은 무어시오? 늑군통약이요’<p.121>를 통해 저자는 부산 거주의 일본 육군 통역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植田晃次, 2014). 관련 회화로써 「軍用雜貨」(第26日)과 「軍事行政」(第30日)이 있다. 특히 후자 ‘軍事行政’은 『新撰日韓會話』第29課의 소제목 ‘兵隊の話」 옆에 주서(朱書)로 부기(附記)되어 있어, 본서의 교열 시에 『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이 활용된 연유를 짐작케 한다.

8) 엄밀히 말하면 小泉貞造 자신에 의한 묵서(墨書) 교정도 일부 보인다. 그러나 총 6예에 불과하므로, 분량 면에서 볼 때 약 700여 곳에 이르는 李範益에 의한 주서(朱書) 수정에 비견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하는 수정은 기본적으로 후자를 가리키며, 전자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례 뒤에 ‘墨書’로 표시하기로 한다.

명사구 연결시에 사용된 ‘-의’는 필수적으로 생략되어, ‘셔양~~의~~(×) 법식’<58a>, ‘쥬션~~의~~(×) 법식’<58b>과 같이 수정된다.

이에 반해 ‘밥(&을) 사셔 먹읍시다’<53b>와 같이 격조사를 보충하는 태도도 목격된다. 문법 형태에 관해서도 누락된 번역어를 보충하는 곳이 눈에 띈다(이하 &로 표시). 예컨대 ‘書生~~杯~~가 셔싱(&들)’<66b>에서 ‘杯’는 부조사(副助詞) など(等)의 통용자이므로, 조선어 복원문에 복수 접미사 ‘-들’을 보충한 것은 올바른 수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디단니> 디단히’<69a>를 통해 부사형접미사 ‘-히’의 형태가 정착되는 과정과 함께, ‘기중이(→귀~~히~~게) 하오’<57a>를 통해 부사형어미 ‘-게’의 사용이 증대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9)는 한문 훈독체를 동시대의 구어적 표현으로 바꾼 곳으로서, (9a)의 ‘물논(勿論)하-’는 긍정의 감탄사 ‘아모람’으로, (9b)의 ‘-에 디하야’는 목적격조사 ‘-을’로 수정되었다. 이하에서 수정 예는 ‘수정전→후’와 같이 표시한다.

- (9) a. 물논~~하~~고(→아모람, 59b)
- b. -에 디하야: 쥬션에 디하야(→을, 61b)
- c. -의 인허여: 토지의 인허여(→에 짜라서, 60a), 숨헌 데 인허여(→쥬치 못~~히~~셔, 67b)
- d. -기에: 약허기에(히셔, 59b), 쥬와허시기에(하~~니~~싸, 42b), 작기에(→죽~~으~~니싸, 60b)

이유를 나타내는 (9c)의 ‘-의 인허여’는 ‘-에 짜라서’와 ‘-어서’, (9d)의 ‘-기에’에 관해서도 ‘-어서’와 ‘-으니싸’와 같이 구어적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수정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묘’(廟)를 ‘社堂’<49b>으로 수정하였으나, 이는 ‘祠堂’의 잘못이다. 또 ‘든(→당)기지’<91b>는 움라우트(umlaut)가 반영된 방언형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예인데,⁹⁾ 또 다른 교정 예인 ‘단길(→거를)’<53a>를 참조한다면, 이는 ‘걸지’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5.2. 문법

《韓會》의 가나(仮名) 표기 원문에서 일본어 문장의 경어도(敬語度)¹⁰⁾가 잘못 파악된 경우, 《韓會》의 복원문에 대한 수정 단계에서 이것이 바르게 고쳐진 예가 보인다.

- (10) a. 嫌ヒ~~デ~~스~~ク~~ 시려(シリ~~ク~~)→ 시려~~요~~<48b>

9) 『韓語教程』(1906)에서는 주석(註釋) ‘나논 벅슬 다닙니다 - 당기 ハ 方言’<韓語教程, 上1b>을 통해, ‘다니-’에 대응하는 ‘당기-’는 방언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1997:380)에 ‘당기-’가 3개 보이므로, 서울 지역에서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10) 경어도는 박진완(2000:125)에서 상대경어법에서 파악되는 높임의 정도성을 나타내기 위한 술어로서 사용했으며, 상대경어법의 유무대립에 관여하는 전형적인 형태소로서 ‘-아-’와 그 후대형 ‘-응이-’에는 (+2), ‘-습-’과 명령형에서의 ‘-시-’에는 (+1)의 경어도를 부여하였다.

- b. 宜フ御リマス 조와(チョワ)→ 조와요<17b>
 c. 損ハシマス 마이 히는 아니 히겟소(アニハイケツソ)→ 아니 당히겟지요<12a>

マス體에 상응하는 표현으로서 (10a,b)에서는 <해체>에 ‘-요’를 부착하여 <해요체>로 수정한다. 이와 함께 (10c)에서는 <하오체>의 ‘-소’를 <해요체>의 ‘-지요’로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의 결과 《韓會》에는 비격식체의 <해체>와 <해요체>의 사용이 활발하게 드러난다.

- (11) a. 해체 ‘-어, 지’: 조와<17b(2개), 31a, 43a, 44a, 45b>, 몰나<26a>, 오지 안나<41a>, 시려<嫌, 48b>, 가야지<43b>, 녁넉히지<51a>
 b. 해요체 ‘-어요, 지요’: 할 슈 업셔요<39a>, 올에도 닝어 다랴요(付), 조와요<이상, 70b>, 하섯지요<13b>, 압부지요<19b>, 업지요<49a>, 아니 하지요<58a>, 약하지요<60ab>, (등을) 케지요<72a>, 길레서 말히지요<82a>, 오옥원이나 하지요<83a>
 c. 모르네<38a>, 궁감헌데<50a>, 잇는데요<55b>

<해체>의 (11a) ‘-어, 지’와 함께, <해요체>의 (11b) ‘-어요, 지요’가 등장하는데, 거의 모두 평서형종결어미의 쓰임을 보여 주지만, ‘올에도 닝어 다랴요’(今年モ紙鯉ヲ上ゲマス) <70b>는 의문형종결어미의 예로서 주목된다. 또한 (11c) ‘-네’, ‘-ㄴ/는데(요)’의 예도 확인되므로, <해체>와 <해요체>가 정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5> 『新撰日韓會話』의 상대경어법 체계와 종결어미 목록(수정후)

문제법 화계	문제법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하소서체(+3)		옵나이다(1)	옵느 닛가(1)	옵소서(1)	*
합쇼체(+2)		븘니다(3), ㄹ니다(5), 옵니다(1), 옵되다(1), 슴니다(1), 오이다(2), 외다(1), 소이다(4)	옵닛가(7), 온닛가(3), 온잇가(3), 닛가(3), ㄹ닛가(3), 슴닛가(5)		*
하오체	하지오형(+2)	*	시오(3), 시요(1)	시요(30)	*
	하오형(+1)	오/(이)요(190), 소(123), 소그려(1), 올니다(1), 올시다(5)	오/(이)요(97), 소(26)	으오(1)	븘시다(14), 올시다(3)
하계체		네(1); <감탄법>그려/구려(3)	ㄴ가(1), ㄹ가(2)	*	셰(1)
해라체		다(5), ㄴ다(9), (이)라(3), (이)다(2); <감탄법>구나(1), 구먼(1), (이)로다(1)	냐(3), 니(1)	어라(3), 거라(1)	쟈(1)
해체		어(9), 네(1), 지(2), ㄴ데(1), 니짚(2), 닛간(1), ㄴ걸(3), 고말고(2)	지(1)	*	*
해요체		지요(7), 지오(1), 는데요(1)	어요(1)	*	*

<표 5>를 통해 御坐リマス(カ)에 대응되는 <하소서체>의 ‘-옵나이다, -옵느 닛가, 옵소서’, <합쇼체>의 ‘-븘/습니다, -븘/습닛가’가 확인된다. <하계체>의 경우 평서형의 ‘-네’, 의문형의 ‘-ㄴ/ㄹ가’, 청유형의 ‘-셰’를 찾을 수 있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서에서는 <하

오체>가 근간을 이루므로, 평서형·의문형에서의 ‘-오, -소’와, 명령형의 ‘-으오’가 활발히 쓰이며, 의문형과 명령형에서는 이에 비해 경어도(敬語度)가 한 단계 높은 ‘-시요’도 많이 사용된다.

그 이외에 본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종결어미로서는 우선 <하계체>의 감탄법 종결어미 (12a) ‘-그러, -구려’를 들 수 있다.

- (12) a. 잘 지시구려<34a>, 허갯소그러<42a>
- b. 잡앗스니싼<30a>, 위하닛간<72a>
- c. 큰 놈인걸<28b>, 길단걸<29a>, 존걸<30b>
- d. 알고말고<34a>, 보고말고<40a>, 그러고말고<67a>, 잇고말고<82b>

또 분포적 종결어미화의 빠른 예로서,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12b) ‘-니싼/닛간’과 함께, 문법적 종결화의 일종으로서 의존명사 구성, 즉 ‘-ㄴ(관형사형 어미) + -거(‘것’의 변이형) + -르(목적격 조사)’이 종결화한 (12c) ‘-ㄴ 걸’의 예가 보인다.¹¹⁾

또 (12d)의 ‘고말고’는 ‘상대편의 물음에 대하여 긍정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낼 때 쓰는 종결어미’(『표준국어대사전』)로서 이상의 (12b,c,d)는 모두 <해체>의 종결어미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문사의 용례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13) 의문사

무슨, 무엇, 엇더게(이상 何), 얼마, 몇(이상 幾), 왜(何故), 누구(誰)

현대어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何時’에 대응하는 표현으로서, ‘몇 시’<72b> 1개와 함께 ‘무슨 시’<25a,26a,29a,73b,74a>라는 표현이 모두 5개 보인다. 후자 중에서 ‘몇 시’<73b>로 수정된 예가 1개 나타나므로, 이 당시에는 두 표현이 혼용되었으며, 점차 ‘몇 시’라는 표현이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3. 어휘 및 표현

《韓會》에는 여타 학습서에서 찾기 힘든 어휘와 표현이 산견된다. 우선 고유어 지명과 관련하여 현재의 마포(麻浦)를 가리키는 (14a) ‘삼기’, 성현(星峴)에 대한 ‘별고지’와 함께, 南漢山 부근의 교량과 하천명으로서 ‘살고지 다리’와 ‘시나룻’을 찾을 수 있다.

11) 박진완(2000 ㄱ:274-285 참조)에서는 본래의 연결어미와 변화 후의 종결어미를 비교해 볼 때 단지 분포적인 차이만 있을 뿐 그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경우, 즉 ‘-니싼’과 같이 분포적 환경만이 달라진 변화를 분포적 종결화로 부르고, ‘-ㄴ 걸’과 같이 형태·의미적으로 변화하여 둘 사이의 의미에서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변화를 입은 것을 문법적 종결화로 불러 양자를 구분한다. 다만 박진완(2000 ㄱ:285)에서는 ‘-ㄴ/ㄹ 걸’이 1945년 이후에 종결어미화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변화 시기를 19세기말로 수정할 것이 요청된다.

- (14) a. 麻浦 삼기<28b>, 星岬 별고기<48a>, 箭串橋 살고지 다리<51b>, 新津 시나룻<52b>
 b. 라사(羅紗), 순사(→검)<36a>

(14b)는 신어(新語)의 사용례를 보인 것인데, 우선 ‘라사’는 포르투갈어의 ‘raxa’에서 왔으며, ‘모직물’을 뜻한다. 또 ‘순사’(巡查)는 ‘순검’<36a>으로 수정되고 있다. 당시 경무청(警務廳)의 관제는 경무사(警務使)·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순검(巡檢)으로 나뉘는데, ‘순검’은 갑오경장 때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각각의 초출 예는 개화기에 간행된 「官報」(1900) ‘上衣領章은 地質은 軟靑色羅紗오’¹²⁾와 「독립신문」(1896) ‘순검과 간슈의 상하고’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본서에 사용된 두 어휘는 신어로서 인정될 수 있다.

또 번역어 대응이 특이한 예로서, ‘술을 따르다’의 의미로 쓰인 ‘잔질허다’<39a>가 있으며, ‘上等社會’에 대한 조선어로서 ‘상등 사름’<62b>과, ‘양반’<81b>이 대응되어 있다. 또 大丈夫ダ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복원문의 ‘십상이다’<37a>가 보이고, 이에 대한 주석으로서 유의(類義) 표현 ‘관계치 안타’<37a>가 제시된다. ‘十中八九 십상 팔구’<72b>를 참조해 볼 때, 이때의 ‘십상’(十常)은 ‘십중팔구(十中八九), 꼭, 틀림없이’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계사 ‘-이-’ 뒤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라’ 대신에 ‘-다’가 실현되는 (15a)의 예는 개화기 시기 ‘언문일치체’(言文一致體)의 대두와 관련하여, 일찍이 주목을 받아 왔다.

- (15) a. 하시는 일이라(→것이다)<72a>, 쓰는 것이라(→것이다)<72b>, 너를 위하여 다는 거시라
 (→단다)<71a>, 글자를 쓰는 거시라(→거시단)<72b>
 b. 의원악(&집에) 갖다 올니다(→오겟소)<69a>

이와 함께 ‘-리다’를 ‘-겟소’로 바꾼 (15b)의 예도 종결어미의 근대적 사용 양상을 잘 보여 준다. (15)의 수정을 통해 복원문의 문체는 보다 구어체를 반영하는 문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5.4. 오류 분석

한글 복원 과정에서 보이는 《韓會》의 오용(誤用)에 관해 지적하면, 우선 양국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한 오류를 들 수 있다.

- (16) a. 자음: 마자<46a>, 마즈(31b, 이상 馬車), 편 ㄴ 지(→변변치) 못하오나<33b>
 b. 모음: 아홉(→홉)<25a, 墨書>, 마음에 두(→드)는 거슬 걸느(→고루)시오<22b>,
 오몬、ナル 오는 날(何日)<40b>

12) 이한섭(2014:199)에서는 ‘나사(라사, 羅紗)’의 초출예로 ‘紗洋紗等因兩而科稅’<日槎集略(1881)>을 들고 있으나, 자형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日槎集略』의 원전을 확인해 보면, 如羅紗洋紗等。因量而科稅。載在淸國條約書之末尾。<卷2「問答錄」(1881.4.28.)>과 같이 이 예문은 淸國 조약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므로 조선어 어휘 체계에 수용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

c. 받침: タク 닥(→닭, 鷄)<2회, 80b>, 까닥(→까닭, 譯, 이유의 カラ)<38a, 57b>

(16a)는 격음(激音)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생긴 오류로서, ‘편편지’는 ‘변변치’로 올바르게 수정되었으나, ‘차’(車)는 결국 교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꽤 큰 집이요’<22a>와 같이 경음(硬音) ‘꽤’를 격음으로 표기한 예도 현재 일본인이 자주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이다.

(16b)는 모음 ‘ㅣ/ㅓ’와 ‘ㅡ/ㅜ’의 변별과 관련하여 수사 ‘아홉’과 동사 어간 ‘들-’(入), ‘고루-’(選)의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何日’에 대한 ‘오는 날’(オヌン、ナル)은 ‘어느 날’로 수정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다. 또 (16c)는 겹받침 ‘닭’을 ‘닥’으로 잘못 복원한 예를 수정한 것이다.

한편 일본어 문법과 어휘로부터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로서 (17)과 같은 예가 보인다.

- (17) a. 二乗ル: 상등엔(→을) 톡는 거시 편하오<46b>, 소선엔(→을) 탑시다<44a>
 b. 거진말는(→은)<27a>, 죠션는<59b>
 c. 濟物浦が見エマス 제물포가 뵈오(ボイオ)<48a>

(17a)는 二乗ル의 조사 二를 축자(逐字) 번역하여 ‘-에’를 대응시킨 예로서 두 용례 모두 ‘-을’로 바르게 수정되었다. (17b)는 선행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른 보조사 ‘-은/는’의 구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는 조사는 八의 한 형태로만 실현되므로,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발생하는 빈출 오류 중의 하나이다. (17c)에서 ボイオ는 ‘뵈오’로 복원되었으나, 문맥상 피동 표현인 ‘보이오’로 나타나야 한다. 이는 조선어 피동법(被動法)에 대한 지식 결여에 따른 오류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식 한자어와 외래어, 장음부(長音符)가 그대로 도입된 오류가 나타난다.

- (18) a. 綺麗: 괴려한<22a>, 괴려하오<35a>; 殺風景 살풍경(→낫분)<83b>
 b. O大嫌ヒデスネ / ●タイキ、ハーヲ / ◎딘괴하오<41b>
 c. 비ー루(→믹쥬, ビール)<44b>

(18a)는 일본한자어 ‘奇麗’(きれい)와 殺風景(さっふうけい)를 조선식 독법으로 읽은 것에 불과하다. 후자는 ‘낫분’으로 수정되었으나, 전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 (18b)는 大嫌ヒ(タイキラヒ)의 독법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타이키만을 그대로 가져온 예로 판단된다. 《朝會》의 잘못은 수정되지 않고 《韓會》에서도 이를 답습하여 ‘디괴’로 읽은 것이므로, 이것도 역시 일본어로부터 간접받은 예로 처리될 수 있다.

(18c)의 ‘비ー루’(beer, ビール)는 일본식 외래어를 그대로 도입한 예로서 일본어의 장음 부호에 이끌려 조선어 표기에도 ‘ㅡ’가 사용되었다. 이는 교정 단계에서 李範益에 의해 ‘믹

쥬'(麥酒)로 고쳐졌다.

이상의 예 (16~18)은 小泉貞造(고이즈미 데이조)로 대표되는 20세기 초 조선어 학습자의 표기에 나타나는 오류로서, 이를 통해 현재 일본인 학습자의 빈출 오류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6. 결론과 남은 과제

남은 과제로서 우선 가나 표기를 한글로 변환할 때 설정한 『新撰日韓會話』의 복원 규칙을 찾아내는 일이다. 洪奭鉉이 기입한 『新撰朝鮮會話』의 가나 표기에는 저자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조선어가 기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洪奭鉉의 강의록 『朝鮮語』(1894)의 '諺文表'가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諺文表에서 제시한 대로 장단(長短)에 따른 모음 형태의 구분이 지켜졌는지 알기 위해, スル(爲)에 대한 ハー('하-')와 ホー('호-'), ハ('ㅎ-')를 대상으로 원문과 복원문을 대조하여 각각의 복원 양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ハ에 관해서는 원칙에서 벗어나 '하-'로 복원된 예가 80%나 출현하는데, 이는 아래아(ㆍ)가 소실된 이후의 발음 양상을 보여준다. 구개음화와 비음화(鼻音化)를 겪은 후의 어형으로 복원하는 예도 보이므로, 실제 복원 과정에서 표기보다 실제 발음을 중시하는 태도가 확인된다. 따라서 개화기의 발음 변화와 관련된 그 외의 용례를 찾아 이상의 논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초량관어학소(草梁館語學所)의 조선어학 교수를 역임한 우라세 히로시(浦瀬裕)는 19세기 말의 조선어에 대해 '학사의 말에 의하면 근래 10년간 크게 변했다(十年前ヨリ我が邦言語一變セリ)'<交隣須知(1881, 1883), 緒言1:1b>고 지적한다. 결국 洪奭鉉의 가나 표기 원문(1894)에 대한 小泉貞造의 한글 복원문은 19세기말의 조선어를 반영하므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李範益에게 『新撰日韓會話』의 조선어는 다소 의고적으로 비추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는 20세기 초의 현실 표현에 준거하여 교열에 착수하고 1906년에 수정을 완료했던 것이다. 원저의 완성 후 12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볼 때, 『新撰日韓會話』의 복원문(=《朝會》)과 수정문 사이에 보이는 언어적 차이는 통시적인 변화로 해석 가능하다.

다만 모든 수정이 통시적인 변화를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본고에서 일부 살핀 바와 같이 수정에 따른 표현의 변경이 ①통시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신구(新舊)의 교체인지(속격조사 '-에' > '-의'), ②오류에 관한 수정인지, 격조사(格助詞)의 삭제와 같이, 조사를 생략한 문장에 대한 ③규범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개개의 언어 현상마다 각기 설명해야 한다. 특히 ③은 구어적 표현의 선택과 관련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과제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1997.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 엮음.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국사편찬위원회. 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 박기영. 2005. 「開化期 韓國語의 音韻 研究 :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완. 2000ㄱ. “현대국어 종결어미의 변천.”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1」 서울: 박이정. 235-380.
- 박진완. 2000ㄴ. “「捷解新語」 경어법의 대조언어학적 고찰 -원간본을 대상으로.” 「한국어학」(한국어학회) 12. 119-146.
- 박진완. 2021. “하버드옌칭(Harvard-Yenching) 도서관 소장본 『韓語教程』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한국어학회) 93. 237-271.
- 이강민. 2017. “『신찬조선회화(新撰朝鮮會話)』의 일본어(日本語)와 한국어(韓國語).” 「日本語文學」(한국일본어문학회) 75. 51-67.
- 이강민. 2018, 2019, 2020.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근세 및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 자료 총서 1-40」 서울: 역락.
- 이한섭. 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編(1895, 1896, 1897) 「親睦會會報」 創刊號, 第二號, 第四號. 東京: 秀英舍.
- 大日本実業学会. 1894 「商科第一期講義録: 朝鮮語」(朝鮮 洪奭鉉講) 東京: 大日本実業学会 (国立国会図書館所蔵本, 請求記号:62-66)
- 成玟珂. 2014. 「近代朝鮮語會話書に関する研究: 明治期朝鮮語會話書の特徴と近代日本語の様相」 서울: J&C.
- 角田廣司編(쓰노타 고지). 1917. 「在朝鮮内地人 紳士名鑑」 京城: 朝鮮公論社.
- 小倉進平(오구라 신페이). 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下卷. 東京: 岩波書店.
- 植田晃次(우에다 고우지). 2014. “金島苔水とその著書—日本近代朝鮮語教育史の視点から見た商業出版物としての朝鮮語学習書.” 「日本語言文化研究」(中朝韓日文化比較研究叢書) 延辺: 延辺大学出版社.
- 朝鮮中央經濟會編. 1922. 「京城市民名鑑」 京城: 朝鮮中央經濟會.
- 早稻田文学社編. 1895.01 「早稻田文学」 東京: 第一書房. 復刻: 国立国会図書館. 2011 「早稻田文学」 [第1次第1期](79).

“하버드옌칭(Harvard-Yenching) 도서관 소장본 『新撰日韓會話』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성윤아(상명대)

근대 개화기의 조선어학습서의 국어사적 자료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으로 하버드 예친 도서관의 소장본 『新撰日韓會話』(1904)은 한국과 일본 그 어디에서도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화서로 박진완(2021)과 함께 의의가 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저자 洪奭鉉, 필사자 小泉貞造, 교열자인 李範益의 이력과 행적, 학습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이들의 행적과 내용의 관련성을 밝힌 점, 『新撰朝鮮會話』(1894)의 일본어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당시의 실제 발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추한 점, 표기와 형태, 문법, 어휘 및 표현, 오류 등의 어학적으로 고찰, 특히 한국어와 주서에 착안하여 언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점 등은 『新撰日韓會話』(1904)의 개별적 자료의 가치 규명 뿐 아니라 조선어학습서의 전체상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도서번호 TK5973.08-3484 라면 이것은 한국도서인 것이지요? 분류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면 『新撰朝鮮會話』(1894)가 필사자도 일본인이며, 일본어도 함께 병기되어 있는데 한국으로 분류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입수 경위와 하위 분류(경부, 사부, 고소설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일견 『新撰朝鮮會話』(1894, 총162쪽)에 비해 『新撰日韓會話』(1904, 91엽)가 전체 분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부분의 변화가 있었는지요? 한국어의 한글 표기 이외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요?
3. 조선어학습서의 일본어는 매우 규범적이며 보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역시 그러한지요? 어떤 학습자를 타겟으로 하였으며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4. ①기타로는 자음(子音)이라는 단어 대신 ‘부음(父音)’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시 이러한 용어가 일반적이었는지요? ②2쪽의 朝鮮 洪奭鉉 『新撰朝鮮會話』 광고문의 출처를 알려 주십시오. ③구개음화와 비음화(鼻音化)를 겪은 후의 어형에 관한 견해도 들려주십시오.

이번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조선어학습서에 대해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과 의미

전후민(연세대)

1. 서론

한국어에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수많은 표현들이 존재한다. 원인과 결과는 별개의 문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두 문장/절이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과 관계 표현이다. 문장 사이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데는 ‘그래서’,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 부사(서반석 2020)가 이용되고, 절 사이의 인과 관계를 표시하는 데는 주로 ‘-아/어서’, ‘-(으)니까’와 같은 연결 어미(박지용 2020)가 사용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어미 말고도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는데, 이처럼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데 이용되는 표현이 많다는 사실은 인과 관계가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의미적으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인과 관계 표현들은 이를 세밀하게 표시해 주는 언어적 장치임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인과 관계 표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으)ㄴ 나머지’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기술을 한번 살펴보자.

(1) 나머지 「명사」

「3」 ((흔히 ‘-(더)ㄴ 나머지’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의 결과.

- 그는 너무도 어리둥절했던 **나머지** 정직하게 이야기해 버렸다.
- 그는 분개한 **나머지** 한참 동안 말을 잊은 것 같았다.
-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보였다.

<표준>의 기술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나머지 「3」’은 항상 관형사절이 앞에 온다는 것을 제외하면 매우 한정적이고 부정확하다. 뜻풀이만 보면 마치 ‘-(더)ㄴ’이 “어떤 일”을 나타내고 ‘나머지’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나머지’를 ‘결과’라는 어휘로 대체해도 뜻이 통하지 않을 뿐더러(곽일성 2017) 실제로 “결과”라는 의미는 ‘나머지’의 어휘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 뒤에 오는 절의 사태 의미이다. 결국 위 뜻풀이에서 “어떤 일”은 ‘나머지’의 선행절에 해당하고 “결과”는 ‘나머지’의 후행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나머지 「3」’은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라기보다는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라는 것을 말해 준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나머지’는 그 자체의 형식과 의미를 규명하기보다 그 앞뒤에 오는 요소들과 함께 다루는 것이 더 이점이 있다고 보아 ‘-(으)ㄴ 나머지’만 고정되어 있고 선행절과 후행절이 빈자리(slot)로 되어 있는 ‘선행절+-(으)ㄴ 나머지+후행절’ 전체를 ‘도식적 구문(schematic construction)’으로 보고 이 구문을 “‘-(으)ㄴ 나머지’ 구문”이라 명명한다. 정연주(2022: 227)에 의하면, 구문은 소쉬르의 기호 개념인 형식-의미의 결합체라는 개념이 형태소와 단어를 넘어 구, 절, 문장, 텍스트 차원까지 확장된 것으로, 구문 문법은 형식과 의미가 관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나 형식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단위들을 다루는 데 큰 장점이 있다.

본고의 목적은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과 의미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때 ‘형식(form)’에는 통사적·형태적·음운적 특성이 포함되고 ‘의미(meaning)’에는 의미적·화용적·담화-기능적 특성이 포함되며, 구문의 형식과 의미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형식이 의미를 드러내고 의미는 형식으로 드러난다(Croft 2001: 18).

<표준>의 기술에서도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과 의미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2)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적 특성

선행절에는 주로 ‘어리둥절하다’, ‘분개하다’, ‘기쁘다’와 같은 심리 술어가 쓰이고, ‘너무도’, ‘너무나’와 같은 수식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후행절에는 ‘버리-’와 같은 보조 용언이나 ‘까지’와 같은 보조사가 쓰이기도 한다.

(3) ‘-(으)ㄴ 나머지’ 구문의 의미적 특성

선행절은 원인을 나타내고 후행절은 결과를 나타낸다.

(2)와 (3)은 <표준>의 예문을 토대로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적·의미적 특성 중 극히 일부만을 보인 것이다. (2)와 (3)을 포함한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말뭉치 자료¹⁾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 하도록 하고 먼저 2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고에서 ‘-(으)ㄴ 나머지’가 이끄는 문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으)ㄴ 나머지’를 다룬 몇 논의들에서 ‘-(으)ㄴ 나머지’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했는

1) 본고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21세기 세종 계획(2011년 수정판)> 말뭉치로서 원시 문어 말뭉치와 원시 구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를 합하였다. 인용 표시를 따로 하지 않은 예문은 전부 말뭉치에서 가져온 것이다.

지부터 살펴보자. 서세정·최영룡(2014: 168-169)에서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연결형 문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어’, ‘-아/어서’와 같은 어미뿐만 아니라 ‘격 조사+용언의 활용형’(‘-(으)로 인해서’, ‘-(으)로 말미암아’ 등), ‘본용언+보조 용언의 활용형’(‘-아/어 가지고’, ‘-아/어 놓(다)’ 등), ‘-기 때문에’, ‘-는 바람에’와 같이 의존 명사가 포함된 것, ‘-(느/으)ㄴ 결과’, ‘-(느/으)ㄴ 나머지’ 등 의존 명사가 아닌 명사가 참여한 것, ‘어찌나 -(느/으)ㄴ지’와 같은 복합 표현이 총망라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42개의 원인·이유 연결형 문형이 선정되었다. 홍혜란(2016)에서는 ‘연결 표현’ 중 연결 어미처럼 단일한 구성이 아닌 “여러 가지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가 결합하여 연결 어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정 표현.”(홍혜란 2016: 29)을 ‘복합 연결 구성’이라 부르고,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 ‘-(으)ㄴ 다음(에)’, ‘-(으)ㄴ 뒤(에)’ 등 총 91개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광일성(2017)에서는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 세 개만 다루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이런 단순하지 않은 구성이 이미 상당히 고정되고 관습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관용형태’라고 부른다.”(광일성 2017: 217 각주 1)고 하였다. 임진숙(2022ㄴ: 56)에서는 복합형태의 하위 유형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의존성 명사 결합형’을 설정하고 그 예로 ‘-(으)ㄴ/는 김에’, ‘-(으)ㄴ/는 만큼’, ‘-(으)ㄴ/는 관계로’, ‘-(으)ㄴ/는 까닭에’, ‘-(으)ㄴ/는 나머지’ 등 16개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들 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본고의 관심사인 ‘-(으)ㄴ 나머지’가 가진 특성을 얼마간 드러내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으)ㄴ 나머지’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 준다는 점에서 ‘연결’(서세정·최영룡 2014, 홍혜란 2016)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어미처럼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홍혜란 2016)이며, 굳어진 표현이라는 점에서 ‘관용적’(광일성 2017)이고, ‘나머지’가 항상 ‘-(으)ㄴ’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존성’(임진숙 2022ㄴ)을 가진다.

그런데 ‘문형’(서세정·최영룡 2014), ‘구성’(홍혜란 2016), ‘형태’(광일성 2017), ‘결합형’(임진숙 2022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형태’와 ‘결합형’은 ‘-(으)ㄴ 나머지’가 단일 형태소와 같은 형태 표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문형’은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문장 형식을 의미할 때가 많아 ‘-(으)ㄴ 나머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으)ㄴ 나머지’에 의해서 드러나는 의미는 ‘-(으)ㄴ’과 ‘나머지’의 조합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용어들이 ‘-(으)ㄴ 나머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혜란(2016)의 ‘구성’ 역시 ‘-(으)ㄴ 나머지’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구문 문법(construction grammar)의 관점에서 ‘-(으)ㄴ 나머지’가 이끄는 문장을 ‘구문(construction)’으로 파악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으)ㄴ 나머지’ 구문은 ‘-(으)ㄴ 나머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으)ㄴ 나머지’를 기준으로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으)ㄴ 나머지’ 앞뒤에는 서술어와 그 의 논항으로 이루어진 절이 오므로 ‘-(으)ㄴ 나머지’ 구문은 대략 ‘선행절+-(으)ㄴ 나머지+후행절’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구문 문법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어휘 형태와 문법 형태의 이분법에 속하지 못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으면서도 이들을 다시 구분 짓지 않고 아울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구문 문법에서는 단어는 물론 품사와 같은 문법 범주, 관용어, 문장 단위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모든 것을 구문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단순한 것이든 복잡한 것이든 다 구문 안에서 다루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거론한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것들 전부, 즉 어미, 보조 용언이나 의존 명사를 포함한 것, ‘어찌나-(느/으)나지’와 같이 범주를 명시하기 어려운 여러 표현들까지 다 구문이라는 단일한 단위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형식과 의미를 직접 연결시키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도 구문 문법의 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관점에서는 ‘나머지’가 명사인지, 의존 명사인지와 같은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표 1> 통사-어휘 연속체((Croft 2001: 17)

구문 유형	전통적인 명칭	예
복합적이고 (대체로) 도식적	통사	[SB] be-TNS VERB-en by OBL]
복합적이고 (대체로) 구체적	관용어	[pull-TNS NP-‘s leg]
복합적이지만 의존적	형태	[NOUN-s] [VERB-TNS]
원자적이고 도식적	통사 범주	[DEM], [ADJ]
원자적이고 구체적	단어/어휘	[this], [green]

위 Croft(2001)의 구문 유형에 의하면, ‘-(으)나 나머지’ 구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빈자리(slot)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식적(schematic)’인 구문이라 할 수 있다²⁾. 후술하겠지만, ‘-(으)나 나머지’ 구문은 의미적으로는 선행절이 원인을 나타내고 후행절이 결과를 나타내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으)나 나머지’ 구문을 ‘인과 관계 도식적 구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으)나 나머지’ 구문의 형식

이 장에서는 ‘-(으)나 나머지’ 구문의 형식적 특성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선행절과 후행절 각각의 형식적 특성을 절을 나누어서 논하겠다.

2) 이형주(2022: 221)에서는 ‘비어 있음’이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용어로는 ‘형식적(formal)’, ‘구문적(constructional)’, ‘도식적(schematic)’이 있는데, ‘형식적’이라는 용어는 흔히 ‘실질적’이라는 용어와 대립되기 때문에 구문 전체의 의미·기능이 문법적이라는 의미로 혼동될 수 있어서 적합한 용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구문적’은 ‘구문적’ 뒤에 무엇이 오든(가령, ‘구문적 속어’(최종원 2022)) ‘구문적’이라는 말이 ‘비-구문적’인 무언가를 함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 현상을 구문으로 파악하는 구문 문법적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라고 판단된다. 즉, ‘비어 있음’이라는 특성을 ‘구문적’이라 부르는 관점은 구문 문법적 관점과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roft(2001)을 따라 ‘도식적’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3.1. 선행절의 형식적 특성

우선 선행절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특성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서술어의 품사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동사, 형용사, ‘이다’가 다 올 수 있다. 총 997개의 예 중에서 동사가 776개(약 77.8%)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이다’의 빈도(3개)와 합친 형용사의 개수는 221개(약 22.2%)로 나타났다.

(4) 가. 그는 **흥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나. 너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소파에 누워 잠이 들곤 하였지.

다. 그 사람은 너무도 **매력적인** 나머지 잘못하면 빠져들기 쉬운 사람이었다.

형용사(‘이다’ 포함)가 쓰인 예들을 살펴보면, 심리 형용사 부류가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³⁾. 다음은 차례대로 빈도수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예들을 보인 것인데, 모두 심리 형용사에 해당한다.

(5) 가. 경찰은 신병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검증되지도 않은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나. 사고 당시 이 과장은 **급한** 나머지 옷을 입은 채 강물에 뛰어들었다.

다. 그들은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라. 나는 **초조한** 나머지 입술이 다 떨릴 지경이었다.

마. 비리가 탄로 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연막전술을 펴는 모양이다.

(5다-마)의 ‘기쁘다’, ‘초조하다’, ‘두렵다’와 달리 (5가, 나)의 ‘급급하다’와 ‘급하다’는 전형적인 심리 형용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주어가 경험주(experiencer)이고 술어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심리 형용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사의 경우에도 심리를 나타내는 술어가 꽤 자주 나타난다.

(6) 가. 그는 너무나 크게 **놀란** 나머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주인아저씨는 **당황한** 나머지 양쪽 귀가 발갛게 되었다.

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말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말투를 꾸미는 경우가 있다.

라. 그는 사고가 몰고 올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 세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

마. 복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복선만으로 시청자를 끌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6) 역시 (5)처럼 빈도수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예들을 보인 것인데, (6가, 나)의 ‘놀라다’와 ‘당황하다’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6라)의 ‘두려워하다’는 (5마)의 ‘두렵다’로부터 만들어진 심리 동사이다⁴⁾.

3) 221개의 형용사의 예 중 135개가 심리 형용사로 나타났다(약 61.1%).

그러나 (6다)와 (6마)에서 보듯이, 선행절에 반드시 심리 술어가 쓰이는 것은 아니다. 형용사를 포함하면 선행절에 심리 술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사만 놓고 보았을 때는 오히려 심리 술어가 아닌 예가 더 많다⁵⁾. 동사의 예가 형용사의 예보다 3배 이상 많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으)ㄴ 나머지’ 구문의 선행절에 쓰이는 서술어를 심리 술어에만 국한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선행절 서술어가 취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ㄴ’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앞에 오는 시제·상 요소는 ‘-Ø-’가 압도적으로 많다⁶⁾. 그 다음으로는 ‘-느-’, ‘-었더-’, ‘-더-’의 순서로 많이 나타나지만 세 형태는 빈도도 많지 않고 그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⁷⁾. 다만, 이들이 결합하는 서술어가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 빈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7) 가. 지나칠 정도로 서정성에 치우치-Ø-ㄴ 나머지 리얼리티를 상실하고 있다.

나. 그는 쓸데없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쏟-느-ㄴ 나머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 전갈은 뜨거운 불 때문에 필사적으로 발악하-더-ㄴ 나머지 갑자기 뻗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라. 일찍이 환로에 뜻을 두지 않고 민초를 보살핌에 진력하-였더-ㄴ 나머지 남정으로서도 혼기를 놓친 셈이 되었지요.

(8) 가. 옥엽차는 너무나 귀하-Ø-ㄴ 나머지 천 년이 넘도록 줄곧 황실에만 공납되었다.

나. 주위가 너무도 조용하-였더-ㄴ 나머지 어둡고 광활한 대지 위에 그녀와 나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느-ㄴ 나머지 두 주먹이 다 부들부들 떨렸다.

라. 그는 하도 민망하-더-ㄴ 나머지 나를 위해 윤 군에게 싸움을 걸었던 것이었다.

(7)과 (8)은 각각 서술어가 동사일 때와 형용사일 때 결합하는 시제·상 요소를 빈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동사일 때와 형용사일 때 모두 ‘-Ø-’의 빈도가 가장 높으나, 동사일 때는 ‘-느-’, ‘-더-’, ‘-었더-’의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반면 형용사일 때는 ‘-었더-’, ‘-느-’, ‘-더-’의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⁸⁾.

4) 이러한 동사들에 대해 곽일성(2017: 234)에서는 심상(心狀)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라고 한 바 있다.

5) 동사와 형용사를 합한 총 997개의 예 중에서 심리 술어는 405개로 전체의 약 40.6%를 차지한다. 776개의 동사 중에서 심리와 관련된 동사는 270개로 동사 전체의 약 34.8%를, 심리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동사는 506개로 동사 전체의 약 65.2%를 차지한다. 동사는 형용사와 달리 심리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내거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특정 행동을 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심리성을 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최대한 관대한 기준으로 심리 술어 여부를 태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형용사에 비해 심리 술어의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6) 총 997개의 예 중에서 ‘-Ø-’는 921개로 전체의 약 92.4%를 차지한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Ø-’는 동사에서는 과거를 나타내고 형용사에서는 현재를 나타내는데, 이 ‘-Ø-’에 대해 동사의 과거 완결상/완망상 표지가 형용사에도 이용된다고 보는 관점(임동훈 2010)이 있는가 하면 동사와 형용사의 ‘-Ø-’를 다른 것으로 보는 관점(박진호 2011)도 있다. 본고는 후자의 관점을 따른다. “Ø는 자기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보다 체계 속에서 유형의 표지(들)이 가지는 의미와의 대립 관계에 의해 비로소 자신의 정체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둘의 의미·기능이 다른 것이 이상할 게 없다.”(박진호 2011: 305 각주 16)

7) 총 997개의 예 중에서 ‘-느-’는 49개, ‘-었더-’는 18개, ‘-더-’는 9개의 예가 발견되었다.

8) 서술어가 동사일 때는 총 776개의 용례 중에서 ‘-Ø-’가 722개, ‘-느-’가 44개, ‘-더-’가 6개, ‘-었더-’가 4개였고, 형용사일

(1)에서 <표준>의 뜻풀이를 보면 나머지 앞에 오는 관형사절은 ‘-느-’를 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임진숙(2022ㄴ: 56-57)에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발견된 오류(“그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나머지 2년 동안 집에 못 나간다.(중국어, 4급)”)에 대해 ‘받다’는 동사이므로 ‘받는’이 아닌 ‘받은’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과 관계로 제시되는 ‘나머지’는 동사는 과거 시제 ‘-(으)ㄴ’, 형용사는 현재 시제 ‘-(으)ㄴ’과 결합하는 형태라고 하였다. 물론 해당 예에서 ‘받는’이 오류인 것은 맞으나 이때 ‘받는’이 오류인 이유는 해당 맥락이 현재 시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뿐이지 ‘-(으)ㄴ 나머지’ 구문의 선행절 서술어가 동사일 때 반드시 과거 시제여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7나)처럼 습관적인 맥락을 부여하여 “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나머지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와 같이 수정하면 ‘받는’으로도 쓸 수 있다. 한편, 형용사에는 일반적으로 ‘-느-’가 결합하지 못하는데 (8다)와 같이 ‘있다’와 ‘없다’는 관형사절에 나타날 때 예외적으로 ‘-느-’가 결합할 수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말뭉치에서 형용사에 ‘-느-’가 결합한 예 5개는 모두 ‘없-’이 결합한 예였다.

‘-더-’와 ‘-었더-’가 결합한 예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그리 많지 않지만, 동사에서는 ‘-더-’의 예가 ‘-었더-’의 예보다 조금 더 많았고(각각 6개, 4개) 형용사에서는 ‘-었더-’의 예가 ‘-더-’의 예보다 훨씬 더 많았다(각각 14개, 3개). 임동훈(2010: 31 각주 43)에서는 현대 국어 관형사절에서는 ‘형용사+있던’ 형식이 ‘형용사+던’ 형식보다 더 널리 쓰이는 듯하다고 하였는데, 본고의 자료 역시 이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나머지’의 선행절을 살펴보면, 곽일성(2017: 236)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선행절 서술어의 정도성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술어의 정도성이 심하거나 큼을 나타내는 표현을 본고에서는 ‘정도성 심화 표현’이라 부르겠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은 ‘너무’류이다⁹⁾.

(9) 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경지는 지은이 다가와 팔을 잡는 것도 몰랐다.

나. 너무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나는 엉뚱하게도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었다.

다. 다른 사람 앞에만 나서면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라. 뒤러는 너무나도 벅찬 감격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자리에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

마. 너무도 졸린 나머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너무’류만큼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너무’류 외에도 다양한 정도 부사들이 선행절에 나타난다.

(10) 가. 방연은 그의 재능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한 나머지 없는 죄를 뒤집어

때는 총 221개의 용례 중에서 ‘-ㄴ-’가 199개, ‘-었더-’가 14개, ‘-느-’가 5개, ‘-더-’가 3개였다.

9) 총 997개의 문장 중 선행절에 ‘너무’류가 포함된 문장은 177개로 나타났다(약 17.8%).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지나치다’의 활용형들은 50개로 나타났다(약 5%).

씩웠다.

나. 그에게 **무척** 실망한 나머지 지금의 남편을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야.

다. 그는 **하도** 민망하던 나머지 나를 위해 윤 군에게 싸움을 걸었던 것이었다.

라. 홍문관 관원들을 연산은 **몹시** 싫어한 나머지 그들에게 지극히 굴욕적인 일을 맡게 했던 것이다.

마. **웬나** 들뜬 나머지 너무 일찍 깨어나 버리고 만 것이었다.

‘너무’류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정도성 심화 표현은 ‘지나치다’의 활용형들이다.

(11) 가. 그는 **지나치게** 신중한 나머지 소신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

나. 그런데 기백과 절조가 **지나치리만큼** 엄정했던 나머지 남명은 동시에 너무도 과격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기도 하다.

다. 그는 쓸데없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 나머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라. **지나칠** 정도로 서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리얼리티를 상실하고 있다.

(9-11)에 나타난 정도성 심화 표현들은 어휘 자체에 정도성을 심화하는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 예들은 반복이라는 통사적 전략으로써 정도성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12) 가. 문제가 **쌓이고** 쌓인 나머지 공산권은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나. **생각하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 조금씩 **밀리고** 밀린 나머지 이젠 냇바닥에서 더 물러설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았다.

(12)의 ‘쌓이고’, ‘생각하고’, ‘밀리고’는 (11)의 ‘지나치다’와 달리 그 자체로는 정도성을 심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지만 후행하는 서술어와 동일한 서술어를 반복해 씌으로써 서술어의 정도성을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수연(2016: 39)에서도 동일한 어휘를 반복해서 쓰면 반복을 통해 해당 어휘의 정도를 강조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행절의 형식적 특성은 아주 소수이기는 하나 ‘나머지’에 조사가 결합한 예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총 9개로 예가 많지 않으니 전부 제시해 보도록 한다.

(13) 가. 동욱 내외에게는 그토록 사람이 아쉽고 그림던 나머지**라** 종이 무척 반갑고 고마웠다.

나. 역시 다섯 번이나 창피를 본 나머지**라** 어쩔까 싶어 뒤를 내는 것도 그럴듯한 근경입니다.

다. 첫 꽃이 피는 것은 서울에서는 대개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7월 초순이다. 오래 기다리던 나머지 **요** 또 대강 한 꽃이 한 봄의 영화를 누리고 간 뒤의 뜰이 적이 쓸쓸한 탓도 있을 터이지마는...

라. 사흘을 묵는 동안 김 씨와 어머니는 여러 번 의논을 한 끝에 좀 더 반반한 가게를 얻어 국수뿐 아니라 화식까지 하기로 작정을 했다. 어머니도 무척 생각한 나머지**였다**.

마. 영감 그런 말 하는 얼굴이 너무나 조용하고 편안한 것이 이미 세상 버리기로 작정한 나머지**였다**.

바. 말로 다하지 못하는 바를 찬탄하는 나머지에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자연스러운 음향과 절도가 있어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으리니 이것이 시를 짓는 까닭이다.
 사. 고(苦)와 낙(樂)이 서로 같고 닮은 나머지에 복을 이룬 이는 그 복이 참 복이라 비로소 오래 간다.
 아. 세상에는 저 너무 편협한 나라 사랑을 옳지 못하다고 비평하는 나머지에, 흔히 경솔히 나라 사랑을 초월하여 달관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하다.
 자. 박두진 씨의 〈아이를 재운다〉는 오랜 침묵을 지키던 나머지의 작품이라 반가웠다.

(13가-마)는 ‘나머지’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예들로서 (13가, 나)와 (13다)는 각각 연결 어미 ‘-라’와 ‘-요’가 결합해 있고 (13라, 마)는 ‘나머지’가 결합한 절로 문장이 끝나 있다. (13바-아)는 ‘나머지’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예이고¹⁰⁾, (13자)는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예이다. 이러한 예들은 ‘-(으)ㄴ 나머지’ 구문이 구문화(constructionalization)하는 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나머지’의 명사로서의 모습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3.2. 후행절의 형식적 특성

후행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형식적 특성은 후행절은 선행절과 달리 특정 부류의 서술어가 쓰이는 대신 서술어 뒤에 ‘-고 말-’, ‘-어 버리-’가 결합하는 예들이 보인다는 점이다¹²⁾.

(14) 가. 사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돈 상자를 놓고 말았습니다.
 나.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15) 가. 사람들은 감동한 나머지 그 땅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한다.
 나. 초조하고 불안스러운 나머지 나는 그만 당장 골목을 뛰쳐나와 버리고 싶었다.

‘-고 말-’, ‘-어 버리-’가 쓰인 예에 부사 ‘그만’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14나, 15나), 아래와 같이 ‘그만’이 후행절에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16) 가. 석이는 반가운 나머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나. 어쩌면 그는 배가 고픈 나머지 그만 그런 이상한 고기들을 좋아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10) ‘나머지’에 ‘에’가 후행하는 예는 광일성(2017: 229-230 각주 16)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11) 구문화에 대해서는 Traugott & Trousdale(2013)을 참조할 것. (13)의 예들은 이미 인과 관계의 의미를 띠고 있으면서도 ‘나머지’가 명사로서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어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시대별 역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나머지’라는 명사가 어떻게 인과 관계 구문에 쓰이게 되었는지 알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으)ㄴ 나머지’ 구문의 구문화 과정은 별도의 지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12) ‘-고 말-’의 빈도수는 22개, ‘-어 버리-’는 15개로 나타났다.

둘째,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에도 서술어의 정도성을 심화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역시 ‘너무’류이다¹³⁾.

(17) 가. 나는 말할 내용에 지나치게 시간을 소모한 나머지 외관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다.

나.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예단에 익숙해진 나머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선입관을 고정 관념 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나치다’, ‘무리하다’와 같은 서술어의 활용형이나 ‘정도’라는 표현 자체가 관형사절과 함께 쓰여서 후행하는 서술어의 정도성을 심화하기도 한다.

(18) 가. 우리 역사 발전의 보편성을 강조한 나머지 계급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나. 어린이들이 놀이보다는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무리하게 홀라후프를 돌려 허리를 다칠까 봐 염려된다.

다. 나는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돌아서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지쳤다.

‘ㄹ 정도’는 서술격 조사와 함께 서술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ㄹ 지경’도 나타난다.

(19) 가. 500만 달러의 투자 자금은 너무나 놀라운 수익을 가져다준 나머지 이 회사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컴퓨터를 마비시킬 정도였다.

나. 나는 초조한 나머지 입술이 다 떨릴 지경이다.

셋째, 특정 부류의 보조사들이 쓰이는 예들이 발견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보조사 부류는 ‘첨가’(임동훈 2015) 혹은 ‘포함’(전후민 2021 ㄱ)의 보조사들이다¹⁴⁾.

(20) 너무 놀란 나머지 처음에는 눈물도 나지 않았다.

(21) 가. 너무 우스운 나머지 바닥을 치기까지 했다.

나. 내 멋대로 그의 이미지를 상상한 나머지 그의 이론까지도 좋아하게 되었다.

(22) 가. 그는 지레 놀란 나머지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것인지 아닌지 조차 분간 할 겨를이 없었다.

나. 나는 그들이 자리를 뜰까 봐 애가 탄 나머지 아픔 조차도 잊었다.

(23) 가. 우리는 서양 문명을 배우고 흉내 내기에 바쁜 나머지 우리 것이 훨씬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우마저 잊고 지내는 일이 많다.

13) 후행절에 ‘너무’류가 결합된 예는 21개가 발견되었다.

14) 포함의 보조사들의 개수를 전부 합하면 56개인데, 이 중 ‘까지’류의 예가 30개로 가장 많았다.

나. 가장 큰 이유로는 정치 권력이 행정의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건설적인 비판마저도 감내하지 못한 데 있는 것 같다.

(21나), (22나), (23나)는 각각 보조사 ‘까지’, ‘조차’, ‘마저’ 뒤에 보조사 ‘도’가 후행한 예를 보인 것이다.

후행절에는 포함의 보조사뿐 아니라 ‘배제함의 보조사’(임동훈 2015, 전후민 2021ㄱ) 부류들도 나타난다¹⁵⁾.

(24) 나는 이런 오빠가 짐스러운 나머지 혼자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25) 내 감정을 절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극히 상투적인 위문문밖에 못 쓰고 말았다.

후행절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형식적 특성은 대략 ‘끝에 이르러’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26) 가. 노론들은 경종 때 이른바 ‘사흉’으로 몰린 나머지, 결국 사약을 먹고 죽는 극형까지 받았었다.

나. 두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한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내홍만을 드러낸 사정과 비교해 볼 때...

다. 어머니는 비통함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이었다.

라. 남달리 허약한 몸으로 애오라지 공장 일에 매달린 나머지 무리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 급기와 그런 희귀한 병까지 얻은 것이었다.

한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발견된다.

(27) 가. 사회, 너무 놀란 나머지 (사회는)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모른다.

나. (경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경지는 지은이 다가와 팔을 잡는 것도 몰랐다.

(28) 가. 흥진경을 가졌을 때 그의 어머니는 평소 싫어하던 우유를 하루에 두 개씩 먹었을 정도로 신경을 쓴 나머지 (흥진경은)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를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나. 그가 너무도 세계 때린 나머지 나는 얼굴이 터져 버리는 줄 알았다.

(27)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예로서 주어가 동일할 때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한 번만 나타난다. (28)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은 예인데, (28가)처럼 한 쪽의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28나)처럼 주어가 둘 다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숙(2022ㄱ: 342)에서는 ‘-(으)ㄴ 나머지’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위 예들을 통해 ‘-(으)ㄴ 나머지’ 구문의 주어 동일 현상은 강한

15) 이후부터는 편의상 ‘포함의 보조사’, ‘배제의 보조사’로 칭하도록 한다.

경향성일 뿐 제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적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적 특성

- 가. 선행절의 서술어는 심리 술어가 많이 쓰이지만, 심리 술어가 아닌 예가 더 많다.
- 나. 선행절의 서술어에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ㄴ’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제·상 요소는 ‘-Ø-’가 압도적으로 많다.
- 다. 선행절 서술어의 정도성을 심화하는 표현들이 빈번하게 출현한다.
- 라. ‘나머지’에 조사가 결합한 예들이 소수 발견된다.
- 마. 후행절 서술어에 보조 용언 ‘-고 말-’, ‘-어 버리-’가 결합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부사 ‘그만’이 쓰이기도 한다.
- 바. 후행절 서술어의 정도성을 심화하는 표현들이 빈번하게 출현한다.
- 사. 후행절에 포함의 보조사와 배제의 보조사가 쓰이기도 한다.
- 아. 후행절에 ‘끝에 이르러’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타난다.
- 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동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4. ‘-(으)ㄴ 나머지’ 구문의 의미

이 장에서는 ‘-(으)ㄴ 나머지’ 구문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으)ㄴ 나머지’ 구문이 선행절이 ‘원인’¹⁶⁾을, 후행절이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 관계 구문이라고 보고 있고(서세정·최영룡 2014, 홍혜란 2016, 광일성 2017, 임진숙 2022 ㄱ, ㄴ, 주향아·유현경 2022),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고에서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3장과 마찬가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적 특성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으)ㄴ 나머지’ 구문의 전체론적(holistic)인 특성 또한 밝히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앞에서 살펴본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적 특성이 의미적 특성과 서로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4.1. 선행절의 의미적 특성

선행절이 원인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증거는 ‘-(으)ㄴ 나머지’를 인과 관계의 연결 어미 ‘-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광일성(2017)에서는 ‘-(으)ㄴ 나머지’를 유사 표현인 ‘-ㄴ 결과’, ‘-ㄴ 끝에’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다음과 같이 연결 어미 ‘-

16) 인과 관계의 ‘원인’에 대해 보통 ‘원인·이유’라고 표현하는데(서세정·최영룡 2014, 홍혜란 2016, 주향아·유현경 2022) 원인과 이유의 구별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원인’으로만 칭하도록 하겠다. 원인과 이유의 개념 및 구분 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지용(2020: 2장) 참조.

아/어서’, ‘-(으)니’, ‘-고’로 교체하는 검증법을 사용한 바 있다.

- (30) 가.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결과/*끝에 눈물까지 보였다.
가’.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눈물까지 보였다.
나. 제보된 사례 19건 중 16건을 조사한 [결과/끝에/*나머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나’. 제보된 사례 19건 중 16건을 조사하니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 3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결과/*나머지] 광주로 출발했다.
다’. 3시간 동안 기다리고 광주로 출발했다.

(곽일성 2017: 218-219)

(30가, 가’)에서는 ‘-(으)ㄴ 나머지’만 ‘-어서’로 교체될 수 있고, (30나, 나’)에서는 ‘-(으)ㄴ 나머지’만 ‘-니’로 교체될 수 없으며, (30다, 다’)에서는 ‘-ㄴ 끝에’만 ‘-고’로 교체될 수 있다. (30나’)의 ‘-니’는 대략 ‘전제’나 ‘배경’의 의미를, (30다’)의 ‘-고’는 ‘계기(繼起)’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으)ㄴ 나머지’는 이런 맥락에서 쓸 수 없고 (30가’)의 ‘-어서’처럼 ‘원인’을 의미할 때만 ‘-(으)ㄴ 나머지’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으)ㄴ 나머지’의 선행절은 원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으)ㄴ 나머지’를 ‘-어서’로 바꾸는 것은 거의 다 가능하나 ‘-어서’를 ‘-(으)ㄴ 나머지’로 바꾸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은 <표준>의 ‘-어서’ 중 “「2」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풀이된 항목의 예문을 모두 보인 것이다.

- (31) 가. 강이 깊어서 아이가 건너기는 어렵다.
나. 그는 워낙 성실한 사람이어서 뭘 해도 성공할 것이다.
다. 하도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표준국어대사전>

- (31’) 가. *강이 깊은 나머지 아이가 건너기는 어렵다.
나. *그는 워낙 성실한 사람인 나머지 뭘 해도 성공할 것이다.
다. 하도 전화를 건 나머지 이제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31)의 예 중에서 (31’다)만 ‘-어서’를 ‘-(으)ㄴ 나머지’로 바꿀 수 있고, (31’가, 나)는 ‘-어서’가 ‘-(으)ㄴ 나머지’로 교체될 수 없다.

(31’다)의 ‘-어서’를 ‘-(으)ㄴ 나머지’로 교체했을 때 비교적 자연스러운 이유는 ‘하도’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하도’는 <표준>에 따르면, “‘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서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나 의문문에 쓰여))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큼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아주’, ‘몹시’의 뜻을 나타낸다.” (31다)에서 ‘하도’가 쓰이지 않으면, 즉 ‘한 번이나 몇 번 전화를 거는’ 것으로는 후행절에 대한 원인 사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31다)와 같은 맥락에서는 ‘하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만 ‘-어서’가 ‘-(으)

나 나머지’로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행절이 나타내는 원인은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크다’는 의미론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31’가)에서 ‘-어서’가 ‘-(으)나 나머지’로 교체될 수 없는 이유 또한 이들이 나타내는 원인 사태가 정도성이 심하거나 크지 않기 때문이다((31’나)의 비문법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9다)에서 제시한 “선행절 서술어의 정도성을 심화하는 표현들이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형식적 특성은 이와 관련이 있다. 앞에서 든 예를 일부만 다시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32) 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경지는 지은이 다가와 팔을 잡는 것도 몰랐다.(=9가)

나. 흥문관 관원들을 연산은 몹시 싫어한 나머지 그들에게 지극히 굴욕적인 일을 맡게 했던 것이다.(=10라)

다. 그는 지나치게 신중한 나머지 소신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11가)

라. 문제가 짚이고 쌓인 나머지 공산권은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12가)

이러한 예들에 나타나는 정도성 심화 표현들은 선행절이 나타내는 원인 사태나 상태가 정도가 심하거나 큼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표현들이 정도성을 심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거나 큼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즉, ‘-(으)나 나머지’ 구문의 선행절 자리(slot)는 정도성과 관련한 의미적 제약이 있어서 정도성 심화 표현들이 쓰일 수 있고 또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도성 심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행절은 의미적으로 정도가 심하거나 크다는 뜻을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32가)에서 ‘너무’가 쓰이지 않는다고 해도 ‘흥분한’ 정도가 크다는 뜻이 감지된다. ‘누군가 다가와 팔을 잡는 것을 모를’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는 데 있어 ‘조금 흥분한’ 것으로는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⁷⁾. 이와 관련하여, 광일성(2017: 237)에서도 정도 부사가 없어도 ‘답답한 나머지’만으로도 “마음이 아주 답답하다.”는 정도 의미가 전달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절의 특성은 (29가)에서 제시한 “선행절의 서술어는 심리 술어가 많이 쓰인다.”는 형식적 특성과 맞물려 ‘-(으)나 나머지’ 구문이 “선행절의 어떤 지나친 감정으로 인해 후행절의 행동을 하게 됨.”(광일성 2017: 236), “선행절에는 심리를 묘사하는 표현이 주로 공기하여 감정의 정도가 지나침을 강조하면서 어떤 결과에 다다름을 강조하며 선·후행절을 인과관계로 연결함.”(임진숙 2022나: 71)을 나타낸다고 기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선행절에 반드시 심리 술어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17)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유관 구문으로는 ‘얼마나 V/A-었으면 [의문문]’ 구문이 있다. (32가)를 예로 들자면, “얼마나 흥분했으면 지은이가 다가와 팔을 잡는 것도 몰랐어?”와 같은 문장이 이 구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예 또한 조건문에 나타나는 사태나 상태가 정도성이 심하거나 크고 후행절 역시 그러하다는 점에서 ‘-(으)나 나머지’ 구문과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서세정·최영룡(2014)에서 원인·이유의 연결형 문형으로 설정한 ‘어찌나 -(느/으)나지’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흥미로운 사례들이지만 이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관계로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33) 가. 어떤 이는 아름다운 말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말투를 꾸미는 경우가 있다.(=6다)

나. 복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복선만으로 시청자를 끌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6마)

본고에서는 선행절에 심리 술어들이 자주 쓰인다는 사실보다 정도성 심화 표현이 빈번하게 쓰인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술하겠지만 ‘-(으)ㄴ 나머지’의 후행절에는 부정적이거나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원인 역시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심리적인 원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사태나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정도성이 심하거나 크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기보다는 부정적이거나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형용사 중에서도 ‘급급하다’, ‘급하다’가 가장 빈도가 높은 형용사였던 것은 음미해 볼 만하다. ‘급급하거나’ ‘급한’ 마음 상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으)ㄴ 나머지’ 구문에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에 나타난 ‘-어서’를 ‘-(으)ㄴ 나머지’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감기에 걸리다”가 심리 감정이 아니어서”라는 광일성(2017: 239)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4)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34') *감기에 **걸린 나머지** 병원에 갔다.

(34'') 감기에 **심하게 걸린 나머지** 병원에 갈 힘조차 없었다.

(34'')처럼 정도성 심화 표현을 추가하고 후행절의 내용 역시 그에 따른 결과로 바꾸면 ‘-(으)ㄴ 나머지’ 구문을 쓸 수 있다. 이는 ‘-(으)ㄴ 나머지’ 구문에 반드시 심리 술어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동시에 술어의 종류보다 정도성의 심화성이 선행절에서 더 중요한 유표적 의미 특성임을 시사해 준다.

4.2. 후행절의 의미적 특성

후행절은 인과 관계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29아)에서 제시한 “후행절에 ‘끝에 이르러’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형식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앞에서 제시한 예를 그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5=26)

가. 노론들은 경종 때 이른바 ‘사흉’으로 몰린 나머지, **결국** 사약을 먹고 죽는 극형까지 받았었다.

나. 두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한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내홍만을 드러낸 사정과 비교해 볼 때...

다. 어머니는 비통함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이었다.

라. 남달리 허약한 몸으로 애오라지 공장 일에 매달린 나머지 무리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 **급기야** 그런 희귀한 병까지 얻은 것이었다.

서반석(2020: 172-173)에서 ‘결과’와 관련된 접속 부사들을 정리한 바에 따르면, (35가)의 ‘결국’은 ‘결과’나 귀결’을 의미하는 접속 부사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는’은 그 자체로 ‘결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과 마찬가지로 ‘결과/귀결’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는 시간적인 순차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인과적인 관계로 해석되는 경우이다(서반석 2020: 173 각주 6). ‘끝내’는 접속 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속 부사들과 같은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후행절이 의미적으로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과 통사적으로 후행절이 선행절과 어느 정도 분리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의해 가능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5) 중에서 ‘끝내’와 ‘급기야’는 후행절이 정도성이 심하거나 큰 선행절의 행위나 사태, 상태 등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이들 표현들과 유사하게 결과와 어울릴 수 있는 부사인 ‘드디어’는 ‘-(으)ㄴ 나머지’의 후행절에 나타날 수 없다.

(36) 8년을 기다린 [끝에/*결과/*나머지] **드디어** 올림픽 금메달을 품에 안기게 되었다.

(곽일성 2017: 238)

이러한 현상은 ‘-(으)ㄴ 나머지’ 구문의 후행절 역시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의미론적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36)과 같이 기대하던 결과를 나타낼 때는 ‘-(으)ㄴ 나머지’ 구문이 쓰일 수 없는 것이다. (31’나) “*그는 워낙 성실한 사람인 나머지 뭘 해도 성공할 것이다.”의 비문법성 역시 후행절의 의미론적 제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선행절에 ‘워낙’과 같은 정도성 심화 표현이 나타나 있음에도¹⁸⁾ 의미 해석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후행절인 “뭘 해도 성공할 것이다.”의 내용이 ‘-(으)ㄴ 나머지’ 구문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후행절의 결과가 가진 의미론적 제약에 대해 일부 논의에서는 ‘부정적인 결과’(홍혜란 2016: 181, 임진숙 2022ㄱ: 341, 임진숙 2022ㄴ: 71)나 ‘어쩔 수 없는 결과’(임진숙 2022ㄱ: 345 [그림 3]) 등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는데 후행절의 형식적 특성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29바)에서 제시한 “후행절 서술어의 정도성을 심화하는 표현들이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형식적 특성은 후행절도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행위나 사태, 상태 등의 정도성이 심하거나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들었던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37) 가. 나는 말할 내용에 지나치게 시간을 소모한 나머지 외관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다.(=17가)

18) “워낙 들뜬 나머지 너무 일찍 깨어나 버리고 만 것이었다.”(10마)와 같은 문장을 보면, ‘워낙’은 ‘-(으)ㄴ 나머지’ 구문과 잘 어울려 쓰일 수 있는 정도성 심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나. 우리 역사 발전의 보편성을 강조한 나머지 계급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18가)

다. 나는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돌아서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지쳤다.(=18다)

후행절의 정도성의 심화성은 선행절의 정도성의 심화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7다)를 예로 들어 보자면, ‘조금 혹은 살짝 지치는’ 데 있어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조금 혹은 살짝 신경을 쓰는’ 정도로는 ‘돌아서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지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후행절을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태로 표현하는 것은 정도성의 심화성을 더욱 과장하는 수사적(rhetorical)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8) 가. 500만 달러의 투자 자금은 너무나 놀라운 수익을 가져다준 나머지 이 회사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컴퓨터를 마비시킬 정도였다.(=19가)

나. 나는 초조한 나머지 입술이 다 떨릴 지경이다.(=19나)

다. 문을 연 k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소리라도 칠 뻔했다.

(38)의 후행절에 쓰인 ‘-ㄴ 정도이다’, ‘-ㄴ 지경이다’, ‘-ㄴ 뻔하다’ 등은 이와 결합한 술어가 나타내는 사태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님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만큼 선행절의 원인이 정도성이 심하거나 크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이다.

(29마)의 “후행절 서술어에 보조 용언 ‘-고 말-’, ‘-어 버리-’가 결합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부사 ‘그만’이 쓰이기도 한다.”는 형식적 특성은 후행절의 ‘반기대성’과 관련이 있다.

(39) 가.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14나)

나. 초조하고 불안스러운 나머지 나는 그만 당장 골목을 뛰쳐나와 버리고 싶었다.(=15나)

‘-고 말-’과 ‘-어 버리-’는 상적으로 ‘완료’를 의미하는데, 두 보조 용언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중단 또는 제거되는 데서 오는 부정적 평가’나 ‘기대에 어긋남’과 같은 양태적·화용적 의미를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김효신 2007: 83). (39가)에서 ‘땅바닥에 쓰러지다’라는 사태는 누구에게나 기대할 만한 결과는 아니며 (39나)의 경우 ‘당장 골목을 뛰쳐나와 버리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당장 골목을 뛰쳐나오다’라는 사태 역시 맥락상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진해(2004: 59-60)에서는 ‘종결’의 기능을 하는 ‘-고 말-’과 ‘-어 버리-’와 빈번하게 결합하는 부사 ‘그만’에 대해 ‘사건의 비의지적 전개’라 하였다. 이는 ‘화자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외부적 영향의 결과 때문에 촉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고 말-’, ‘-어 버리-’, ‘그만’과 같은 표현들이 쓰일 수 있는 것은 후행절이 자

연스럽게 예상되는 결과 혹은 적극적으로 바라는 결과, 바람직한 결과나 긍정적인 결과 등이 아닌 의외의 결과 혹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 등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후행절의 특성을 본고에서는 ‘반기대성’이라는 용어로 포괄하고자 한다.

후행절이 가진 또 다른 의미적 특성 중 하나는 ‘극단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인데, 이는 (29사) “후행절에 포함의 보조사와 배제의 보조사가 쓰이기도 한다.”는 형식적 특성으로 드러난다. 일단 포함의 보조사들이 쓰인 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40) 가. 너무 놀란 나머지 처음에는 눈물도 나지 않았다.(=20)

나. 너무 우스운 나머지 바닥을 치기**까지** 했다.(=21가)

다. 그는 지레 놀란 나머지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것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할 겨를이 없었다.(=22가)

라. 우리는 서양 문명을 배우고 흉내 내기에 바쁜 나머지 우리 것이 훨씬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우**마저** 잊고 지내는 일이 많다.(=23가)

‘도’는 척도적 용법과 비척도적 용법을 모두 지니지만 ‘까지’, ‘조차’, ‘마저’는 척도적 용법만 있다(임동훈 2015: 351). (40가)에 쓰인 ‘도’는 척도적 용법의 ‘도’인데, 이때 ‘도’의 초점은 바로 앞에 오는 ‘눈물’로 좁게 해석되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과 같이 넓게 해석되어 “다른 것도 안 나고 눈물도 안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소리가 안 나오는 등) 다른 일도 안 일어나고 눈물이 나지 않기까지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¹⁹⁾. 이처럼 척도적 용법으로 쓰이는 ‘도’와 ‘까지/조차/마저’는 척도의 마지막 요소를 나타내는데, 가령 (40나)의 경우 ‘우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척도 위에 나열해 보았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요소는 ‘(그냥) 웃는’ 정도의 일일 것이고 ‘바닥을 치는’ 행위는 다소 과한 행위로서 이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척도상 가장 마지막에 오는 요소로 가정된다고 할 수 있다(전후민 2021ㄱ).

흥미로운 것은 후행절에 척도적 용법의 포함의 보조사뿐만 아니라 배제의 보조사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41) 나는 이런 오빠가 짐스러운 나머지 혼자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24)

(42) 내 감정을 절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극히 상투적인 위문문**밖에** 못 쓰고 말았다.(=25)

(41)은 넓은 초점으로 해석되어 “혼자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기만 하였고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42)는 좁은 초점으로 해석되어 “극히 상투적인 위문문밖

19) 보조사의 초점이 좁게 해석되거나 넓게 해석되는 의미적 현상 및 넓은 초점일 때 ‘-기+보조사 하-’라는 구문으로 바뀌어 쓸 수 있는 등의 형식적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전후민(2021ㄴ) 참조.

에 못 썼고 감동적인 위문문은 쓰지 못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 부류의 보조사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극단성’을 나타낸다. 척도적 용법으로 쓰이는 포함의 보조사는 척도에 있는 나머지 요소들을 전부 함의하여 전칭 양화적 해석을 가지게 됨으로써, 배제의 보조사는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전부 배제함으로써 극단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극단성은 물론 선행절 원인의 의미적 특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스운’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냥 웃는’ 정도가 아니라 웃는 행위뿐만 아니라 ‘바닥을 치는’ 행위까지 하게 된 것이고(40나), ‘오빠가 짐스러운’ 정도가 너무 커서 ‘오빠를 챙기는’ 등의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행위’ 단 하나만 하게 된 것이다(41가).

지금까지 후행절의 의미적 특성들을 앞에서 살펴본 형식적 특성들과 결부시켜 ‘정도성의 심화성’, ‘반기대성’, ‘극단성’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후행절의 이러한 특성들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극단적인 결과라야 정도성이 심하거나 크다 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라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결과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3. ‘-(으)ㄴ 나머지’ 구문의 의미적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적 특성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으)ㄴ 나머지’ 구문은 인과 관계 구문의 일종으로서 선행절과 후행절로 표현되는 원인과 결과가 모두 일반적인 인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라서 특수한 종류의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으)ㄴ 나머지’ 구문에는 ‘정도성의 심화성’, ‘반기대성’, ‘극단성’과 같은 의미 특성들이 내재해 있어서 주로 부정적이거나 정도성이 큰 술어들이 나타나고 이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정도성이 심함’, ‘기대와는 다름’, ‘극단적임’과 같은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다음의 예는 ‘-(으)ㄴ 나머지’의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3) 꽃은 너무 하얀 나머지 광채가 났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꽃이 하얗다고 해서 광채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43)에서 드러나는 인과 관계는 일반적인 인과 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냥 하얀 것이 아니라 너무 하얗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는 것이고, 광채가 날 정도라면 조금 하얀 정도로는 안 될 것이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적 특성은 서로가 서로를 제약한다고 할 수 있다. ‘너무’가 쓰이지 않더라도 위 문장에서 ‘하얀’은 정도성이 심하거나 크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얗-’이라는 술어 자체에는 이러한 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뜻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이 구문의 의미임을 말해 준다.

인과 관계라는 관계적 의미는 꽤나 견고한 의미여서 원인과 결과는 의미적으로도 밀접하

고 이는 통사적으로도 드러난다.

- (44) 가. 제2차 대전 후의 세계 미술은 전전(戰前)의 ‘순수 조형’에서 ‘내면 표현’으로 방향 전환을 가져온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 그 결과 때로는 표현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조형을 희생시키기도 하였고 또 일체의 기성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 나. 놈과 나의 싸움은 처절했다. … 놈은 뒷다리를 약간씩 절뚝거렸고 피까지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은 나도 지친 나머지 놈의 강대한 어머니의 일격을 가슴팍에 당하고 말았다.

(44)는 결과와 관련된 표현이 선행절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44가)의 ‘그 결과’와 (44나)의 ‘결국은’은 ‘-(으)ㄴ 나머지’의 선행절 혹은 후행절하고만 관련된다고보다 ‘-(으)ㄴ 나머지’ 구문 전체가 앞선 담화의 결과처럼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견고한 의미임을 말해 준다.

(29나) 중에서 “선행절의 서술어에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ㄴ’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형식적 특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통사적으로도 긴밀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 (45) 그러나, 어찌 참패당하는 것을 겁내 나머지 세상을 욕심부리지 않고 맛있게만 살아갈 수 있으랴.
앞으로도 나는 늘 참패를 당하곤 할 것이다.

(45)의 ‘겁내’는 후행절에 나타나는 ‘있으랴’와 후행 담화에 의해서 가정적인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ㄴ’이 아닌 ‘-ㄴ’이 결합해 있다. ‘-ㄴ’은 “관련 사태가 비실제적이며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것임을 표시하는 서상법(irrealis) 표지”(임동훈 2009: 64)이므로 어떤 사태가 실제적이지 않고 가정적이라면 관형사형 어미로 ‘-ㄴ’이 붙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 앞에는 항상 서실법(realis) 표지인 ‘-ㄴ’이 붙는 것이다. 이는 선행절의 시제와 서법이 항상 후행절 사태를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참패당하는 것을 겁내-’는 사태는 항상 ‘세상을 욕심부리지 않고 맛있게만 살아가-’는 사태보다 앞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ㄴ’이 아닌 ‘-ㄴ’이 결합한다²⁰⁾.

지금까지 논의한 ‘-(으)ㄴ 나머지’ 구문의 의미적 특성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6) ‘-(으)ㄴ 나머지’ 구문의 의미적 특성

20)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진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으)ㄴ 나머지’ 구문의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앞선 사태를 나타내야 한다면 형용사의 경우 과거 표지인 ‘-더-’나 ‘-었더-’가 더 많이 쓰여야 할 것이나 전술했듯이 형용사에서도 ‘-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형용사의 경우 과거 비완결상/비완망상 표지인 ‘-더-’를 쓰게 되면 과거 의미뿐만 아니라 비완결/비완망 의미도 함께 부각되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행절이 비완결/비완망으로 해석될 경우 자칫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의 시간 구간 안에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으)ㄴ 나머지’ 구문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이기 때문에 선행절이 의미론적으로 후행절보다 먼저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하게 부호화되어 있다. 따라서 형용사의 경우, 상적인 의미가 구문의 의미론적 해석을 방해할 수 있어 상의 대립이 없는 현재 시제(박진호 2011: 305)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ㄴ’은 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도 구문의 의미론과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ㄴ’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래서 동사는 형용사보다도 ‘-더-’와 ‘-었더-’의 빈도가 더 낮은 것이다. ‘나머지’ 앞에 오는 관형사절의 시제·상 요소 빈도는 각주 8 참조.

가. ‘-(으)ㄴ 나머지’ 구문은 선행절이 원인을 나타내고 후행절이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 관계 구문의 일종이다.

나. ‘-(으)ㄴ 나머지’ 구문이 나타내는 인과 관계는 일반적인 인과 관계와 달라서 ‘정도성의 심화성’, ‘반기대성’, ‘극단성’과 같은 특수한 의미를 드러낸다.

5. 결론

본고의 목적은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과 의미를 상세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고에서 논의한 것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으)ㄴ 나머지’ 구문은 선행절이 원인을 나타내고 후행절이 결과를 나타내는 구문으로서 ‘-(으)ㄴ 나머지’만 고정되어 있고 선행절과 후행절은 빈자리(slot)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으)ㄴ 나머지’ 구문은 ‘인과 관계 도식적 구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으)ㄴ 나머지’ 구문이 나타내는 인과 관계는 일반적인 인과 관계와 달라서 ‘정도성의 심화성’, ‘반기대성’, ‘극단성’과 같은 특수한 의미를 드러낸다. ‘-(으)ㄴ 나머지’ 구문에 정도 부사와 같은 정도성 심화 표현, ‘-고 말-’, ‘-어 버리-’, ‘그만’과 같이 기대와는 다르거나 예상치 못함을 드러내는 표현, ‘까지’, ‘만’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보조사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으)ㄴ 나머지’ 구문의 의미와 형식이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남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친다. 역사 자료와 다른 언어(특히 일본어)의 자료가 고려된다면 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것인데 이를 미처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으)ㄴ 나머지’ 구문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다른 구문들(‘얼마나 V/A-었으면 [의문문]’ 구문, ‘[어찌나/얼마나] V/A-(으)ㄴ 지+후행절’ 구문 등)도 함께 다루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참고문헌

- 곽일성. 2017. “결과를 나타낸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문법화 정도와 통사·화용적 의미”.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52(1). 216-246.
- 김진해. 2004. “분포를 통한 부사 ‘그만’의 중의성 해소 연구”. 「담화와 인지」(담화·인지언어학회) 11(2). 43-64.
- 김효신. 2007. “완료표현 ‘-고 말다’와 ‘-어 버리다’의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용. 2020.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 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국어학회) 60. 289-322.
- 서반석. 2020. “결과의 접속 부사 ‘그래서, 그러므로’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의외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한국어학회) 89. 169-197.
- 서세정·최영룡. 2014. “한국어 교육용 원인·이유 연결형 문형 선정 및 위계화”. 「언어사실과 관점」(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3. 157-184.
- 이수연. 2016. “한국어 반복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주. 2022. “‘할 것 없이’ 구성의 문법과 역사적 발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38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한국어문교육연구회). 215-233.
- 임동훈. 2009. “‘-을’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한국어학회) 44. 55-81.
- 임동훈. 2010. “현대국어 어미 ‘느’의 범주와 변화”. 「국어학」(국어학회) 59. 3-44.
- 임동훈. 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국어학회) 73. 335-373.
- 임진숙. 2022ㄱ. “프락시올로지 지식 기반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130. 331-355.
- 임진숙. 2022ㄴ. “한국어교육에서 인과관계 의존성 명사 결합형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3(3). 55-86.
- 전후민. 2021ㄱ. “한국어 보조사 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후민. 2021ㄴ. “보조사 구문의 초점 형식과 해석: 긴 초점과 넓은 초점-‘도’ 구문과 ‘만’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 통사론의 과제와 도전(유현경 편)」. 서울: 집문당. 629-662.
- 정연주. 2022. “구문문법과 한국어 구문 연구”. 「국어학회 2022년 겨울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어학회), 227-251.
- 주향아·유현경. 2022. “접속 기능 우연적 구성의 특성에 대한 연구-접속어미와의 교체 여부를 중심으로-”.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63(6). 1-21.
- 최종원. 2022. “구문적 속어의 유형과 형성”. 「한국어학」(한국어학회) 95. 143-178.
- 홍혜란. 2016. “한국어교육을 위한 복합 연결 구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roft, W.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C. & Trousdale, G. 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University Press.(박원기·강병규 역. 2018. 「구문화와 구문변화」, 고양: 學古房.)

“-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이형주(서울대)

이 발표는 절과 절 사이의 특별한 인과관계 의미를 표현하는 도식적 구문(schematic construction)인 ‘-(으)ㄴ 나머지’의 형식과 의미를 상세히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발표문에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을 바탕으로 해당 구문 선행절과 후행절의 구조적·의미적 특성을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이로써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과 의미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문의 인과관계 의미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정도성의 심화성’, ‘반기대성’, ‘극단성’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서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토론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에 역량이 한참 부족하여 발표자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및 참고하실 자료를 전달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1. 선행절 서술어의 평가 의미

제3장의 마지막 (29)에는 ‘-(으)ㄴ 나머지’ 구문의 형식적 특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후행절에 어떤 표현이 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선행절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상황으로 한정하여 ‘-(으)ㄴ 나머지’ 구문을 포함한 문장을 임의로 만든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긍정 평가의 형용사가 오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예: 잘생긴 나머지, 깨끗한 나머지). 다만 이 긍정 평가의 형용사조차도 맥락에서 기대하지 않은 결과, 즉 ‘반기대성’을 가진 후행절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예: 창문이 너무 깨끗한 나머지 열 때마다 드드득 소리가 나서 아주 거슬린다). (29)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그리고 제3장에서 다룰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발표자께서 생각하시기에 “평가” 의미의 서술어가 구문 성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기대논리를 이용한 의미 분석 가능성

이 발표문에 따르면 ‘-(으)ㄴ 나머지’ 구문은 “인과” 의미와 “정도성의 심화성”, “반기대성”, “극단성” 등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어서’로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사한 기능을 보이는 ‘-(으)ㄴ 끝에’, ‘-(으)ㄴ 결과’ 등과 비교함으로써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의미들 역시 공기 표현 혹은 빈출 표현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여쭙자면, 혹 최근에 기대논리를 이용한 언어 표현의 의미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들(박진호 2019, 후박문·박진호 2022 등)이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발표자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은 이전에 쓰셨던 논문들에서 처럼 ‘척도’를 활용한 기술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문헌]

박진호(2019), ‘아닌 게 아니라’와 ‘아니나 다를까’에 대하여: 기대논리에 대한 언어학적 탐색 시론, 통사론연구회 발표문(2019년 8월 10일).
후박문·박진호(2022), 기대와 추론의 언어적 표현 양상, 세계한국어학자대회 발표문, 379 - 407.

3. 역사 자료 및 외국어 자료

결론에서 언급하신 역사 자료나 외국어 자료와 관련하여, 저도 궁금한 마음에 자료를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먼저 역사 자료의 경우 ‘나머지’의 이전시기 형태 ‘나마지’, ‘남아지’와 현재는 방언형으로 여겨지는 ‘남저지’와 관련한 예가 일부 확인되는 듯합니다.

- (1) 가. 그중에 한 사람인 김은호는 의심하기를 마지안이하든 나머지 드대여 리왕직으로 드러가 권등영선과장을 보고... (《동아일보》, 1920.06.24. 3면, 기사(사회))
- 나. 잠든 로부인은 다시 눈을 찌지 안이하였다. 암아도 깃뽀 남아지에 마음이 누군해진 것이다. (《조선일보》, 1920.12.16. 4면, 소설(생활/문화))
- 다. 법국 공소가 교섭왕복훈 남저지에 그 판을 미져 청국으로 하여금 一百七十万원의 비상을 내게 하니 이는 본리 훈곳 손희의 비상이 아니요(《독립신문》 제4권 제234호, 1899.10.12.)

(1)의 예는 모두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용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으)나 나머지’ 구문 뒤에 조사 ‘에’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어 자료의 경우, 일본어는 ‘-の 余り’ 꼴이, 중국어는 ‘之余’ 꼴이 쓰이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어의 영향으로 생긴 구문이라면 (1나, 다)의 조사 ‘에’도 혹시 일본어에서 유래되었다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발표자 선생님께서 후고를 통해서라도 꼭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4. 구문으로 문법 다시 쓰기

이 발표문의 주제와 완전하게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기회를 빌어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주제입니다. 지난 2022년 다른 학술대회에서 정연주 선생님의 발표문에 토론을 하시면서 ‘구문으로 문법 다시 쓰기’를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구문문

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기존 문법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대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넘어서, 구문으로 문법을 새로 기술하는 것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전후민(2022), “구문문법과 한국어 구문 연구(정연주)” 토론문, 국어학회 2022년 겨울 학술 대회 발표자료집, 253-254.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사용 양상과 기능

-신문 기사문을 중심으로-

박미은(중앙대)·유성희(연세대)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담화 기능적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용구문의 하위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과 담화 기능이 원화자의 출현 유무 및 담화 내 분포, 기사문의 하위 유형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통사적·기능적 특성도 기술될 것이다.

인용구문은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다른 누군가의 표현으로 옮기는 행위가 언어로 부호화된 형식을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인용구문은 인용동사가 보절을 취한 구문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한송화(2013), 현영희(2021), 박미은(2021, 2022)을 통해 인용명사의 유형과 기능이 논의되면서 그 특성이 밝혀졌고, 정연주(2022) 등에서 인용명사 구문도 인용구문으로 포괄되어야 한다고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면 인용구문을 인용술어의 품사에 따라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ㄱ. 민주가 “영은이가 와인을 한 병 줬어” 하고 자랑했다.

ㄴ. 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1') ㄱ. 민주가 “영은이가 와인을 한 병 줬어” 하는 자랑_{NQ}을 늘어놓았다.

ㄴ. 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았다는 자랑_{NQ}을 늘어놓았다.

(1)은 인용동사 구문의 직접인용구문과 간접인용구문, (1')는 (1)과 대응될 수 있는 인용명사 구문의 직접인용구문과 간접인용구문의 예를 보인 것이다. (1)과 같이 인용동사 구문은 인용동사가 인용표지로 연결된 피인용절을 필수적인 부사어로 취하는 구문을 가리키고, 인용명사 구문은 (1')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인용명사가 인용술어가 되는 구문이다. 인용명사 구문은 인용명사 구문 전체가 모문 술어가 이끄는 문장 성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1')와 같이 인용동사의 필수논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2)와 같은 모문 술어의 여러 가지 성분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1) NQ는 인용명사를 표시한 것이다.

(2) ㄱ. 민주 말은 영은이가 자기에게만 와인을 주었다는 뜻_{NQ}이다.

ㄴ. 영은이가 민주에게만 와인을 주었다는 얘기_{NQ}가 있다.

ㄷ. 성희는 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았다는 이야기_{NQ}에 신경이 쓰였다.

(2ㄱ)은 ‘이다’, (2ㄴ)은 ‘있다’가 인용명사 구문을 취한 것으로 (1ㄴ)의 인용동사와 함께 인용명사 구문을 취하는 상위 빈도의 용언이다(박미은 2021). (2ㄷ)은 인용명사 구문이 부사어로 사용된 예를 보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신문 기사문을 대상으로 삼아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으로 구분하고, 담화 내 분포 및 기사의 유형 등을 변수로 삼아 관찰하였다.

본고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기사 담화에서 인용명사 구문과 인용동사 구문은 어떻게 분포하는가?

둘째, 신문 기사문에서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기능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 신문 기사문에서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통사적 특성과 담화적 기능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넷째, 신문 기사문의 하위 유형에 따른 인용구문의 사용은 어떠한가?

본고에서는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비교를 위해 인용구문의 전형적인 쓰임을 보이는 신문 기사문을 대상으로 삼았다. 주지하듯이 신문 기사문은 인용구문과 관계가 깊은 사용역이다. 인용구문의 사용은 신문 기사를 생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성과 진정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사문 담화에서 인용구문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Van Dijk, 1988:86-87, Bell: 1991:207-208).

신문 기사문과 인용구문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특정 사용역을 중심으로 한 인용구문 연구에서도 신문 기사문이 많이 다루어졌다. 한송화(2013: 453)에서는 인용 화자가 피인용사실을 단순한 ‘말, 얘기’로 판단하는지 ‘지적, 비판’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인용의 ‘-다는’ 이후의 후행 명사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신문 기사에서는 객관성, 사실성 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인용문이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인용구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며, 어휘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 화자의 관점과 판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서반석·두임림(2018)에서는 사용역에 따른 인용구문의 특성을 신문, 대화, 학술문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신문과 학술문에서는 인용주어가 대개 ‘은/는’과 결합하지만, 대화 사용역에서는 ‘이/가’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다. 신문 사용역에서 인용 주어가 ‘이/가’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인용주어-인용내용-인용서술어’의 기본 어순에서 ‘인용내용’이 문두에 와서 강조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화 사용역에서 ‘은/는’이 대조의 기능을 ‘이/가’가 초점이나 화제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으로 사용역에 따른 인용구문의 기능을 개별 사용역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 된다.

2. 연구 방법

2.1. 데이터 전처리 방법

국립국어원 구문 분석 말뭉치는 신문 기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여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한 말뭉치이다. 총 7,265개 기사, 150,08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406편에 나타난 인용구문 2,235문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구문 분석 말뭉치를 연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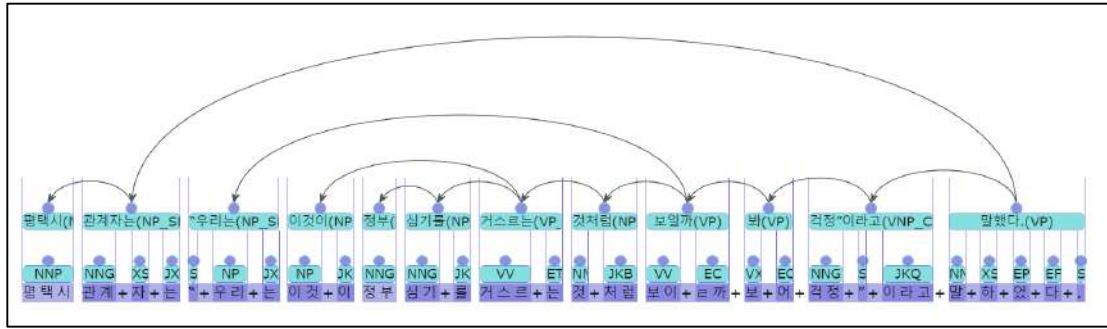
(3) 데이터 전처리 과정

- 1) 인용 표지²⁾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검색하고 출력될 문장 분류
- 2) 술어(VP)를 문장의 최종 술어로 취하는 동시³⁾에 주어(NP_SBJ)를 갖는 문장 검색하여 정렬
- 3) 검색된 결과와 기사 전체 문장을 동시에 DataFrame⁴⁾으로 출력
- 4) 인용 표지로 찾을 수 없는 형태(쌍따옴표⁵⁾) 함께 사용된 직접 인용)와 함께 사용된 표지 분석 작업을 통해 따로 분석

박미은(20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용 표지를 기준으로 구문분석 말뭉치의 문장에서 변이형태 없이 드러나는 기본 형태의 표지 10개를 대상으로 기계적 추출을 하였다.⁶⁾ 문장 내 동일 형태로 노출되어 있는 표지에 하이라이트하여 분석 작업 시 식별이 용이하게 하였다. 또, 분석 작업을 진행하며 신문 담화라는 장르적 특수성으로 인해 “ ”를 내포하여 나타나는 변이형태(‘다"고’, ‘-"이라고’ 등)는 따로 분석하였다. 또, (3)과 같이 인용 표지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 중 문장 술어(최종 술어)가 주어(NP_SBJ)를 취하는 문장은 주어가 인용 문장의 원화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주어가 반드시 원화자일 수는 없기 때문에 분석 작업을 통해 구분하여 작업 시트를 생성하였다.

(4) 평택시 관계자는 “우리는 이것이 정부 심기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⁷⁾

-
- 2) 인용표지가 무표지(∅)인 문장도 가능하지만, 데이터 추출의 편의성과 대상 사용역이 신문이라는 점을 가만하여 인용 표지 ‘{다고}, {다는}, {이)라고, {이)라는, 하고, 하는’을 기준으로 삼아 인용구문을 추출하였다.
 - 3) 한국어는 head-final 언어이기 때문에 의존소가 가장 마지막에 실현되는 술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장 주어는 NP_SBJ로 문장의 최종 술어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는다.
 - 4) 행(row)과 열(column)으로 구성된 표 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콤마(,)를 구분자로 구분된 자료 형태를 활용하였다.
 - 5) 모두의 말뭉치 구문분석 말뭉치는 신문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쌍따옴표(“, 유니코드: U+201D)를 사용하지 않고 쌍따옴표(”, 유니코드: U+0022)를 사용하였다. 신문기사의 따옴표 사용 양상은 오용(양명희 2004), 신문기사의 간결성, 경제성의 추구(김정남 2005), 생동감있게 표현하려는 욕구(조용준·박찬규 2014:479) 등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핵심은 신문 기사에서는 간접인용표지 {다X}류에 대하여 “~다”X’와 같이 표시되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 6) 박미은(2021b: 3.2절)에서는 인용명사 구문의 인용표지를 들고 이를 인용동사 구문의 인용표지 와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용동사 구문의 인용표지와 인용명사 구문의 인용표지가 모두 나열되었다.
 - 7) ETRI AI 데모(<https://aiopen.etri.re.kr/demo/WiseNLU>) 시각화 도구 사용



<그림 1> (4) 문장의 구문분석 결과

2.2. 주석 과정

전처리 과정을 통해 인용 표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에 하이라이트를 하였고, 구문 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 술어와 주어가 있는 문장을 따로 표시하였다. 말뭉치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장 번호’는 문장 분류를 위해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장 역시 말뭉치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 그대로 활용하였다. ‘경/연성’, ‘원화자’, ‘인용 술어’, ‘인용명사의 후행 술어, 인용명사를 취하는 모문 술어의 논항구조(조사)’, ‘인용 화자’, ‘문장 술어’, ‘분포’는 주석을 하며 추가하였다.

<표 1> 신문 텍스트 인용 담화 분석틀

경/연성	문장 번호	문장	원화자	인용 표지	인용 술어	인용명사의 후행 술어, 조사	인용 화자	문장 주어	분포
------	-------	----	-----	-------	-------	-----------------	-------	-------	----

담화 분석틀의 내용을 간략히 하면 다음 (5)와 같다.

(5) 담화 분석틀의 내용

- 1) 경/연성: 기사 담화의 성형(경성, 연성)에 따라 인용이 사용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석⁸⁾.
- 2) 원화자: 인용문을 발화한 문장의 원화자를 표시. 문장 내에 원화자가 존재할 경우 주석.
- 3) 인용 술어: 인용명사(구), 인용동사를 주석.
- 4) 인용명사의 후행 술어, 조사: 인용명사 구문의 경우 인용명사 구문의 상위 술어 및 술어가 요구하는 조사를 주석.
- 5) 인용 화자: 현실 세계에서 인용구문을 발화하여 원발화를 전달하는 화자가 문장에 출현했을 때 주석, 기사 내 다른 문장에 있는 경우 해당 문장 번호를 함께 주석.
- 6) 문장 주어: 인용구문의 주어인 원화자 또는 인용구문을 포함하는 모문의 주어를 주석.

8) 신문 기사문은 대체로 기사의 내용에 따라 경성 기사와 연성 기사로 구분한다. 경성 기사는 정치·경제·사회 등 공공의 문제와 관련된 사실 전달 위주의 뉴스 또는 기사를, 연성 기사는 스포츠·연예·생활 정보 등 흥밋거리 위주의 뉴스 또는 기사이다(최영목 1997).

7) 분포: 인용이 사용된 문장이 기사 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석(초, 중, 말).

이상의 절차를 통해 <표 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2> 분석 자료 개요

인용구문 유형 기사의 유형	{다고}류 ⁹⁾	{다는}류	(이)라고 ²¹⁰⁾	(이)라는 ²⁾	합계
경성	886	452	6	40	1384
연성	595	306	7	43	951
합계	1481 (63.4%)	758 (32.5%)	13	83	2335

2.3. 양적 분석 도구

데이터구 전처리 및 분석을 위해 파이썬(Python 3.8.10 버전)을 사용하였고, 파이썬 구동 환경은 구글 코랩(Google Colab)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파이썬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 Pandas(1.3.5 버전), Scipy(1.7.3 버전)를 사용하였다. Pandas를 통해 CSV(Comma-Separated Value)로 구성된 DataFrame을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Scipy를 활용하여 통계 정보를 출력하는 데 사용하였다.

3. 인용구문의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

[표2]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용동사 구문이 63.4%, 인용명사 구문이 32.5%로 인용동사 구문이 약 2배 정도 많이 출현하였다. 이는 신문기사 사용역에서는 인용동사 구문이 인용명사 구문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인용구문의 전형적인 방식이 인용동사 구문이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일단 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¹¹⁾

9) {다고}류는 ‘-다고/냐고/라고/자고’, ‘(이)라고’, ‘하고’를 모두 포함하고, {다는}류는 ‘-다는/냐는/라는/자는’, ‘(이)라는’, ‘하는’을 모두 포함한다. 본고는 인용술어에 따른 인용구문의 유형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므로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구분하지 않았다.

10) ‘(이)라고2’는 ‘부르다’류의 지칭 구문을 ‘(이)라는2’는 대상 환기 구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직접인용표지와 형식은 동일하지만 인용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1) 이는 모든 사용역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1. 인용구문 유형에 따른 원화자의 출현 유무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차이는 먼저 원화자의 출현 비율로 확인된다. 총 2,235개의 문장에서 인용동사 구문은 1,505문장, 인용명사 구문은 734문장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원화자가 출현한 경우는 인용동사 구문의 경우 총 1,340문장(94%) 인용명사 구문은 82문장(5.76%)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인용구문이 포함된 문장 내에 원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각각 1,301문장(91.4%), 77문장(0.54%)로 조사되었다. 이를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원화자 출현 빈도

모문 내에 원화자가 출현한 경우	출현 횟수	비율(%)
인용동사 구문	1,301	91.42
인용명사 구문	77	5.41
	1,340	96.83

<표 4> 표지별 모문 밖 원화자 출현 빈도

모문 밖에 원화자가 출현한 경우	출현 횟수	빈도
인용동사 구문	39	2.74
인용명사 구문	5	0.35
	82	3.09

곧, 인용동사 구문의 원화자가 문면에 출현하는 경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인용명사 구문의 원화자 출현 비율은 뚜렷하게 낮게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하나의 기사문 안에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이 함께 쓰인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 美2사단, 왜 2016년까지 이전 미루나... 盧정부 ‘이전연기 요청’ 불신 남아... ‘反美변수’ 고려 녀넉한 일정 원해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관리업체(PMC)가 최근 최종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ㄱ)이달 중 미군기지 이전 일정과 비용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ㄴ)국방부 기지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이날 “한미가 PMC의 최종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큰 견해차가 없다”고 말했다. ...중략... 그러나 (ㄷ)군 일각에서는 [곧바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_{NQ}도 나온다. 한국 측은 여전히 용산기지와 미2사단 모두 2014년까지 이전을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이 용산기지는 2014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수 있겠지만 (ㄹ)미2사단은 [예산 확보가 힘들어 2016년에나 이전을 끝낼 수 있다는 방침]_{NQ}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ㄴ, ㅂ)미국 측이 ‘2016년’을 고수하는 또 다른 이유_{NP1}는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한국이 합의 후 일정 변경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우려]_{NQ} 때문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중략... (ㅅ)군 관계자는 “미국 측은 과거 기지 이전 사업이 ‘자주국방’이나 ‘반미주의’ 등에 휘둘려 차질을 빚은 만큼 더는 정치적 외풍에 좌우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현 가능한 일정을 잡길 원한다”고 말했다.

(6ㄱ, ㄴ, ㄷ, ㅅ)은 인용술어로 인용동사 ‘밝히다, 말하다, 전하다’가 쓰인 인용동사 구문으로, (6ㄷ, ㄹ, ㅁ)은 ‘관측, 방침, 우려’가 인용술어로 사용된 인용명사 구문이다.¹²⁾ 인용동사 구문 (6ㄱ, ㄴ, ㄷ, ㅅ)의 원화자는 각각, ‘국방부,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 군 소식통, 군 관계자’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6ㄷ)의 원화자로 파악되는 ‘관측’의 행위주로 보이는 ‘군 일각’은 모문 술어 ‘나오다’의 부사어로 실현되어 있고, (6ㄴ)의 미국 측은 ‘이다’ 구문의 NP1인 ‘이유’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주어로 실현되어 각괄호로 표시한 인용명사 구문 내부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이는 인용동사 구문의 원화자는 인용동사의 통사적 주어이지만, 인용명사 구문의 원화자는 반논항이라는 것과 관계될 것이다. 명사의 논항은 주로 반논항으로 실현되기 때문에(이선웅 2005: 3.1.2절), 명사구 내에서 실현 가능한 요소라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용동사 구문은 모문의 술어가 인용동사이고 원화자가 인용동사의 통사적인 주어로 실현되기 때문에 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또한 반논항으로 인용명사 구문의 원화자는 불특정하다는 특징도 보인다. (6ㄷ)의 ‘군 일각’은 특정한 원화자를 가리킬 수 없지만, 인용동사 구문의 원화자인 ‘국방부, 관계자, 군 소식통’은 불특정하다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6ㄷ)과는 차이를 보인다.

인용명사 구문의 원화자의 불특정성은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7) [크로스 미디어] “장보고號 힘내세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박사님, 향해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나라를 위한 연구 많이 하세요. 승환이 올림.” “권 박사님, 멋지고 장하십니다. 덕분에 우리 과학의 미래가 밝습니다. 세종과학고 교장 신정숙.”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동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다원전(展)’ 특별전시장. 겨울방학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중략...벽장에 가지런히 쌓여 있는 308개의 플라스틱 병은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이 권 박사에게 남긴 격려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략... 대부분 권 박사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이지만, (ㄱ)그의 도전 정신을 보고 삶의 희망을 얻었다는 메시지도 꽤 있다. 격려 메시지를 보낸 관람객은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 학생부터, 대학에 합격한 새내기 과학도, 아이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았다가 우연히 사연을 알게 된 부모들까지 그 층도 다양하다. 이날 오후 극지의학 연구모임인 극지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코너를 찾은 (ㄴ)이민구(생리학) 고려대 의대 교수도 “이번 탐험은 누구도 하지 못한 새로운 과학적 시도”라며 “꼭 목적을 이루고 안전하게 돌아오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중략... 통신이 끊긴 지 열흘 만인 4일 저녁(한국 시간) 재개된 통화에서 (ㄷ)권 박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 일단 재충전하면서 탐사 방식과 계획을 조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7)의 기사문에서는 세 개의 인용구문을 찾을 수 있는데, (7ㄱ, ㄴ)은 인용명사 구문이고, (7ㄷ)은 인용동사 구문이다. 인용명사 구문 (7ㄱ)의 원화자는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로, 메시지를 보낸 원화자는 선행 문맥을 통해 ‘관람객’이나 ‘권 박사를 응원하는 이들’ 정도로 설정해 볼 수 있지만 특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인용동사 구문 (7ㄷ)의 원화자는 ‘권 박

12) 여기서 (6ㅁ)은 (6ㄴ)의 피인용절에 포함된 형식으로 출현한 경우라는 점은 다르지만, 원화자를 파악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

사’로 전형적인 인용동사 구문의 원화자의 형식으로 출현하였다.

더하여, (6ㄷ), (7ㄴ)은 피인용절은 인용명사의 내항으로, 원화자는 ‘인용명사+기능동사’ 구성의 참여항으로 실현된 경우이다. (6ㄷ)의 ‘방침을 고수하다’와 (7ㄴ)의 ‘메시지를 남기다’가 인용 복합술어로 파악된 것이다. 곧, ‘방침을 고수하다’ ‘메시지를 남기다’를 인용동사로 파악하여 원화자에 인용동사의 주어 표지를 부착하였으면서도 피인용절은 인용명사 ‘방침’과 ‘메시지’ 내 논항으로 쓴 것이다. 이는 채숙희(2011: 91)에서도 일부 인용 복합동사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기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원화자의 출현 빈도 및 특정성 유무는 하나의 사태에 대한 인식 주체와 발화 주체의 시점의 측면과 관계된다. 구체적인 담화 양상을 고려할 때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체험하거나 목격하는 인식의 주체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서술의 주체는 항상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능동문이나 피동문, 사동문의 차이는 발화의 시점이 문법 형식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이다.

(8) ㄱ. 경찰이 도둑에게 잡혔다.

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주지하듯이 (8)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입장이 태(voice)라는 문법 형식으로 드러난 것으로 (8ㄱ)의 화자는 행위주 ‘청년’의 시점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8ㄴ)의 화자는 피행위주인 ‘도둑’의 시점에서 문장을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사태를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구문의 문법 기술을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식의 주체와 기술의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은 문장 서술에 있어 다양한 시점의 차이로 반영된다. 화자가 어떤 사태를 기술할 때 어떤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시점에서 그것을 서술하느냐 하는 것은 언어의 여러 가지 현상과 다양한 관련성을 갖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동일한 사건이나 현상이라도 그것을 서술하는 화자의 시점이 어떠한 대상과 동일시되느냐에 따라 어휘의 선택, 문장 형식의 실현, 문법 형태소들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형식을 취하게 되며 청자는 하나의 발화를 접할 때 발화 자체의 명제적 의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영된 화자의 서술 시점의 차이를 포착하여 발화의 의미 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자는 하나의 발화를 수용할 때 그것의 명제적 의미로뿐 아니라 화자가 갖는 특정한 시점의 반영으로도 해석한다(신선경 2002: 432).

인용구문은 원화자와 인용화자, 원청자와 인용청자라는 두 가지 시점의 담화 참여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시점이 한 문장 안에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9) 원화자(민주)가 원청자(성희)에게: 지난 연말에 영은이가 와인을 한 병 줬어.

ㄱ. 담화 참여자: 화자-민주, 청자-성희

ㄴ. 발화 내용- 영은이가 민주에게 와인을 주었다.

(9)는 화자(민주)와 청자(성희)가 참여한 발화로 “영은이가 민주에게 와인을 주다”라는 내용을 전달한다. 그리고 발화 내용이 전해지는 인용구문은 아래 (10)으로 표현될 수 있다.

(10) 인용화자(성희)가 인용청자(혜진)에게

ㄱ. 민주가 “영은이가 와인을 한 병 줬어” 하고 자랑하더라.

ㄱ'. 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라.

ㄴ. 인용구문 참여자: 원화자: 민주, 원청자 성희, 인용화자: 성희, 인용청자: 혜진.

ㄷ. 피인용내용: 영은이가 민주에게 와인을 주었다/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았다.

원발화 (9)이 (10)의 인용구문으로 나타나면 (10)의 담화 참여자(민주, 성희)는 (9)의 원화자와 원청자로서 담화에 인용구문의 참여자가 되고 인용화자(성희)와 인용청자(혜진)는 실 세계에서 담화의 참여자가 된다. 따라서 원발화 (9)와 달리 인용 발화 (10)은 두 사람의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게 된다. 곧, 인용구문은 원화자(민주)와 인용화자(성희)의 시점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용화자(성희)의 개입은 간접인용구문에서 화시의 전환 및 인용동사인 ‘자랑하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간접인용구문에서 원발화의 ‘주다’는 ‘받다’로 교체되고, 인용화자의 선택에 의해 인용술어가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인용화자가 원발화를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 인용동사를 달리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용구문은 원화자와 인용화자, 인용 발화와 피인용 발화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시점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므로 이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왔다(신선경 1986의 이중 담화 구조, 이필영 1992의 관점의 전이, 안경화 1995의 시점의 간접화, 조정민 2018의 다성성 등).

이러한 차이는 보절 유형의 차이가 드러내는 의미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언급되어 온 바 있다.

(11) ㄱ. 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ㄴ. 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은 것을 자랑했다.

인용동사 구문 (11ㄱ)와 ‘것’ 명사화구성 (11ㄴ)은 동일한 명제 내용을 피인용절과 ‘것’ 명사화구성을 통해 전달하고 있지만 보절의 통사적 지위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11ㄱ)의 피인용절은 통사적으로는 부사절로 분석되고, (11ㄴ)은 대상 논항으로 분석되어 통사적인 자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사적인 자격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로도 이어져서 ‘-는 것’ 구성이 ‘사건성’, ‘행위성’, ‘직접성’, ‘사실성’, ‘현실적 사태’를 나타낸다면, ‘-다고’ 보절은 ‘명제성’, ‘간접성’, ‘비사실성’, ‘관념적 사태’를 나타내며, 발화나 사유,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보절을 이끈다는 것이 주된 논의이다(남기심 1973; 김영희 1981; 이익섭·임홍빈 1983; 강범모

1983; 장경희 1987; 안명철 1992; 김흥수 1993; 방성원 2001; 김진웅 2002; 김태인 2019; 허세문·김건희 2022). 이것은 인용화자가 피인용절의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장치가 되어, (11ㄱ)은 인용화자가 민주가 와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로 내면화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11ㄴ)은 이를 사실로 내면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언급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보절의 형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는 ‘‘것’ 명사화구성+조사’의 결합형을 일종의 보절자로 처리하여 ‘-다고’와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 있으므로 인용명사 자리에 실질 어휘가 경우까지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고’절의 지위가 부사절인데 비해 ‘-다는 인용명사 + 을’ 구성은 대상 논항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서 본고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더하여, 인용명사 구문인 ‘-다는 것’ 명사화구성은 ‘-다고’ 구성과 동일한 완형보절에 속하여,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발화나 사유의 내용을 전하는 피인용절을 이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속이다’와 같은 용언이 결합되는 맥락에서는 ‘다고’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박미은 2022)¹³⁾.

요지는 인용동사 구문은 사실성을 유보하는 반면, 인용명사 구문은 사실성이 강조된다는 것이고, 전자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라면 후자는 화자에게 대상 보절로 내면화된 정보라는 것이다. 인용동사 구문의 원화자 출현 비율이 높은 것은 인용명사 구문에 비해 원화자의 목소리가 더 부각된다는 것으로, 인용명사 구문의 원화자 출현 비율이 낮은 것은 인용화자에게 더 내면화되어 인용화자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목소리를 더 부각할 것이냐는 인용화자의 선택이다. 인용구문의 화자는 기본적으로 인용화자이기 때문이다. 이 인용화자는 문면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장의 가장 바깥쪽에 있어(목정수 2020, 김태인 2019), 인용발화의 주체로서 인용구문의 구성을 조정한다. 따라서 인용구문은 모두 인용화자의 것이고 이에 따라 인용화자의 해석이 개입되지만, 그 개입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용화자가 원화자를 부각하여 발화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거나 할 때에는 인용동사 구문이 선호되고, 원화자를 부각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자 할 때에는 인용명사 구문을 선택할 것이다. 아래 (13~14)의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교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¹⁴⁾

(12) 친아-친박, 靑오찬 끝나자마자 파열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의 2일 오찬회동이 끝나자마자 친아와 친박 진영이 다시 노골적으로 다투고 있다.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과 친이 직계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3일 전에 없던 강경한 발언

13) 더하여, ‘것’ 명사화구성에 결합하는 조사 ‘으로’와 ‘을’, ‘것’ 명사화구성이 완형인지 비완형인지 여부 등도 세부적인 의미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밝혀진 바 있다. 예를 들어 ‘속이다’와 같은 동사에서는 ‘을’과 ‘으로’의 의미차이가 드러난다. 예) 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았다고 속였다/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은 것을 속였다/민주가 영은이한테 와인을 받은 것으로 속였다.

14) (12), (13)은 하나의 기사문을 편의상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들을 각각 쏟아냈다. (ㄱ)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2월 국회가 끝나면 건전한 비주류로서 역할을 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는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ㄴ)그는 이어 “대통령 임기 1년 동안은 조용하게 협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일절 소리를 내지 않고 협조해왔는데 이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왜 비협조적이나’고 비판해왔다”며 친이계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김 의원의 발언은 집권 2년차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친박계가 ‘제 목소리’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ㄷ)친박계의 한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ㄹ)다음 달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을 앞두고 여권 내 지각 변동에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3) (ㄱ)친박계 다른 의원은 “김 의원 개인의 정치행위”라며 “박근혜 전 대표는 전면에 나설 일도 없고, 친박 진영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원치도 않는다”고 말했다. (ㄴ)공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냉소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로 이 정권을 바라보거나 반대만 하면서 순간적인 인기에 연연해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됐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ㄷ)공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권이 실패하면 다음 보수정권은 없다”며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차기 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ㄹ)당 안팎에서는 그가 박근혜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ㄴ)이에 대해 공 최고위원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얘기”라면서도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극구 부인은 하지 않았다. ...후략...

(12ㄱ~ㄷ)은 인용동사 구문으로 원화자가 문면에 드러나 있는 데 반해 (12ㄹ)은 인용명사 구문이고 원화자도 분명하지 않으며, 맥락상 선행 문장 (12ㄷ)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12ㄷ)에서 친박계 의원이 김 의원이 발언에 대해 시기적절하다는 평가를 하고, 이어서 (12ㄹ)에서 (12ㄷ)과 같이 평가한 근거를 인용화자가 해석한 것이다. (13ㄱ~ㄷ)은 앞선 김 의원의 발화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서 (13ㄹ)에서 당 안팎이라는 불특정한 원화자와 인용명사 구문을 도입하여 (13ㄱ~ㄷ)의 발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데 사용하였다.

3.2. 담화 내 분포에 따른 인용구문 유형별 기능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 공히 담화의 중간 부분에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경성과 연성의 기사 유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3.3절 <표 7> 참조). 그러나 각 분포에서 하위 인용구문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른 듯하다. 먼저 인용구문의 유형에 따른 담화 내 출현 빈도를 간략히 보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인용구문의 담화 내 분포

인용구문 유형	담화 내 분포	출현 횟수	비율(%)
인용동사 구문	초	343	22.8
	중	622	41.3
	말	540	35.9
	소계	1505	100.0
인용명사 구문	초	199	27.1
	중	311	42.4
	말	224	30.5
	소계	734	100.0

문두, 곧 기사의 도입 부분은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두괄식의 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요 내용이 오는 부분이다.

(14) ㄱ. 직장인 85% “설 비용도 큰 부담”

(a)경기 침체 속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명절 비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또 10명 중 4명은 올해 설 명절 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커리어는 13일 직장인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2%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쓰는 돈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ㄴ. 속끓는 평택-동두천... 느긋한 서울시

(a)“한마디로 평택을 초토화하자는 거죠, 초토화.” 5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이 모(53) 씨는 미군기지 이전이 또다시 2016년으로 연기된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b)미군기지가 옮겨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믿고 5년 전 이곳에 온 이 씨는 “주변을 둘러봐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이곳에는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씨 사무실 주변에는 ‘미군특수’를 노리고 3, 4년 전 집중적으로 지어진 빌라형 임대주택 10여 동이 있었지만 거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을씨년스럽기만 했다...후략...

(14)는 인용명사 구문이 문두에 온 기사문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두 예문 모두 인용명사 구문으로 도입되어 핵심 내용이 먼저 언급되고 이어지는 인용동사 구문으로는 앞서 온 인용명사 구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14ㄱ-a)는 명절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핵심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후행하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인터뷰 결과를 인용동사 구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14ㄴ-a) 역시, ‘-다는 것’ 구문을 이용하여 기사의 핵심 내용을 강조한 뒤에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14ㄴ-a,b)의 인용동사 구문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15) ㄱ. [다윈은 살아있다] <3>신자유주의, 진화냐 도태냐

...전략... 같은 진화론, 다른 해석

진화생물학자인 데이비드 윌슨 미국 빙엄턴대 교수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애덤 스미스로부터 유래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는 이제 죽었다고 선언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후략...

ㄴ.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첫 외빈 접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3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왕 부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후 주석의 설 인사를 전하고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북한 방송들이 전했다....후략...

ㄷ.李大統領 “중앙-지방정부 힘 합쳐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했다. 청와대 측은 경인윤하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회동 배경을 설명했다.

(15)는 인용동사 구문으로 기사문이 시작된 경우이다. (15ㄱ,ㄴ)은 원화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 곧 기사의 내용이 되는 유형으로 후략된 부분에서도 별다른 요약이나 해석은 눈에 띄지 않았다. (15ㄷ)은 기사의 내용에 대한 근거로 원화자가 분명한 인용동사 구문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인용동사 구문이 객관화 전략의 하나로 기능한다는 것은 여러 논의에서 언급되 있다.¹⁵⁾

더하여, {다는}류가 문두에 오는 비율(27%)이 {다고}류가 문두에 오는 비율(27%)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은 위와 같이 문두에 기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용명사 구문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문중에서 전반적인 인용구문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문 기사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사의 중심부에 분포하기 때문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대체로 기사문의 초반에 전하고자 하는 사태가 제시되고, 전하는 사태가 근거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 인용구문의 전형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더욱 설명력을 갖게 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문말에서의 인용구문의 기능을 살펴보겠다. 기사문 담화의 마지막 부분은 앞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거나 기사 전체를 조망하여 해석하기도 하고, 기사 내용 안에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이 제시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16) ㄱ. 천식 발병 유전자 찾았다...한국 등 10개국 공동연구

천식 발병에 주된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한국이 참여한 10개국 다국적 공동 연구에서 밝혀졌다. 연구팀은 한국인 2500명을 포함해 10개국에서 5만 명의 천식환자와 대조군인 정상인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IL1RL1’으로 불리는 유전자의 한 염기서열 변형이 천식을 일으키는 주요 염증세포인 ‘호산구’를 형성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알아냈다고 12일 밝혔다....중략... 박 교수는 “앞으로 천식 예방과 천식 관련 유전자 변이를 억제할 수 있는 천식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 2월 7

15) 예컨대, 학술 텍스트에서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인용구문을 쓰는 것을 비롯하여(김한샘,배미연 2017),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에도 화자의 자기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인용구문을 쓰는 것(박나리 2014)도 객관적 전략의 예로 논의된 바 있다.

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ㄴ. “인천자유구역 신축주택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말아야”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공택지 성격을 띠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신축하는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건의해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송도 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략...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기획재정부 등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면 공공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확대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6ㄱ)은 개발된 약이 앞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16ㄴ)은 논의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인용동사 구문이라는 보다 객관적인 장치를 통해 정리해 주고 있다. 대개 문말에 인용동사 구문이 쓰일 때에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관찰된다.

(17) ㄱ. [인문사회]프로파일러가 파헤친 살인마 현장보고서

인간이라는 야수·토마스 뮐러 지음·김태희 옮김·287쪽·1만 3800원·황소자리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프로파일러(profiler)다. 범죄심리학을 바탕으로 범죄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행동 유형을 분석해 용의자의 특징을 찾아내고, 신문(訊問)에도 참여하는 전문가를 일컫는 말이다. ...중략... 저자는 인간이 ‘끔찍한 야수’가 되는 데는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고 말한다. 흉악범의 경우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대화상대가 없어 스트레스 해소 통로를 찾지 못하다가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판타지를 꿈꾸고 실현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ㄴ. ‘北역류 여기자’ 평양으로 이송한듯

중국 지린(吉林) 성 투먼(圖們)의 북한 접경지역 두만강에서 취재하던 중 17일 역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은 평양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먼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커런트TV의 한국계 유나 리, 중국계 로라 링 기사는 국경을 넘다 붙잡힌 후 평양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중략... 한편 미국 여기자들이 접경지대에서 ‘실수’로 국경을 넘었을 것이라는 일부 설명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취재팀이 월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만강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서는 발길이 닿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로 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지 주민이나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중론이다.

(17ㄱ)은 인용명사 구문이 문말에 사용된 예를 보인 것이다. (17ㄱ)은 책을 소개하는 기사문으로,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용명사 구문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17ㄴ)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추측되는 기사의 내용을 실은 다음, 앞서 전한 내용이 당위성이 있다는 결론을 맺는 데 인용명사 구문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판단의 원화자를 ‘현지 주민이나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라는 원화자를 넣어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이 해석이 단지 인용화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내고 있다.

3.3. 신문 기사문의 하위 유형에 따른 인용구문 유형별 사용 양상

3.3.1. 인용구문 유형별 사용 양상

경성기사와 연성기사에 따른 차이가 인용구문의 유형별 사용 양상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기사의 유형을 변수로 두고 분석하였다. 경성 기사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등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특성으로 원화자가 발화한 그대로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성 기사는 스포츠 기사에서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등의 경우 이외에는 인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예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T검정을 실시해 보았다.

귀무가설: 경성/연성에 따라 인용구문의 사용 빈도가 다르다.

대립가설: 경성/연성에 따라 인용구문의 사용 빈도가 다르지 않다.

<표 6> 신문 기사문 하위 유형에 따른 T검정 결과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경성	13	102.9231	239.7337	1.516	0.155
연성	13	69.30769	160.2666		

p<.05

T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에 비해 유의 확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인 경성 기사와 연성 기사의 특성과 관계없이 인용의 사용 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경성 233개 기사(1,384개 문장), 연성 386개 기사(951개 문장)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기사 개수와 문장의 비율이 맞지 않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특성이 인용의 사용 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통계적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 기사 중 연성 기사가 경성 기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용구문이 사용된 문장이 더 적게 쓰였다는 점에서 귀무 가설이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다고}류의 경우 경성과 연성 각각 41%, 27%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고, {다는}류 역시 각각 19%, 1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연성 기사에서 인용구문의 활용 빈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기사의 유형과 인용 유형별 담화 내 분포

기사 유형	인용구문 유형	분포	출현 횟수	비율(%)
경성	인용동사 구문 (41%)	초	236	13.2
		중	362	20.3
		말	312	17.5
	소계		910	50.9
	인용명사 구문 (19%)	초	121	13.9
		중	164	18.8
		말	143	16.4
	소계		428	49.1
연성	인용동사 구문 (27%)	초	107	8.8
		중	260	21.3
		말	228	18.7
	소계		595	48.7
	인용명사 구문 (14%)	초	78	13.1
		중	147	24.7
		말	81	13.6
	소계		306	51.3

이는 기사의 성격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경성기사는 정치·경제·사회 등 공공의 문제와 관련된 사실 전달 위주의 뉴스를 전달한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객관인 근거의 확보가 연성기사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더 적은 문장 수에도 불구하고 인용구문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인용 표지의 사용 분포가 기사문의 중간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용 담화는 기사의 중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문 초반부에 사건에 대한 사실이 명시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용구문으로 기사 중반부에 제시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3.2절에서 언급한 객관화 장치의 활용이 경성 기사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3.3.2. 인용 술어 유형별 사용 양상

신문 기사문의 하위 유형도 {다고}류와 {다는}류에 따른 인용 술어는 원화자의 발화를 인용하기 때문에 발화, 사유, 인지, 해독 인용구문에서 사용되는 ‘말하다, 생각하다, 알다, 듣다, 설명하다, 주장하다, 전하다, 보도하다’ 등의 인용동사와 ‘것, 점, 생각, 말, 사실, 평가, 지적, 주장’ 등의 인용명사가 경성기사, 연성기사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인용명사의 경우에도 박미은(2022:59)에서 구분한 5가지 분류가 특별한 경향성 없이 고루 출현하였다.¹⁶⁾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기사와 연성기사에서 인용 표지와 함께 사용

16) 박미은(2022:59)에서는 인용명사를 원화자의 실현과 원청자의 부가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음 다섯 가지 부류로 분류한 바 있다.

되는 인용 술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성 기사는 정치·경제·사회 등 공공의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인용동사와 인용명사의 양상은 감정 표출이 제한된 ‘사실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연성 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정 표출에 자유로운 인용동사와 인용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8> 신문 기사문 하위 유형별 인용 술어 양상

경성		연성	
인용 동사	인용명사	인용 동사	인용명사
단언하다, 역설하다, 예측하다, 조성하다, 천명하다, 촉구하다, 추천하다, 칭송하다, 토로하다, 판단하다, 판단되다, 표현하다, 합의하다, 허용하다, 호언하다, 확신하다, 확인하다, 환호하다, 회고하다	논리, 명분, 해석, 견해, 계산, 기대, 기류, 기조, 낙관론, 외교 전략, 원칙, 의혹제기, 조언, 조항, 통보, 팩트, 진술, 질문, 질의, 차원, 하소연, 한계, 합의, 해명, 혐의, 협약	느끼다, 귀띔하다, 기원하다, 노래하다, 달래다, 마음먹다, 맛장구치다, 믿다, 부탁하다, 쏘아붙이다, 으름장을 놓다, 푸념하다, 피하다	느낌, 마음, 이야기, 꿈, 동화 같은 설정, 마음가짐, 주윤발 영화, 한탄, 호기심, 희망, 확신

특히 기사문은 어떤 사실에 대한 누군가의 발화 또는 생각을 전달하므로 인용명사의 구체적인 인용 내용이 문장 내에 드러나는 것을 선호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현영희 2020:254) 다른 장르의 텍스트보다 인용명사의 양상이 한정적이다. 그러나 연성기사의 경우 신문 기사의 특징도 내재한 동시에 흥밋거리 위주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인용명사의 타입이 다양하게 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생략

부류	원화자 실현	원청자 부가	예
1부류	O	O	말, 설명, 질문, 지시, 요청
2부류	O	X	
3부류	X	O	
4부류	X	X	
포괄 부류	내용, 일, 자체 부분, 점, 데; ‘것’ 명사화 구성; ‘이것		

참고문헌

- 강범모(1983), 한국어 보문명사 구문의 의미 특성, 어학연구19,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3-72.
- 김영희(1981), 간접명사 보문법과 ‘하-’의 의미 기능, 한글173, 174, 한글학회, 153-192.
- 김정남(2005), 신문기사 인용문의 특성에 대하여, 국어학46, 277-389.
- 김진웅(2020), 국어 보문명사 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인(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한샘·배미연(2017), 학문 목적 학습자의 객관화 전략 사용 양상 연구-중국인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를 중심으로, 언어 사실과 관점4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 원, 85-112.
- 김흥수(1993), 명사화 관련 ‘것’ 구조에 대한 의미 기능적 접근, 語文論文集1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93-108.
- 남기심(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계명대 출판부.
- 목정수·문경진(2020), 한국어 인칭 구조 토론-이선웅(2019)의 비판에 대한 반박, 형태론 22-2, 형태론편집위원회, 149-184.
- 박나리(2014), 한국어의 ‘자기인용구문’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사회23,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31.
- 박미은(2021), 현대 한국어 인용명사에 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박미은(2022),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구조와 기능-인용술어와 인용표지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3, 29-57.
- 방성원(2001), 국어 보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반석·두임림(2018), 사용역에 따른 인용구문의 정보구조, 한국어학78, 한국어학회, 1-30.
- 신선경(1986), 인용문의 구조와 유형분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선경(2002) 문법 기술을 위한 시점 연구,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 안명철(1989), ‘것’ 名詞句와 ‘고’ 補文에 대하여, 외국어교육연구4, 대구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65-78.
- 안명철(1992),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경화(1995), 한국어 인용구문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2004), 라고라고라고라, <<새국어소식>> 2004년 9월호 5-6
- 이필영(1992), 현대국어의 인용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경희(1987), 국어의 완형보절의 해석, 국어학16, 국어학회, 487-519.
- 정연주(2021), 채숙희,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2013)”에 대한 검토, 형태론23-2, 형태론편집위원회, 150-170.
- 조정민(2018), 한국어 인용구문의 화용론적 연구 : 라디오 뉴스 인터뷰에 나타나는 인용구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채숙희(2011),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묵(1997), 방송뉴스의 연성화, ‘필요악’인가 편법인가, Journalism review vol.22.

- 한송화(2013), ‘-다는’ 인용과 인용명사의 사용 양상과 기능-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447-472.
- 허세문 · 김건희(2022), 사실성 전제와 보문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 국어학101, 국어학회, 95-150.
- 현영희(2020), 인용명사의 분포적 특성 연구, 텍스트언어학 48, 235~262.
- 현영희(2021), 한국어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과 기능적 특성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ress, G. & Knapp, P.(1992), “Genre in a social theory of language”. English in Education, 26-2, 4~15.
- Langacker, R. W.(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 Press. [나익주 외 역(2014), 인지문법, 박이정]
- Van Dijk.T.A(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인용명사 구문과 인용동사 구문의 담화 내 분포와 기능 -신문 기사문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연주(홍익대)

이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문을 대상으로 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 특정 장르 내에서 두 구문의 기능 차이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인용명사 구문은 원화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고, 드러난 경우에도 불특정하다는 특징을 보여 주며, 인용명사 구문의 원화자 출현 비율이 낮은 것은 인용하는 내용이 인용화자에게 더 내면화되어 인용화자의 의도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이러한 특성이 신문 기사 내의 담화적 기능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신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글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표 3>과 <표 4>에서 원화자의 출현 빈도를 카운트하여 보였는데, 이 계량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용명사 구문에서는 원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뚜렷하게 적다고 하면서 예문 (6)을 들었는데, (6ㄷ)에 나타난 인용명사 구문의 원화자인 ‘군 일각’과 (6ㄹ)에 나타난 인용명사 구문의 원화자인 ‘미국 측’은 인용명사구 안에 나타나는 대신 모문의 논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원화자가 모문의 논항으로 나타나다 보니 인용명사구 안에서 다시금 명시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화자가 출현하지 않은 경우로 카운트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와 원화자가 아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하여 계량화할 필요가 있을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2. 또한 인용명사 구문의 원화자는 불특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제시된 예문 (7)로는 그해 보입니다만 전체적 빈도가 제시되지는 않아 원화자가 불특정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원화자가 아예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원화자가 불특정한 경우라 할 수 있을 듯한데, 인용명사구 안팎에서 명시된 경우는 원화자가 불특정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인용동사 구문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기사의 수가 많아 전수 조사가 어렵다면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보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3. 인용구문의 신문 기사 내 분포를 초, 중, 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그 사이의 문단을 초, 말, 중

으로 구분한 것이라면, 그러한 형식적 구분과 기사 내의 내용적 구분이 상당 부분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즉 첫 문단은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핵심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마지막 문단은 앞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거나 기사 전체에 대한 해석 또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발표자께서 인용구문의 기사 내 분포를 초, 중, 말로 구분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4. 인용구문의 담화 내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문 (17) 아래에서는 인용명사 구문이 기사 말에서 지니는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17ㄱ)에 대해 ‘저자가 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용명사 구문으로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라 하였으나,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기보다는 바로 앞에 나온 인용동사 구문인 ‘저자는 인간이 끔찍한 야수가 되는 데는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고 말한다.’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능은 기사 말 위치가 아니어도 인용명사 구문이 일반적으로 보여 주는 기능이 아닌가 합니다. (17ㄴ)에 대해서도 앞서 전한 내용이 당위성이 있다는 결론을 맺는 데 인용명사 구문을 사용한 것이라 하였으나 기사 앞에서는 월경한 기자들이 평양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오고, 기사 말미에서는 내용이 약간 전환되면서 이 기자들이 실수로 월경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나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참고로 덧붙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앞서 전한 내용과 관련한 결론을 맺는 데 인용명사 구문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83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기획 발표>

목차

-
- (1) 제3의 매체, 메신저의 언어 연구 180
남길임(경북대)·황은하(배재대)
- (2) 동서고금의 미디어와 공간의식에 따른 글자의 운용 200
유지원(금문화연구소)
- (3) ‘미디어 재현’ 교육 내용 상세화 방안 탐색: 미디어 텍스트의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 217
옥현진(이화여대)
-

제3의 매체 - 메신저 언어 연구

남길임(경북대)·황은하(배재대)

1. 서론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한 웹 말뭉치에 대한 논의들이 역설하고 있듯이, 구어와 문어의 이분법을 넘어서 제3의 언어로서의 웹 언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 이론 및 응용 분야 모두에서 중요하다.(Baroni & Ueyama 2006, Sindoni 2013, Gato 2014, 한영균·이두행 2014, 남길임 2018) 특히, 2017년 이후 전국민 메신저 이용률이 95%를 넘어서고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90% 이상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¹⁾, 제3의 매체로서 메신저 언어의 언어학적 특성 연구, 활용 및 정책 방향성은 메신저 자체의 고찰과 함께 기존의 문어·구어와의 문법, 담화 차원의 비교를 통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도입 이후의 언어 속성의 변화는 ‘제3의 구술성’(Ong 1982) 또는 ‘제2의 문어성’(Kleine & Gale 1996) 등의 용어를 통해 논의되어 왔다²⁾. 그러나 이들은 모두 초기 컴퓨터 언어나 TV 언어의 특성, 즉 ‘소리’나 ‘맥락’의 ‘복원’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201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온라인, 모바일 의사소통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단, 두 용어, ‘제3의 구술성’, ‘제2의 문자성’의 명명 방식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초기 컴퓨터 언어뿐만 아니라 현대 메신저 언어에서 나타나는 구어성과 문어성의 일면이나 속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메신저 언어는 구어일까 문어일까? 제3의 매체로서 일상에 자리 잡은 메신저 언어는 구어, 문어와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각각 얼마나 일치하고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메신저 말뭉치 140만 어절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메신저 언어의 특성은 우선 메신저 말뭉치의 자체의 특성과 구어·문어 말뭉치와의 특성에 대한 계량적 비교,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메신저와 비교 대상인 구어, 문어 말뭉치의 어절 다양도, 어절 일치도, 불일치 어절의 유형 특성 분석 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메신저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특성, ‘비격식 문어’(McCulloch 2019), ‘사적, 공적인 공간 구분의 모호성’(전숙경

1) 한국갤럽 ‘마켓70-2021’ 참고.

2) Kleine & Gale(1996)에 의하면, 이 용어는 1990년대 중반 Ong의 인터뷰나 강연에서 이미 언급된 용어이다. 이에 의하면 Ong은 당시 이 용어를 “글에서 분리되었던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나 맥락을 복원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동후 2010 재인용) 그러나 Ong은 이 용어를 언급했을 뿐 충분히 정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메신저 언어는 상황이 나 맥락의 ‘복원’이 아닌, 상황이나 맥락 자체라는 점에서 Ong이 의도한 ‘제2의 문자성’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1:123), ‘문자화된 일상과 감정 공유’(남길임 2022: 21) 등의 양상과 정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대용량 말뭉치에 근거한 메신저 언어의 특수성은 불일치 어절의 유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비격식 문어, 사적 문어 등의 정도성과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메신저 언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연구 논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외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급속한 언어 변화와 신조어, 축약어 확산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문해력의 문제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피상적인 우려에 비해, 메신저 자체의 속성을 밝히기 위한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은 그리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메신저 말뭉치 구축 및 분석의 어려움과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140만 어절의 메신저 원시 말뭉치와 함께 이를 교정한 맞춤법 병렬 교정 말뭉치를 함께 활용하기로 하며, 교정형을 활용하여 분석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시-교정’의 대응쌍을 통해 구어·문어의 차이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메신저 맞춤법 교정 병렬 말뭉치의 특성과 구조, 연구 방법론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세종 문어 및 구어, 교정 전후의 어절 비교 다양도 비교와 불일치 어절 분석을 통해 메신저 언어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규범적 관점에서 불일치 어절의 유형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불일치 어절의 유형이 메신저 언어의 구어성, 경제성, 감정과 일상 공유 등의 제3의 매체로서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계량적 수치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이론언어학적 관점에서 메신저 언어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어형의 유형과 속성을 살펴보는 것은 현 인류의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와 이로 인한 의사소통 양상의 변화를 고찰하는 기초적 작업이다. 한편, 이러한 ‘언어’ 자체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야말로 문어·구어 자원을 기반으로 설계된 형태소 분석 사전의 보완 구축 등 제3의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NLP의 성능 향상과 언어 정책에 대한 실제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2.1. 연구 대상 ‘맞춤법 교정 병렬 말뭉치’의 특성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2021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연구 결과물 중 메신저 원문 말뭉치 약 140만 어절(맞춤법 교정 후 약 179만 어절)을 주요 연구 대

3) 개인 정보의 문제, 수집의 균형성, 대표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대량의 메신저 말뭉치를 개인이 수집하기란 쉽지 않다. 2010년 이후 모바일 의사소통의 일상화, 메신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가 말뭉치로서 구축된 메신저 말뭉치는 2019년이 처음이었고, 이후 부분적으로 메신저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어휘의미 주석, 개체명 주석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상으로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온라인 언어의 말뭉치 구축을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9년, 2021년 두 해에 메신저 대화와 SNS 게시글 등을 원시 말뭉치로 구축하였고, 이후 일부를 대상으로 어휘의미 분석, 개체명 분석, 2021년, 2022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현재 구축된 메신저 대화 말뭉치의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가 말뭉치 중 온라인 사적 텍스트 말뭉치의 유형과 규모(단위: 어절)

연도	원시		가공			
			맞춤법 교정		의미 분석	
	메신저 대화	SNS 게시글	메신저 대화	SNS 게시글	메신저 대화	SNS 게시글
2019년	200만	100만				
2020년					100만	
2021년	1,236만 ⁴⁾		200만	100만		
2022년			300만 ⁵⁾			
합계	1,436만	100만	500만	100만	100만	

연구 대상인 맞춤법 교정 병렬 말뭉치는 형태 분석과 문장 단위 분석 등을 위해서는 원시 메신저 말뭉치에 구어 전사 말뭉치 수준의 문장 구획과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 말뭉치로, 말뭉치언어학적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⁶⁾. 즉, 메신저 교정 병렬 말뭉치는 첫째, 구조의 측면에서, 원문과 교정문을 일정한 언어 단위로 정렬한 ‘병렬’ 말뭉치이고, 둘째, 매체·장르적 측면에서, 메신저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보존한 ‘특수 장르’ 말뭉치이다. 또, 언어학적 정보의 측면에서는 비규범형에 대한 교정 정보를 담은 ‘교정’ 말뭉치로서, 메신저 텍스트의 비규범형을 한국어문규범과 <우리말샘>의 등재 여부에 따라 교정하였으며, 교정의 주요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교정 정보의 유형

- ㄱ. 한글맞춤법에 따른 오타자, 띄어쓰기 오류, 문장부호 오류
- ㄴ. <우리말샘> 미등재어(외래어, 신어)
- ㄷ. 이모티콘, 자소 단위 표현 등 특수 표현
- ㄹ. 방언

이러한 교정 정보의 범위는 메신저 텍스트의 언어학적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메신저 텍스트는, “말하는 것처럼 쓰며”, “가능한 빨리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4) “2021년도 온라인 대화 자료 수집 및 정제”의 과제명으로 구축된 해당 말뭉치의 계량 단위는 ‘대화 세트’, ‘발화’이나, 본 고에서는 편의상 ‘어절’로 환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발화 단위당 어절수는 본 연구 결과로 밝혀진 약 3.04어절을 대입해 계산하였다.

5) 2022년도 사업에서 메신저 대화 말뭉치의 계량 단위는 ‘대화 세트’와 ‘발화’로 바뀌어 “대화 8만 세트 이상(대화별 발화 수 10개 이상, 총 발화 수 100만 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본 고에서는 편의상 모두 ‘어절’로 환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발화 단위당 어절수는 본 연구 결과 중 하나인 약 3.04어절을 대입해 계산하였다.

6) 메신저 교정 병렬 말뭉치의 구조와 말뭉치언어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황은하, 안진산, 남길임(2022)를 참조할 것.

생성되며(Vandekerckhove & Nobels 2010, 안의정 외 2020), “비격식 문어”(McCulloch 2019), “일상과 감정의 문어”(남길임 2022) 등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구어, 문어와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형태를 살리지 않고 발음대로 적거나, 축약, 띄어쓰기 누락 등의 비규범적 형태가 다수 나타나는가 하면,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자판 조작의 경제성과 감정 표현 등을 위한 다양한 변이형, 이모티콘의 사용 등의 새로운 의사소통 전략이 시도된다.

말뭉치의 결과물은 json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말풍선 단위의 원문과 더불어 교정 정보를 표상할 수 있는 속성-값으로 교정문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말뭉치 결과물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correction" : [ {
  "form" : "엄마~",
  "speaker_id" : "1",
  "original_form" : "엄마~",
  "id" : "MDRW1900000012.1.1.1",
  "time" : "20191128 16:55",
  "corrected_form" : "엄마~."
}, ...
{
  "form" : "먹고싶어해요 침도흘리구용",
  "speaker_id" : "1",
  "original_form" : "먹고싶어해요 침도흘리구용",
  "id" : "MDRW1900000012.1.1.14",
  "time" : "20191128 16:57",
  "corrected_form" : "먹고 싶어해요. 침도 흘리고
요."
},
...
]
```

2.2. 연구 방법 및 절차

여기서는 메신저 언어의 매체적 특성, 즉 기존의 구어, 문어와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각각 얼마나 일치하고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주요 방법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우선, 맞춤법 원시 말뭉치와 교정 말뭉치 자체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교정 대상 비율을 분석하고 교정 전후의 어절 다양도(TTR)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메신저 원시 말뭉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표준적인 문자열, 문장부호, 띄어쓰기의 비중을 분석할 수 있으며, 메신저 언어의 매체·장르적 특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표준형 전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텍스트 중심의 등 참조 말뭉치와의 일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대표하는 일반 텍스트인 세종 말뭉치 및 교정문과의 어절 일치율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자연어처리의 첫 단계인 형태소 분석은 어절 단위이므로 어절을 기본 관찰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는 세종 구어·문어 말뭉치, 교정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불일치 어형에 대한 유형 분석이다. 이들 불일치 어형은 기존 구어·문어 말뭉치에서 단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어형으로, 비표준형이나 매체 특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 어형 상위 920위까지의⁷⁾ 어형을 중심으로 양적·질적 분석을 수행하되, 각각 규범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유형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기반이 되는 교정 정보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⁸⁾

<표 2> 교정 유형 분석의 예

어절 정보				비표준 유형								
원시 어절	빈도 순위	빈도	전체 누적 비율 (%)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OOV (우리말샘 기준)			이모티콘
				형태/표기	문장부호	띄어쓰기			신어	자소형	중복형	
ㅋㅋㅋ	1	8876	0.63							○		
강	119	860	20.44						○			
넹넹	1267	87	39.00	음첨가							○	
무튼	1891	60	42.09						○			
갈어	2144	53	43.24	종결어미	누락							
네 ㅎㅎ	2227	51	43.41			누락				○		
맞제	2278	50	43.61				○					
...	2819	40	45.35		변이							
아쉽	2985	38	45.90	어미 생략								

7) 특수 어형 중 상위 빈도 920위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어형의 누적 빈도는 전체 말뭉치의 50%이고, 이 정도로 전체적인 불일치 어형의 유형 파악을 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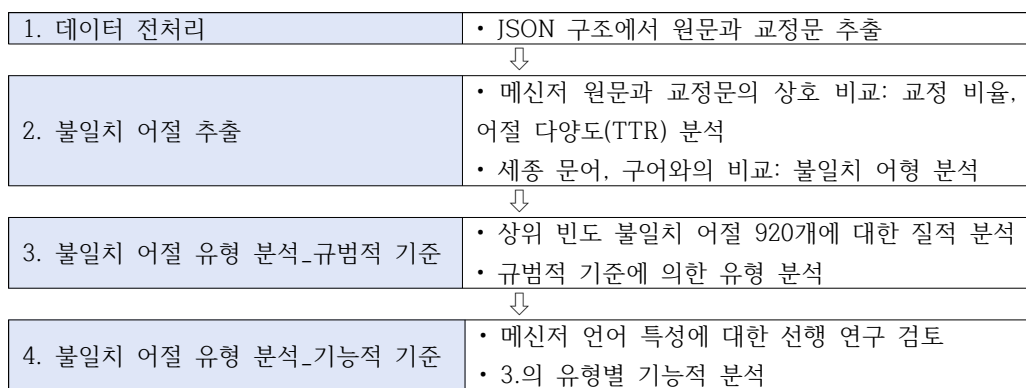
8) <표 2>의 분석은 (1)의 교정 유형에 ‘중복’ 범주를 추가한 것으로 ‘중복’ 역시 ‘자소’와 마찬가지로 사전 밖의 어휘라는 측면에서 OOV의 하위 유형으로 분석된다.

맞아요ㅠㅠ	3260	35	46.68			누락						자소형
가보고싶어	3587	32	47.42		누락	누락						
스쿼트	4427	26	49.40					o				
겨울왕국은	4619	25	49.73						고유명사			

위의 <표 2>는 맞춤법 규정, 즉 규범적 기준에서의 비표준 어절의 오류 유형별 분석 사례이다. 이와 같은 실제 메신저 언어에 나타난 비표준 어형의 유형 분석은 언어학적으로 메신저 언어의 주요 특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함과 동시에, 언어 공학에서 자동 노이즈 생성 기법을 활용한 맞춤법 오류 교정문의 생성⁹⁾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비표준형의 규범적 기준은 기능적 기준, 즉 메신저 언어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온라인 매체라는 기능적 차원에서 재분석될 수 있다. 비표준형의 생성 원인에는 기존 연구, 즉 Vandekerckhove & Nobels(2010)이 제기한 “말하는 것처럼 쓰며”, “가능한 빨리 쓰기” 위한 것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포착된다. 이를테면, 중복이나 음침가를 통한, 즉 “가능한 빨리 쓰”는 특성을 위배하면서 비경제적인 방법으로 쓰는 이유나, 또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인지, 문어와 구어에서의 준언어적 특징이나, 대면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표현이 메신저 언어에서 발현되는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논의한다.

위에서 기술한 연구 방법을 순서에 따라 도식으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흐름도

9) 구선민 외(2021), Chanier et al.(2014) 등을 참조할 것.

3. 메신저 언어의 특성

3.1. 메신저 언어의 특성 개관

여기서는 메신저 원시 말뭉치와 교정 말뭉치의 상호 비교, 세종 구어와의 비교를 통해 메신저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 3>¹⁰⁾, <표 4>는 각각 발화 단위별 평균 길이와 어절 다양도를 통해, 교정 전후의 메신저 텍스트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표 3> 발화 단위별 평균 길이 비교

매체	말뭉치 유형	발화 단위 (말풍선/억양구)	어절 token	평균 어절수
메신저	교정 전	461,365	1,402,928	3.04
	교정 후	461,365	1,785,641	3.87
구어	세종 구어 형태소분석	242,700	805,241	3.32

<표 4> 말뭉치 유형별 어절 다양도 비교

매체	말뭉치 유형	어절 type	어절 token	어절 다양도
메신저	교정 전	441,758	1,402,928	0.31
	교정 후	255,829	1,785,641	0.14
구어	세종 구어 형태소분석	147,870	805,241	0.18

<표 3>에서는 발화 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메신저 발화 단위인 말풍선 단위의 교정 전후 분석과 함께 구어를 비교하였는데, 여기서 말풍선 단위와 구어의 억양 단위는 각각의 말뭉치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시 말뭉치 구축 단계에서 구축의 기본 단위로 설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¹¹⁾ <표 3>에서 교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어절 token에서 20%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교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띄어쓰기 교정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 ‘어절 token/발화 단위’의 수를 통해 산출한 발화 단위당 평균 어절수는 메신저 텍스트가 교정 전 3.04어절, 교정 후 3.87어절로 늘어났는데, 역시 띄어쓰기 교정과 관계가 있다. 이들은 모두 3어절에서 4어절 사이로, 이를 통해 메신저 말풍선 단위의 어절 양은 구어 억양

10) 여기서는 발화 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메신저 발화 단위인 말풍선 단위의 교정 전후 분석과 함께 구어를 비교하였는데,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하는 세종 문어의 경우, 평균 문장 어절은 11.50 어절로 분석되었다.

11) 물론 이들은 아래와 같이 구획 주제와 기준의 차이를 가지는데, 이는 각 말뭉치의 활용 및 연구에서 기본 구축 단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나타낸다.

	단위	구획 주제	구획 기준
메신저 말뭉치	말풍선 단위	화자	출바뀜
구어 말뭉치	억양 단위	전사자	억양 및 문법적 특성

<메신저와 구어 말뭉치의 단위 비교>

한편 여기서 말풍선 단위란 메신저(instant message) 의사소통의 단위로, 대화 참여자가 메시지를 교환하는 기본 단위이자 구어의 억양 단위와 변별되는 메신저 원시 말뭉치의 단위이기도 하다. Baron(2010:54) 등 온라인 언어 연구자들은 이를 ‘IM(instant messaging) transmission unit’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실제로 모두의 말뭉치 중 ‘19년 메신저 말뭉치, ‘21년 온라인 대화 말뭉치 등 메신저를 주요 대상으로 한 모든 말뭉치는 이러한 말풍선 단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왔다. 메신저 단위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남길임(2022) 참조.

단위의 어절 양, 3.32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11-12 어절 수준의 문어 문장 단위와 비교할 때, 메신저와 구어 발화 단위의 어절 양은 실시간성과 상호성의 결과로 응답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짧은 어절과 맥락 의존적 발화 등의 유사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다음으로, <표 4>의 어절 다양도는 ‘어절 type/어절 token’으로 교정 전후의 어형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어절 다양도는 1에 가까울수록 높는데, 교정 전의 메신저 텍스트의 어절 다양도가 0.31이 교정 후 0.14로 줄었다는 것은, 교정 전 원시 말뭉치에서 교정 대상이 되는 띄어쓰기 오류와 비규범형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원시 말뭉치 어절 중 55% 가까이의 어절이 교정을 거쳤으며 표준화되었다. 구어 말뭉치 양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교정 후의 어절 다양도는 구어 0.18에 더욱 가까이 근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²⁾

다음으로, 메신저 언어의 형태적 특수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불일치 어형 비교는 세종 구어·문어 말뭉치와 교정 후 메신저 말뭉치 세 가지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말뭉치의 속성이 전혀 다른 문어 말뭉치를 포함한 것은, 구어 말뭉치의 양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용량 문어를 기반으로 설계된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 등의 자연어처리 도구의 활용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기존 텍스트를 대표하는 세종 말뭉치와 메신저 텍스트의 일치도를 어절 층위에서 살펴봄으로써, 메신저 특수 어형의 언어학적 특성과 응용언어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5>는 메신저 텍스트 말뭉치와 세종 문어 말뭉치, 세종 구어 말뭉치, 맞춤법 교정 후 말뭉치의 어절 일치율을 각각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5> 메신저 텍스트의 일반 텍스트 말뭉치와의 어절 일치도 비교 결과

참조말뭉치	불일치 어절 타입		불일치 어절 토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세종 문어	372,874	84.41%	640,541	45.66%
세종 구어	406,987	92.13%	728,552	51.93%
교정 후	314,267	71.14%	452,052	32.22%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메신저 언어는 기존 문어, 구어와 80% 이상의 불일치율을 보인다는 것이다¹³⁾. 이때 문어가 구어에 비해 불일치 비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큰 문어 말뭉치의 규모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말뭉치 양의 차이, 주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일치 어형이 모두 비규범형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수치는 제3

12) 단 어절 다양도는 말뭉치 전체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어의 양이 메신저의 1/2에 해당되므로, 구어 말뭉치의 규모가 메신저와 유사하게 증가할 경우 실제 0.18은 더 낮은 수치를 보여 메신저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13) 이는 또 다른 주요 UGC 언어 중 하나인 유튜브 댓글의 세종 문어, 구어와의 어절 불일치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인다. 다음은 남길임, 안진산, 황은하(2020)의 유튜브 댓글의 일반 텍스트 말뭉치와의 어절 일치도 비교 결과이다.

참조말뭉치	불일치 어절 타입		불일치 어절 토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세종 문어	67,302	69.62%	104,319	41.07%
세종 구어	83,046	85.91%	139,099	54.77%
세종 문/구어	66,787	69.09%	103,034	40.57%

의 매체인 메신저 언어와 기존 문어·구어의 이질적 속성을 형태 및 어휘 차원에서 고찰하기에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한편, 교정 후의 말뭉치의 불일치 어절 타입이 314,267개, 71.14%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교정 시에 원시 말뭉치에 출현한 어절 타입 71.14%가 교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신저 말뭉치 교정 전후의 불일치 어형의 비율은 다양한 비규범형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3.2에서는 세종 문어·구어와의 고빈도 불일치 어형을 중심으로 이들의 언어학적 유형을 범주화함으로써 메신저 텍스트의 특수성을 살펴볼 것이다.

3.2. 규범적 기준에 의한 불일치 어절의 유형 분석

메신저 원시 말뭉치 140만 어절 중에 세종 문어·구어와 비교하여 불일치한 어형은 총 367,354개로, 이 중에서 전체 누적 빈도 50%에 속하는 불일치 어형은 920개이다. 이 중에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메시지가 포함된 64개의 어형과 말뭉치 구축의 시기나 주제 영역의 차이로 인해 불일치 어형으로 추출된 저빈도 표준 어형 111개(예: 돼지국밥, 칼퇴, 치킨도...)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형 분석의 대상은 불일치 어형 746개가 된다. 이들 746개의 어형은 총 140만 어절에서 적어도 24회 이상 출현한 고빈도 어휘로, 이들 각각은 메신저 언어에 나타난 언중의 의사소통 경향성을 살펴보기에 충분한 의의가 있다. 아래 그림은 불일치 어절의 빈도 목록 일부와 누적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순위	원시 어절	전체순위	빈도	비율	전체 누적 비율
719	ㅋㅋㅋ네	4800	24	0.00%	49.75%
720	감하늘	4800	24	0.00%	49.75%
721	갈때마다	4800	24	0.00%	49.76%
722	맞앙	4800	24	0.00%	49.78%
723	이럴때	4800	24	0.00%	49.79%
724	보내세요~	4800	24	0.00%	49.80%
725	힘들더러구요	4800	24	0.00%	49.81%
7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800	24	0.00%	49.81%
727	어려워요	4800	24	0.00%	49.83%
728	여행갈때	4800	24	0.00%	49.84%
729	비가와서	4800	24	0.00%	49.84%
730	알써	4800	24	0.00%	49.85%
731	ㅠ_ㅠ	4800	24	0.00%	49.86%
732	하는데..	4800	24	0.00%	49.86%

<그림 2> 불일치 어절의 빈도 목록 샘플

50%에 달하는 절대빈도가 전체 140만 어절에서 24회라는 것은 Carter & McCarthy(2006)의 기준, 100만 어절당 10회보다 훨씬 높다. Carter & McCarthy(2006)는 이 기준을 사전 등재 및 언어 연구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림 2>의 빈도 수준은 중사전 규모인 ‘연세한국어사전(1998)’이 4천만 어절의 연세말뭉치에서

빈도 14회 이상을 사전의 등재 기준으로 삼은 것보다도 높는데, 연세말뭉치의 텍스트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가 주를 이루는 데 반해, 메신저 말뭉치는 다수의 일반 언중에 의해 일상적으로 생산되는 텍스트라고 볼 때 빈도 24회가 갖는 의미는 더 두드러진다.¹⁴⁾

다음으로, 이러한 불일치 어형에 대한 유형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관찰 가능한 언어 사실이 달라지는데,¹⁵⁾ 본 연구에서는 규범에 따른 교정 전후 정보를 담고 있는 병렬 말뭉치인 점을 고려하여 규범적 기준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였다. 한국어 규범 중 한글의 표기와 관련된 규정은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표준어규정 등 세 가지이므로, 이를 대분류 중 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메신저 말뭉치에는 비규범적 표기 외에도 신어가 다수 출현하는데, 이를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유형, 즉 OOV(out of vocabulary)로 묶어서 따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용화된 맞춤법 검사기 및 형태소 분석기 등의 주요 자원은 한국어 문어, 구어 중심의 사전 정보를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어서, 메신저 언어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OOV의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이론언어학적으로나 응용언어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밖에 메신저 대화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 외에도 자모음이나 문장부호 등을 이용한 이모티콘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5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메신저 특수 어형의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⁶⁾

<표 6> 규범적 기준에 의한 불일치 어형 분류

	유형	타입			토큰		
		빈도	비율_합계 대비(%)	비율_전체 대비(%)	빈도	비율_합계 대비(%)	비율_전체 대비(%)
1	한글맞춤법 관련	718	76.14	0.16	35,307	31.55	2.52
2	표준어규정 관련	3	0.32	0.00	107	0.12	0.01
3	외래어표기법 관련	5	0.53	0.00	119	0.14	0.01
4	OOV 유형	189	20.02	0.04	63,673	56.87	4.54
5	이모티콘 유형	29	3.08	0.01	12,688	11.34	0.90
	합계	944	100.00	0.21	111,894	100.00	7.98

<표 6>에서 타입의 규모가 746개(중복 집계 시 944개)로 적은 데 반해, 전체 말뭉치에서 7.98%를 차지하는 점은 이와 같은 고빈도 불일치 어형에 대한 질적 분석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 가지 유형 중에 타입 빈도로는 한글맞춤법 관련 718개로 가장 많고, OOV

14) 빈도의 기준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한 더 상세한 논의는 남길임·최준(2019) 참조.

15) 남길임, 안진산, 황은하(2020)에서는 유튜브 댓글 말뭉치에 대한 분석에서 자연어처리의 가능성과 언어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픽어쓰기 규범성], [±표준형 대응쌍의 존재]의 특성에 따라 범주화한 바 있다.

16) 총 746개 어형을 분석하였으나, 하나의 어형의 둘 이상의 규범적 범주에 속할 때는 중복 집계될 필요가 있다. 중복 유형은 192개에 달하며, 그 결과 <표 6>의 규범적 기준에 의한 분류의 총계는 938개(746+192)이다. 예를 들어, '안먹어봄'이라는 어절은 우선 부사 '안' 뒤에 픽어쓰기가 '누락'되어 있고, '음슴체'로 되어 있으므로 각각 한글맞춤법 관련 (누락) 1회, OOV 유형(음슴체) 1회로 집계한다.

유형 189개, 이모티콘 유형 29개로 그 뒤를 잇는다. 표준어규정과 외래어표기법 관련 타입은 각각 3개, 5개로 그 수가 미미하다. 한편, 토큰 빈도로는 OOV 유형이 전체의 56.87%, 한글맞춤법 관련 31.55%, 이모티콘 유형 11.34%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타입 수가 가장 많은 것은 한글맞춤법에 관련된 유형이나, 토큰 수로는 OOV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은 짚고 넘어갈 만하다.

아래에 대분류의 유형별로 다시 나누어 세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한글맞춤법에 관련된 비표준 어형부터 살펴보면, 관련된 타입의 규모가 가장 크며, 크게는 1) 비표준 형태 또는 표기가 포함된 경우, 2) 비표준 띄어쓰기 포함 어형, 3) 비표준 문장부호 포함 어형 등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분류에서 1)의 비표준적 형태/표기가 포함된 어형의 세부 유형이 가장 다양하다.

(2) 비표준적 형태/표기 포함 어형

- ㄱ. 겹자음 단순화: 잇어서(있어서), 했어(했어), 맛있어...
- ㄴ. '어미 생략'류: 아쉽, 부럽
- ㄷ. '종성 첨가'류: 아닝, 좋앙, 뽕, 싶당...
- ㄹ. '소리나는 대로'류: 그렇더라구요, 맛있더라구요, 마자, 팬차나, 맛자나...
- ㅁ. '음성 변이'류(?): 마자, 진짜, 구래, 안농...
- ㅂ. '흔한 표기 오류'류: 안되요, 힘듬, 갈께...

(3) 비표준적 띄어쓰기 어형

- ㄱ. '누락'류: 힘든거, 한번더, 먹고싶은거, 내친구, 시간내요, 안가봤는데...
- ㄴ. '추가'류: (...) 겠네요, (...) 인데

(4) 비표준적 문장부호 포함 어형

- ㄱ. '누락'류: 맞아요, 아...
- ㄴ. '줄임'류: 오..., 음..
- ㄷ. '추가'류:, !!,
- ㄹ. '기능 변이'류: 안녕하세요~, 드셨나요~?, 보내세요~, 맞아요~,

(2)의 '비표준 형태 또는 표기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경제성의 원리, 구어와 같이 발음대로 쓰기, 적극적인 친밀감의 표시 등으로 인한 변이형으로, 비표준적 표기가 포함되고 일반 텍스트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표기 오류인 (2ㄴ)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비표준형을 사용했다는 특성이 있다. (3)은 메신저 말뭉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띄어쓰기에 관련된 비표준 어형을 포함한다. 특히 (3ㄱ)은 필요한 띄어쓰기를 누락한 경우로, 관찰 어형 746개 중 287개(38.6%) 어형에서 관찰되었는데, 주로 의존명사 '거(게), 중' 등과 보조용언 '싶-' 앞이며, 그밖에 단음절 어절 앞뒤에서 띄어쓰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¹⁷⁾ 마지막으로 (4)는 문장부호가 누락되거나 ‘...’을 ‘..’로 줄이거나 추가한 경우로, 문장부호 누락이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한다. ‘필요 이하’, 또는 ‘필요 이상’으로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규범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말이고, 메신저라는 특수 매체 환경에서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4ㄷ)은 규범에서 정한 문장부호의 기능을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로 특히 물결표(~)¹⁸⁾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두 번째로, 표준어규정에 위배되는 비표준 어형이다. 표준어규정의 제1장 총칙의 제1항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메신저 말뭉치에서는 현대 서울말이 아닌 방언형이 화자의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높은 빈도로 관찰되기도 한다. 그 타입은 다음의 (5)에서 보이는 것처럼 ‘맞제(경남 방언)’와 ‘언능(전남 방언)’ 두 개가 관찰되었다.

(5) 표준어규정과 관련된 비표준 어형

ㄱ. 맞제, 언능

세 번째로, 외래어표기법에 위배되는 비표준 어형인데, 주로 외래어표기법에서 정한 것과 현실 발음 중에서 사용자들이 현실 발음대로 적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6) 비표준적 외래어표기 포함 어형

ㄱ. 라떼(라테), 요거트(요구르트), 스쿼트(스왓)...

네 번째로, OOV를 포함한 어형은 어문규범에 규정된 것과 무관하거나, 또는 사용이 매우 생산적이어서 이미 신어의 지위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나 사전에는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전반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은 다시 한글의 일반적인 표기 방법에 따른 (7)의 유형 외에 초성 자소형 표기가 포함된 (8)의 유형, 기존의 형태소 또는 단어의 중복을 통한 OOV가 포함된 (9)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7) OOV 포함 어형

ㄱ. 미등재어류: 개웃기네, 개꿀, 담주¹⁹⁾에, 존맛탱, 게하(게스트하우스), 랜쵸, 무튼, 엽떡...

ㄴ. 감탄사: 크으, 카, 아놔, 잉, 으음, 허걱...

ㄷ. 문법적 기능 변이: 모르겠음, (~는) 거임...

ㄹ. 고유명사: 김지영, 엘사, 인스타에, 스타벅스...

17) 반대로, 불필요한 띄어쓰기가 추가된 예는 선어말 어미 ‘-겠-’과 서술격조사 ‘이다’ 앞에서 관찰되었다.

18) 한글맞춤법 부록에 따르면 물결표는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예: 9월 15일~9월 25일

19) ‘다음 날’의 준말인 ‘담날’은 <우리말샘>에, ‘다음 달’의 준말인 ‘담달’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음. ‘고유어 + 고유어’의 준말인 이들과 달리, ‘다음 주’는 ‘고유어 + 한자어’로, 그 구성에 차이가 있긴 하나 사용 빈도는 매우 높음.

(8) 초성형 OOV 포함 어형

ㅇㅈ, ㅇㅎ(오호/아하), ㅋㅋㅋ근데, 같아요ㅎㅎ, 악ㅋㅋ, ㅇㅋㅇㅋ, ㅇㅈㅇㅈ...

(9) 중복형 OOV 포함 어형

그래그래, 아니아니, 그치그치, 하이하이, 오오오, 굿굿, 냉냉...

(7ㄱ)은 다양한 조어 과정에서 출현한 미등재어 유형으로, 파생, 축약, 혼성 등의 조어론적 다양성을 통해 생산된 어형으로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신어인 경우도 있고, 비속어로 분류되어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어도 있다. 한편 (7ㄴ)은 다양한 감탄사들로 메신저 미등재어 전반에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이 미등재어인 것은 일상적 의사소통의 주요 매체로서 메신저에서의 감탄사 사용의 다양성, 사전이 매우 보수적으로 감탄사를 실은 데서 비롯된 문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7ㄷ)은 속칭 ‘음슴체’로, 메신저 텍스트에서 기존 문어나 구어에서의 기능을 넘어 문장 종결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문법적 신어로 보아 (7)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7ㄹ)은 고유명사로서 사전 수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연어처리에서 개체명 분석 등에서 주요 처리 대상이 되며, 나머지 OOV 유형과 달리 사전 등재 후보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8)은 초성형 문자열이 포함된 어형으로, 감탄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웃음소리 등의 부류가 가장 많고 ‘ㅇㅈ(인정)’처럼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고빈도 맞장구 표현이 많다. 한편 (9)는 단일 형태소나 단어,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자소형을 2회 이상 중복해 사용함으로써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유형이다. OOV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는데, 타입에서는 20.02%이지만, 텍스트 점유율을 나타내는 토큰에서는 56.87%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ㅋㅋㅋ, ㅎㅎ, 표ㅎㅎ’ 등의 고빈도 미등재어의 비중 및 이들의 해석 및 처리가 메신저 언어의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림이 아닌 자소 또는 문장부호로 만들어진 이모티콘이 포함되거나 또는 이모티콘 단독으로 어절을 이루는 경우이다.

(10) 이모티콘 어형

ㄱ. 자소형: π, ㄸ, πππππ, ㅇㅈㅇ, ㅎㅎㅎ, π_π...

ㄴ. 문장부호형: :, ::, ><

(10)은 앞서 분석 대상 어형에서 제외한 메신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모티콘과 달리 일반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자소와 문장부호로 만들어져서 NLP에서 텍스트와의 구분이 필요하고 감성분석 등에서는 주요 단서가 되어 줄 수 있다. 이모티콘은 “컴퓨터나 휴대 전화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하여 만든 그림 문자.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²⁰⁾하며, 메신저 언어에서는 주로 자소형 문자로 눈물을 흘리는 표정(π, ㄸ ㄸ...), 눈을 동그랗고 크게 뜬 표정(ㅇㅈㅇ, ㅎㅎㅎ...) 등등을 나타내는데, 대면 의사소통에

서의 비언어적 표현이 하는 기능에 맞먹는다.

4. 제3의 매체 메신저 언어의 특성, ‘경제성 > 정표성 > 구어성’

3장의 논의를 통해 메신저 언어에만 나타나는 특수 어형의 대부분이 한국 어문 규범을 기준으로 볼 때 비표준적인 형태나 표기,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의 ‘한글 맞춤법’ 유형이나 자소형 문자를 포함한 OOV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메신저 특수 어형은 타입 대비 토큰의 규모가 매우 큰데, 이는 이러한 고빈도 불일치 어형들이 메신저 매체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일정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 어형들이 생성된 원인이나 전략의 유형을 밝히고, 유형별 비중을 관찰하는 것은 메신저 언어의 매체적 특성을 보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메신저 언어의 생산 전략에 대해, Vandekerckhove & Nobels(2010), 최명원 외(2012) 등은 “말하는 것처럼 쓰며”, “가능한 빨리 쓰기”²¹⁾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산된 메신저 언어의 특성은 ‘구어성’으로, “가능한 빨리”의 전략을 통한 메신저 언어의 특성은 ‘경제성’으로 같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3장에서 관찰된 적지 않은 어형은 “가능한 빨리”를 오히려 위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럽당(부럽다)’, ‘알지알지, 아니아니’ 등은 각각 음 첨가와 반복을 함으로써 ‘경제성’을 공공연히 위배하고 있는데, 이는 귀엽게 말함으로써 친밀한 태도를 보이거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특성은 “일상과 감정의 문어”(남길임 2022)라는 관점과 매우 유사하며, 이를 ‘정표성(expressiv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 언어의 특성을 ‘구어성’, ‘경제성’, ‘정표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불일치 어형을 재분석함으로써, 제3의 매체로서 메신저 언어의 특수성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구어성’은 메신저 언어가 가진 구어와의 유사성, 즉 ‘실시간성’과 ‘상호성’으로 인해 생산자들이 마치 구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쓰기’를 통해 생산된 언어의 특성을 의미한다. ‘말하는 것처럼’은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구어에서처럼, 즉 현실 발음, 구어형, 또는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연철하여 적는 등을 포함한다. 다음은 구어성이 반영된 어형으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구어에서 말해지는 어형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이다.

(11) 구어성의 예

ㄱ. 스킵트(스캇)²²⁾, 라떼(라테), 맛있었구요, 안녕하세요, 맞자나, 마자...

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함.

21) 최명원 외(2012)에서는 이를 두고 “입말의 발화 속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입말의 속도와 거의 동일하도록 문자를 가능한 빠르게 입력하고자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메신저 언어의 ‘경제성’은 빨리 쓰기 위한 다양한 전략, 즉 축약 또는 생략을 통해 실현되며, 실현의 단위는 자소, 문자열,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매우 다양하다. 그 결과로, 준말, 종결어미의 생략, 속칭 ‘음슴체’ 외에도, 음절을 구성하는 초, 중, 종성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순화하여 적은 자소형 문자 또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 등이 생성된다. 문자열 외에 문장부호, 띄어쓰기가 생략되거나 줄여서 쓰인 경우는 더 많다.

(12) 경제성의 예

ㄱ. 스벅, 배그, 잇어(있어), 좋겟다, 넘넘, 안봄, 안먹어봄, ㅋㅋㅋ, ㅎㅎㅎ...
 ㄴ. 먹고싶네, 아맛다...

특히 화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띄어쓰기와 문장부호의 생략은 메신저 언어의 주요 전략이자 관습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띄어쓰기의 처리는 형태 분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안의정 외 2020), 문장부호는 문장 구획의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제성의 원리는 향후 메신저의 자연언어처리 처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표성’은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적극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경제성을 거스르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정도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 ‘개-’ 등의 파생어나 신어 등 새로운 어형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경제성을 거스르는 예로 ‘좋아좋아, 아니아니’처럼 중복형을 들 수 있는데, 단일 형태가 담고 있는 명제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너무너무, 그래그래’ 등이 <우리말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메신저를 중심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고빈도 중복형을 사전에 등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 첨가, 이중모음화, 방언형, 다양한 사전 미등재형 감탄사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거나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13) 정표성의 예

개웃기네, 개꿀, 오호호, 오흥, 우웅, 오오오오, 부럽당, 마자마자, ㅋㅋㅋㅋㅋㅋㅋㅋ, 맞제, 언능...

이밖에 자소, 문장부호 등을 이용한 이모티콘 또한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적극 표출하려고 하는 의도로, 정표성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면 구어 의사소통에서 음성 언어 외에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는 감정과 태도에 관한 메시지를 메신저 언어에서는 정표성의 다양한 전략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세 가지 매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관찰 대상 7465개 어형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고유명사(예: 김지영, 삼시세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형이 한 가지 이상의 상술한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22) () 안에는 사전에 등재된 표준형을 제시한다.

<표 7> 특수 어형에 나타난 매체적 속성의 분포

		타입			토큰		
		빈도	비율_합계 대비(%)	비율_전 체대비(%)	빈도	비율_50% 대비(%)	비율_전체 대비(%)
1	구어성	39	4.16%	0.01%	2,093	0.30%	0.15%
2	경제성	700	74.63%	0.16%	82,290	11.73%	5.87%
3	정표성	199	21.22%	0.05%	60,508	8.63%	4.31%
		938	100.00%	0.21%	-	-	-

<표 7>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고빈도 불일치 유형의 특성을 요약하면, 문어·구어와의 불일치의 원인은 매체적 특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제성’의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제성 > 정표성 > 구어성’의 비중을 보인다. 자판 조작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은 타입과 토큰 모두에서 월등히 높은 불일치 어형을 생산한다. 이들은 타입과 토큰 각각 전체 대비 0.16%, 5.87%로 메신저 언어 특수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표성’ 역시 매체적 특성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학술과 문학에서 소수의 전문가를 주체로 운용되어 온 ‘문어’는 메신저에서 일상의 언어로 확장되어 대중의 문어 즉 ‘비격식 문어’(McCulloch 2019)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상적 ‘주제’와 대중으로서의 ‘생산자’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대중은 일상적인 소통에서 문어를 사용하며, 주제에 맞는 감정적, 주관적 언어를 생산해 내며, 이는 구어의 반언어적, 준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 양식을 대체한다. 이들은 타입, 토큰에서 각각 전체 대비 0.05%, 4.31%로 나타났다. 정표성을 나타내는 타입의 수가 199개인데 반해 전체 말뭉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점은 이러한 타입들이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즉 사용상의 관습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5. 나오는 말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 언어의 특수성은 메신저 자체뿐만 아니라 기존 매체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세종 문어·구어 말뭉치와의 비교를 통해 메신저 언어의 불일치 어형의 분포와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3의 매체로서 일상 의사소통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메신저 언어가 구어·문어와 얼마나 다른지, 그 불일치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선 논의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가 말뭉치로 구축된 메신저 원시 말뭉치와 맞춤법 교정 병렬 말뭉치의 양과 구조, 관련 연구 현황을 논의하고,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140만 어절 원시 말뭉치와 교정 병렬 말뭉치의 구조를 소개하였다. 메신저 말뭉치는 구어 억양 단위와 대응되는 발화 단위로 ‘말풍선 단위’로 구축되며, 교정 병렬 말뭉치의 수준은 메신저 언어의 특성을 준수하는

유지하는 수준에서 맞춤법 교정과 문장 단위 구획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3장에서는 이러한 메신저 말뭉치와 세종 문어·구어의 어절 다양도 분석 및 어절 불일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어절 다양도 분석에서 메신저 언어는 교정 전후로 다양도가 50% 이상 감소하여, 표준화되었다. 또 세종 문어·구어와의 불일치 어형은 타입 수준에서 80% 이상, 토큰 수준에서도 45% 이상으로 나타나 상당한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에서 논의된 누적빈도 50%에 달하는 고빈도 불일치 유형의 규범적 유형은 타입 수준에서 한글맞춤법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토큰 수준에서는 OOV 유형이 가장 많았다. 전자는 띄어쓰기나 문장부호가 가장 큰 영향으로 분석되며, 후자는 자소 단위의 ‘ㅋㅋㅋ, ㅎㅎ’ 등의 정표적 자소 단위가 토큰 빈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장에서는 이러한 불일치 유형의 원인을 기존 메신저 언어의 연구에서 논의된 ‘구어성, 경제성, 정표성’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불일치 어형의 생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경제성 > 정표성 > 구어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신저의 매체적 특수성으로 인한 주제 영역의 다양성과 격식/비격식 상황의 다양성, 실시간성과 상호성을 확보한 문어로서의 특성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영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요인은 자판 조작의 경제성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메신저 언어의 언어학적 연구와 응용언어학적 활용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메신저 언어를 기존 문어와 구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장부호가 없는 문장 구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장 구획이 필요하고 가능한가 등의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절대빈도와 생산자 집단을 고려할 때, 불일치 어형 OOV에 대한 새로운 사전 등재도 필요하다. 메신저 언어의 신어, 새로운 축약형 등 언중의 창의성은 의사소통 단절을 일으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본 연구에서 일부분 시도된 특수한 어형의 출현의 이유와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 메신저 언어의 언어정책적 연구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선민, 박찬준, 소아람, 임희석(2021), 딥러닝 기반 한국어 맞춤법 교정을 위한 오류 유형 분류 및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 한국융합학회, pp.65-74.
- 국립국어원, 2021년 온라인 대화 말뭉치 구축, 2021.
- 국립국어원, 2020년 어휘의미분석 말뭉치, 2020.
- 국립국어원, 2021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2021.
- 그레천 매컬러 저, 강동혁 역(2022),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은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바꿨을까? 어크로스.
- 남길임(2022), 구술성과 문자성의 사이, 메신저 대화의 담화와 문법-메신저 대화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96, pp.5-34.
- 남길임·이수진·최준(2018), 웹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적 신어의 연구 동향과 쟁점,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pp.55-84.
- 남길임·최준(2019), 한국어 정형 표현 선정의 기준과 쟁점: 연결어미 '-면' 포함 정〇형 표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글 80(4), pp.941-972.
- 안의정, 송현주, 김진웅(2020), 형태 분석을 위한 메신저 텍스트 처리 방안, 텍스트언어학 4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27-52.
- 이동후(2010) 제3의 구술성: '뉴 뉴미디어' 시대의 말의 현존 방식, 언론정보연구 47권 1호, pp.43-76.
- 전숙경(2011), 미디어와 소통에 관한 교육철학적 고찰: 구술성, 문자성, 전자성의 언어를 중심으로
- 황은하, 안진산, 남길임(2022), 메신저 맞춤법 교정 병렬 말뭉치의 구축과 쟁점, 4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pp.545-550.
- Carter, R., and M. McCarthy. (2006).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a comprehensive guide: spoken and written English grammar and usage*. Ernst Klett Sprachen.
- Smirnov, I. (2017, September). The digital flynn effect: Complexity of posts on social media increases over tim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formatics* (pp. 24-30). Springer, Cham.
- McCulloch, G. (2019). *Because Internet: Understanding how language is changing*. Random House.
- Baron, N. S. (2010). *Always on: Language in an online and mobil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국립국어원(2011),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문어 형태소분석 말뭉치.
- 국립국어원(2011),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구어 형태소분석 말뭉치.
- 국립국어원(2021), 2021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말뭉치 결과물.

“제3의 매체, 메신저의 언어 연구”에 대한 토론문

허상희(부산대)

이 연구는 구어와 문어의 이분법을 넘어서 제3의 언어로서의 웹 언어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메신저 언어가 기존의 문어·구어와의 문법적 측면에서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웹 말뭉치에 대한 논의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메신저 자체의 속성을 밝히기 위한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은 충분하지 않은 데에 있어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충분한 의의가 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토론자가 읽으며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

1. 제3의 매체란 메신저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제1의 매체, 제2의 매체는 무엇이고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왜 메신저를 제3의 매체로 보는가?
2. 여기에서 말하는 메신저란 어느 범위 또는 무엇을 말하는가? 매체가 발달하면서 매체들이 섞이고 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한다. 이것을 소셜미디어라고 부른다. 소셜미디어에는 블로그, SNS, WIKI, UCC, 마이크로블로그 등이 있다. 소셜미디어마다의 특징과 방식에 따라 웹 언어의 특징도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메신저의 종류와 범위가 궁금하다.
3. 메신저는 구어일까 문어일까? 매체의 발달은 단선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매체의 발달과 함께 대체되거나 부정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잔존하거나 변화해왔다. 메신저 언어를 준구어, 제3의 구어성, 제2의 문자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발표자는 어느 용어에 무게를 두는지 궁금하다.
4. ‘제3의 매체로서 일상에 자리잡은 메신저 언어는 구어, 문어와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각각 얼마나 일치하고 먼 거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도출된 불일치 어형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맞고 틀리냐는 문법적인 입장과 기능적으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사용이냐의 입장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발표자는 어느 입장인지 궁금하다.

5. 메신저 언어에 특수하게 OOV(Out of Vocabulary) 유형(미등재어류, 감탄사, 문법적 기능 변이, 초성형·중복형 OOV 포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앞으로의 언어에서 이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론언어학적으로나 응용언어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토큰의 수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표6), 앞으로의 이러한 부분에서의 교육적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6. 제3 매체 메신저 언어의 특성으로 구어성, 경제성, 정표성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인간은 어느 분야에서든 본능적으로 경제성을 제1의 원칙으로 적용하는 듯하다. 그것이 메신저에서 구어체로 쓰기, 가능한 빨리 쓰기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경제성을 거스르는 의도적이고 기능적인 것들도 많다. 파생어나 신조어 등 새로운 어형을 만들거나 음 첨가, 이중모음화, 다양한 사전 미등재형 감탄사, 중복형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문장부호의 경우, 경제성의 관점에서 문장부호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정표성의 관점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문장부호의 용법을 달리하며 쓰기도 한다. 특히 물결표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물음표와 느낌표를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문어와 구어, 메신저 언어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까?

	문어	구어	메신저 언어
구어성	X	O	△
경제성	X	O	O
정표성	X(비대면)	O(대면)	△

발표 논문으로 제3의 매체, 제3의 언어에 대해 조금이나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금의 미디어와 공간의식에 따른 글자의 운용

유지원(글문화연구소)

1. 들어가는 말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의 형태를 다룬다. 그리고 글자들을 지면과 화면 속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는 시각적인 활동을 뜻하기도 한다. 이 시각적 표현 형식은 문자 언어를 토대로 하는 동시에, 문자와 언어의 비언어적인 층위 및 언어 너머의 층위에서도 기능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가 특정한 공간과 미디어 환경 안에서 운용되는 이러한 형식을 탐구한다.

이 발표는 동아시아와 서구 문헌을 토대로 한 타이포그래피의 역사를 개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동서양 글자 문화에 있어 필사 아닌 인쇄술을 나란히 비교할 때,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고려 금속활자 인쇄술은 금속을 재료로 한 조립식 글자 시스템을 발명했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사회적 함의도, 메커니즘의 세부 발명들도, 사용한 도구와 재료들도 구체적으로는 달랐다. 미디어의 물질적 환경과 운용 방식이 모두 달랐다. 19세기 말에 일본을 통해 서구식 신식 납활자가 들어온 후, 이제 현대 한국인의 일상 속 인쇄 메커니즘은 전통 인쇄 아닌 구텐베르크 식 메커니즘을 따른다. 컴퓨터와 디지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속 공간 형식과 메커니즘도 구텐베르크 식 공간 인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 전통인쇄술의 공간 인식은 구텐베르크 방식과는 달리 글자를 일렬적, 선형적 진행에 따라서만 배열하지 않고, 정사각형인 方을 기본 단위로 상정한다. 그에 따라 차원, 배열, 시점의 형식이 달랐다.

발표는 1부와 2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의 문서 아닌 동아시아 전통시대 필사본과 인쇄물에서 보이는 공간인식을 다루었다. ‘단위’, ‘차원’, ‘배열’, ‘시점’이라는 네 개의 키워드로 차례로 예시들을 풀어나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원인은 동아시아 전통 수학서들의 수학적 사고로부터 찾았다. 수학은 하늘과 땅, 천문과 지리라는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틀로 기능했다. 이 수학적인 틀이 서구와 동아시아에서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 서로 다른 양상이 문서 위의 타이포그래피의 형식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조망한다.

2부에서는 1부의 예시들을 근거로, 현재의 지면과 화면 속 몇몇 공간 형식의 개선을 제안하고, 디지털 시대를 넘어 가상공간 속에 글자가 운용될 미래를 전망하는 네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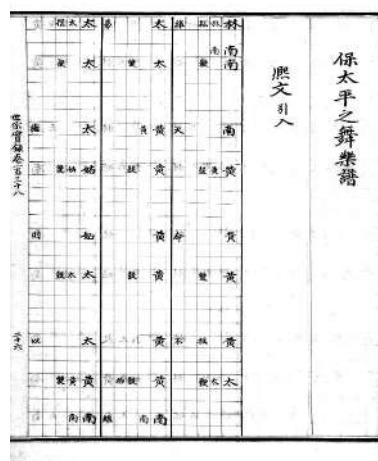
2. 동아시아 전통시대 필사본과 인쇄물에서 보이는 공간인식

2.1. 단위

동아시아 전통시대 문헌 속 공간 형식은 지면을 바둑판 형식으로 구획한 정사각형 方의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이며 사방위가 있다고 여겼다. 도시 행정에서도 건축에서도 땅을 우물정(井)자, 혹은 바둑판 형식으로 구획했다.

이 정사각형 속에 음절의 형식을 갖춘 한자, 한글, 가나문자 등 동아시아의 문자들은 한 글자씩 들어간다. 한글의 경우, 초성, 중성, 종성이 모아쓰기한 한 음절의 형식이 의미를 가진 최소단위인 형태소와 일치할 때가 많다. 음절 하나가 단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 단위의 형식은 작은 정사각형이었다. 한편 로마자에서는 글자들을 점에 비유하자면 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공간 속 시간 순서로 일렬적, 선형적으로 글줄의 선(線)을 이루며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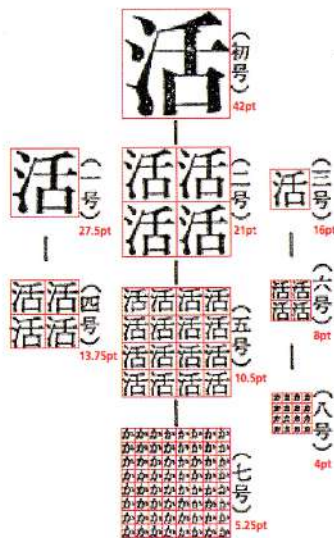
이것은 언어의 차이일 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구획해서 인식하는 틀 속에서 문화 전반에 걸친 기본 단위의 차이이기도 했다. 세종이 음의 지속시간을 표기하기 위해 동양 최초로 발명한 정량악보인 「정간보」에서는 시간의 기본 단위를 정사각형 한 칸의 ‘면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의 양이 ‘길이’ 아닌 ‘면적’으로 측정되고 표시되었다. 유럽에서 10세기 경에 발명되어 오늘날 사용되는 형식이 근간이 된 오선악보의 경우, 시간의 길이는 오선 위에서 음표의 모양으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림 1〉 ‘정간보’(「보태평」 중 희문 악보).

한 음이 지속되는 시간의 ‘단위’를 정사각형(方)의 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길이가 1차원 x 라면, 면적은 2차원 x^2 을 뜻한다. 큰 정사각형 하나의 단위 공간에, 작은 단위가 제곱수의 규칙으로 들어가는 모양은 동아시아 전통시대의 문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큰 글자 하나(1²)의 공간에 작은 글자가 네 개(2²) 들어간다. 일본에서 높이 아닌 면적으로 크기를 측정하는 호 시스템은 이런 체계를 잘 드러낸다.



〈그림 2〉 일본의 호 시스템. 금속활자 측정의 기준으로서 정사각형 면적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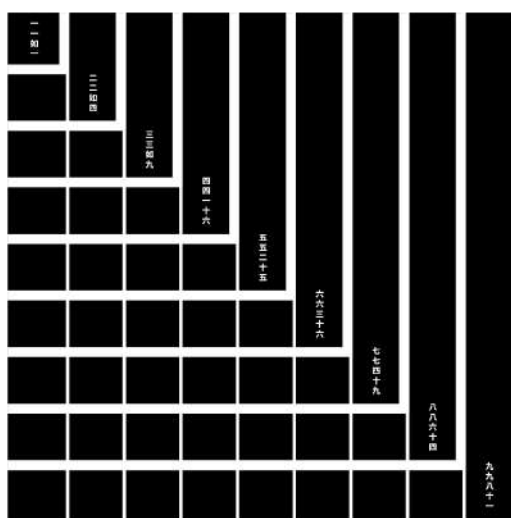
세종이 수학을 공부한 책이기도 한 『산학계몽』 첫 장에는 구구단인 「석구수법(釋九數法)」이 등장한다. 익숙한 내용이지만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구구단과는 배열이 다르다. 현대식 교육에서는 구구단을 가령 2단이 끝나면 3단으로 넘어가는 행렬식 매트릭스 형태로 배운다. 「석구수법(釋九數法)」에서는 이와 달리, 제곱수에서 다음 단으로 넘어간다. 예컨대 5x5에서 끝나면 5x6을 생략하고 6x5로 넘어가는 것이다. 같은 것이 두 번 나올 이유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제곱수를 만드는 것은 작은 정사각형이 점점 큰 정사각형의 형태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의 구구단입니다. 익숙한 수식이 보입니다. 그런데 순서와 배열이 어딘지 다릅니다. 살펴보면 제곱수를 이루고는 다음 단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지금 아는 구구단에 비해 전체 수식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핏 보기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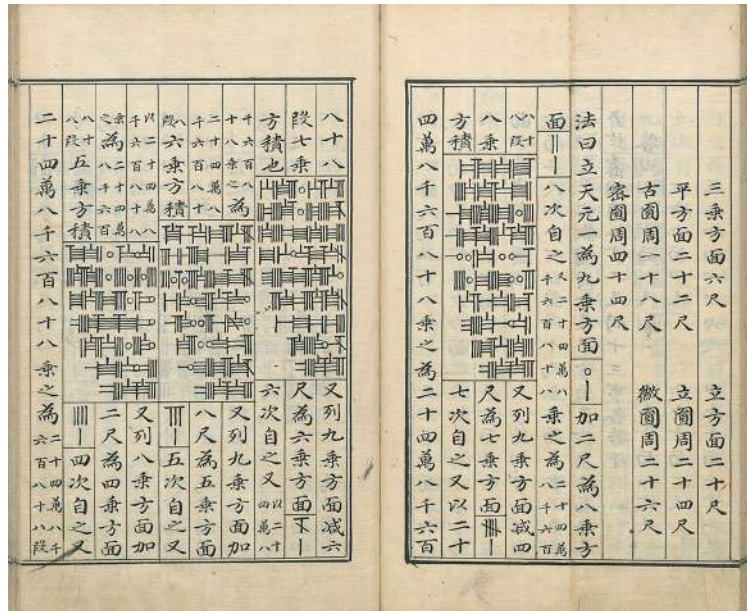
제곱수는 정사각형의 형태입니다. 이 구구단은 선형線形 진행이 아니라 방형方形을 완성해가며 진행합니다. 요소가 같더라도 배열이 달라지면 공간은 다른 양상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3〉 『산학계몽』의 「석구수법」(위)과 발표자의 도해(아래)

2.2. 차원

조선 후기의 수학자 홍정하가 집필한 『구일집(九一集)』에는 무려 10차에 이르는 고차방정식의 풀이법이 등장한다. 수는 막대기가 사각형의 공간에서 자릿수에 따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교차되는 산가지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평방, 입방, 삼승방, 사승방 등의 표현을 쓴다. 평방(平方)은 x^2 이다. 평평한 사각형(方= x^2)이라는 뜻이다. ‘사각형을 세운’ 입방(立方)은 x^3 을 뜻한다. ‘입방체’ 등 오늘날 한국어의 어휘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표현이다. 삼승방(三乘方)은 x^4 이다. 그러면 제곱근인 사각형의 한 변, 즉 x 는 뭐라고 표현했을까? ‘사각형을 연다’는 뜻의 개방(開方)이라고 했다. 즉, x 가 아닌 x^2 , 2차원의 方을 기본 차원으로 설정한 문화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구일집』(홍정하, 1724). 다차방정식을 풀이하는 수학 문제집.

x^2 인 方을 기본 단위로 상정한다는 것은 2차원을 기본 차원으로 둔다는 뜻이다.

2.3.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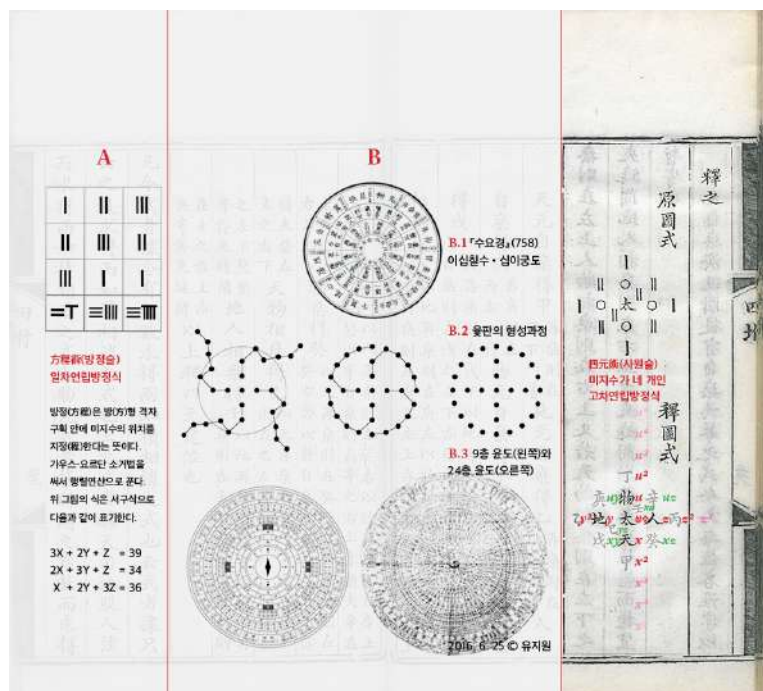
전통 시대 동아시아 수학에서는 equation을 ‘방정식(方程式)’이라고 불렀다. 사각형(方)에 수들을 정위(程)한다는 뜻이다. 이때 수를 놓는 배열법은 가운데에서 사방과 팔방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형’의 확장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원의 주세걸이 쓴 『사원석례』는 미지수가 네 개인 다원방정식을 다룬다.

〈그림 5〉의 위쪽 원도식을 보면 한 가운데에 太가 놓여있다. 상수항이다. 太의 사방으로 ○ 네 개가 놓였다. 오늘날의 표기로 치면 네 개의 미지수인 x, y, z, u 다. |은 네 미지수의

제공이며, ||는 xy, yz, zu, xz, xu, yu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아질수록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만일 2x라면 天의 자리에 2만 쓴다. 미지수 부호를 쓰지 않고, 위치값이 그 부호를 대신하도록 한다. 배열 상 미지수를 네 개 이상 쓰기는 어려운 점이 이 풀이표기법의 한계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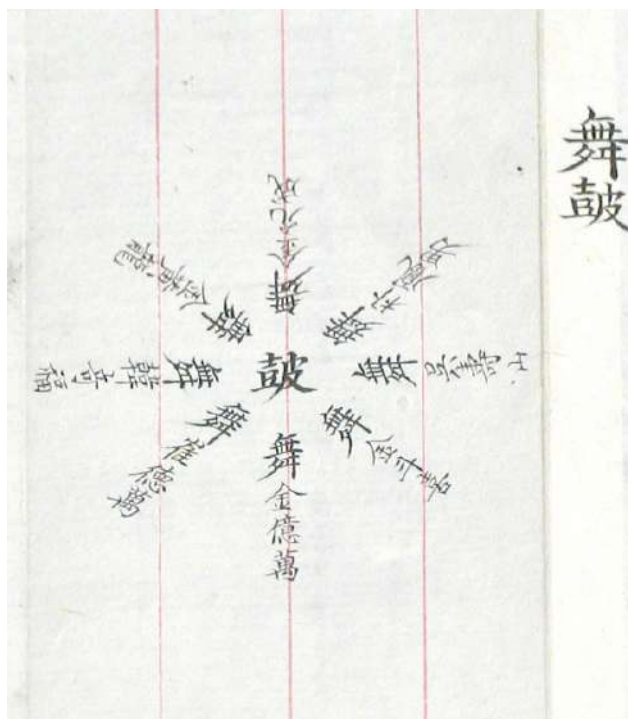
〈그림 5〉「사원석례」(주세걸, 원의 문헌을 재간행), 네 개의 미지수가 방사형으로 확장되어 놓여나간다.



〈그림 6〉「사원석례」에 대한 발표자의 도해

이러한 방사형 확장 배열의 또 다른 예로, 필사된 「정재무법」을 들 수 있다. 가운데 북(鼓)을 여덟 명의 무용수(舞)들이 둘러싸고 있다. 舞자가 둘러진 방향과 각도로 보아, 무용수들이 모두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살표와 같은 방향 표시 부호를 쓰는 대신 글자의 방향을 돌려 직관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런 배열은 종이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써야 쓰는 사람에게 편하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사람의 몸으로부터 수직이나 비스듬하게 세워진 컴퓨터의 모니터나 이젤, 혹은 각도가 고정된 필사대 위에서는 이런 표기를 하기 어렵다. 즉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며 화살표를 사용하는 쪽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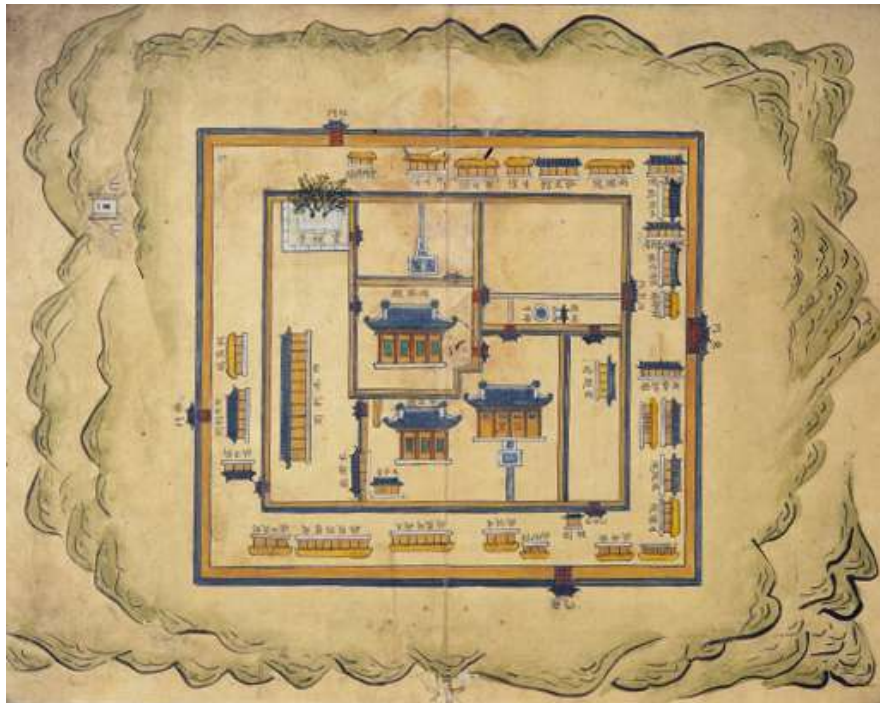
〈그림 7〉 궁중 무용의 절차와 배치를 다룬 「정재무법」(조선 후기),
무용수가 향하는 방향에 대해 글자를 돌려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등 다른 보조 부호가 필요하지 않다.

2.4. 시점

빙글빙글 종이를 돌려가며 표기한다는 것은, 시점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점은 동선을 발생시킨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이 그 안에서 이동하며 움직이는 듯한 ‘기운생동’이 암시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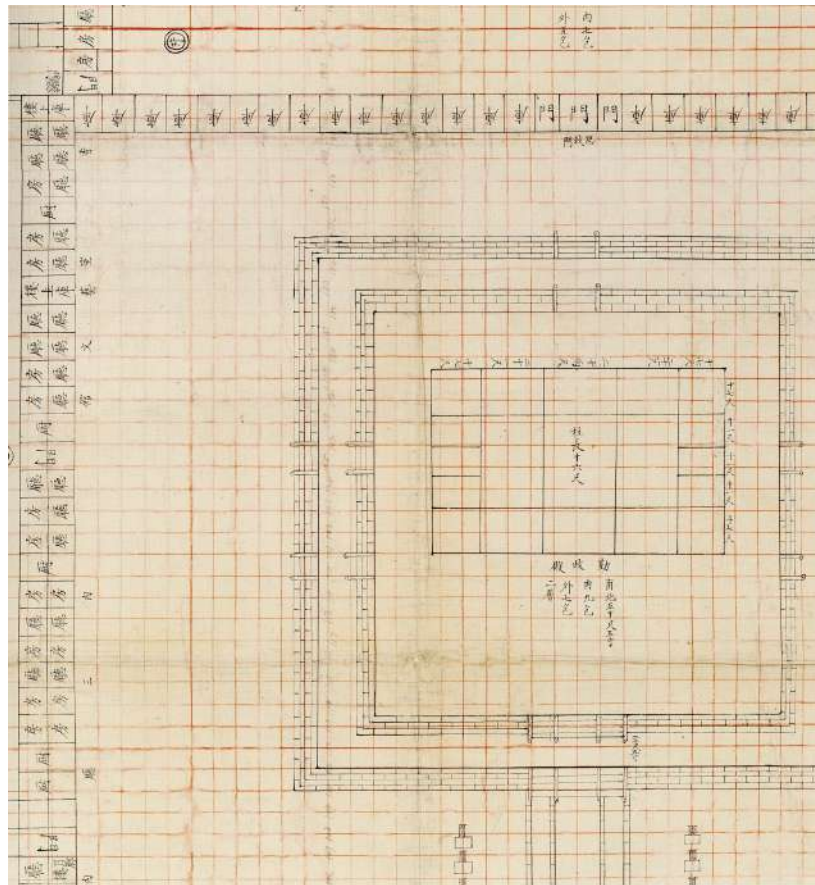


〈그림 8〉 「동궐도」의 ‘인정전’ 부분. 원근은 생략되었지만 시점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림 9〉 「온양별궁전도」. 시점이 발생하고 동선이 생겨나 있다.

「온양별궁전도」에서는 가운데 큰 건물을 중심으로 담장의 문들이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로 서있기도 하다. 역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개입되어 있다. 이 문들의 방향은 가운데 건물에 거쳐하는 사람이 바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암시한다. 즉, 고정되지 않은 다시점으로부터, 건축 공간 속에서 고정되지 않은 채 움직이는 사람의 동선이 암시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림 10〉 평면도인 「북궐도형」의 ‘근정전’ 부분

평면도인 「북궐도형」에서는 이런 다시점과 동선이 ‘글자의 방향성’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건물인 ‘근정전’을 중심으로 ‘문(門)’의 방향에 따른 이동 경로가 암시된다. 門은 사방으로 돌려져 표기되어 있다.

3. 현재의 지면과 화면 개선안 제안과 미래 글자 공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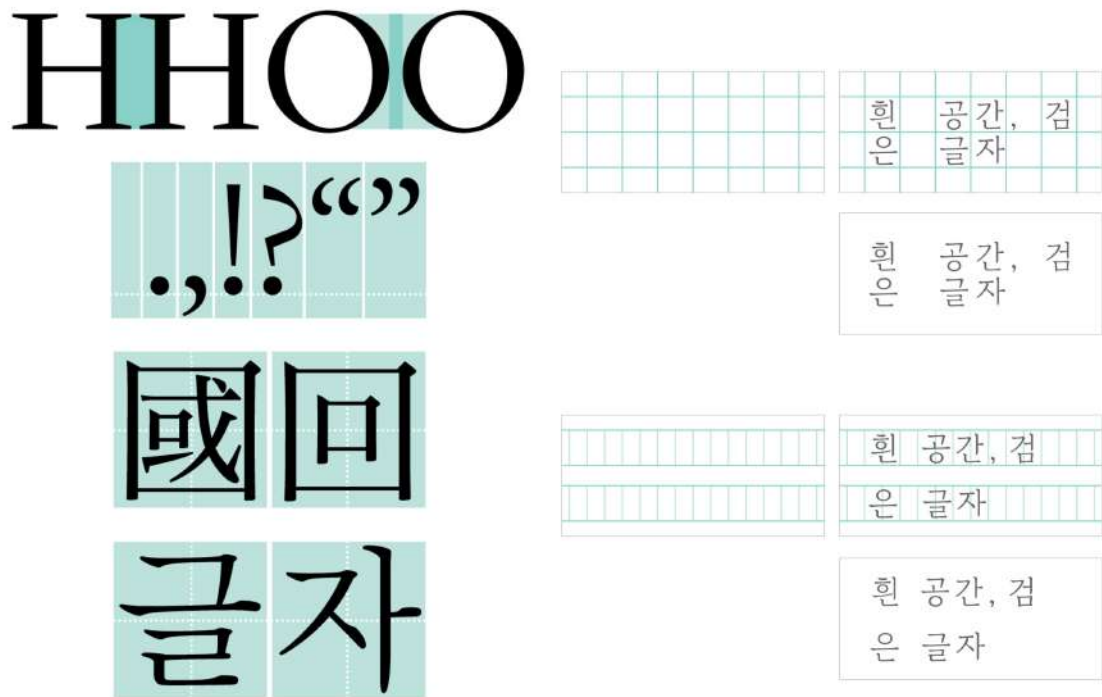
3.1. 초등학생 한글 칸 노트 시스템 변경 제안

이상 동아시아 글자 공간의 단위, 차원, 배열, 시점을 차례로 짚어보았다. 한글은 이러한 공간의식 속에서 탄생한 글자체계다. 문제는 오늘날 한글의 글자 공간이 더 이상 전통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외래에서 유입된 띄어쓰기 공백 공간, 문장부호, 아라비아 숫자들과 혼용된 ‘하이브리드 공간’이라는 점이다.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쓰는 칸 노트나 원고지는 전통적인 정사각형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칸 형식은 한 글자나 한 단어를 연습하기에는 괜찮지만, 문장을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문장에는 외래부호가 기본적으로 섞여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사각형 바둑판 그리드를 걷어내면 <그림 11>의 위와 같이 흰 공간과 검은 글자와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뒤틀린다. ‘흰’과 ‘공’ 사이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이에 발표자는 아래의 형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사각형의 전통적인 모듈은 유지하되 이를 반으로 나누어, 동아시아 문자들은 2바이트를, 외래 부호들은 1바이트를 차지하게 한다. 그리고 글자와 글자, 단어와 단어 사이보다 글줄과 글줄 사이가 멀어져야, 거리의 원근 관계에 논리가 생긴다. 이런 형식의 그리드를 걷어낸 아래 모습을 보면 같은 글자를 써도 훨씬 보기 좋은 공간 구성을 이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초등학교 한글 칸 노트 시스템 변경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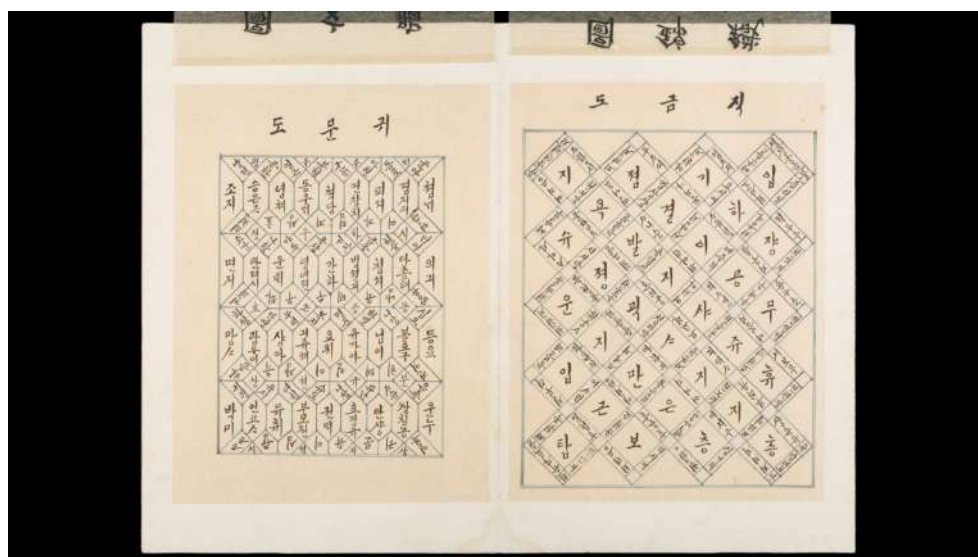
3.2. Zoom 화면의 다양한 가능성 제안

코비드-19의 시기를 지나오며 우리에게 익숙해진 화상 플랫폼 Zoom의 갤러리 창을 보면, 모니터의 가로로 긴 직사각형을 적당히 분할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종이처럼 표준화된 규격에 맞추어야 자원의 낭비가 적어지는 것도 아닌데, 디지털 화면에서 꼭 이런 형식을 취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기계의 논리보다는, 사람의 인지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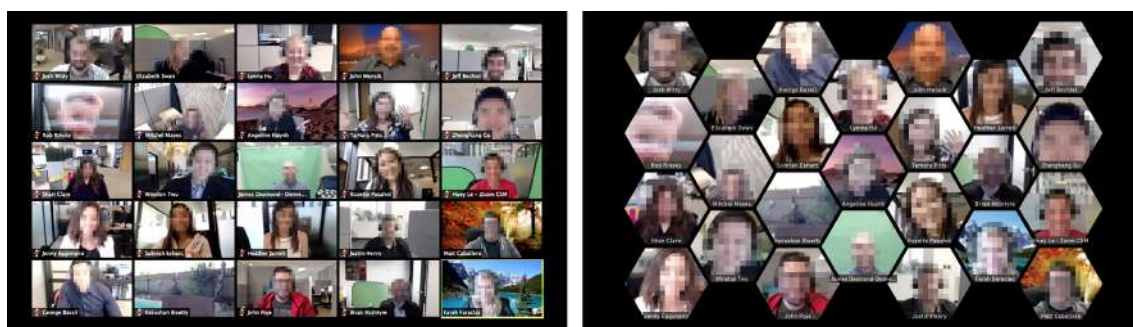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싶다.

아래 정육각형 별집 형태의 모듈에 기반한 유연한 인터페이스는 발표자가 『익종간첩』의 직금도 및 귀문도에 영감을 받아 적용해본 것이다. 물론 직금도와 귀문도 형식은 효명세자가 고안한 것은 아니고 중국의 문헌에서도 그 형식을 볼 수 있다. 글자들을 따라가 보면 시선이 생동감있게 움직인다.

여기 새로 제안하는 인터페이스만이 정답은 아닐테지만,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인터페이스는 불필요한 배경을 보이지 않게 하고, 인물에 집중하며, 한 인물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 주변의 인물들이 동시에 눈에 잘 들어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직사각형 모듈에서는 위아래와 양옆의 인물들에 비해 대각선 방향의 인물들은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정육각형 모듈에서는 둘러싼 인물 모두가 비슷한 위계로 시선에 잡힌다.



〈그림 12〉 『익종간첩』의 「직금도」와 「귀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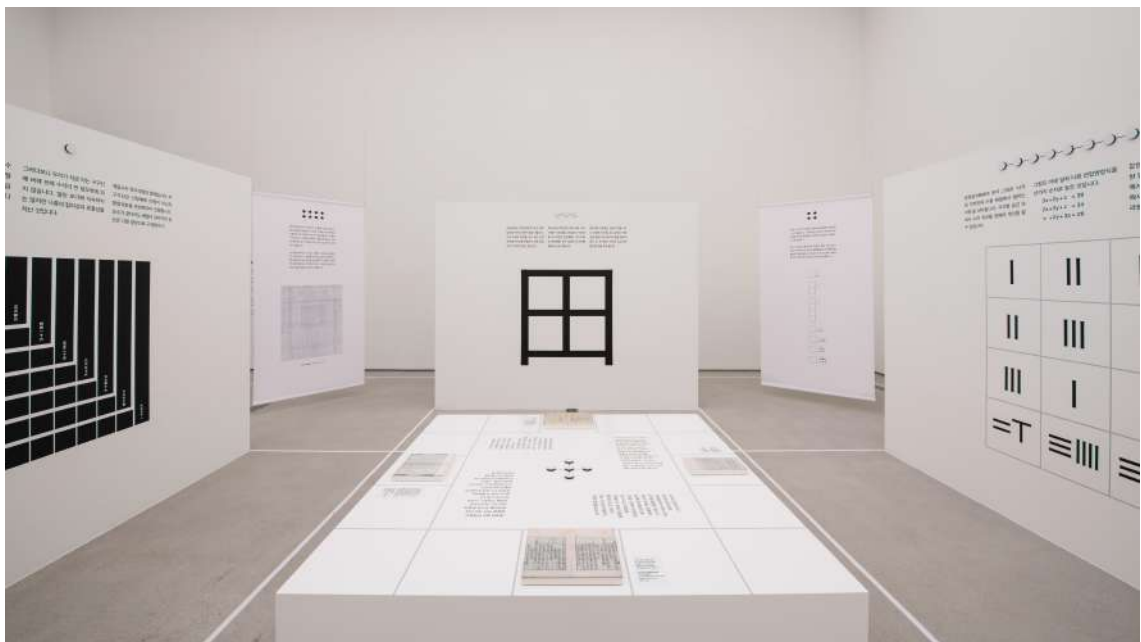
〈그림 13〉 「직금도」와 「귀문도」의 구조를 Zoom 화면의 갤러리 창(왼쪽)에 발표자가 응용한 모습(오른쪽)

3.3. 미래 글자 공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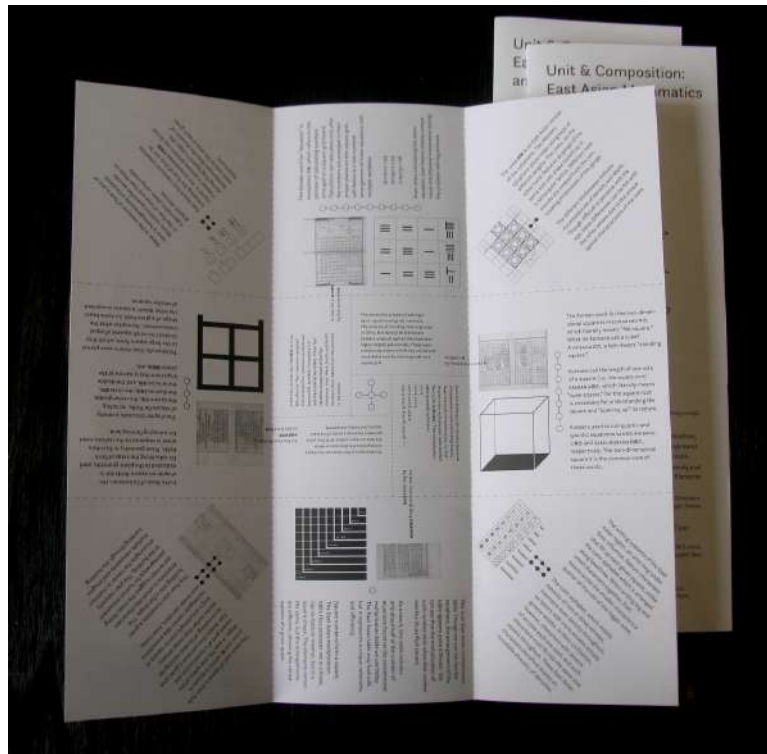
글자가 이제 지면이든 화면이든 평면이든, 고정된 벽면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IR이나 VR 등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 글자가 허공, 즉 보이드(void) 공간에 부유하는 미래는 이미 바짝 다가와 있다. 글자들은 떠다니고 움직이며 다가와서 말을 걸기도 할 것이다. 인간과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다.

아래는 발표자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설치했던 전시 작품이다. 아래 평상 위의 글자와 사방을 둘러싼 벽면의 글자는 같은 크기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평상 위의 글자는 55포인트, 벽면 위의 글자는 90포인트로 출력했다. 인간 시선과 맺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야 같은 크기로 ‘보인다’는 뜻이다. 같은 크기로 출력했다면 평상 위의 글자가 훨씬 커보이게 된다.

앞으로의 글자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3차원 공간의 어느 위치에, 어느 각도로 놓이냐에 따라 인간의 눈에 맞춰 세심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같은 크기로 내보내진 정보도 시선에 잡히는 중요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보를 조작하기도 쉬워진다. 그리고 글자의 움직임에 울렁이며 멀미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미래에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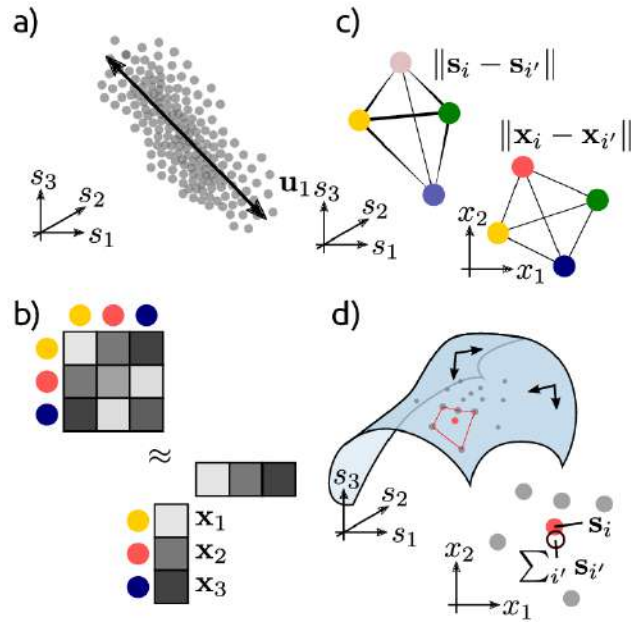
〈그림 14〉 국립현대미술관의 수학 전시 〈매트릭스_수학: 순수예의 동경과 심연〉에 설치된 발표자의 전시작 「단위와 배열: 동아시아 수학과 일상의 공간」(2014). 동아시아 수학의 개념을 공간에 반영했다. 아래는 그 리플렛.



3.4. 데이터 차원 축소의 개념

데이터 과학에서는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물리학의 ‘프로젝션(Projection)’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2차원 평면이 그래픽적 공간이라면, 글자라는 ‘점’들이 일방향성과 선형성을 가진 글줄로 조직되는 언어와 텍스트 속 문자는 1차원 배열을 가진다. 3차원을 넘어서는 여러 차원에 이르는 현상들을 결국 2차원 표기와 이해의 형식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이때 데이터라는 흩뿌려지거나 조직화된 세계에서 시점을 선택하고, 일부를 취하고, 편집하고, 해석하고, 재구조화한다. 이것을 다시 인간이 구사하는 각종 자연어로 언어화한다면, 이는 다시 한번 1차원으로 ‘차원 변환’을 하는 일이 된다.

데이터 차원 축소에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꺾은선은 이제 유클리드 공간을 벗어난 곡선으로 그려진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도 이 곡선이다. 인공지능의 언어와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유클리드적인 2차원 평면 공간이 아니라 리만 다양체(manifold)의 공간 위에 놓여지고 있다.



〈그림 15〉 데이터 차원 축소의 주요 전략들. (출처: Michele Ceriotti)

4. 나오는 말

언어는 현상과 일대일로 대응해서 일치하지 않는다. 동서고금 미디어 환경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역사는 우주와 자연, 인간과 사회의 이치와 현상을 시각적인 문자언어를 사용하여 2차원 평면 공간에 배열하며 잘 소통하고자 분투해온 역사이기도 했다.

과학과 기술의 가파른 발전 속도에 따라 미디어가 달라지고, 새로운 미디어가 창출하는 공간의 형식과 그것을 인지하는 인간의 방식도 달라져간다. 동서고금 다양한 문화에서 출현해온 평면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 속 여러 공간 운용 방식들을 깊이 이해하고 응용하는 일은,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로 기능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기하는 과정은 이렇게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며, 그 방식은 이렇게 문화마다 다르다. 영역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언어마다 다르다.

“동서고금의 미디어와 공간의식에 따른 글자의 운용”에 대한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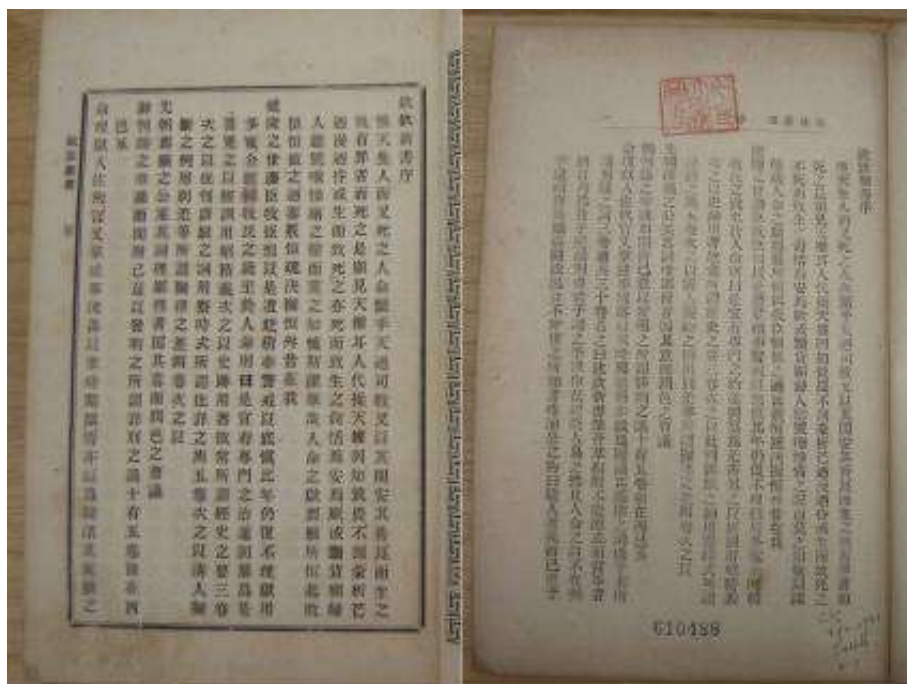
노경희(울산대)

본 발표문은 동양과 서양, 전통 시대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미디어와 공간인식에 따른 글자의 운용 방식을 살핀 것입니다. 발표자가 ‘글자’의 형태에 집중하였다면, 질의자는 그간 비슷한 관심사에서 ‘책’과 ‘활자(서체)’의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책과 활자 그리고 글자는 서로 떼어 수 없는 존재인 만큼 글자에 대한 발표자의 고민들은 곧 책과 활자에 대한 저의 고민과 곧장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표문에서 다루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간의 관심에 기대어 글을 읽는 중 떠오른 소소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으로 질의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는 ‘한국 전통인쇄술의 공간인식은 정사각형인 方을 기본 단위로 상정하기 때문에 차원·배열·시점의 형식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수학적 사고’에서 찾고 있다. 또한 수학은 ‘하늘과 땅, 천문과 지리라는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틀로 기능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의 개념은 서양에서의 수학 및 오늘날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수학의 개념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수학적 틀이 서구와 동아시아에서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결론 이전에 여기서 지칭하는 ‘수학’의 개념이 과연 동서고금의 상황에 한꺼번에 쓰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수학’이란 무엇인지, 이를 과연 ‘수학’이라 칭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2. 본고에서는 ‘19세기 말 서구식 신식 납활자가 들어온 후 현대 한국의 일상 인쇄 매커니즘은 구텐베르크식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또한 컴퓨터를 둘러싼 환경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글자가 존재하는 가장 주요한 매체인 서책의 경우, 서구의 신식활자와 인쇄술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서양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도 많은 책들에서 전통시대 방식(세로쓰기/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오랜 기간 전통과 서구의 서책 형태가 충돌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뒷면의 도판 참조) 그러함에도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서책은 오늘날 보다 더 서구의 편집 형식을 따르는 것도 사실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타이포그래피적 측면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3. “동아시아 전통시대 문헌 속 공간 형식은 정사각형 方의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는 사례의 하나로 일본의 활자 규격인 ‘호 시스템’을 들고 있다. 물론 발표문에서 제시한 도판에서는 ‘큰 정사각형 하나의 단위 공간에 작은 단위가 제곱수의 구획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본의 활자호수 시스템은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의 신식활자가 들어오면서 일본의 활자도 그 규격에 맞출 필요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메이지 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정작 전통시대 일본에서는 ‘목판’이 주요한 인쇄 방식이었기에 이렇게 정확한 규격의 활자 크기에 대한 구분은 필요치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정확한 규격’이 요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서양의 활판인쇄술로부터 받은 영향을 잘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 장에서 동아시아 전통의 사례로 일본의 활자호수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반된 지점의 성격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수천 년의 인류 문헌 역사에서 글자의 존재 공간은 거북이껍데기와 동물의 뼈, 돌과 대나무, 천으로부터 마침내 종이의 발명에 이르렀고, 각각의 공간에 따라 글자의 형태와 역할 또한 그에 맞춰 변해왔다. 다만, 기존의 글자가 놓이는 공간은 구체적인 ‘물질’이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화면, 더 나아가 ‘가상현실’이라는 3차원의 공간이 되는 것이 필연이다. 물질 위의 글자와 가상공간 속의 글자 형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각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 2번 질문 참고자료



<(좌) 1902년 광문사판 / (우) 1907년 탐인사판 『흙흙신서』>

- 광문사판(1902)은 책이 총30권으로 구분되고, 판심제와 권차가 예전의 판심이 있던 부분에 적혀 있고, 본문을 둘러싼 광곽이 나타나는 점 등 전통 서책의 판형을 상당히 유지하는데 반해, 탑인사판(1907)은 ‘4권4책’이라 하여 실질적으로 전통적 권차 구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며, 판심과 광곽이 사라졌다. 또한 서양 서적처럼 상단에 제명이 가로로 쓰여 있는 등 신식 판형이 섞여 있다.²³⁾

23) 노경희, 「20세기 초 다산 정약용 저술의 신활자본 출판과 의미」, 『다산학』 41호, 2022, 320쪽.

‘미디어 재현’ 교육 내용 상세화 방안 탐색

- 미디어 텍스트의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

옥현진(이화여대)

‘미디어 재현’ 교육 내용 상세화 방안 탐색

한국어학회 제83차 전국학술대회

2023. 2. 10.(금)

옥현진(이화여대)

도입

- 다매체 시대에 사회 구성원들의 매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매체가 세상을 재현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구성되는지(또는 의미의 구성을 의도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 이러한 요구는 한 예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에 ‘매체’ 영역,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 ‘매체 의사소통’, ‘문학과 영상’ 과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재현’은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 이 발표에서는 ‘재현’에 관한 교육 내용 구체화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한다. 우선 재현은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복합양식 의사소통(또는 탈언어적 의사소통) 전반에 두루 걸쳐 있는 폭넓은 개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둘째, ‘매체’ 영역은 소통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특히 언어를 중심으로 한 재현과 관련하여 초중등 공교육 맥락에서 일반화 가능한 교육 내용을 탐색하는 일이다. 즉, 언어 중심의 재현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실현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 이는 ‘매체’ 영역 및 관련 선택과목 신설에 반영된 두 가지 의도와도 관련된다. 첫 번째는 음성언어 기반의 소통(듣기, 말하기), 문자언어 기반의 소통(읽기, 쓰기), 문학적 소통의 차원을 넘어 인간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속성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두 번째는 ‘매체’ 영역의 주된 관심사로서 특정한 형태의 재현 방식들이 어떻게 사회적 의미 구성에 관여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도입

2022 개정 국어과 공통 교육과정 '매체' 영역의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자식 이해]	매체 소통 맥락	기기과 프로그램	• 생활 맥락(생신자, 수용자) • 양식	• 사회·문화적 맥락(소통 공동체) • 소통 공간
	매체 텍스트 유형	• 상할 맥락(목적, 주제) • 소통 도구(기기과 프로그램)	• 정보 검색 도구 • 뉴스 및 정보 매체의 텍스트	•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 광고·홍보물
[과정 기능]	접근과 선택	기기과 프로그램 사용하기	• 인터넷 자료 탐색·선택하기	• 다양한 경로로 매체 텍스트 접근·선택하기
	해석과 평가	기기과 텍스트의 의미 파악하기	• 주제와 의도 파악하기	• 매체 텍스트의 신뢰성 평가하기
	설계와 제작	• 말, 글,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기	• 발표용 텍스트 설계·제작하기	• 복합매체 텍스트 설계·공유하기
	공유	• 매체를 이용해 대화하기	•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등 고려하여 공유하기	• 참여를 위해 공유하기
	점검과 조정		• 매체 소통의 안전과 보안 점검하기	• 매체 이용과 소통 문화에 대해 성찰하기
	매체 이용자의 자세성	• 즐거운 매체 이용자	• 올바른 매체 이용자	• 성찰적 매체 이용자
[가치 태도]	매체 소통 태도	• 흥미와 관심	• 소통 윤리	• 성찰
				• 권리와 책임

도입

2022 개정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매체 의사소통' 과목의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자식 이해]	매체의 유형과 특성	• 매체의 유형과 특성
	디지털 기술과 매체 환경 변화	• 디지털 기술과 매체 환경 변화
[과정 기능]	매체 자료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재현	• 매체 자료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재현
	매체 의사소통 현상 관찰하기	• 매체 의사소통 현상 관찰하기
[가치 태도]	매체 자료 수집·분석하기	• 매체 자료 수집·분석하기
	매체 자료 해석·평가하기	• 매체 자료 해석·평가하기
[가치 태도]	매체 자료 기획·구성하기	• 매체 자료 기획·구성하기
	매체 자료 제작·공유하기	• 매체 자료 제작·공유하기
[가치 태도]	협력적 문제 해결과 소통 태도	• 협력적 문제 해결과 소통 태도
	매체 의사소통에 대한 윤리적·성찰적 태도	• 매체 의사소통에 대한 윤리적·성찰적 태도

도입

'재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사례(2022 개정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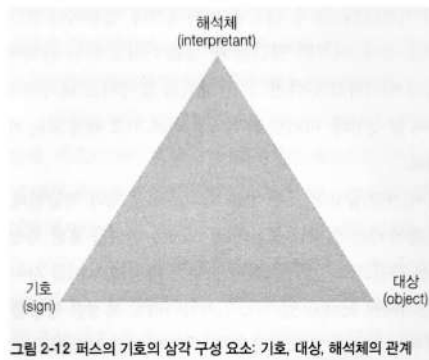
- [9국06-01] 매체 텍스트의 재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고나 홍보물을 제작한다.

[9국06-05] 이 성취기준은 매체 텍스트가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된 재현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광고나 홍보물을 살펴보고 사건, 쟁점, 인물 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문구나 이미지가 선택되거나 배제되었는지를 탐구하고, 사회상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어떤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 [12매의01-03] 영화, 게임, 웹툰 등의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하며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한다.

[12매의01-03] 이 성취기준은 영화, 광고, 게임, 웹툰,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 자료가 현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재현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매체를 통하여 다시 나타내는 것으로, 매체가 재현하는 현실은 특정한 관점과 의도에 의해 선택되거나 배제된, '중재된' 세상이다. 예를 들어, 영화, 게임, 웹툰 등 서사가 드러난 매체 자료에서 특정한 이야기나 사건, 인물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표현이 선택되거나 배제되는지를 파악하면서 매체에 재현된 현실이 매체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다름을 이해한다. 그리고 특정한 성, 지역, 직업, 계층, 연령 등과 관련된 고정 관념이 매체 자료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하면서 매체 자료가 어떤 사회적 메시지나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생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재현(표상, representation)



- “퍼스에 있어서 기호는 일종의 재현(representation)으로서 무엇인가를 상징하거나 표현하는 것이고, 대상(object)은 재현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일컫는다. 그리고 해석체(interpretant)란 기호와 대상의 관계를 인지하고 그 의미를 감지하고 행위까지 수행하는 존재나 주체(subject)라고 할 수 있다.”(백선기, 2010: 51)

재현(표상, representation)

심리학 분야에서는 표상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표상은 인지과학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주제로 탐구되고 있다.

- “표상이란 무언가 대상에 대한 상징적 재표현”, “표상의 의미는 그 표상이 어떤 대상을 참조하는 지향적 관계에서 형성되게 된다.”, “지향성(intentionality)이란 심적 상태가 그 자체 이외의 대상에 대하여 참조하며 지향하는 것이다. 세상 대상에 대하여 의도하고, 믿고, 욕망하고, 바라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등의 모든 상태를 지칭한다. 즉 의식 자체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인 동시에 이 의식은 늘 어느 특정 대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정모, 2012: 241)
- “표상된 텍스트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 지식과 이해, 사고와 감정, 자기 정체성 인식,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UNESCO, 2021: 194)

성공적 재현을 위한 다양한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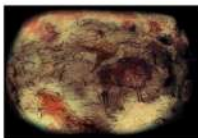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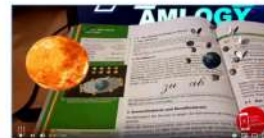
그림 텍스트



인쇄 기반의 복합양식 텍스트



영상 텍스트



AR 텍스트(텍스트의 수직적 확장)

“위의 사례는 대상(object)을 보다 온전하게 설명하려는 의도의 실현을 위해 시도되었던 다양한 재현 방식의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재현 양상의 다각화

- “문화는 오랜 세월을 걸쳐 표상 양식에 적용되는 규칙, 패턴, 기대 등을 발전시켰다.”(Evans, 2011: 47)
- “(웹툰의 장면 연출에서) 왼쪽 대사와 캐릭터는 원인이 되며 앞 시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오른쪽 대사와 캐릭터는 원인의 결과나 반응을 볼 수 있는 뒤 시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되는 인물이 오른쪽에 있게 되더라도 말 칸의 위치는 왼쪽에 있어야 한다.”(박연조, 2021: 41-42)
- “웹툰은 실제 소리를 들려주는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의성어, 의태어, 부호, 글자 등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소리의 시각화’에 해당한다. …… 소리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은 의성어, 의태어, 부호 등으로 시각화되지만 영상에서처럼 재현되지는 않는다.”(이수진, 2022: 6)

만화 텍스트를 재매개한 웹툰 텍스트의 재현 양상

재현 양상의 다각화

- “사진은 구체적이면서도 모호합니다. …… 일부 사진 작가들은 사진의 모호함이 프레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자리나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고개를 돌려 추가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생략과 강조를 통해 우리의 인식과 해석을 의도적으로 형성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레임 안에 없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해석할 때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보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Hobbs, 2017, 윤지원 역, 2021: 234-236)

사진 텍스트의 재현 양상

언어적 재현

- 언어적 재현의 특성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 범위를 좁혀 미시적이고 정교한 언어적 재현이 사회적 의미 구성, 특히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관여하는 방식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개별 텍스트에 대한 맥락 기반의 분석을 넘어 보편적인 재현 원리의 추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
 - 사회적 의미 구성에 관여하는 언어적 특성에 대한 관심
- 특정한 어휘(특히 차별적 어휘의 측면)의 선택에 대한 논의는 다수 존재
- “끝에 단어 세 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영화 『내부자들』 중에서)
 - 어떠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언어적 재현인가?
 - 이러한 재현은 어떠한 보편적 원리(한국어의 보편적인 재현 관습)로 설명 가능한가?

언어적 재현

- 설문 문항의 사례(신지은 외, 2007)
- 설문은 여론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책 결정의 주요 수단으로, 설문 문항의 특정한 표현 방식(언어적 재현)이 응답자의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는 경향성을 갖는지는 매우 중요한 탐구 주제로 볼 수 있다.
- 빈민(poor), 실업자(unemployed), 복지/구호(welfare): 설문 과정에서 특정한 어휘의 선택은 정책 선호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가 ‘빈민’(poor)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의 비율은 61.0%였고, ‘요구호대상자’(people on welfare)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의 비율은 32.0%”(pp.253-254)
- “인지도 높은 사람의 이름 사용 여부, 긍정적으로 편향된 설문의 사용 여부, 선행 문항의 암시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해 모두 응답률 차이가 나타났다.”(p.247)

언어적 재현

- “시위자들이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vs “시위자들이 살해되었습니다.”
 - 우리의 좋은 속성/행동은 강조한다.
 - 그들의 나쁜 속성/행동은 강조한다.
 - 우리의 나쁜 속성/행동은 완화한다. → 행위자(agent)를 덜 강조하거나 숨기는 방식(위의 사례)
 - 그들의 좋은 속성/행동은 완화한다. (van Dijk, 1998, 백선기, 2004: 43)

맺음말

- 날로 복잡해지는 소통 양상 속에서도 이를 꿰뚫는 핵심개념 또는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재현’은 복잡한 소통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개념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 ‘미디어 텍스트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가 반영된 재현물(재현의 결과)’이라는 문구가 자주 회자되고 있으나, 이 말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재현의 양상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탐구 경험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한 재현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한국어의 보편적 재현 양상에 대한 학술 담론이 축적되고 그 성과가 학교 현장에 피드백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백선기(2010). 『광고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지은, 손지희, 이석훈(2007). 설문문항의 특성에 따른 비표본오차 사례 분석. 『통계연구』, 12(2), 252-273.
- 이수진(2022). 『웹툰과 영상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정모(2012). 『인지과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Evance, J.(2011). *Literacy moves on*. 정현선 역(2011), 『읽기 쓰기의 진화』, 사회평론.
- Hobbs, R.(2017). *Creat to learn*. 윤지원 역(202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학이시습.
- UNESCO(2021). *Think critically, click wisely: Media &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educators & learners*. 노효빈 역(2022),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현명하게 클릭하기』, 한국언론진흥재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van Dijk, T. A.(1998). 'Opinions and ideologies in the press. In A. Bell & P. Garrett(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백선기 역(2004), 『미디어 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미디어 재현’ 교육 내용 상세화 방안 탐색

- 미디어 텍스트의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김종윤(진주교대)

굳이 통계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책보다 미디어를 더 많이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대중미디어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 나무위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 뉴미디어에 더 친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는 양날과 같아서 미디어의 확산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이용하고 살아갈 경우 미래 세대에겐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미디어 과몰입, 확증 편향, 미디어에서의 방향 상실 등으로 미디어에 종속되거나 길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텍스트의 지평을 미디어 텍스트로 확장하고 이를 교육의 내용으로 포섭하여 진지하게 다루고자 한 것은 학문적으로도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을 ‘재현’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탐구하신 발표자의 탐구가 앞으로 이 분야 발전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현의 개념을 기존 미디어 담론에서 벗어나 언어의 문제까지 연계·확장한 것은 앞으로도 고민하고 탐구해 볼 만한 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인 제 스스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영국 BBC에서는 GCSE 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재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²⁴⁾하고 있습니다.

Representation is how media texts deal with and present gender, age, ethnicity, national and regional identity, social issues and events to an audience. Media texts have the power to shape an audienc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these important topics.

This makes them very powerful in terms of influencing ideas and attitudes.

In order to analyse media texts to determine how they've represented ideas and issues, it's important to be familiar with some of the key terms.

재현은 미디어 텍스트가 성별, 나이, 민족성, 국가 및 지역 정체성, 사회적 문제 및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청중에게 제시하는지를 말한다. 미디어 텍스트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청중의 지식과 이해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재현은 청중에게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다.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여 미디어 텍스트가 아이디어와 문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확인하려면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https://www.bbc.co.uk/bitesize/guides/z9fx39q/revision/1>

Key terms in Representation: construction, mediation, selection, anchorage, stereotypes, ideology, editing, audio codes, visual codes,	재현에서의 핵심 용어: 구성, 매개, 선택, 앵커리지, 스테레오타입, 이데올로기, 카메라, 편집, 오디오 코드, 시각적 코드
---	--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미디어 분야에서 재현이라는 용어는 퍼스의 일반적인 기호작용을 망라하는 용어라기보다는 미디어 텍스트에 드러난 현상—즉 미디어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택, 편집, 제작/가공하는 과정에 따른 결과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영향력은 비판이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별, 인종, 연령, 계급 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재현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해하기에 이러한 특정 현상에 초점을 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재현과 관련된 담론을 확장하여 퍼스의 기호작용에 관계되는 현상을 재현이라는 현상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기호작용은 대상/현실세계를 매개하는 기호가 포함하며 이때의 기호가 대상/현실세계를 모두 다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현의 과정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심리학의 표상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역시 재현을 포함한 기호작용과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려운 견해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관점은 기존의 미디어 담론에서의 재현 개념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여 재현의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 위험성은 없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언어에서의 재현으로 제시한 예시는 기존의 비판적 문식성 담화 이론(critical discourse)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굳이 미디어 재현 개념과 묶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언어적 재현과 미디어를 통한 재현의 공통점이 있는지, 같이 재현이라고 묶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은 미디어 재현 교육 내용 상세화 방안 탐색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상세화보다는 방향성에 관한 논의로 보입니다. 혹시 상세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염두에 둔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에 대한 논의를 볼 때마다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 혹은 가치 중립적으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거나 이해하는 방식, 즉 재현에 대한 대안적 방식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언어나 미디어로 담을 수 없다면 재현의 문제 혹은 현상은 항상 발생하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청중 혹은 독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리고 학생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디어를 인식하고 재현 작용을 이해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오독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미디어 혹은

은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저와 다른 청중들의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윤리규정

전 문

한국어학회는 국어학에 뜻을 둔 회원 간의 학술정보 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을 통해 언어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연구 윤리 및 시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다.

본 학회가 높은 수준의 학술지 발간을 통하여 국어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문 저자뿐만 아니라 학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등 관련 학자들이 양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회 차원에서 학문 연구자들이 충실히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연구 윤리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이 연구 윤리 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학회가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1절 투고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중복 게재 금지

투고된 논문은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혹은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적이어야 하며 투고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거나 참조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자는 연구 자료, 연구 과정,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변조)함으로써 이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중복 게재, 이중 출판 금지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다른 학회 또는 기관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출판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

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한 사람이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 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연구 윤리 규정 서약

한국어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 규정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사회에 적절한 징계 내용을 명시한 권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여러 항을 중복하여 권고할 수 있다.

- (1) 회원 자격 박탈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후속 조치

윤리위원회의 징계 권고가 있을 경우, 회장 및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장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윤리위원회의 권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징계 권고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3) 징계 내용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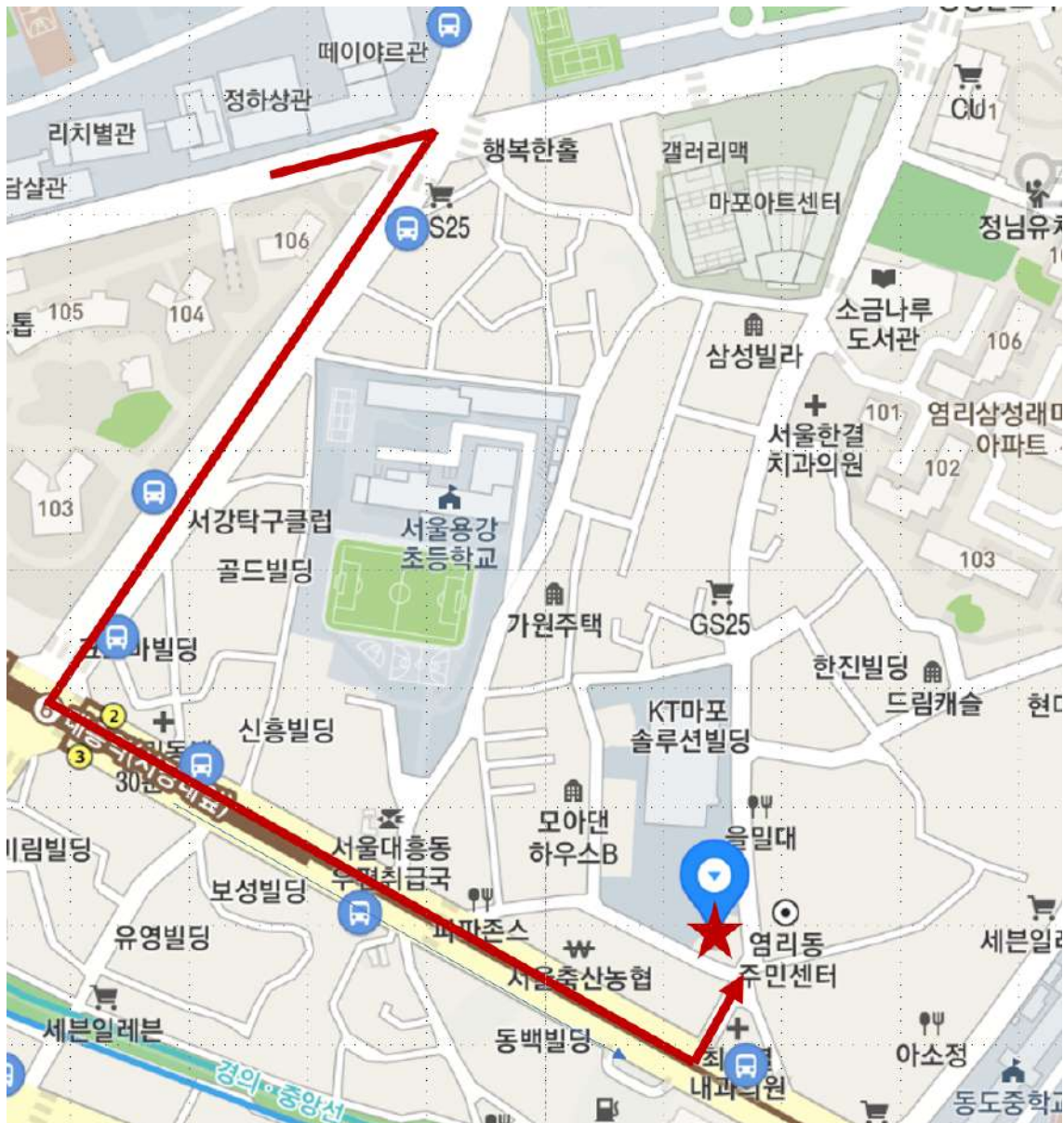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83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저녁식사 장소 안내 ▣

❖ 장소: 버그네차돌볼고기(서울 마포구 승문길 7-1 101호)

- 학술대회장에서 도보 10~12분 소요
- 대흥역(서강대앞) 2번 출구에서 도보 4~5분 소요



제83차 한국어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미디어 속의 언어와 문자

발행일 : 2023년 2월 10일
발행처 : 한국어학회
